

建築士

■ 등록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제 라-1251
■ 1985년 12월 31일 제 3종 우편물(나)급인가 ■ 우편번호/137-070
■ 1989년 11월 15일 발행 ■ 통권 247호 ■ 발행/대한건축사협회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수상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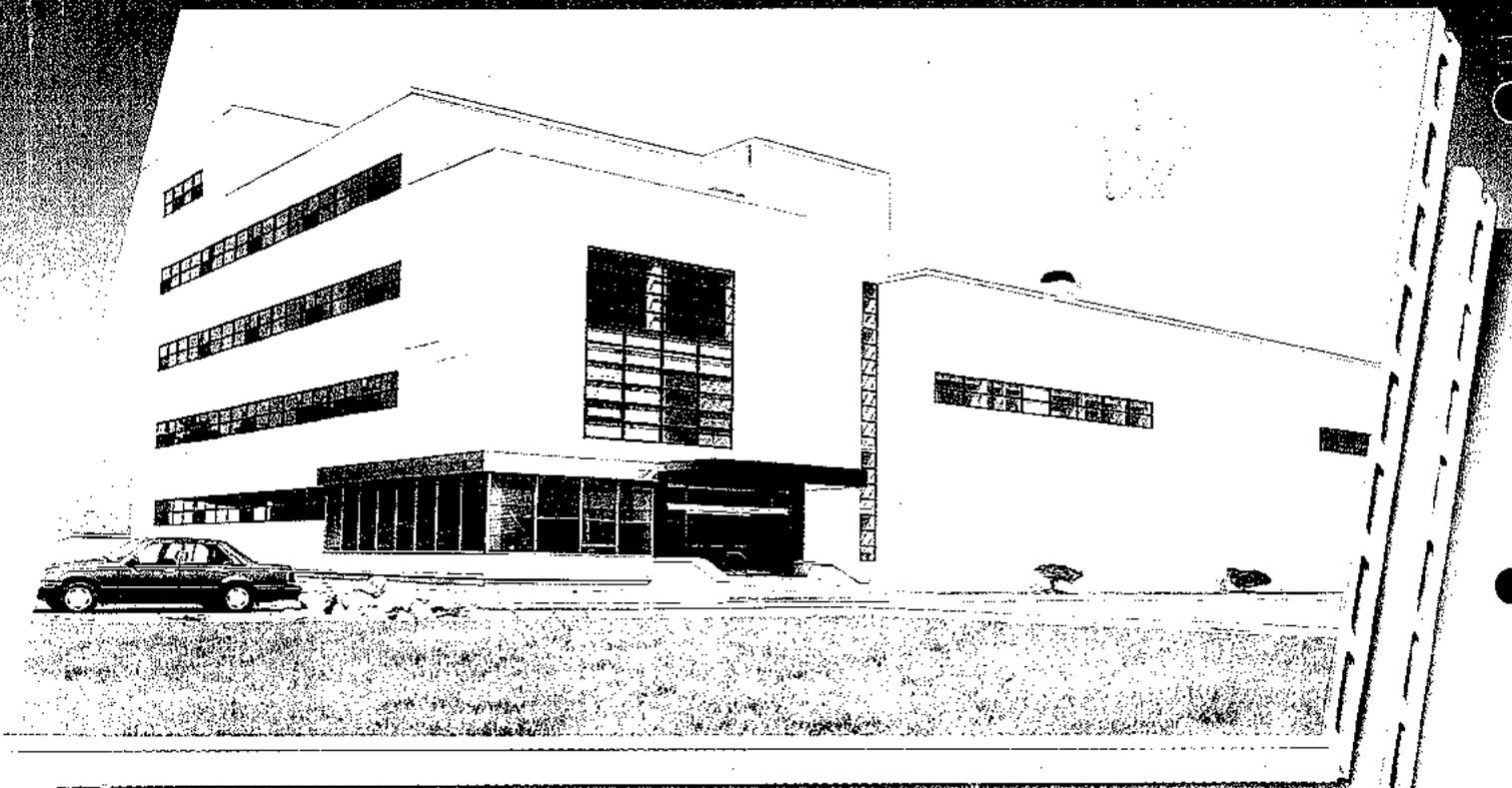
제15회
건축사 설계작품 순회전 수상작 발표

제4회
신인학생 설계공모전 수상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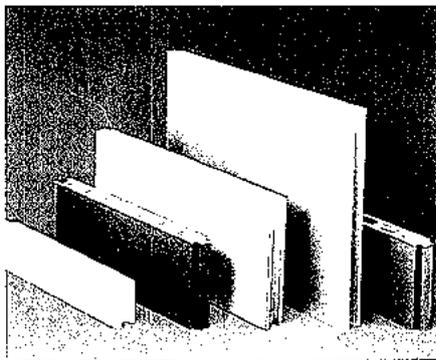
1수
진합니다.

폴
사
1171~9
11~5



● 전일약품 GMP 공장 ● 설계·감리/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바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응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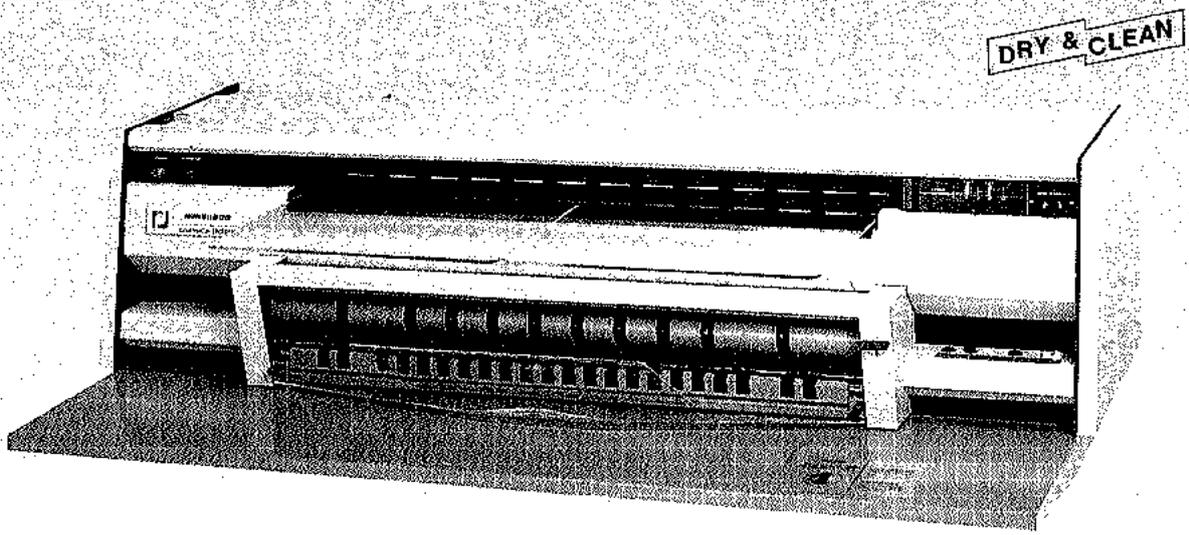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9 (구내281) 베이스사업부
전문시공업체/ 고려엔지니어링 844-0942, 2728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247호
구입년월일	1989. 11. 22.

COPYLAND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118이 암모니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Convenience Engineering Copier
with
Automatic Original/Print Separator

AMMONIA가 필요없는,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MECHANISM의 결정체입니다.

COPINICA PD 118은 종전의 AMMONIA를 사용하던 복사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특한 System인 1R, 2B, P 현상방식과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건식 청사진복사기입니다. (복사폭 680mm)

지금까지 청사진 복사기의 최대 난점이었던 AMMONIA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시간이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스위치 한 동작으로서 작동되는 COPINICA PD 118은 어느 업종, 어느 장소에서나 효율적인 작업을 약속합니다.

 (株) 龍 映
The Pros in Reprographics in Korea.

- 본사·공장: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608-2 ☎ (032) 92-4167/8 ● 서울영업소: ☎ (02) 266-7416~8 ● 울산영업소 ☎ (0522) 5-6620, 33-5045
- 부산영업소 ☎ (0551) 55-3851, 44-3851 ● 대리점: ● 강서삼중비즈니스 (02) 694-8194 ● 부산현대측기 (051) 245-8566/7
- 강남 구영상사 (02) 419-0050 ● 수원승화상사 (0331) 36-3798 ● 인천삼일사 (032) 862-3961 ● 대전신영사 (042) 626-5230

Items

- Diazoprinter ◦ Wide-width Plain Paper Copier ◦ PD Copier ◦ Copy Paper ◦ Film Sepia
- Tracing Paper ◦ Sensitive Paper (blue, black line, PD, etc.) ◦ ALL REPROGRAPHICS EQUIPMENTS

차 례 / 1989년 11월 호 통권 제247호

會員大會	第15回 建築士設計作品巡迴展 受賞作	7
	大賞 스위트호텔-스위스그랜드 호텔內 / 黃圭烈	8
	最優秀賞 달마회관 / 金基雄	10
	優秀賞 한국공항터미널 / 黃一仁	12
	優秀賞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 張錫雄	13
	獎勵賞 포항공대 체육관 / 尹承重 + 卞鎔	14
	獎勵賞 에스모드빌딩 / 姜錫元	16
	獎勵賞 멘델교회 / 崔英集	18
	獎勵賞 레 투르바이오 / 崔勝元	20
	獎勵賞 목화예식장 / 安文孝	22
	獎勵賞 한성기업 삼성동빌딩 / 金仁喆	24
나의 스케치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주경기장 / 柳春秀	25
일하며 생각하며	짧은 여행 속의 우리 / 崔東奎	26
국제회의	제10회 ARCASIA 理事會 및 제5회 FOROM	28
리포트	한국의 전통건축 ② 高麗시대의 建築 / 張慶浩	40
	복합용도 건축물의 발전방향 (1) / 吳德成	46
이달의詩	우린 어차피 시인 / 金光林	56
특별	제4회 신인·학생 설계작품 공모전 受賞作	57
	신인부문 수상작	58
	학생부문 수상작	65
특별행	중국건축기행 / 尹張燮	86
칼럼	건축공사 품질시험시행규칙 실행에 대한 소고 / 金基斗	93
1989년 11월호 記事(1)의 補登		94
支那建築消息		96
協會消息		100

發行人: 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副委員長: 卞鎔, 徐千植
 委員: 尹錫祐, 趙聖烈, 閔庚民, 董政根,
 姜哲求, 姜登益, 崔正一, 金開喆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全允珪 / 洸文精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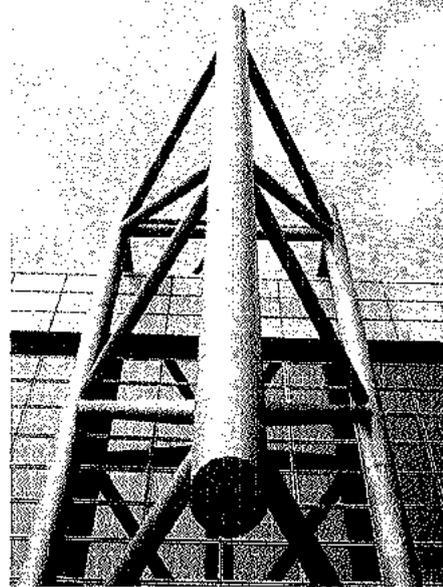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Vice Chairman: Byun, Yong Suh, Chui-Sik
 Member: Yim, Suk-Woo, Choi, Jeong-H, Cho, Sung-Yul,
 Kim, Joo-Cheol, Min, Kyung-Min, Kang, Sang-
 Ik, Dong, Jeong-Kem, Kang, Chul-Koo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WORKS Prize Winners of the 15th Architect's Design Show	7
GRAND PRIZE <i>Suite Hotel / Whang, Kyu-Ryul</i>	8
THE TOP PRIZE <i>Dharma Buddhist Center Seoul / Kim, Kee-Woong</i>	10
THE FIRST RUNNER UP PRIZE <i>Korea City Air Terminal / Whang, Il-In</i>	12
THE FIRST RUNNER UP PRIZE <i>Sanghuh Memorial Library of the Konkuk University / Chang, Suk-Woong</i>	13
PRIZE FOR THE ENCOURAGEMENT <i>Gymnasium Pohang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 Yoon, Seung-Joong & Byun, Yong</i>	14
PRIZE FOR THE ENCOURAGEMENT <i>Esmod Building / Kang, Suk-Won</i>	16
PRIZE FOR THE ENCOURAGEMENT <i>Bethel Presbyterian Church / Choi, Young-Jeep</i>	18
PRIZE FOR THE ENCOURAGEMENT <i>Les Trouyalls / Choi, Seung-Won</i>	20
PRIZE FOR THE ENCOURAGEMENT <i>Mokwha Wedding Hall / Ahn, Moon-Hyo</i>	22
PRIZE FOR THE ENCOURAGEMENT <i>Hanseong Coporation Samsung Dong Building / Kim, In-Chul</i>	24

MY SKETCH <i>Malaysia SARAWAK Main-Stadium / Ryu, Choon-Soo</i>	25
ESSAY <i>/Choi, Dong-Kyu</i>	26
INTERNATIONAL CONFERENCE 10th ARCASIA Council & Forum 5	28
REPORT <i>Korean Architecture History / Chang, Kyung-Ho</i>	40
<i>Planning Teudencies of Mixed Use Development / Oh, Deog-Seong</i>	46
POEM <i>/Kim, Kivang-Lim</i>	56
SPECIAL ISSUE Prize Winners of the 4th Debutant's & Student's Design Show	57

ARCHITCTURAL TRAVELS <i>Travels to China / Yoon, Jang-Seob</i>	86
COLUMN <i>Kim, Kee-Doo</i>	93
METERIALS	94
KIRA NEWS	96



전국시도지사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초구조소동1603-55, 581-5715~8 · 시대문분소/시대문구연회동169-16, 333-6411 · 관악분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7161, 634-2143 ·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05, 695-0787 ·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중로분소/중로구청신동201-1, 735-0905 · 마포분소/마포구도화동250-4, 712-8844 · 송파분소/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 중구분소/중구무학동11-2, 252-6507 · 용산분소/용산구원효로171129-22, 712-7647 · 서초분소/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 은평분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 동작분소/동작구사당동147-79, 599-6754 · 강남분소/강남구논현동241-6, 545-0757 · 노원분소/노원구상계1동1049-79, 900-1947 · 양천분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소/중랑구망원동516-41, 491-0925 · 성북분소/성북구삼선5가10, 923-4401 · 구로분소/구로구구로동130-32, 864-3988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명동17가(부산테크노) (051) 246-6284~5

대구직할시상수구암울동37가-8, (053) 72-5141~2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동558-1, (032) 424-0146, 5100(한국종합빌딩204호) 광명직할시지부/광명직할시동구대인동323-11, (062) 521-0025 (FAX) 521-0026

대전직할시지부/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37-1, (042) 254-2441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7-5, (031) 47-6129~30 · 직할분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8, (031) 42-6490, 7072 · 안양분소/안양시안양동719-9, (0343) 2-2698, 2-0012 · 부천분소/부천시위미동74-6, (032) 63-3144 · 성남분소/성남시신용동5512, (0342) 2-5445 · 의정부분소/의정부시외정부동182, (0351) 2-1083 · 송탄분소/송탄시신장동21, (0333) 4-6153 · 고양분소/고양시일당읍유교리38블럭16롯데, (0344) 63-8902 ·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409-2, (0346) 63-8112 · 이천분소/이천시이천읍중리216-8, (0336) 2-3396 ·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461-7, 682-2875 · 안산분소/안산시고잔동531-5, 82-2820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목천동39-5, (0361) 54-2442 ·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206, (0371) 42-3257 · 강릉분소/강릉시성내동6, (0391) 2-2262 · 속초분소/속초시중앙동468-66, (0392) 2-5081 ·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55-43, (0397) 2-3106 · 영원분소/영원군영원읍영리959-35, (0372) 2-2659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7가116-168, (0431) 56-2752, 53-7342 · 충주분소/충주시역전동673-1, (0441) 2-3082 · 제천분소/제천시외림동8-8, (0443) 2-6253 · 옥천분소/충북보은읍삼산리139-4, (0433) 2461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73-1, (042) 256-4088 ·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160-14, (0417) 2-4551 ·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 2-2853 ·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동문리710-2, (0463) 2-2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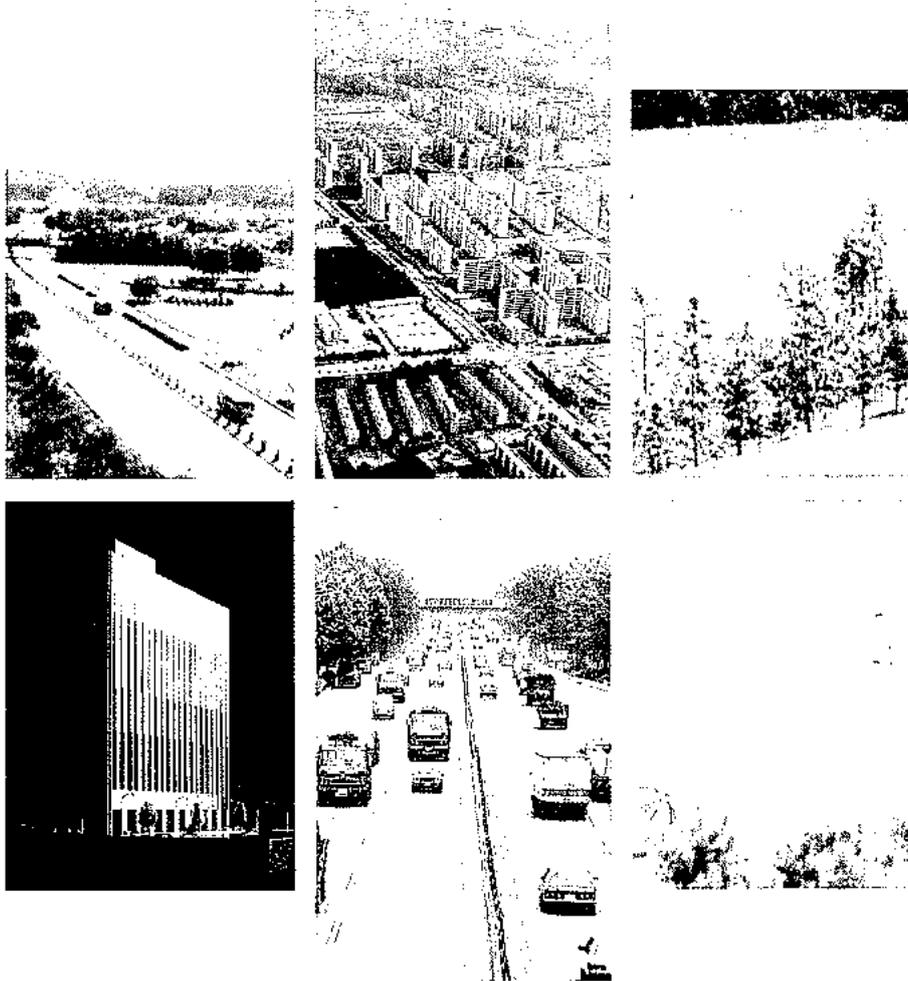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노송동635-5(대륙빌딩508), (0652) 87-6007 · 이리분소/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 52-3304 · 군산분소/군산시중앙로1가85, (0654) 2-4060 ·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106, (0671) 2-6002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703-28(추신회관) (062) 364-7567, 33-9944 · 목포분소/목포시호남동1, (0631) 2-5152 · 순천분소/순천시장천동85-7(0661) 2-7545 · 여수분소/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 64-1144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289번지), (053) 425-4904 · 포항분소/포항시죽도동96-70, (0562) 74-9713 · 경주분소/경주시노포동100-1(0561) 3-7743 · 구미분소/구미시평화동356-2, (0546) 52-7903 · 안동분소/안동시북문동29-5, (0571) 2-6635~6 · 김천분소/김천시평화동280-1, (0547) 2-2541 · 영주분소/영주시영주4동470-17, (0572) 2-4566 · 김천분소/김천시점촌동261-2, (0581) 2-2706 · 황주분소/황주시남성동11-3, (0582) 2-43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진주시중앙동3713, (0551) 46-4530~1 ·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 74-8836 · 진주분소/진주시본성동7-20, (0539) 2-6403, 42-3434~5 · 창원분소/창원시서호동177-101, (0557) 2-2504, 2-7420 ·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25B-17L, (0594) 2-3155 · 밀양분소/밀양군밀양읍내일동392-1, (0527) 53-2110 ·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하동483-9, (0598) 2-3777 · 양산분소/양산시양산읍다방리500-3, (0523) 4-2669 ·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령리139-2, (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리289-6, (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299-6-6, (064) 62-2233, 32-7777



人口 및 交通影響評價專門研究業體

- 大型交通誘發建築物의 交通影響評價
- T. S. M 事業計劃
- 道路 및 鐵道建設의 交通影響評價·妥當性分析
- 大單位宅地造成事業의 人口 및 交通영향평가

레저 施設物의 設計

- 골프장의 計劃 및 實施設計
- 위락園地의 計劃 및 實施設計

研究員·交通技術士: 魯萬永

道路 및 空港技術士: 鄭東安

都市計劃學碩士: 김경철, 김순관, 천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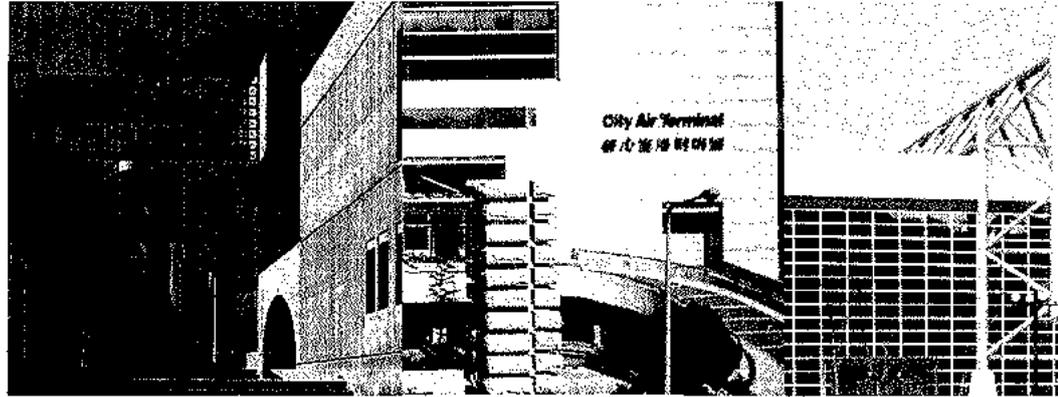
(株) 萬永交通컨설턴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4-7 (화일빌딩 3층)

TEL. (代) 574-6388 FAX. 574-6389



第 15 回 建築士 設計作品 巡廻展



- 大賞 흥은동 스위트호텔 황규열(삼정종합건축)
- 最優秀賞 달마회관 김기웅(주, 삼정종합건축)
- 優秀賞 한국공항터미널 황일인(일건종합건축)
- 優秀賞 건대 상허기념도서관 장석웅(아도무종합건축)
- 奨勵賞 레 투르바이으 최승원(양가주망건축)
- 奨勵賞 한성기업 삼성동빌딩 김인철(인계종합건축)
- 奨勵賞 벨엘교회 최영집(탑건축)
- 奨勵賞 목화에식장 안문호(세안건축)
- 奨勵賞 포항공대 체육관 윤승중, 변 용(원도시건축)
- 奨勵賞 에스모드 빌딩 강석원(그룹가건축)



大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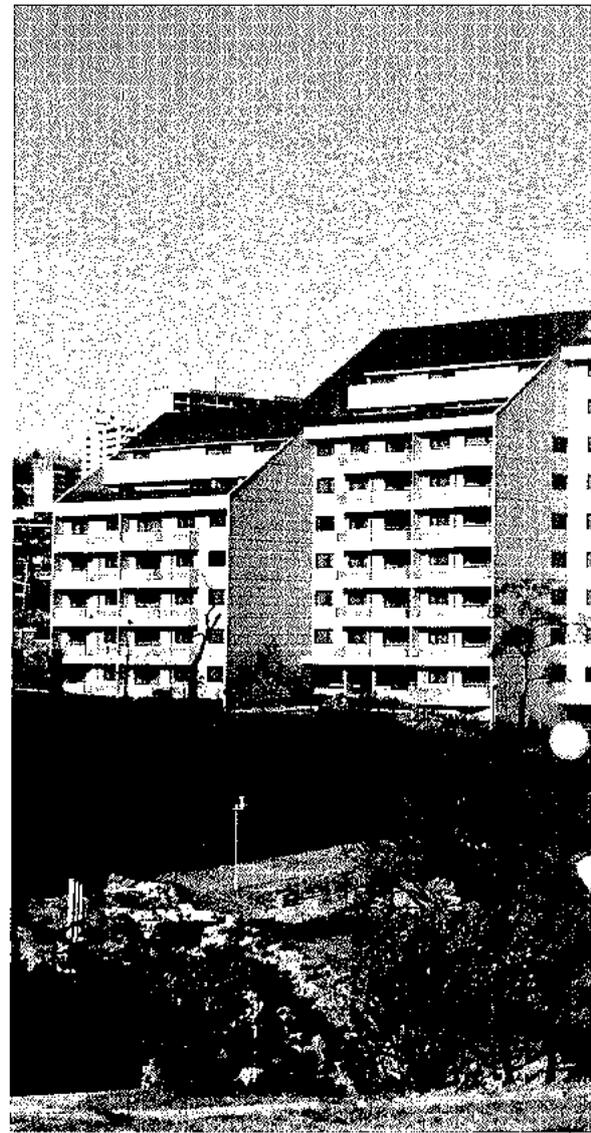
建設部長官賞

스위트호텔

(스위스 그랜드호텔 내)

Suite Hotel

대지위치/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01-1
 대지면적/37,479.0㎡
 건축면적/2,862.72㎡
 연면적/26,683.11㎡
 건폐율/37.3%
 용적률/161.73%
 규모/지상19층
 객실/111실
 외장/에말 그라니트
 ※ 자세한 내용 및 도면은 本誌 8901號 參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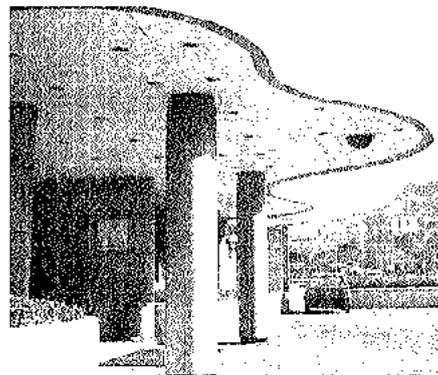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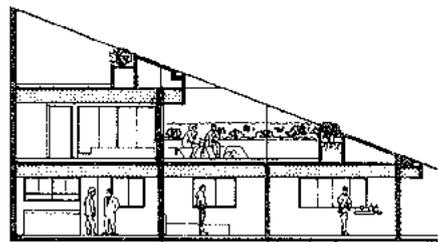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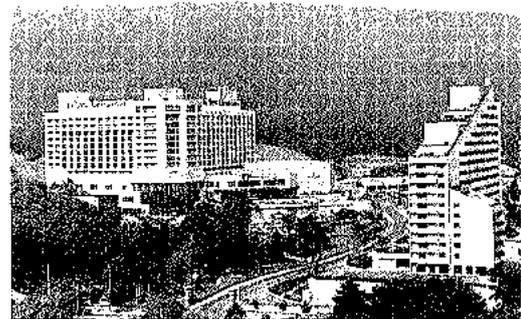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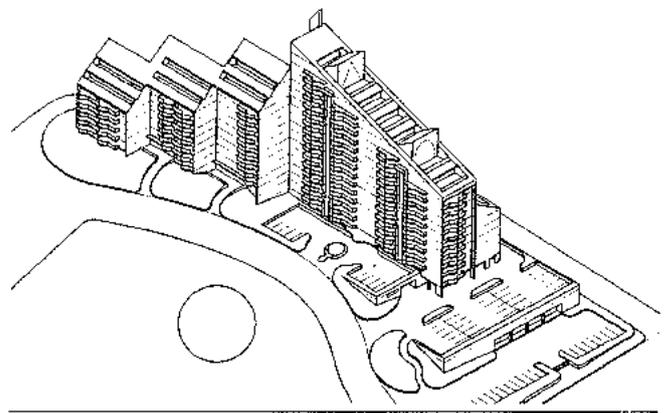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룩하였고 또한 시행 착오도 많아 발전하며 얻은 것 만큼 그 부작용 또한 무시할수 없을 정도로 문제화 되고 있음을 안다. 편리해진 만큼 인구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 공해등 기타 사회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급속히 그것도 대량화 되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구폭발로 인해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났고 주거양상은 단독주택에서 대단위 집합 공동주택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주거단지의 대량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는 거대한 스케일화, 획일화 반복등으로 비 인간적 환경오염 까지 초래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도덕 윤리적으로 인간성 상실이 모는 문명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번 테마는 "경영상으로는 호텔이나 그 기능상으로는 집합주택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계획이었다." 지나친 발전이 파괴에 이르러다면 무 행위가 행위라는 아이러니를 낳게 되므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물리적 반대급부(부정음)를 극소화 하는 행위를 설계의 기본 목표를 하여 비 인간적이고 살벌한 환경, 획일적이고 반복적 경직됨을 어떻게 해소 하는가가 주요한 과제 이었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전념은 다했다 싶으며, 이것이 또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번 계획은 주 호텔의 별관 건물로 중축 설계이므로 주 건물과 상호 조화있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 독자적 행위에 큰 제약을 받았고 따라서 상호 조화를 이룬 개체성을 찾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지의 형태로 보면 매치성, 주호텔 건물을 배치한후 나머지 대지로 평면의 굴곡이 많아 힘든 조건이었고 경사진 언덕과 건물과 섬세한 조화를 이루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데에는 건축가 일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설계의 팀워크를 오케스트라에 비유 하였듯이 여러 소원과 각 분야의 설계협력과 사무소의 조화있는 노고의 덕으로 알고 감사히 생각한다. 특히 이번 테마는 건축주의 이해력 있는 대화와 수준높은 판단이 크게 힘을 주었고 시공회사 또한 사명을 걸고 설계도서에 충실한데 대해 감사한다. 훌륭한 작품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된데에 송구함을 느낀다. 제도상 순위를 정하는데 남보다 많은 행운이 있었던 것으로 가름 하겠다.

黃圭烈/삼성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Whang, Kyu-Ryul



- ① 3BED 단면도
- ② 아이소메트릭



②

最優秀賞

協會長賞



달마회관

Dharma Buddhist Center Seoul

金基雄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Designed by Kim, Kee-Woung

대지위치 /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502-4대, 산 164-9일

대지면적 / 1,461㎡

건축면적 / 427.15㎡

연면적 / 1,474.9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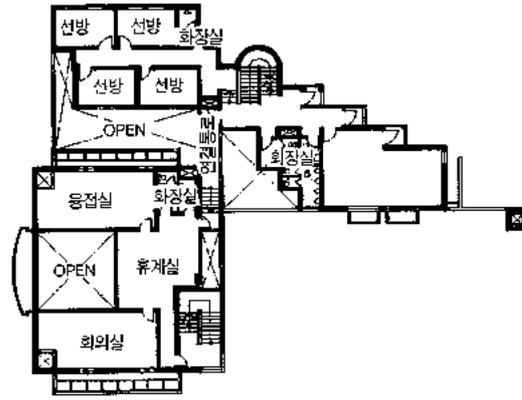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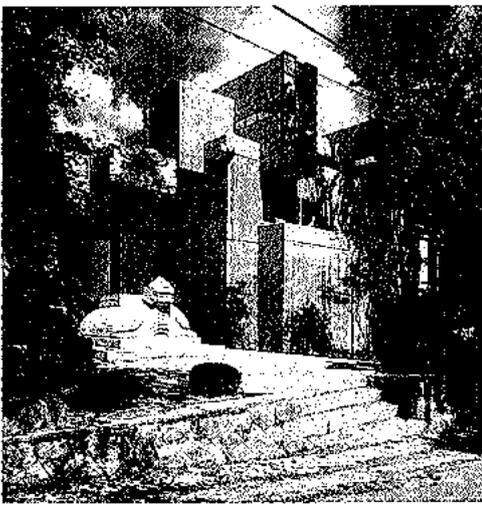
외부재료 / 노출콘크리트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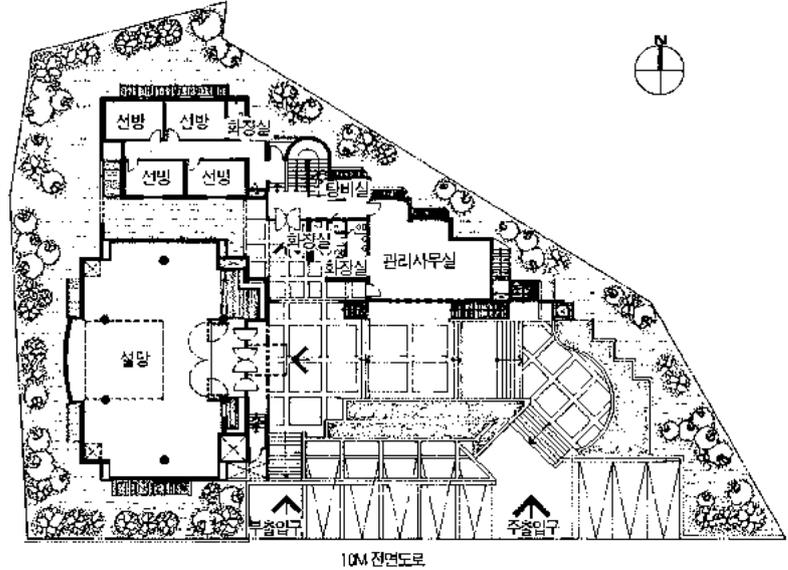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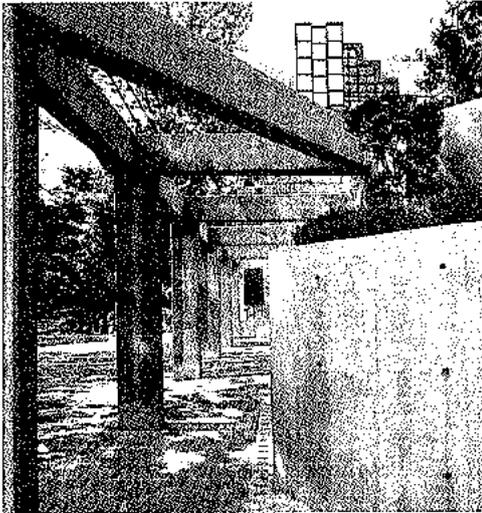
이 세상에 언어에 의한 분석의 한계를 초월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진실은 자아와 비자아의 대립구조를 초월해 있는데, 분석에서 이용하는 이 언어는 대립구조의 산물인 것이며, 결코 진실에 접근할 수단이 될 수 없다. 궁극적 진실은 마음 그 자체이며 어떤 말로도 마음, 그 자체를 표현할 수는 없고 어떠한 분별력으로도 그것을 눈으로 식별해 낼 수 없다. 불교철학에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말은 생과 사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이며, 이 세상으로부터 해탈한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말이다.

“무념무상”의 상태는 분별이 없는 세계를 말한다. 이 세계는 이원론의 세계가 아니다.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이기고 지는 것도 없고 좋고 나쁜 것도 없다.

선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이 “달마회관”은 이러한 의미에서 좀더 단순하게 표현되었어야 했다. 또 더욱 추상적으로 표현되고 또 그것은 너 자연스럽게 보여야 했고, 적게 주장해야 하고, 배경으로서 충실히 서 있기를 자임했어야 했다.



①



②

- ① 1층평면도
- ② 배치도 및 1층평면도



수상소감

차별은 평등과 같고 현상은 바로 본체이다.”

色則空이요, 空則色이며, 이 색 또는 無가 우주의 진리이다.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되고, 主觀과 客觀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된다.

왜 색이면서 주일까? 모든 事象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모습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변하지 않는 主體는 그 自體가 “空”일때만 가능하다. 변하지 않는 것이란 바로 무한한 변화를 가르킴에 다름아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라고 했다.

건축은 그곳이면서도 배경이기 때문에, 결코 내용물이기를 주장하거나 주역이기를 거부하는 것일까?

심사하여 상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나에게서는 하나의 驚策이다. 나 자신은 나의 작품이 어느 것도 상을 받을만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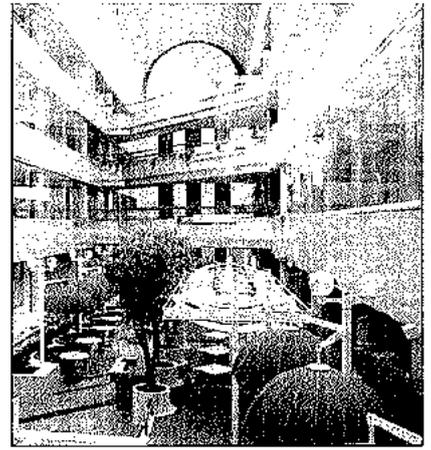
더 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수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면 더 젊은 건축기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회에 - 건축에 대한 관념이 뒤떨어 있고, 그 중요성에 盲目이며, 찬양하는데 인색하고, 부당하게 공격하기 일쑤이며, 진짜로 無識한 -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그들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어 갈 때 나의 自愧心도 消縮 될 것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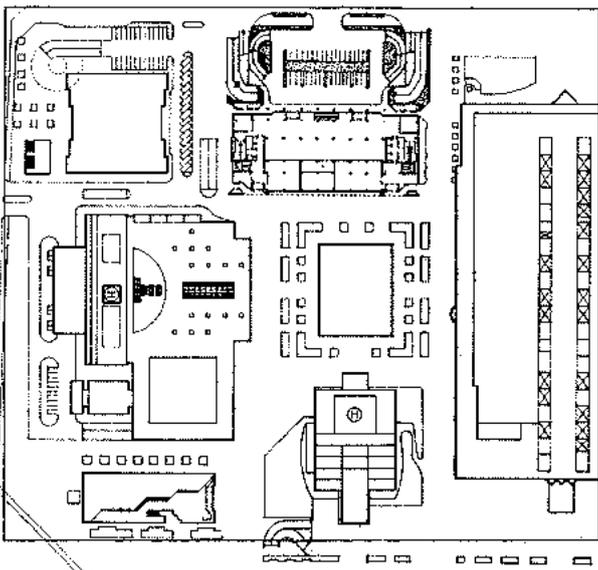
한국공항터미널

Korea City Air Terminal

黃一仁/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Whang, I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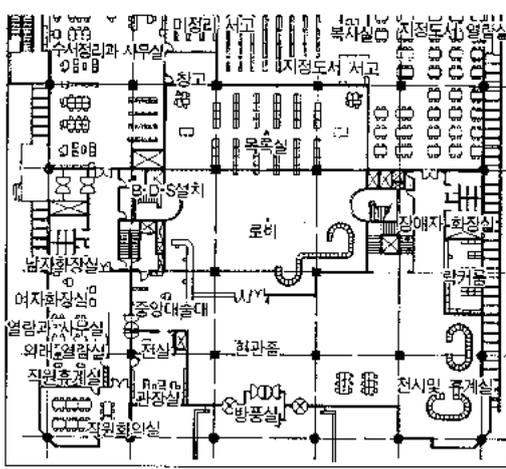


優秀賞



배치도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지면적/190,413㎡
건축면적/6,118㎡
연면적/65,637㎡
규모/지하4층, 지상7층
구조/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벽마감-알미늄파넬, 반사유리
내부마감-알미늄판, 화강석
※자세한 내용 및 도면은 本誌 8907號 參照



1층평면도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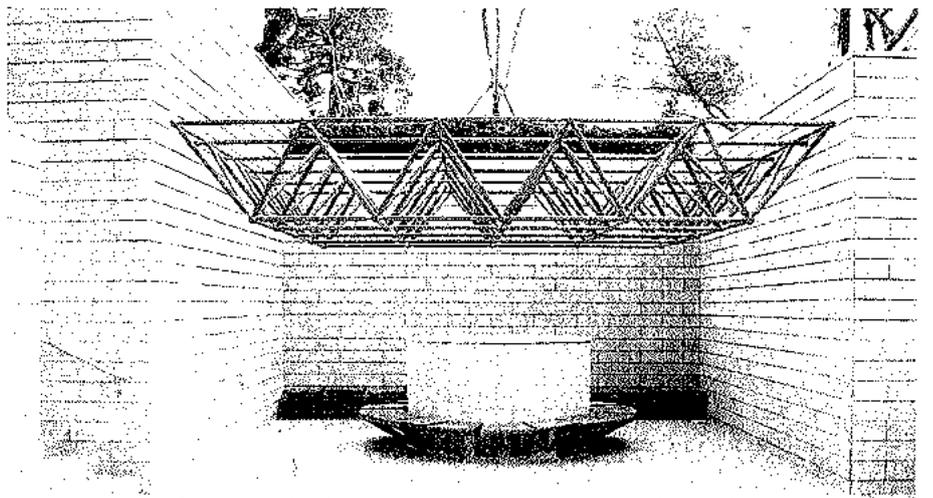
Sanghuh Memorial Library of the Konkuk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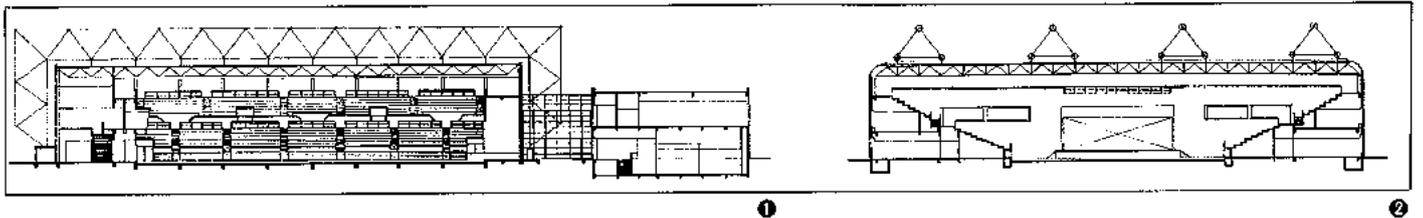
張錫雄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도무
Designed by Chang, Suk-Woong



優 秀 賞

대지위치 / 서울시 성동구 모진동 건국대학내
 대지면적 / 25,000㎡
 건축면적 / 4,489㎡
 연면적 / 22,135.3㎡
 건폐율 / 556.9%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Post Tension Waffle 구조
 모듈 / 6.9×6.9m → 13.8m
 외장재 / 화강석 + 복층유리
 ※ 자세한 내용 및 도면은 본誌 8909號 參照





포항공대체육관

Gymnasium Pohang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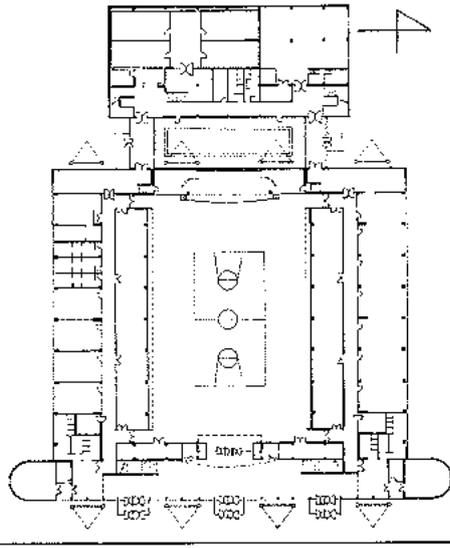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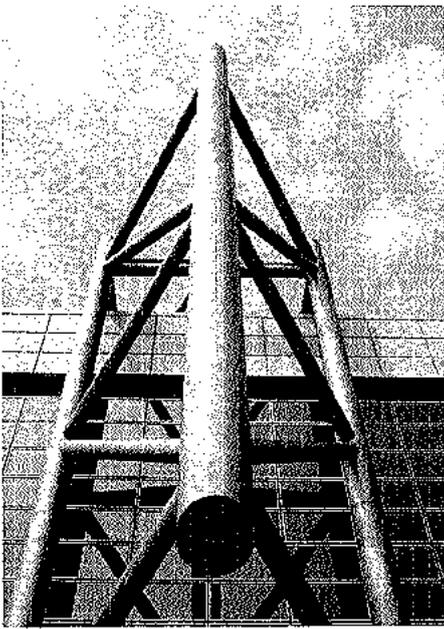
포항공대 체육관의 공간구성원칙은 이전에 담당했던 성균관대학교 체육관, 서울대학교 체육관과 거의 다른 바가 없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의 스포츠센터로서 경기장, 체육교육장, 대단위 행사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이 목표였으며, 이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한 가변성을 공간적 제안으로 해결하였다. 즉, 두 방향의 객석(일부 가동좌상)을 가진 경기장은, 전후에 입구 로비와 누대가 놓이고 전체적으로는 정방향의 평면을 이룬다. 여기에 연결된 부속동은 중정을 통해 매개된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포항공대 및 포항제철(재단)의 이미지를 형태, 외피, 구조 및 공법에서 상징화하려는 의도였고, 그것은 하이테크 건축개념의 도입으로 제안되었다. 이 건물은 콘크리트 플랫폼의 경기장과, 특수강관구조에 의한 외피라는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4개의 대규모 강관트러스가 전 외부를 지지하는 특수구조의 형태부여 요소로 작용하며, 단순히 기둥 없는 대공간 확보의 1차적 기능을 극복한다. 여기에 매달린 외피는 철판과 유리로서 일정한 그리드의 동일면 표피를 구성하여, 얇고 가볍고 딱딱한 피막을 형성함으로써 팽팽한 긴장감을 가진 풍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벽은 단순한 공간의 덮개이며, 전체 건물은 거대한 강관 트러스에 매달린 볼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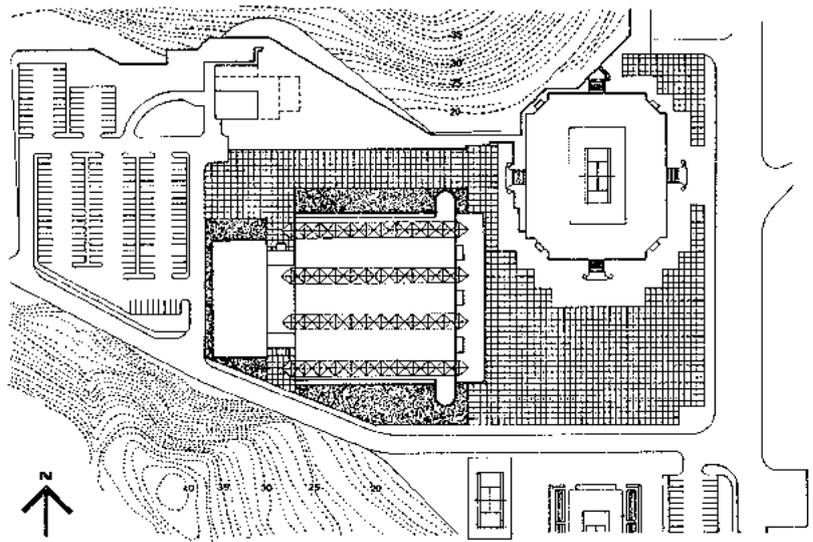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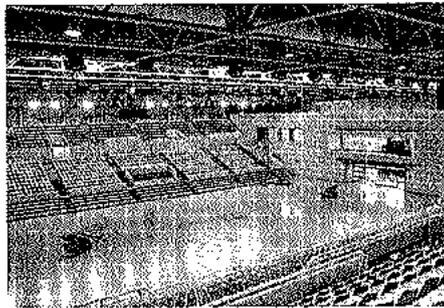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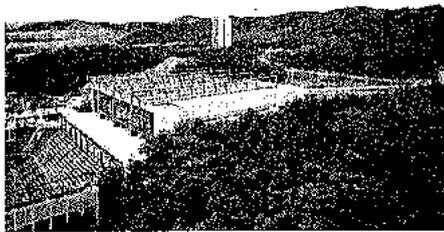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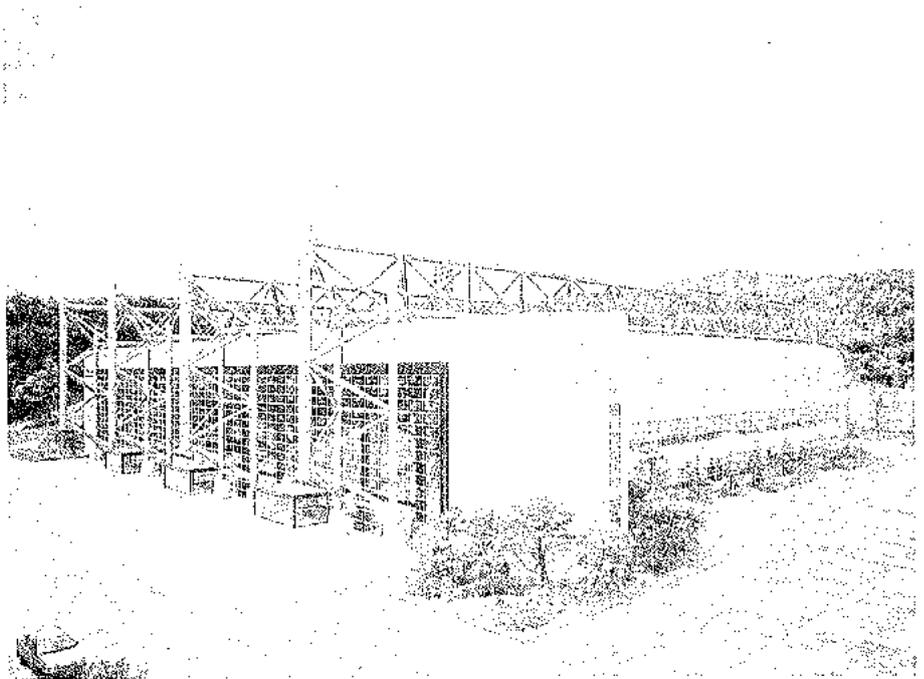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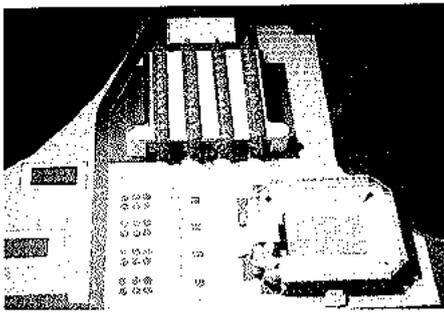
이러한 감각은 내부공간에도 그대로 이어져, 철판(일부 유공철판)으로 구성된 내부벽은 천장에 노출된 보조 트러스와 함께 외부의 느낌을 그대로 전이시킨다.

대지위치/경북 포항시 포항공과대학 내
 건축면적/6,486㎡
 연면적/11,550㎡
 규모/주경기장-지상3층, 부속동-지상2층

尹承重十卜銘/중합건축사사무소 원도서건축
 Designed by Yoon, Seung-Joong & Byun, 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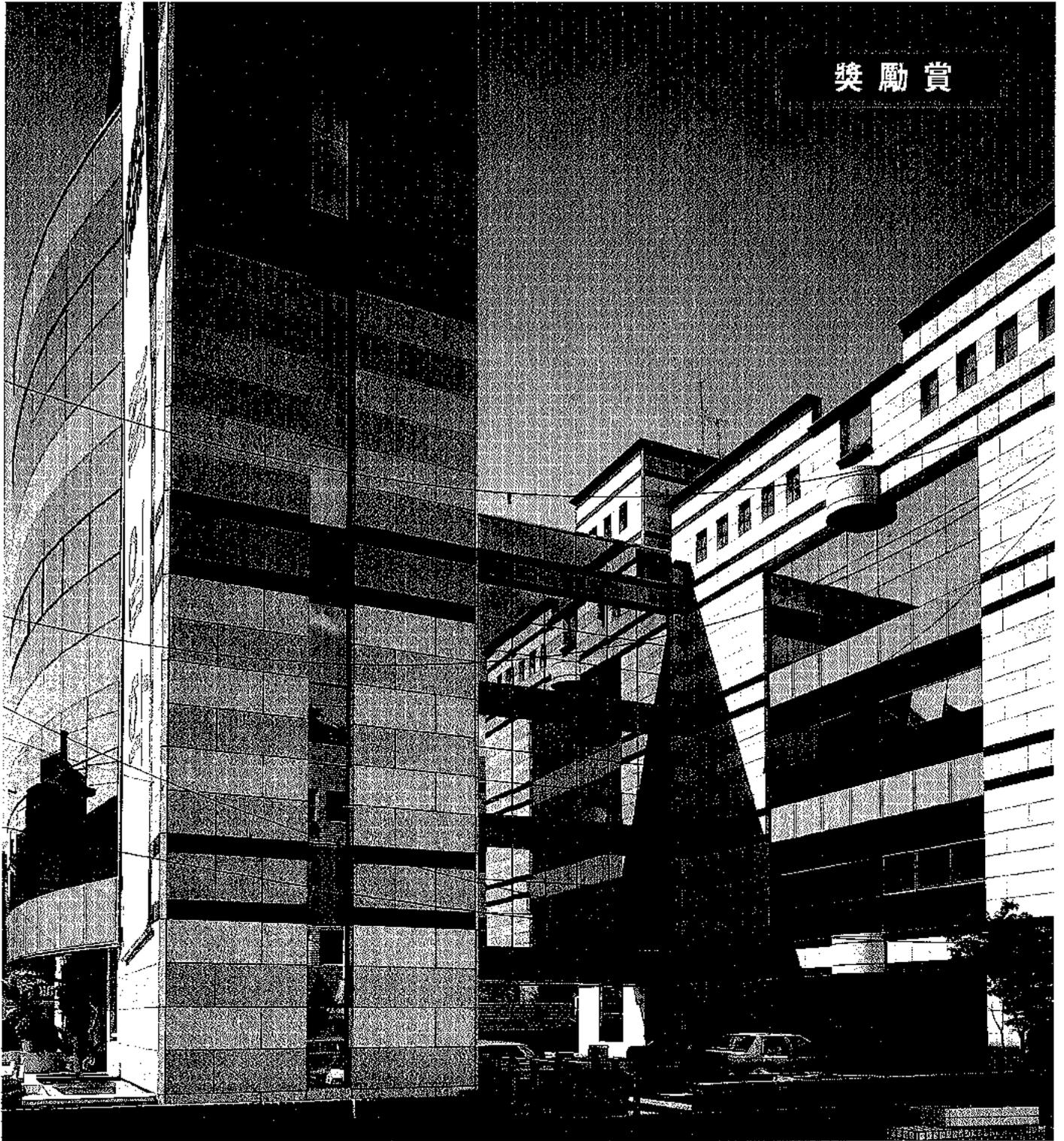
3



4

- ① 횡단면도
- ② 종단면도
- ③ 1층평면도
- ④ 배치도

獎勵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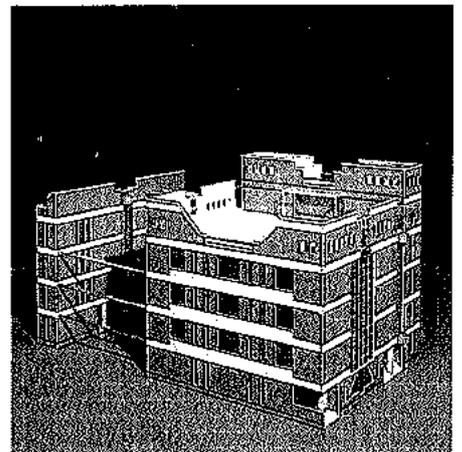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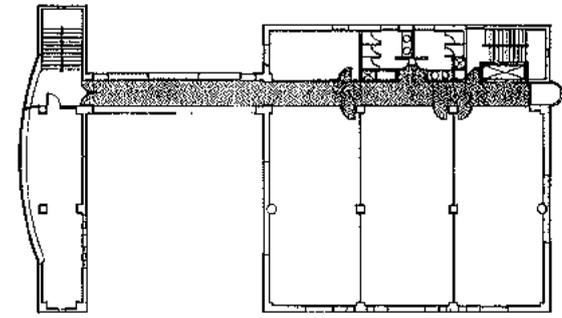
에스모드 빌딩

Esmod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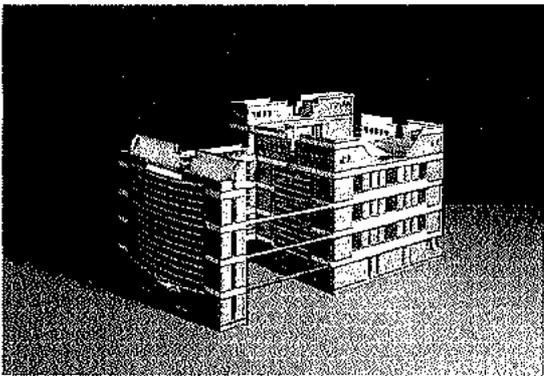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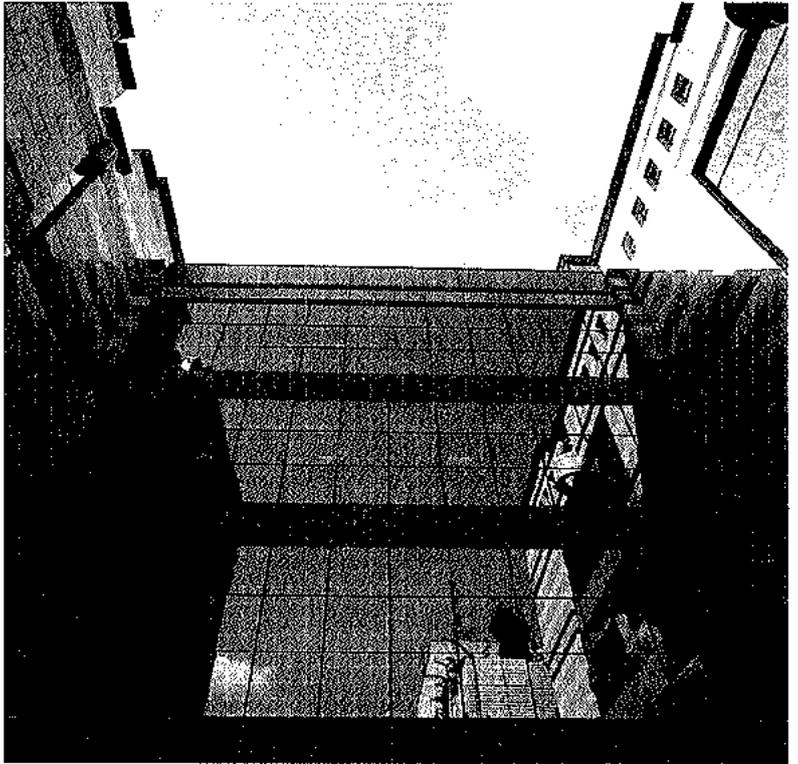
姜錫元 / 건축사사무소 구름가
Designed by Kang, Suk-Won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8-8
대지면적 / 1,124.5㎡
건축면적 / 544.93㎡
연면적 / 3,698.49㎡
건폐율 / 48.7%
용적률 / 182.7%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주차대수 / 23대
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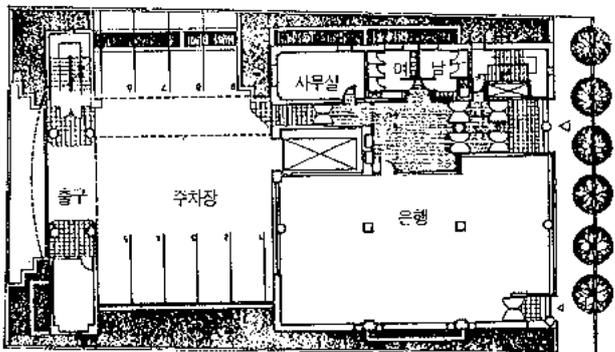


설계소요

건축주가 요구하는 건물의 용도는 1, 2층은 임대사무실, 3, 4층은 패션디자인 학위으로, 일종의 복합적 성격의 건물이었다. 평면에서 계획의 요체는 임대부분 동선과 학원동선의 분리였다. 임대사무실 부분인 1, 2층을 통과하지 않고, 3, 4층의 학원으로 직접 올라가는 방법으로 계단탑 하나를 후면에 독립시켜 동선을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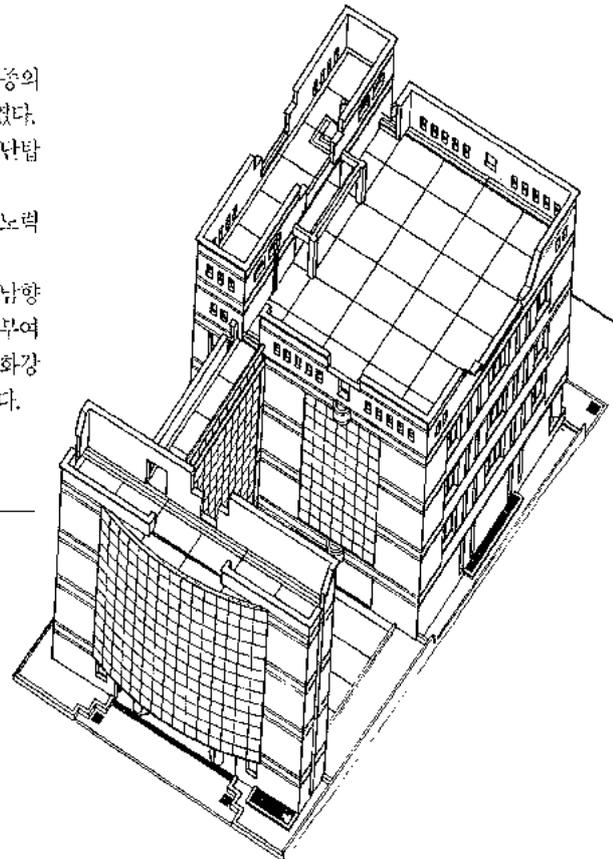
건물 본체의 계단탑은 오버 브릿지로 연결하고, 그 사이는 외부공간으로서 중정화되도록 노력했으나 극대용적을 주장하는 건축주와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말았다.

앞면에서는 전면도로가 북향인 관계로 상호변적을 될 수 있는 한 좁여 계획했고, 반대로 남향으로는 창호를 크게 하여 정리하면서, 강한 횡선으로 수평선을 강조하여 건물에 스케일감이 부여되도록 했다. 백색인 좌측건물과 벽돌색인 우측의 기존건물을 고려하여, 약간 붉은 색상의 화강석을 주로 하여 흰색상의 화강석을 종으로 가미했으며, 주변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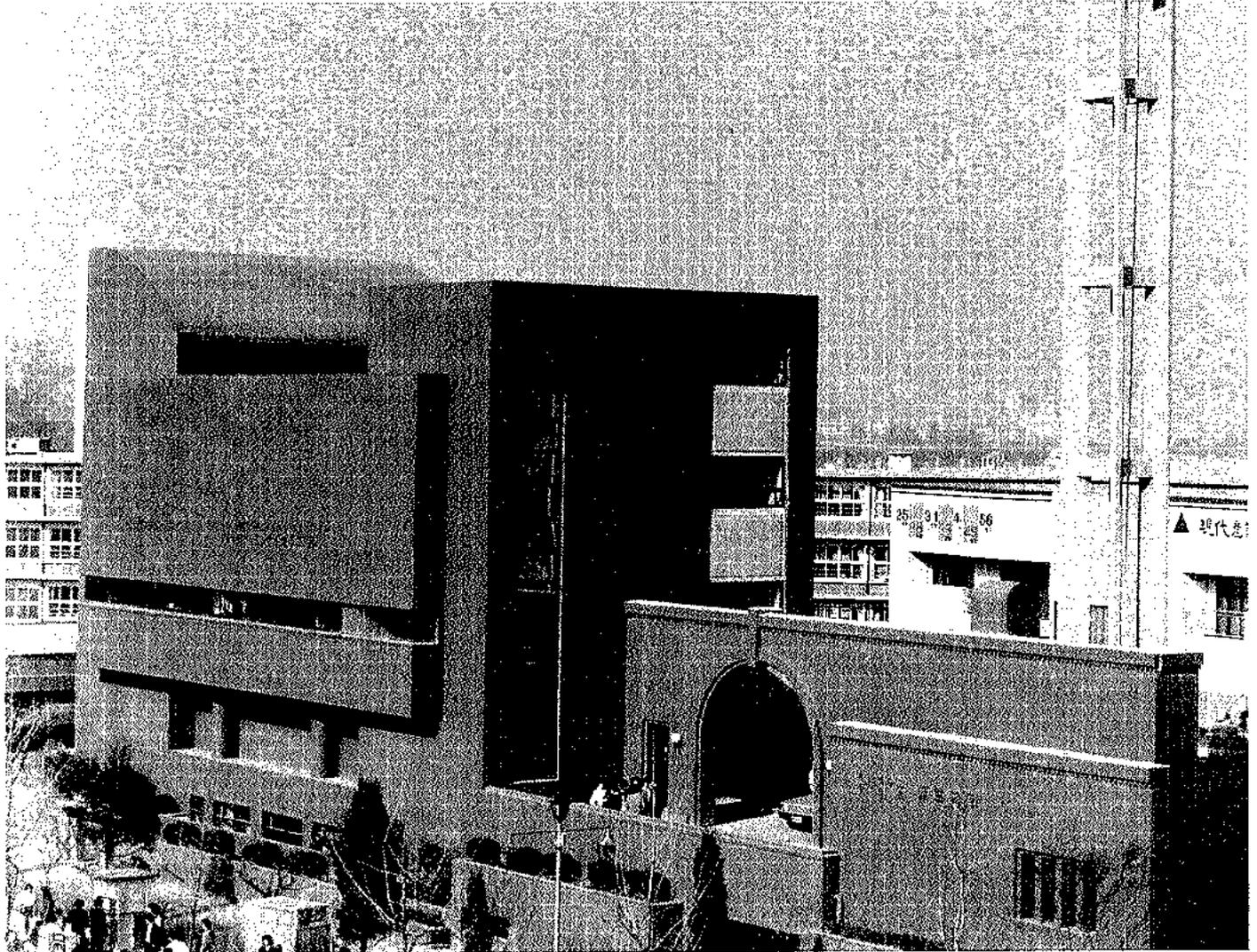
- ① 기준층평면도
- ② 1층평면도
- ③ 아이소메트릭



3

벤틀교회

Bethel Presbyterian Church



崔英集 / 건축사사무소 탑
Designed by Choi, Young-Jeep

대지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대지면적 / 1,592㎡
건축면적 / 318㎡
연면적 / 2,59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외장 / 붉은벽돌, 노출콘크리트조

설계소요

대로변 작지 않은 대지에 특이한 형태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눈에 새롭다. 날렵한 형태로 우뚝 솟은 종탑은 단지 종탑이나 십자가 탑이 아니라 높이 치켜든 햇불처럼 강렬한 조형의 빛을 발하고 있다. 건축조형의 참맛을 느낀다면 요즈음 어저지로 건물 앞에 갖다놓는 문패 조형 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벤틀교회를 만들어가며 즐곤 생각한 것은 새로운 이미지의 표출과 조형물적 형태구성, 명쾌한 기능의 해결이었다. 습관적으로 인지되어 온 교회의 표현언어를 과감하게 변형시켜 우려름으로 상징되던 수직적 요소를 공존과 친근감, 코이노니아를 나타내는 수평적 요소로 바꾸어 전체적으로 정체되지 않고 생동감있게 전진하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종탑의 수직적 요소는 하늘을 화폭으로 하는 절제된 구성의 축으로 형성되고 무한히 뻗어 나가는 경천(敬天) 의지와 더불어 사회의 경종(警鍾)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도심지 교회건축에서 뜻있고 상쾌한 진입공간을 갖는 것은 허락되기가 어려워 그저 길과 현관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스럽게 벤틀교회 부지는 도로변의 대지 길이가 상당히 길어 대로에서 바로 교회로 들어오는

1차적인 접근방법에서 탈피, 매스의 조형적 구성과 함께 만족스러운 어프로치를 계획할 수 있었다. 원 지붕이 낮은 동산이었던 관계로 1층 레벨이 도로면보다 높은 것을 이용하여 점층적으로 교회를 향해 진입해 오르고 그 길에는 파고라를 두고 담을 두어 영화속의 카메라처럼 클라이막스를 향해 전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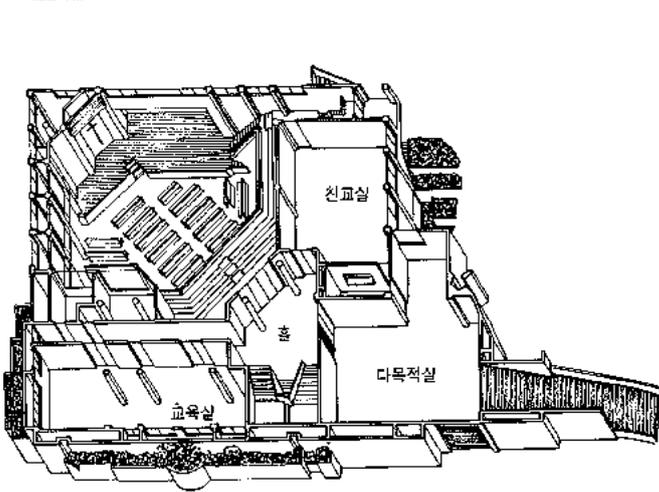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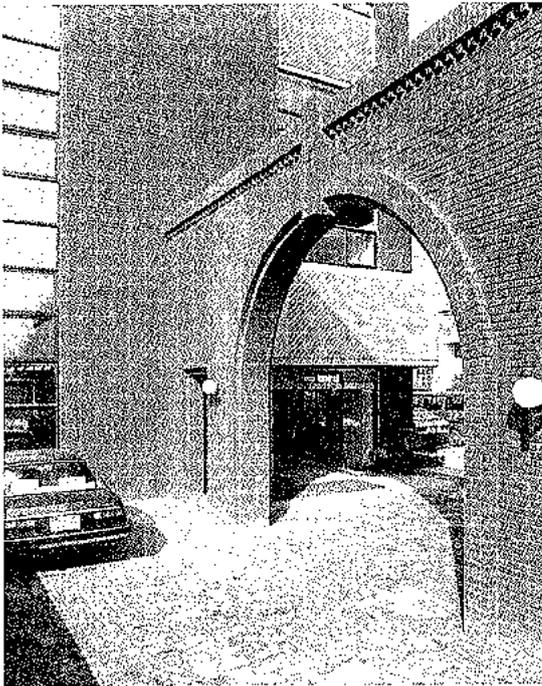
파고라를 지나 만나는 긴 반사유리창에 비친 산업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어우러져 봄가짐을 가다듬게 하고 우로 돌면 아치형 대문이 문없이 사람을 흡인해 버린다.

우리 건축에서 대문의 개념을 잃고 산지 얼마나 되었나, 대문은 길에서 실내로 진입하는 현관이 아니라 길에서 안마당으로 들어서는 상징적 전이공간이다. 대문은 울타리의 일부가 아니라 건축의 그 자체였으며 생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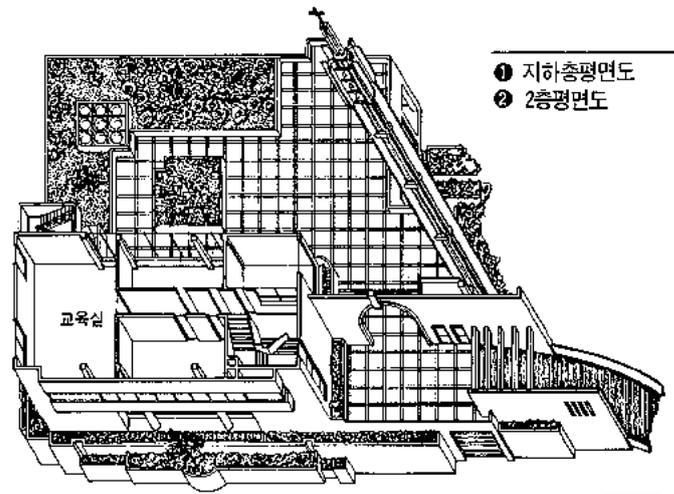
그개념이 벨렐교회에서 천국의 문으로 상징화 되었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그 문을 통해 다시 현관을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시원한 계단이 지하 본당으로 안내한다. 예배공간과 교육 및 봉사공간이 현대 추세에 맞추어 1:2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본당의 크기가 전체규모에 비해 작은 느낌이지만 각종 부속실이 여유있게 배치되어 있어 교회의 방침을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본당의 크기는 교세확장에 대비 충분히 넓힐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기는 하다. 지상층 교육관은 도로면 소음차단을 위해 외관과 맞추어 특별히 계획되었다.

건축을 모두 마치고 교회의 상징 마크를 만들어 드리며 목사님과 굳게 악수를 나눈다. 몇년에 걸친 고뇌찬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믿는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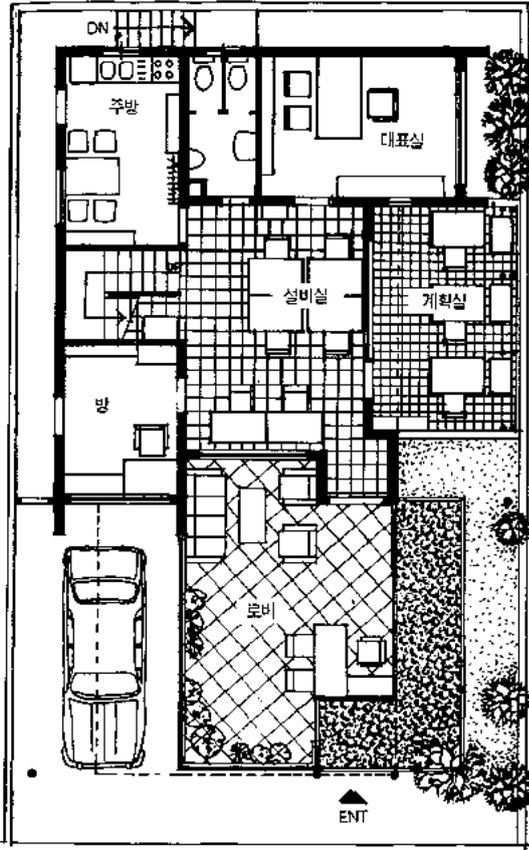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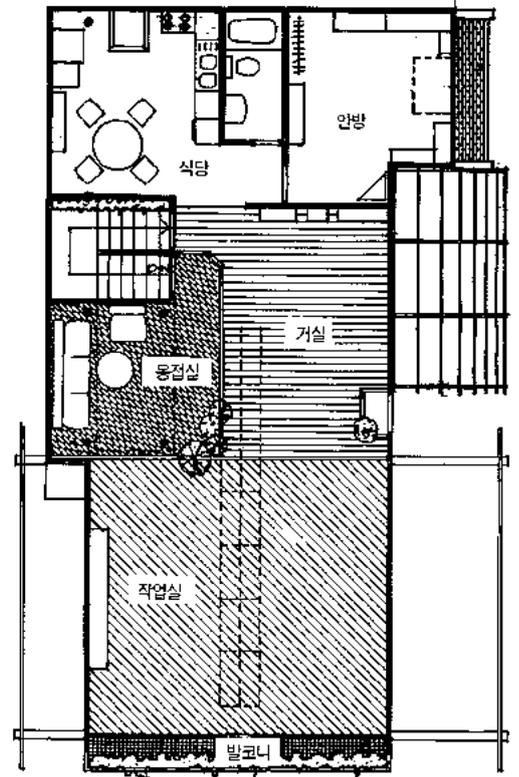
- ① 지하층평면도
- ② 2층평면도

레 투르바이으

(앙가주망 사옥)
Les Trouylls



①



②

대지위치/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570-9
지역, 지구/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구조/시멘트 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규모/지하2층, 지상2층
대지면적/200.2㎡
건축면적/117.78㎡
연면적/255.4㎡
건폐율/58.83%
용적률/116.32%

崔勝元/앙가주망 건축사사무소(안양)
Designed by Choi Seun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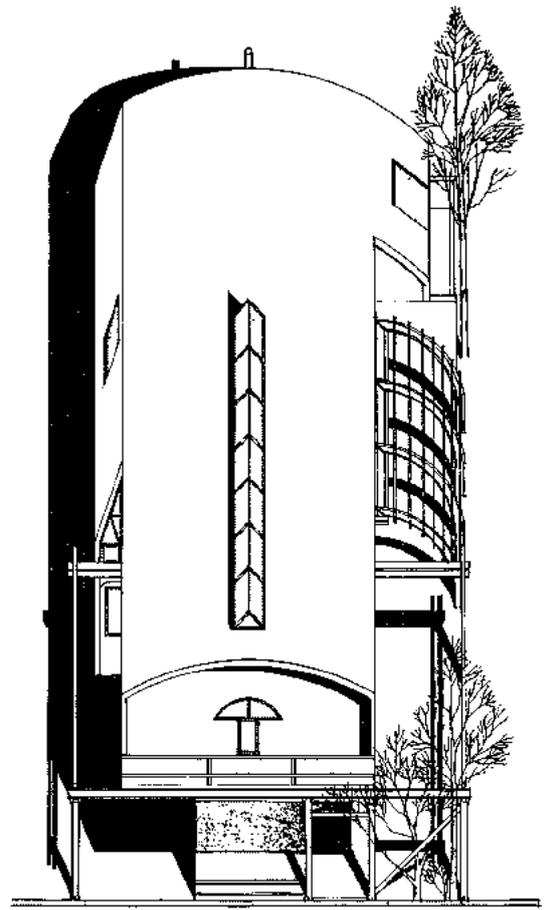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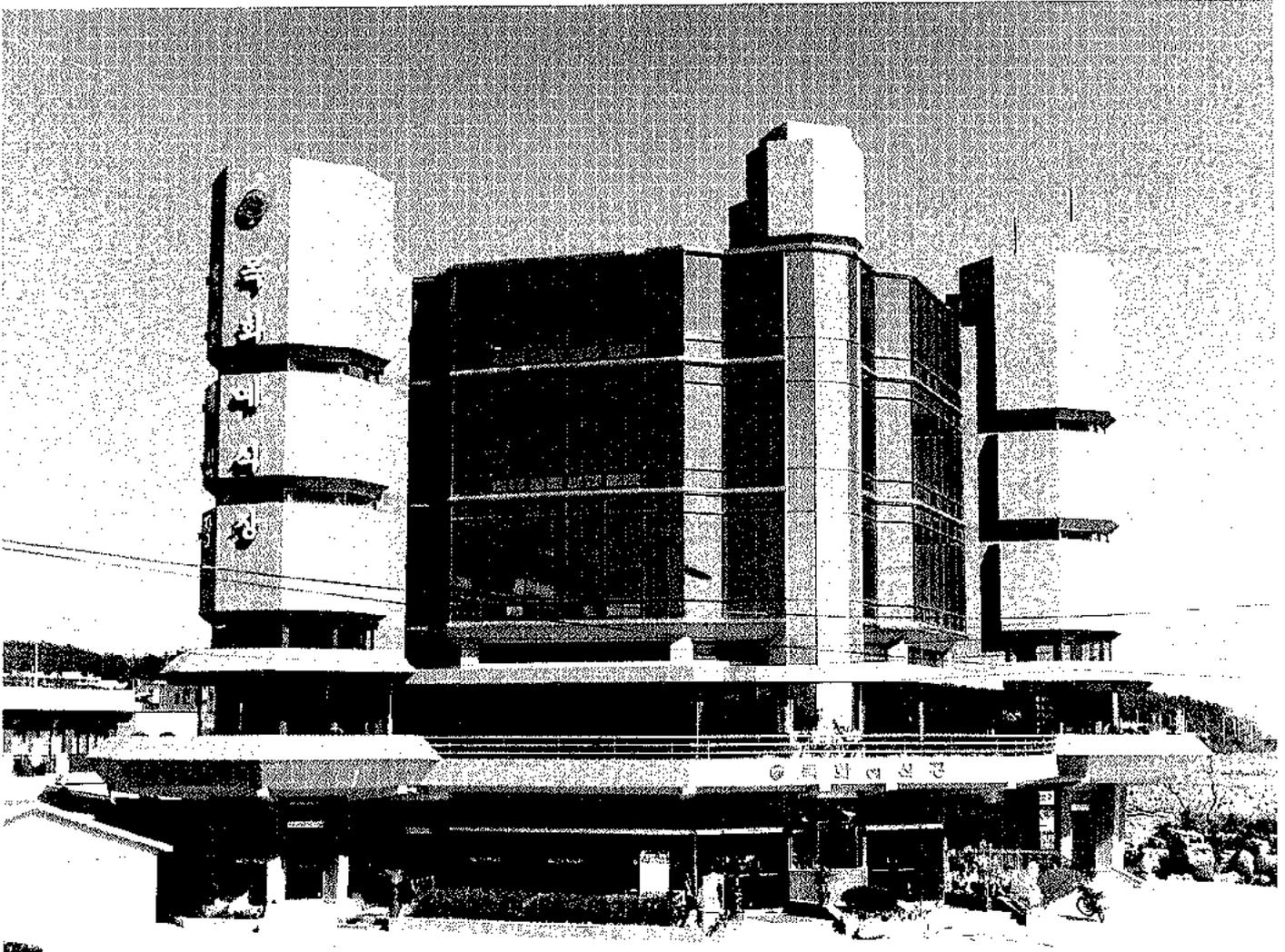
설계소요

이 주택은 기존의 주택에 개방과 폐쇄적인 것을 구사(집복)함으로써, 옛 것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해 본 건축이다. 특히 시공상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평범한 재료를 선택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연출해내고, 주택기에 하나의 활력소가 되는 매력적인 건물로 유도한 것이 이 주택에서의 주택 디자인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층 사무실의 내부벽은 순박한 도기문양을 응용하였고, 실용성을 위주로 하였다. 또한 로비 공간은 유리의 투명한 감성으로 하여 내·외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여하였다. 더우기 1층 사무실(설계실)은 노출된 구조미를 생각하여 남서쪽으로 개방되게 함으로써 수리사의 수려한 경관을 수용하고 자연 그대로의 빛이 실내로 흘러 들어 설계작업에 심미적 요소로 작용케하여 피로해지기 쉬운 작업공간에 즐거움을 부여하였다.

아직은 나무리를 다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 미완성인 상태이지만, 어찌 생각하면 미완성이 주는 신선한 매력을 애써 무시하려고 싶지 않아 살아가면서, 사용해가면서 찬찬히 고치고 수정해 나갈까 싶다. 다만 집안을 지나는 이웃과 도시인들이 부더위에 청량음료 한 잔을 선사받는, 그런 느낌의 주택으로 오래 남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가꾸어 나갈 생각이다.



- ① 1층평면도
- ② 2층평면도
- ③ 이이소메트릭



목화예식장

Mokwha Wedding Hall

安文孝 / 새안건축사사무소 (강릉)

Designed by Ahn, Moon-Hyo

대지위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8블럭 1-4

대지면적 / 1,232.8㎡

건축면적 / 505.56㎡

연면적 / 2,054㎡

건폐율 / 41%

용적율 / 133.2%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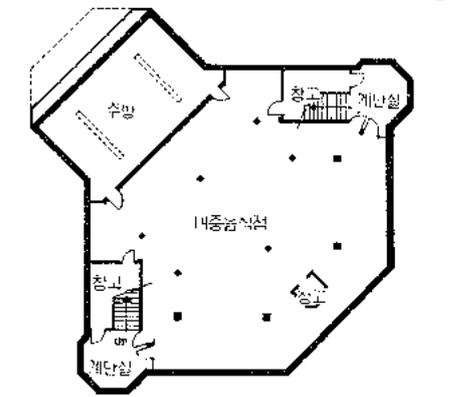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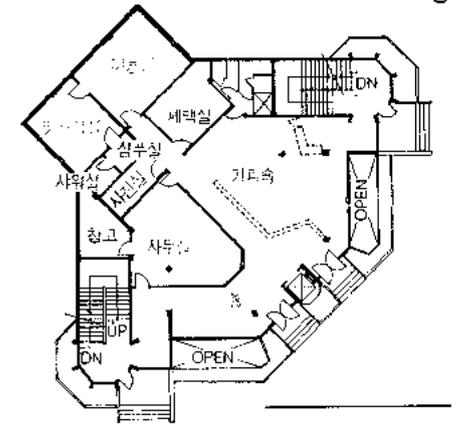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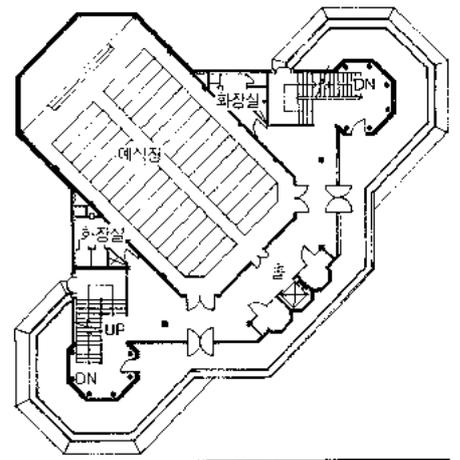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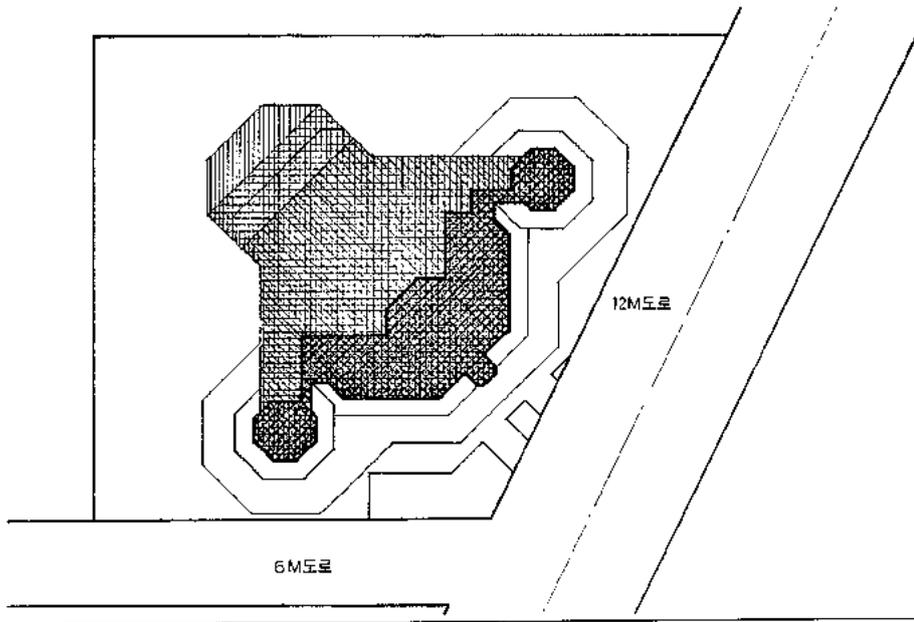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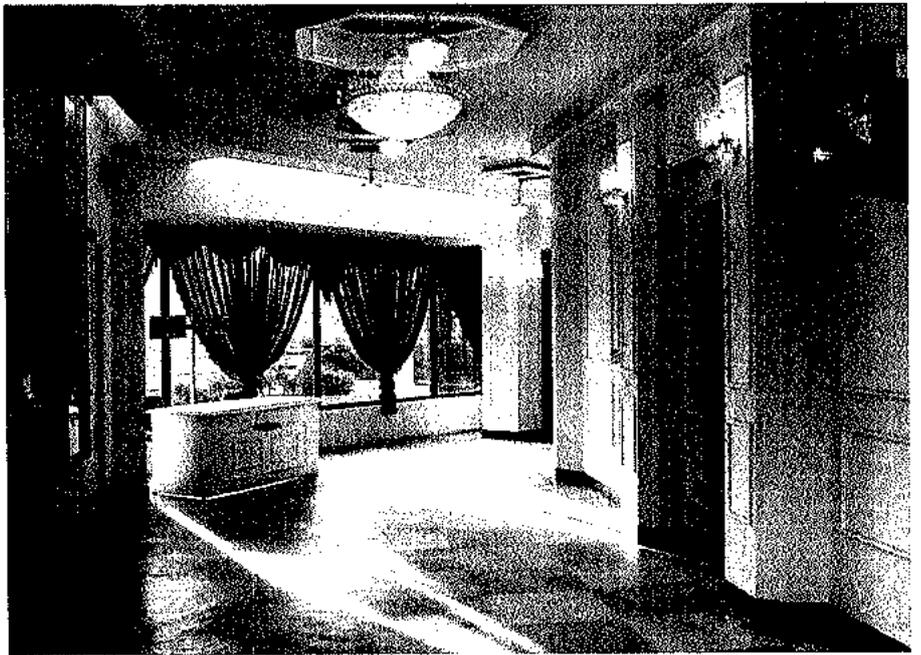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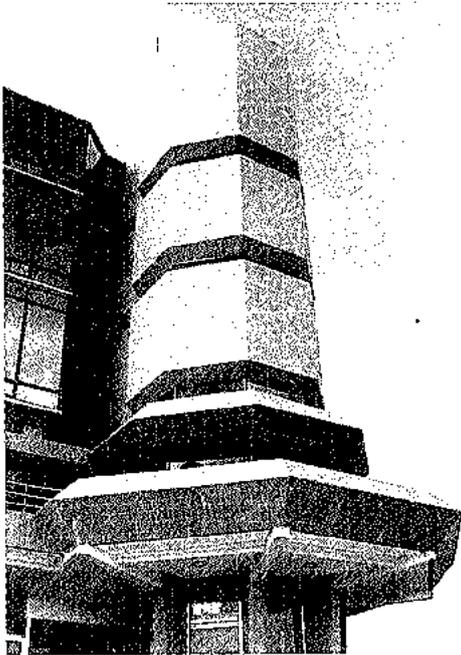
설계 소묘

고건축의 탑의 형식을 한가문의 상징 대상으로 떠올리면서 예식장의 주 동선인 두개의 계단탑의 형식을 빌리어 두 가문의 고고한 자태의 표출, 거리감 있는 위치에 놓았고 하부에 강한 수평을 연결하여 두개의 탑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다.

죽 하나의 덩어리 속에 두 개체의 존재의식,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사고 출발이라면 두개의 팔각 계단탑을 이으면서 수평으로 뻗어간 처마와 그 끝지점에 이르러 허공으로 처마를 치켜 올리면서 탑이란 이미지, 그 어떠한 시각적 위치에서도 정적인 대상으로 보인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고 건축에서 감지 할 수 있는 부상의 이미지 창출의 시도가 사고의 전개였다.

그 과정 속에서 팔각형이 만들어내는 고답적인 형태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전체 덩어리를 적당한 폭의 변화를 주면서 수평으로 분절하여 탑으로서의 조형적 감흥을 시각적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르게 유발 되도록 하였다.

수직, 수평, 팔각형, 사선 등의 재 요소들은 형태 자체에 복잡하게 상호 영향을 주어서 정연된 이미지 부여가 용이치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그것들을 융해시키고, 다듬는 작업 과정에서 기교성의 탈피, 기하학적 평면구성, 두세가지 정도의 재료 선택 등을 통해 단순한 조형 언어로 구사하려 애를 썼다.



수상소감

이 년전 이노남 18년 만에 고향, 강릉에 돌아왔다.

대 도시에 미하면 강릉이란 작은 도시에 불과하나 주위 경관이 꽤어나게 아름답고 빛난다.

새삼 신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고향분들은 그것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으면서 이 작은 고향에 나의 정성어린 건축작업이 내 고향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된다면 비록 작은 도시에서의 작업이라 할지라도 건축가로서의 기쁨이 아닐수 없다.

겨우 시작할지 채 2년이 못되는데 고향에서의 작업을 후하게 평가해 주신데 대하여 심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검소한 태도로 작업에 정진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고 더욱 용기를 얻어 노력하겠다.

건축주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전면 일부의 마감과 후면 전체를 도면과 상관없이 처리된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이 격려의 자리에서 앞서나 성냥갑 형태에 창 뚫기 정도의 요구에서 엄청난 깨 벗어난 작업을 순응해 주신 건축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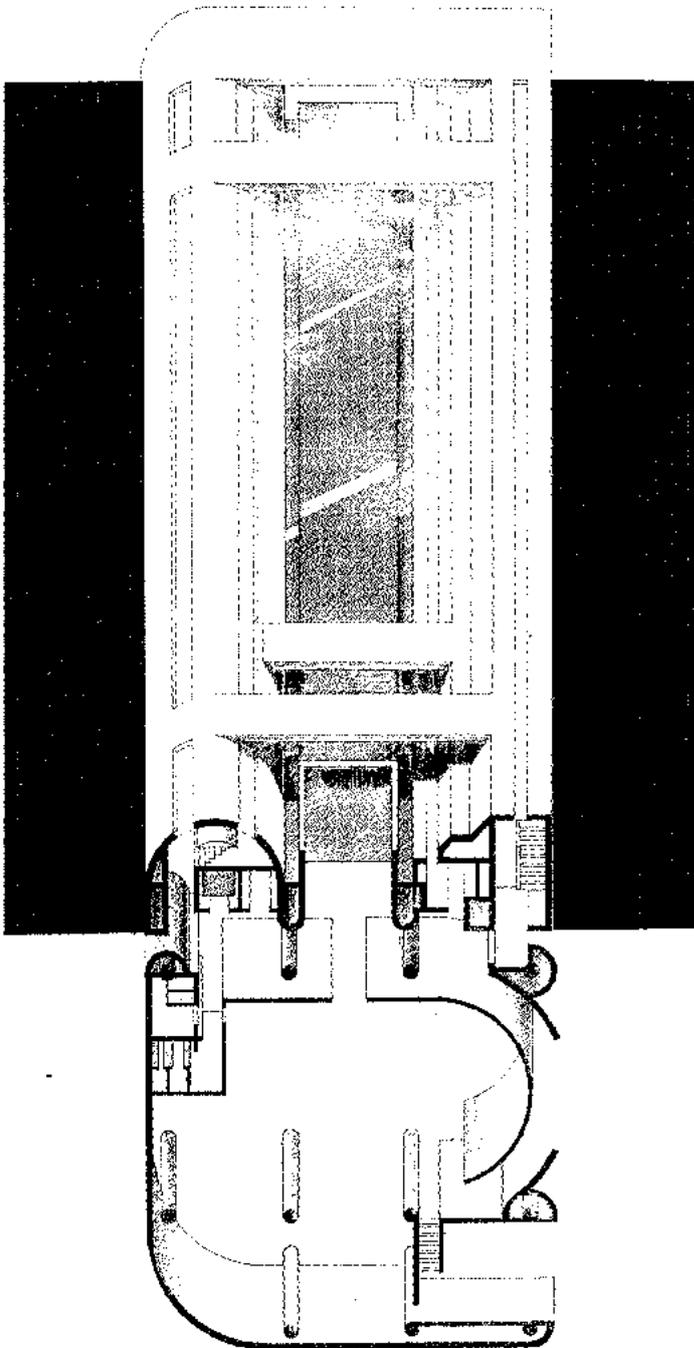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2층평면도
- ③ 1층평면도
- ④ 지하층평면도

獎 勵 賞

한성기업 삼성동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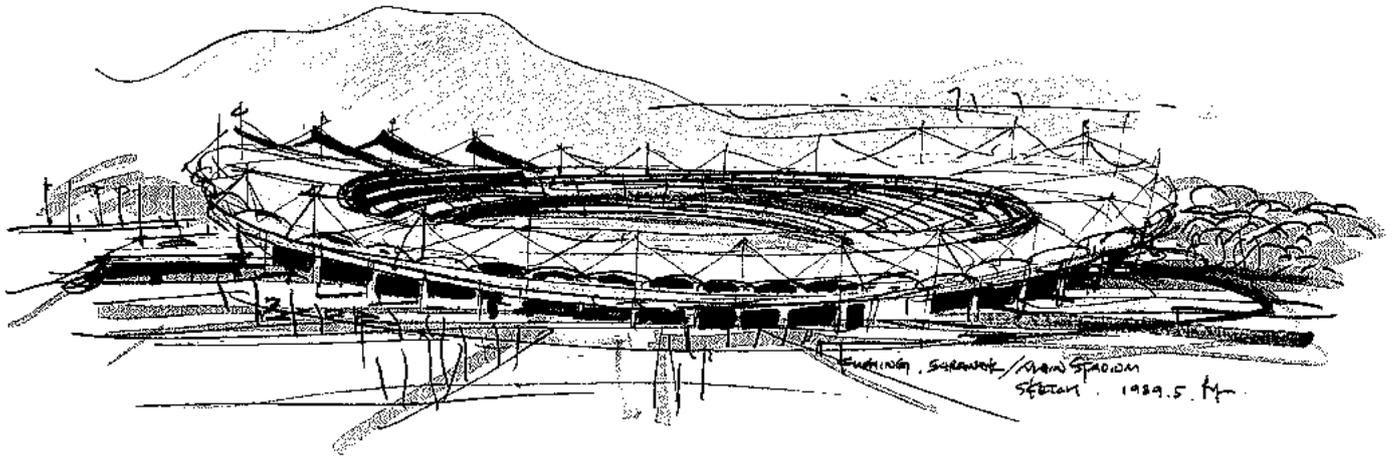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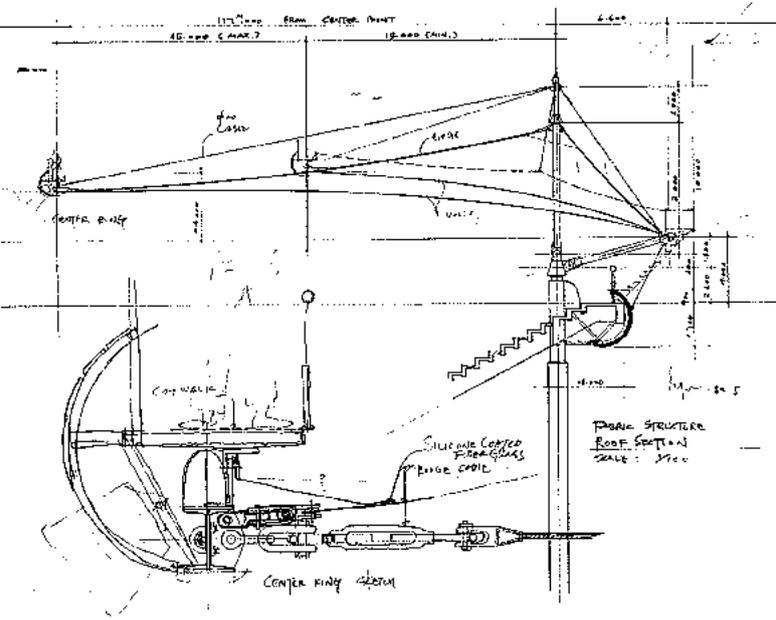
Hanseong Coporation
SamsungDong Building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Designed by Kim, In-Chul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지면적 / 1,578㎡
건축면적 / 606.7㎡
연면적 / 6,988.79㎡
규모 / 지하3층, 지상10층, 옥탑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외장 / 파스텔타일+스테인레스스틸+가로줄눈 넣기
지역, 지구 / 주거상업지구, 주차장정비, 2종미관
※ 자세한 내용 및 도면은 본誌 8910號 參照

MALAYSIA SARAWAK MAIN STADIUM



柳春秀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晟空

이 프로젝트는 작년 12월 말레이 지아 SARAWAK주 KUCHING의 현지 설계사무소인 P·U 와 계약하여 지난 5월에 계획 설계를 끝낸 4만석 규모의 주경기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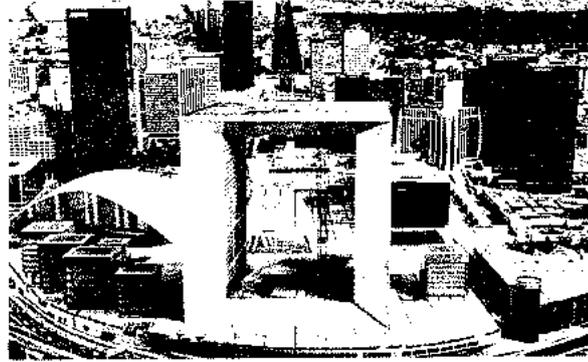
작년에 공사가 끝난 5,000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포함 하여 전체 마스터플랜은 김수근 교수님 생존 당시의 공간 에서 수행한 것이기에 본인이 맡기엔 외람된 일이었으나 결국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었다.

체조 경기장 이후 MEMBRAN구조에 나름대로 심취하 여 그 동안 7-8개의 프로젝트를 그려온 경험으로, 좌석의 2/3정도를 덮는, 주변의 MAST로 솟는 RIDGE CABLE과 그 사이의 VAUEY CABLE이 중앙의 CATWALK를 겸한 RING CABLE을 당기는 형식의 MEMBRAN구조로 지붕 을 계획 하였다.

최근의 미팅에서 6만석으로 키워 달라는 요구에 의해, 같은 구조 개념으로 면적만 키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은 PROMOTION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우리 손으로 설계한 최초의 케이블 구조가 해외에 세워질 날을 기대해 본다.

짧은 여행속의 우리



崔東奎 /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

매년 여행을 하려고 시도해본다. 목적은 새로지워지거나, 과거의 건물이라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안목을 높여보려 함이다. 이번 여행에서 본 건물들의 소감과 기타 다른 이야기 몇가지를 하고 싶다.

파리시내에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지어진 대부분의 건물들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멋있게 지어진 것은 물론이러니와 몇개의 건물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파데팡스에 기존 개선 문과는 축선상에 지어진 그렌트아치라 불리는 건물은 구조적인 놀라운 성취와 미학적인 성취가 돋보인다. Spreckelsen이라는 덴마크 건축가의 작품인데, 사방 100m각의 구조대, 70m를 가로지른 거대한 보,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게 만든것, 100m 노출된 채 지붕 속으로 기어올라가는 승상기, 하부에 사람들이 비릿지 말라고 해놓은 Tent구조, 교묘한 구성이다. 더구나 건물전체의 재목이 멋있다. "A Window Onto the World"또 하부의텐트구조의 제목은 "Cloud"이니 시적인 제목이 아닌가. 덴마크제 장난감 레고 생각이 난다. 어쨌든 Sydney에 Jörn Ulzon의 오페라 하우스와 미견되는 대단한 걸작 2개를 덴마크 사람들이 해낸 것이다. 잠시 생각해본다. 국내에 그런 지어진 대형 건물들이 국제 현상에 붙여져, 전혀 다른 이색적인 건물이 곳곳에 들어섰다면...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주불대사님과의 대화 중 결론이다, 아직은 그런 것을 흔쾌히 수용할만한 바탕이 안되어있다고나 할까? 국내 건축제도 허용할 것 같지 않다. 전통을 이어받은 건물이어야 한다는 Option이 족쇄처럼 걸려있으니... 대원군사대의 쇄국주의처럼 신문화적 쇄국주의가 은근히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훌륭한 건물은 사용자에게 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의 미적안목을 높여주는 촉매구실을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물은 가장 훌륭한 Idea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건축가가 설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런던의 로이드사옥을 가본다.

이선 또한 약감생생 한국에서만 건축교육을 받은 나에게겐 접근되어지지 않는 시도로서 경이의 눈물 가지고 보게되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석유시추선이나 철구로불만드는 기술자와 美學的인 안목을 가진 실험정신이 충만한 건축가와의 만남으로 시도되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보험회사라고 하면 보수적이고 안정된 것을 취할텐데... 로저스라는 건축가를 선택해서 멋쟁이 건물을 만든 건축주도 멋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내 보험회사가 비슷한 류의 건물을 국내에 하나쯤 지었다라면 건축교육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내에도 건물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던 재벌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 미국의 건축가의 작품이 국내에 세워지지 않았던가!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마 그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건축가를 고르는 안목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스위스 Frbourg에 있는 Botta의 은행 건물을 본다. 파리, 런던의 실험정신이 충만한 건물에 걸려있던, 솔직히 말해 기가 죽어있던, 나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는 건물전체에 공예정신이 충만한 건물이다. 칠레로 된 가구, 조명기구 까지 철저히 설계해서 건물에 집어넣었다.

내부공간에 엉뚱한 가구나 조명기구가 설치되는 것을 흡사 침입자 처럼 생각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건

축언어로 구사하려고 했다. 일찌기 Alna Aatto가 그렇지 않는가! 역시 루이스 칸, 코르뷔레 같은 대가들과의 만남과 수업을 통해 대가가 되는 자질과 통로를 발견했다 보다. 파리에서 만난 Finland SBK(콘크리트 협회)의 Kohronen氏는 Botta를 초대 했는데 그는 천재 같다고 한다. 항상 건축만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통역을 시켜 대화를 했다고 한다. 어느 일류축구 선수가 지나 깨나 공차는 생각만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파리교와의 Bouggués건설회사 사옥을 본다. 국제지명 현상설계를 통해 Kevin Roclaine가 설계한 건물이다. New York근교 Rye에 있는 General Foods건물과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나 다르다. General Foods 첫인상은 백악관이 연상된다면, Bouygués사옥은 프랑스식의 우아한 궁궐의 느낌이 난다. 어쨌든 이 건물의 건축적 성취야 수준급이지만, 나는 일개 건설회사 사장이 자기회사사옥을 국제지명현상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이다. 회사소개의 팸플렛의 사장 이야기인 즉 "남의 건물을 위탁받아 짓는 건설 회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 근무함으로써 그들이 기여해서 회사를 이룬 업적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그들이 지어야 될 남의 건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있다고 하니 과연 훌륭한 사상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아침에 일어나 호텔 후르트로 가보니 마침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이라는 영자지가 있었다. 며칠동안 국내신문을 보지 못한 공금중과 더불어 신문을 펴보니 조그만 분량으로 노대통령 방미에 관해 미국기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다. 조금 더 뒤적거리려 보니 상당한 분량의 건축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익숙한 Kurckowa에 대한 것이었다. "A Postmodern Architect Grounded in Japan's Past"라는 제하의 글인데 히로시마에 최근에 지어진 현대미술관에 대한 비평과 또한 Kurokawa의 건축 철학에 관한 내용이다. 또 작년에 "The Philosophy of Symbiosis"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이다. 나는 세계적인 신문에서 일본의 한 건축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폭넓게 다루어준 것에 대해서 국내신문의 예를 잠깐 비교해 보았다. 그것이 바로 일반인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의 차이라고 단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그 관심만큼 발전하는 것도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싶다. 런던을 떠나기 전 Kohrouen氏가 귀띔해준 말이 생각나서 Victoria역에서 찰스 황태자가 쓴 "A Vision of Britain"라는 책을 구입했다. 내용을 훑어보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세계곳곳을 여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스케치까지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건물마다 비평도 해놓았다. 특히 테임스강변의 여러건물에 대해 지적·비평하며, 또한 상업지역에 들어서게 될 외국건축가의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우리도 잘 아는 "Cesav Pelli"가 테임스강변에 50층 정도의 건물을 계획했는데 찰스 황태자와 토론하는 장면이 나온다. 왜 그렇게 높이 만들었느냐, 당신이 계획한 건물이 유럽에서 제일 높은 건물 인줄 알고나 있는냐는 공박에 Pelli씨는 현대사회의 기압이 필요로 하는 어떤 크기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규모의 사람들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술은 더욱 발달해서 사람들은 더욱 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것은 재미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늘을 향해 이러한 크기를 가지며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강변한다. 그 후 찰스 황태자는 Turner(유명한 영국 화가)가 그린 옛날 런던 바로 그 부근의 그림을 근거로 그렇게 높은 건물이 수세기동안 두고두고 런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어쨌든 한나라의 황태자가 단지 상징적인 존재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건축문화"에 대단한 비평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더우기 책의 후미에는 10가지의 Design Principle을 제창하며 사례를 열거하며 말을 맺고 있다. 이 책을 몇권 사서 대통령, 서울시장, 건설부 장관, 분공부 장관 등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여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호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둘러보니 "미술관으로 바뀐 오르세이역"이라는 제하의 글이 실려있다. 이러한 제반 주변상황들이 바로 훌륭한 건축문화를 꽃피게 하는 거름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서부터 거름이 필요한가 생각해 본다. 분명히 건축가의 능력만이 좋은 건물을 만들수 있는게 아닌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 여행이었다고나 할까! 또 Kohrouen씨 이야기는 "당신들 똥이 다니면 경비도 많이 들고 건물도 내부까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지 않느냐! 왜 여러명이 조직적으로 다니지 않는가" 고 의이해 한다. 그러나 내 기억으로 그렇게 건물위주로 사전에 건축가와 연결이 되어 사전에 방문할 건물에 양해를 구하고 안내까지 받아가며 확실히 볼 수 있었던 순수 건축여행이 없었던 같았다. 어쨌든 그들은 사전에 방문할 곳의 건물들의 자료를 책자까지 만들어 빈틈 없이 다니는 것이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의 수업처럼 보였다. 우리도 조만간 조직적인 건축물을 보기위한 Tour가 생겨서, 건축인들의 전문을 조직적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의 황금기를 맞이 위해서는 건축가의 각고의 노력은 물론, 사회저변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이상 짧은 여행에서 느낀 소감들을 두서없이 피력해 보았다.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제10차 이사회 참가기



- ① 제10회 아카시아 이사회 및 토론회 각국 대표단
- ② 제10회 아카시아 이사회 및 토론회 본협회
대표단 일행 우로부터 이정근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송기덕 본협회장, 김지덕 국제위원회위원장.

1. 본회의의 전날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제10차 이사회가 10월 19일 및 20일 양일에 걸쳐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어 부수행사로써 제5차 ARCASIA Forum이 21일 및 22일 양일간에 있었다. <표-1>

ARCASIA 교육위원회가 후원하고 태국 건축사협회가 주관한 학생 켐보라에는 김지덕 씨와 본인이 참석했으며 한국학생대표로서 제 4회 신인·학생건축설계공모전 학생부문에서 우수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이병구군과 박현순양이 참석하게 되었다. 18일 아침 우리 일행 3명은 협회 사무처에서 준비한 유인물과 기념품 등을 챙겨서 서울을 떠난지 5시간만에 방콕에 도착했다. 서울보다 시차가 2시간 뒤지니까 아직도 대낮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위가

심하지 않았다. 이군과 박양은 태국학생들과 같이 학생숙소로 가고 우리 셋은 Montien 호텔에 여장을 풀고 등록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발표할 한국측 보고내용을 생각해보고 회의 의제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저녁 식사전에 Practice work group, P. outreach programme Group, 및 Architect Selection Working Group 등 세개의 Work Group의 회합이 있었는데 본인은 Outreach programme Group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 세개의 Work Group은 작년 11월 서울에서 있었던 제9차 이사회에서 발기되어 구성된 것인데 UIA에서 실행하고 있는 바치럼 추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들을 소규모 Work Group을 만들어 활동적으로 탐구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 Outreach Programme Group에서는 각 국가의 협회 또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이정근
연세대학교수
본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하면 건축사들이 하는 일을 일반 대중에게 잘 이해 시키며 또 건축사들은 그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귀를 열어 놓아야 할지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관하는 자(Group의장)와 각 협회간에 의사소통 및 통신이 원활하지 못했고 처음 시작이어서 그런지 확고한 틀은 갖지 못한채 토의가 진행되었다.

2. 이사회

이사회의 의제는 표-2를 참조하기 바라며 12개 회원국이 참가하였고 특히 이번에는 중공이 전 중국을 대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첫번째 참석하게 되었으며 대만은 국가명칭문제 때문에 계속 불참을 고수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이 회의에 관심이 높아져 옵저버 자격으로 대표를 참석시켜 회의를 참관하였으며 장차 아시아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기를 원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이 문제는 신입회원 가입의 원칙을 정한후에 고려하도록 결정을 보았다. 작년 서울의 제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에 초청 연사로 참석한바 있는 세계건축가협회(UIA)회장도 옵저버로 참석하여 근간에 있었던 UIA 개혁위원회의 업무결과 보고를 요약해서 설명했다. 이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와 한국이 속해 있는 UIA 제4지역협회가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아직 아시아 건축사협회 정관에는 정치적인 제한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거되는데로 고려해 본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두 기구간에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 하나는 1984년 마닐라의 제1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자문용역에 대한 국제윤리규약이 1987년 Dublin에서 있었던 UIA 제17회 총회에서 인준 채택되었음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각국 협회에서 전번 이사회 이후 이행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하는 순서가 있었다.

**오랜 문화적 전통속에
축적된 그 지역의 삶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해답을
생각없이 새로운 물결속에
흘려버리고 표류하는
건축문화의 상황은 남의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사회의 일면이기도
하다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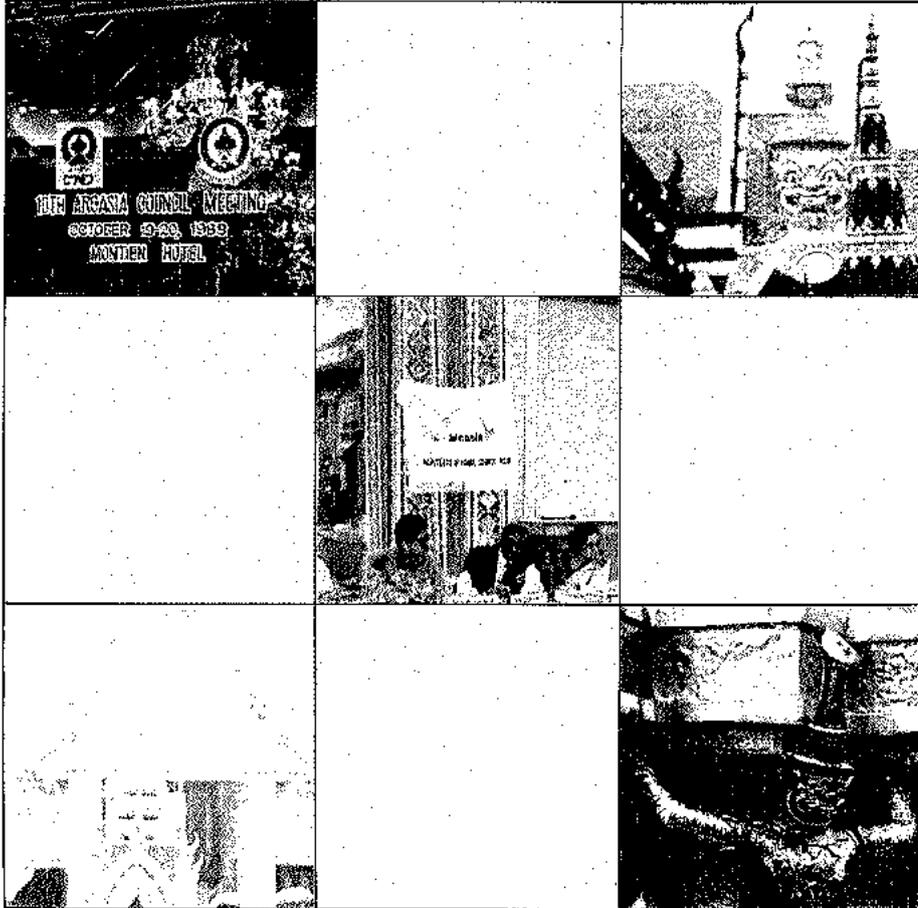
우리협회에서는 11개 항목에 달하는 항목을 프린트하여 보고서로 제출하고 요점만을 설명했다.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작년 11월 서울에서 가졌던 3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에 회원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성원해주어서 감사한다는 말과 아시아 건축사협회 회장단 및 자문위원회에서 협조해준데 대해 치하하였다.

②



서울의 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행사에 관한 여러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이 아시아 건축사 서울 대회는 한국 건축계에 3가지 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본협회 회원 및 한국의 건축인들이 아시아의 동료 건축인들에 대한 관심에 눈을 뜨게한 점이다. 두번째는 한국사회내에 건축사의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물꼬를 텃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이러한 내적인 힘을 배경으로 건축법 및 건축행정을 비롯한 건축전반에 관한 건축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현실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본 협회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표증은 금년 봄에 처음 시도된 1989년 전국건축사대회로서 주제는 '정보사회와 건축'이었다. 이 대회는 분산되어서 개최되어오던 협회의 여러행사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인의 대축제를 마련해보자는 것이었다. 이 행사는 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가 모델이 되었으며 이를 치루어 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대회는 처음 시도하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주제에 걸맞는 유익한 강연회와 전시회 및



대두되었고 각 회원국간의 의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장애요인이 공통으로 인식되었다.

파키스탄 협회에서 주관해 온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정관 개선을 위한 연구안과 아카시아 建築賞 운영 규칙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논의되었다. 내년 2월말까지 각 회원국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ARCASIA(아시아 건축사 협의회)가 1967년에 태동하기 시작해서 1979년에 정관을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아시아 6국이 발기국으로 조인식을 가짐으로서 정식출범하였던바 올해에는 그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기당시 공로자들에게 기념패를 증정하였고, 각 회원국간에 친선을 위해 작은 기념품을 교환하였는데 우리 쪽에서는 작은 열쇄 주머니와 대한건축사 협회 방문 기념패 및 건축사지 2개월호를 회원국 참가자에게 선물하였다.

새로 가입한 중국 건축사협회에서 1991년도 제12차 정기 이사회를 유치하여 준비하겠다고 제안하여 통과되었으며 1990년도 제11차 정기이사회와 제4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는 이미 최장국인 인도에서 열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바 주제와 일정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일정은 1990년 9월 30일 부터 10월 5일 까지 인도 북해 케쉬미르의 작은 도시에서 열리게 되며 학생참보리도 동시에 진행된다. 테마는 잠정적으로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The Asian Scenario"이며 아시아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통적인 환경의 문제를 중심으로 건축에 관해 토론회 보자는 의도이다. 행사의 전체적인 구성은 본 협회에서 작년에 시도했던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동안 온종일 계속된 회의가 끝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저녁에는 태국협회에서 주최한 선상만찬을 즐기며 회원국 대표들과 친목을 도모하였다. 학생들도 참여하여 같이 식사를 하였는데 우리 학생들이 타국

젊은세대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건축인들이 화합, 친목을 도모하며 정보 교환을 통해 자기발전을 시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또 한가지 대한 건축사 협회가 추진한 일련의 사업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추세에 발 맞추어 건축법 및 건축행정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모아진다. 그것들은 건축행정에 관한 토론회 개최와 건축법령연구소의 발족을 위시해서 건축관계 제법을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금강간 국회를 통해서 본 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리라고 확신한다. 이 개정의 목표는 전문 건축인의 이익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축환경을 창조하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제도적 상치를 올바르게 갖추어

놓자는 것이다.

근래에 정보화 물결이 우리 사회에 불어닥쳐서 각부문에 컴퓨터의 응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건축사들의 업무 관점에서도 설계 및 기획·운영면에 컴퓨터의 도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협회에서도 이에 관한 조직적인 정보교환, 자료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회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협회에서 해마다 정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및 행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각하였다.

Work Group의장들에 의한 전술한 3개의 Work Group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경비 및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더 조직적으로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Workshop형태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건강한 모습을 보니 안심되었다.

중국대표들에게 우리 협회의 관심을 표명하고 작년 서울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여러번 통신을 통해 참가를 권유한 미를 상기시키며 그때 참석 안한 것을 우리 협회에서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의사를 전하니 그들의 가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참석못했다고 전하면서 두 협회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을 다짐했다.

3. 아카시아 포럼(ARCASIA FORUM)

포럼은 토론회와는 달리 동등한 비중을 가지는 발표자들이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청중들도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에 참여하여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약간의 비형식적인 토의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제5차 아카시아 포럼의 첫날인 21일에는 4명의 연사가 발표하고 청중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둘째날인 22일에는 연사 및 청중들이 모두 자리를 같이하여 사회자의 주제 아래 토의를 하는 것이었다. (표-3 참조) 이번 주제는 태국측 포럼 진행 책임자 Ronald Poon이 협의하여 '건축에 있어 사색을 위한 양식'(Food for thought in Architecture)로 하였다. 주제 자체가 특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발표자들의 발표내용과 청중들의 발언 및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내용이 모아져야 하는 일반적인 주제라 하겠다.

Forum이 개최된 곳은 방콕 시내에 있는 Chulalongkorn 대학의 강당이었는데 남국 특유의 식목군림과 태국전통 양식을 현대건물에 표현한 대학의 환경이 눈에 띄었다. 동시통역이 없었어서 그런지 태국 건축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도 같이 참석하게 되었다. 첫 연사는 3chulalongkorn 대학교 미술대학장인 Surapone Virulrak 박사었는데 내용은 주로 도시화, 산업화와 더불어 태국의 도시와 농촌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생활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개관하였다. 이러한 것은 아시아 각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도시산업화에 따른 물문화적 건축환경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오랜 문화적 전통속에 축적된 그 지역의 삶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해답을 생각없이 새로운 물결속에 흘러버리고 표류하는 건축문화의 상황은 난의 예기가 아닌 바로 우리사회의 일면이기도 하다 싶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대안없이 그냥 가치중립적인 현상의 묘사가 발표 내용이었다. 내용에 대해 공통관심사의 의견교환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다음날의 토론헬에 그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함으로써 더이상 깊이 있는 토의가 계속될 수 없었다.

두번째 연사 Dr. Chua Bing Wah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젊은 사회학사인데 건축환경과 삶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세계 건축계의 조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관할 수 있는 견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이 즈음에 많은 도전받고 있는 근대주의 및 근대성의 연원을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에서 비롯한 이성주의와 법적 평등성의 확보 및 개인주의의 보편화에서 찾고자 했다. 서구의 근대주의가 따라서 지식의 축적과 인간의 평등성 및 자기표현의 적법성에 기초를 두는 한 과도한 이성주의에의 집착은 결과적으로 문화의 다의성을 부정하게 되기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근대주의에 반기를 든 현재의 세계건축의 조류는 과도한 개인주의의 한계를 모르는 자기표현의 극대화로서 오히려 비판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근대주의의 편향성을 다른 방향으로 극대화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서구 개인주의와 자기표현의 극대화에서 새로운 시대의 건축의 향방을 찾고자 하기보다는 동양문화의 전체성에 귀의함으로써 균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다.

Dr. Chua Bing Wah는 서구 개인주의와 자기표현의 극대화에서 새로운 시대의 건축의 향방을 찾고자 하기보다는 동양문화의 전체성에 귀의함으로써 균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학자로서의 Dr. Chua의 견해는 건축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그러나 동일한 견해라도 그가 강연 전반부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인 대비에 따라 한쪽을 비판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라면 결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보편의 가치에 닿지 못할 것이다. 농과 서라는 기준은 지구상 인류역사의 한정된 지역과 시간에서 발생했던 문화교차를 보는 인위적인 이해의 틀일 뿐이며 문화현상을 설명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동·서 구분의 위험성을 나의 의견으로 제시했다 세계 건축가 협의장 Rod Hackney씨도 지금 세계 건축의 과제는 동서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의 문제 즉 지역간의 가진 차와 갖지 못한 차의 문제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다. Hackney씨의 반응을 들으며 남북문제도 인간보편성의 발로로서 이해하지 않는 한 표피적인 현상과악에 머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세번째 발표자는 일본 동경대학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일본의 원로 건축가인 Maki씨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동경시의 변모와 일본건축의 대강을 설명하고 그가 소년기에 경험했던 일본에 수입된 서구건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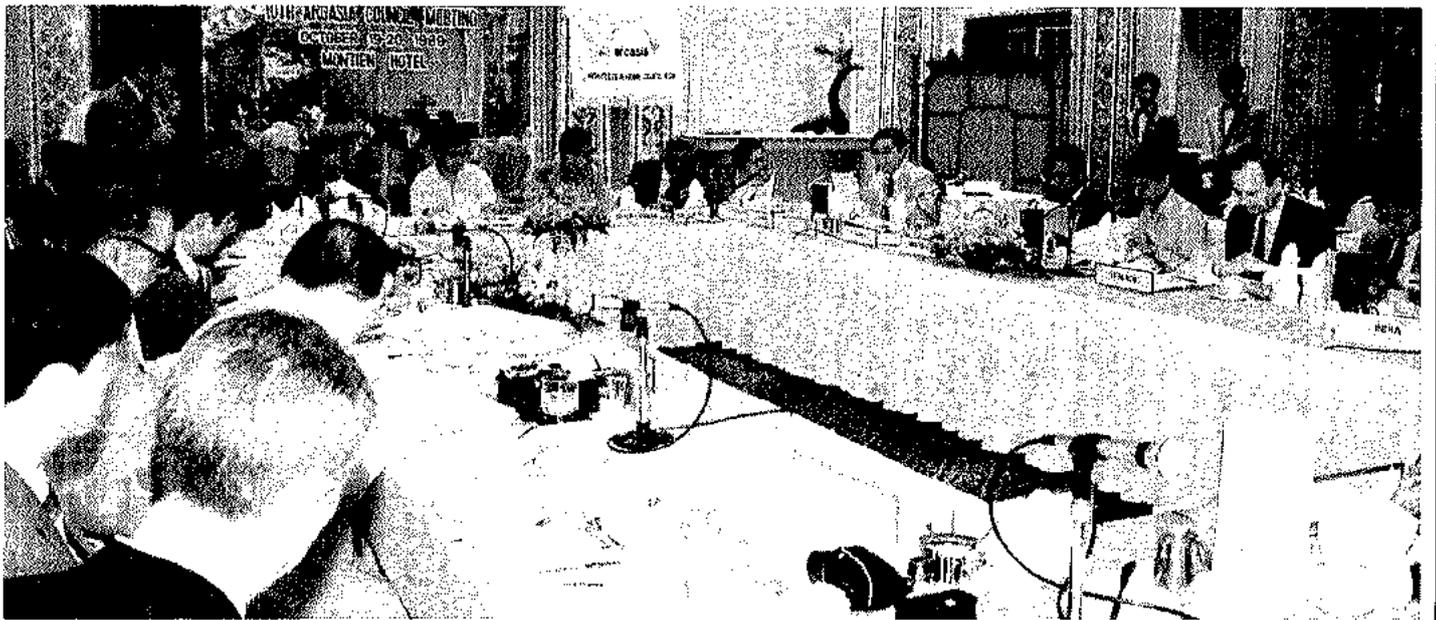
일본의 원로건축가인 Maki씨는 현대의 기술과 재료를 구사하면서도 전래의 공예적기법(Craftsmanship)과 비례감각을 구사함으로써 개성있고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해 되돌아 보았다. 후반부에는 자신의 최근의 작품 4편을 설명해주었으며 2차대전 직후의 시기부터 지금까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의 인간생활에의 침투를 건축인들이 외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응용한 이전의 건축에서 볼 수 없었던 가벼움이 건축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현대의 기술과 재료를 구사하면서도 전래의 공예적기법(Craftsmanship)과 비례감각을 구사함으로써 개성있고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였다. 이러한 언급은 현 시대를 대하는 건축가로서의 자신의 태도이자 자신의 작품의 경향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듯 하다.

네번째 발표자는 홍콩의 젊은 건축가 Rocco Yim으로 그는 파리의 바스티유 오페라 국제 현상설계에서 우수작으로 입선했으며 근간에 실시되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국제 현상설계에서 500여 응모자중 유일하게 동양인으로서 가작에 입선한 경력을 가진만큼 앞날이 주시되는 건축가라 할 수 있겠다. 그의 강연 요지는 근대주의와 또는 어떤 이즘보다는 현대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현대를 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최우선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건축이 건축가들의 知的능에 그칠 수 없으며 건축물을 건축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그 건축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속에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매우 공감이가는 얘기였다. 그의 작품설명을 들으며 과연 설계과정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참여되는 건축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것은 모든 건축인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다섯번째 강연을 할 예정이었던 인도의 Doshi씨가 사정상 오지 못해 취소되었고 다음날 발표자들과 청중이 동시에 토론을 벌이는 Forum Discussion만 남기고 일정의 막을 내렸다.

Forum Discussion의 장소는 전날의 강당 후면에 위치한 아담한 회의장이었는데 Dr. Kenneth Yeang이 사회를 진행하고 Dr.Chua, Maki씨 및 홍콩의 Yim 씨가 둘러앉고 어제보다는 숫자가 줄어든 청중이 병 둘러앉았다. 주로 사회학자인 Chua씨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어제의 논의와 일관하게 유행적인 지역주의와 지나친 다양화에 대한 현장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일정 수준의 인구밀도가 커뮤니티를 커뮤니티답게 한다는 가설에 대해 회의를 나타냈다. 과밀한 현대의 집합주거 형식에서 사람들은 내부공간에 그들 문화가 간직한 상징성을 생활의 편리성과는 상관없이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가구의 비치나 향 및 중심의 문제등을 예로 들었다.

Maki씨는 건축의 문화적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전통에 뿌리를 둔 그 사회 사람들의 집단적인 기억이 어떤 상징을 표출해 내는 속에 구현된다는 견해였으며 건축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집단적인 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다.

Rocco Yim씨는 건축을 인위적으로 분류해 내는 기술용어들은 건축과정의 목표로서의 종착점이 아니고 건축의 시발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4. 태국건축사협회 행사

태국 협회는 본 행사를 통해 방문자들에게 보여주려고 27지를 기획하였는데 그들의 연례행사인 건축전시회와 새로 탄생한 건축사를 환영하는 파티였다. 건축전시회는 태국의 주요 건축설계사무소의 작품들과 태국의 대학생들의 우수작품들이었다. 많은 비용과 정성이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서구의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아도 받아들이는 문화와 인문지리의 차이가 우리와는 다른 감각의 건축물을 낳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지역주의가 좋으나 나쁘니 부르짖지 않아도 그렇게 되거나 그런가 보다. 학생들 작품에 창의성에 많이 보였으며 우리나라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보다 참신해 보였다. 우리 학생들보다 능력이 우수해서라기 보다는 건축교육이 우리쪽보다

더 알차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Forum 시작 첫째날 저녁에는 태국건축사협회에서 새로 탄생된 건축사들을 축하할겸 단합대회겸해서 '꽃과 지팡이'라는 주제로 파티하는 장소에 안내되어 갔다. 가족을 동반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주제에 따라 재미있는 옷과 괴상한 장식 꽃들로 치장한 차림들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했다. 음악과 경매 흥동이 어우러졌다. 나도 생전 처음 한복을 입고 갔다. 역시 한복은 여자가 입어야 그럴듯 한것 같다. 우리 여학생이 한복을 입고 나와 만장의 감탄사를 받는 것을 기대했는데 부끄러워서 그런지 숙소에 놓고 온 모양이라서 아쉬웠다. 이 행사의 절정은 전등을 다 끄고 남녀노소 모두 초롱불을 들고 합창하며 우리의 연등행렬처럼 행렬하는 것이었다. 건축인들의 단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으며 가장 부러운 대목이었다. 이러한 건축인들의 단합과 화합은 건축문화 발전을 약속해 주는듯 하다. 허구많은 주장과 고매한 지식과 이론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 아닌가 싶었다.

**홍콩의 젊은 건축가 Rocco Yim의 강연요지는
근대주의와 또는 어떤
이즘보다는 현대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현대를 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최우선
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것이였다.**



5. 돌아오는 길에

(표 1) 제10차 이사회의 순서

10th ARCASIA Council Meeting
19th-20th October, 1989
Bangkok, Thailand

각국의 대표들과 태국의 수고한 분들에게 작별인사를 건넸다. 회의 및 행사 일정에 쫓기느라 호텔 근처 100m 정도 밖에 구경을 못해서 포름이 끝난 오후에는 시내에 나가 조출한 쇼핑을 하고 지나나가 눈에 띄이는 건물들 사진을 몇개 썩었다. 저녁에는 학생들과 합류해서 마침 이곳을 방문한 회원들과 같이 모처럼 한식집에서 된장찌개와 김치로 저녁을 먹었다. 다음날 아침 새벽에 다시 학생들과 합류해서 우리 일행은 공항으로 직행했다. 우리 학생들을 배웅하러 온 태국학생들이 섭섭한 모양이다. 비행기 속에서 학생과 옆자리에 앉게되어 학생들의 눈으로 본 태국의 건축교육 및 다른나라들의 건축교육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세대의 학생들을 선발해 좋은 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협회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절점이라고 생각해 된다. 그들이 바로 10년후에는 협회 회원이되고 우리나라 건축을 만들어 가는 담당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회의 자체는 실무적이고 공식적인 것이니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졌다 하지만 포름이라던가 토론회등은 필수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남의 것을 배우고 우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건축문화를 살찌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속에 건축인들이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의견교환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비판도 받고 하는 공동의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다. 그러므로 건축인들이 스스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되며 서로 일개위 주께 되리라고 본다.

협회는 전국 건축사 대회를 이러한 움직임의 촉매제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화합과 공동적인 의견교환의 자리를 더욱 많이 마련하도록 해야 배려 할 것 같다.

AGENDA

1.0	Introduction	
1.1	Welcome Speech by Host-Chairperson Forum-5	Ms. Apsorn Kurmaroita
2	Chairman's Opening remarks	Mr. Rusi Khambatta
2.0	Agenda	
2.1	Addition / Alteration to Agenda	Mr. N. Badheka
3.0	Minutes of 9th Council Meeting in Seoul 1988	
3.1	Review and Corrections	Delegates
3.2	Adoption of Minutes	
3.3	Matters Arising	
4.0	Hon. Treasurer's Report	Ms. Meera Deobhakta
5.0	National Reports	Presidents / Delegates
6.0	Arcasis - Bye - laws	Mr.Syed Akeel Bilgrami
7.0	Acrasia-Report of practice Working Group	Dato Kington Loo
8.0	Arcasia-Report of outreach Programme Group	Mr. Tay Kheng Soon
9.0	Arcasia-Report Architect / Selection Working Group	Mr.Songkoon Atthakor
10.0	ARCasia-National Project Reports	Presidents / Delegates
11.0	Arcasia-Awards	Mr. Shirish Deshpande Mr. Zaigham Jaffery Mr.Songkoon Atthakor
12.0	Arcasia-Think Tank	Mr.Zaigham Jaffery
13.0	Membership	Mr. Rusi Khambatta
14.0	Enlarging / Extending Arcasia Activities / inter-relations and role of Arcasia with Asian Nation	Ms. Apsorn Kurmarohita Delegates
15.0	Register of delegates to Council from 1st to 10th Meeting-Preparation	Mr. Rusi Khambatta
16.0	Arcasia Momento	Mr. Rusi Khambatta
17.0	Miscellaneous - Pamphlets - Chains - Souvenirs - Flags - Newsletters	Delegates
18.0	A.G.A.E. Report	Mr. Shirish Deshaonde
19.0	Formulation of Norms for Congres / Forum	Delegates
20.0	A.C.A. - 4 formal invitation	mr. Madhav Deobhakta
20.2	Theme	
21.0	Venue / Dates for Next Council Meeting	
22.0	Any other matter with permission of the Chair.	



〈표 2〉 제5차 아카시아 포럼 프로그램

Session 1 (Session Chairman: Ronald Poon)		16:10-16:30	- Questions
09:30-10:10	- Paper 1 by Dr. Surapol Virulak, Thailand	16:30-17:00	- Coffee Break
10:10-10:30	- Questions		
10:30-11:00	- Coffee Break		
11:00-11:40	- Paper 2 by Dr. Chua Bing Wah, Singapore		
11:40-12:00	- Questions		
12:00-12:40	- Paper 3 by Prof. Fumihiko Maki, Japan		
12:40-13:00	- Questions		
13:00-14:30	- Lunch at Sala Phra Keow		
14:30-15:10	- Paper 4 by Mr. Rocco Yim, HongKong		
15:10-15:30	- Questions		
15:30-16:10	- Paper 5 by Mr. B. V. Doshi, India		
		October 22nd, 1989.	
		Session 2 (Session Chairman: Dr. Kenneth Yeang)	
		09:00-09:10	- Introduction by Session Chairman
		09:10-12:30	- Forum discussion
		12:30-14:00	- Lunch at Sala Phra Keow
		14:00-16:00	- Forum discussion
		16:00-16:19	- Closing remarks
		16:10-17:00	- Coffee Break

〈표 3〉 제10차 이사회 및 제5회 아카시아 포럼 프로그램

PROGRAMME				
	COUNCIL MEETING		FORUM	
	18th October 1989 Wednesday	19th October 1989 Thursday	20th October 1989 Friday	21th October 1989 Saturday
		Day-1	Day-2	Day-3
Arrival Registration		ASA Opening Ceremony and visit to ASA Exhibition Central Plaza Hotel	Council Meeting Montien Hotel	Forum Workshop Chulalongkorn University
Working Group Meeting - Practice Working Group - Architects Selection Working Group - Reach out Working Group		ACAE/Field study of city - walk around and visit Sampeng and Pahurat districts	ACAE-Tour of Chulalongkorn University Archives, Main University library and Students Union Building	Keynote Speaker Chulalongkorn University
			COFFEE BREAK	COFFEE BREAK
		Council Meeting Montien Hotel	Council Meeting Montien Hotel	Guest Speaker Chulalongkorn University
		LUNCH	LUNCH	LUNCH
Meeting with O.C. and ARCASIA Council		Council Meeting Montien Hotel	Council Meeting Montien Hotel	Open Discussion Chulalongkorn University
		ACAE-Visit to Parg-Klong Talad area, Grand Palace and Temple of Emerald Buddha	ACAE Design Projects	Guest Speaker Chulalongkorn University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uncil Meeting Montien Hotel	Council Meeting Montien Hotel	Discussion Chulalongkorn University
		Welcome Reception Cultural Education Centre (Ruen Thai)	River Cruise & Dinner (US\$ 10.- per person for Students)	Dinner at Montien Hotel. "ASA Fellowship Night" Central Plaza Hotel
				Closing Remarks of the 10th ARCASIA and Forum 5 Chulalongkorn University
				DEPARTURES



ACAE 회의를 참관하고

金知德 / 본 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1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회 아카시아건축교육위원회(ACAE)회의가 중국을 비롯한 10개국의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본 협회에서는 송기덕 회장을 비롯하여 이정근 박사와 필자, 그리고 학생 대표 2명(이병구, 박현선)이 참석하였습니다.

ACAE 회장인 S.A.Deshpande 교수(인도)의 주재하에 개최된 본 회의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ACAE 회의록 검토에 이어 ACAE의 장래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아카시아 건축학생 챔버리 대회 개최에 따른 여러가지 안건들이 토론되었습니다. 특히 ACAE 회장은 앞으로 개최될 ACA-4(인도)대회와 ACA-5(파키스탄)대회시 병행 개최되는 ACAE 회의 및 아카시아 건축학생 챔버리 대회의 운영 지침으로 참고자 지난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ACA-3 대회의 결과 보고서를 송부 요청하였으며, 아카시아 예산의 15% 집행하고 있는 아카시아 건축학생 챔버리 대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각 국 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의 장래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건축사 협회(SLIA)는 아시아건축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Asian Architectural Publication, ICAAP)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본 안건을 아카시아 이사회에 상정함은 물론 각 회원국 협회에서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출판사업 예산 지원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콩 건축사 협회(HKIA)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건축관련대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90.9-10.5일까지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ARCASIA)의 후원 아래 인도건축사협회(Indian Institute of

금번 토론회의 기본 목적은 아시아 지역의 환경에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의 건축사들이 토론회를 통해 대회 주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도출함으로써 그들의 감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Architects. IIA)가 주최하는 제4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ACA-4) 및 제3회 아카시아 건축 학생 챔버리 대회가 인도에서 '건축과 환경'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 주제 '건축과 환경'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21세기로 향한 힘찬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세기 동안 아시아 대륙은 급진적인 변혁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혁명을 통한 현대화의 물결에 따라 아시아의 대륙은 산업화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아시아의 전통적인 문화는 복잡한 변화 과정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아시아의 대륙이 급진적이고 고도로 성장된 도시화의 과정을 진행함에 따라 시골의 주거 양식은 이러한 도시화의 현상에 비해 뒤떨어지게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방대한 지역의 시골과 지방이 미개발된 오지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 구조상의 불평등한

보급때문에 무주택 문제는 여전히 도시나 시골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건전하고 무감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환경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생태학적으로도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구 분제와 천연 자원의 고갈 문제, 그리고 서민 주거지의 부족 문제 등은 건축사의 합리적인 설계와 운영 등을 통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건축과 환경이라는 주제는 학술적인 토론회에서 더 이상 외면되거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되며 건축사들에 의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토론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제4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는 건축과 환경이라는 주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는 가장 넓은 대륙으로서 다양한 주거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건축적 전통과 주거 양식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급작스런 서구화의 물결로 인해 아시아의 문화적 유산은 위태롭게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시골과 도시, 지방등의 건축 환경이 많은 차이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4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의 주제를 다음과 같은 주제로 분류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1. 건축과 환경(시골)
2. 건축과 환경(도시)
3. 건축과 환경(지방)

금번 대회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 볼때 지난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의 주제인 '공동 사회를 위한 건축'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번 토론회의 기본 목적은 아시아 지역의 환경에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의 건축사들이 토론회를 통해 대회 주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도출함으로써 그들의 감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Bangkok 건축 학생 잼보리

박현선, 이병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3학년

우리는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 3회 ARCASIA 건축학생 잼보리에 참가하기 위해 FORUM에 참가하시는 송기덕 회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인솔하에 18일, 5박 6일 간의 여정에 올랐다. 가기 전에는 무척 더울 것이라는 주위 분들의 이야기에 아주 간편한 복장만으로 짐을 꾸려 갔지만 생각만큼 무더운 날씨는 아니었다. 단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기에 습하고 끈끈함을 참아야 했던 것이 조금 불편하였을 뿐 다른 불편한 점은 거의 없다시피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태국의 학생들 뿐 아니라 지도 선생님들의 친절함으로 아주 수월하고 인상깊은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 갈 때는 ARCASIA 회원국 13개국에서 거의 다 학생들이 참가할 줄 알았지만 우리들과 홍콩에서 온 두 학생만이 참가한 것이 못내 이쉽게 느껴진다. 우리는 방콕에 18일 오후 도착하여 회장님 일행과 함께 Montien Hotel로 가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방콕의 학생들과 인사를 한 후, 학생들이 묵을 숙소인 Chulalongkorn 대학 내에 있는 SASA International House로 가서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었다. 그리곤 자유 시간을 가진 우리는 방콕의 시가지를 구경하기 위해 시가지로 나섰다. 시가지 구경을 잠시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만난 소나기에 흠뻑 젖어 들어와야 그 때가 Rainy Season(우기)이고 그래서 태국 학교들이 방학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날인 19일부터 학생들의 단체 행동은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홍콩의 두 학생과 태국 학생 20여명과 함께 지도선생님들의 인솔하에 방콕의 유명한 사찰들과 궁전, 거리, 시장의 모습 등을 하루 종일 둘러 보았다. 오전에는 Marble Temple과 WAT PHO라는 사찰을



- ① 잼보리 참가학생들 (Grand Palace에서)
- ② 잼보리 지도교수와 함께한 환영연회
- ③ 이번 잼보리 대회에는 태국학생 이외에는 홍콩과 우리나라 대표만이 참석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둘러본 후 강변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태국 음식으로 요기를 하고 오후에는 Grand Palace를 둘러보았다. 방콕의 사찰과 궁전의 한결같은 특징은 박공지붕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지붕이 서너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것과 우리나라의 절이나 궁궐과는 달리 금빛으로 많은 장식을 한 화려함과 함께 하늘로 솟아 오르는 듯한 형상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날씨가 흐리고 간간히 비까지 왔기에 화려한 분위기의 사찰과 궁전을 사진에 담기에 힘들었다.

관광을 하고난 후 저녁 때에는 태국의 건축가들과 학생들의 설계 작품을 전시하는 곳에 구경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Presentation하는 방법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도면이나 Concept보다는 투시도나 모델에 많은 신경을 쓰는 듯 하였다. 투시도나 모델의 표현기법이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서 아주 인상깊은 전시회였다.

2일에는 Sketch & Design이라는 작업을 Chulalongkorn 대학의 건축과 작업실에서 하게 되었다. 주제는 'First Impression of Bangkok' 이라는 것으로 방콕에 처음 와서 느낀 인상을 A2 사이즈의 크기에 표현을 하는 것이었다. 오전 10시 부터 4시까지 6시간 동안 Presentation을 끝내고 전시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Sketch & Design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생소한 것이어서 많이 당황을 하였으나 태국 학생들은 처음부터 펜과 물감등의 도구로 쉽게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였다. 홍콩 학생들 역시 이러한 입장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국에서도 해보았던 일이라며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설계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인식한 후 자료수집, Site분석 등을 해나가며 Concept를 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식의 방법에만 익숙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방법으로 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아 전날 보았던 태국의 전통 건축 등을 그 나라의 기온, 날씨, 지형 등의 자연 환경과



불교를 숭상하고 왕조를 숭배하는 인문 환경과 연관이어 전통 건축을 분석하여 Concept를 정하고 전통건축과 우리의 느낌을 분석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자니 Concept를 정하는 단계에서 부터 많은 토론이 필요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모자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후 5시 부터는 ARCASIA FORUM에 참석한 세계각국의 회원들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며 식사하는 스케줄이 있었기

**이번 방콕 학생 캠프에서는
비록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준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도 보다 넓은 견문을
가지고 세계를 향한 시각으로
건축을 공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때문에 부득이 우리는 다음날 아침까지로 제출하는 것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오후 6시 쯤 유람선에 올라 멋진 식사와 함께 각국에서 온 건축가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었고 태국의 많은 학생들과 대화와 오락등을 통하여 국적을 초월한 친분을 맺을 수가 있었다. 유람선 안에서 본 태국의 밤풍경은 열대지방에서 풍기는 독특한 매력을 맛보게도 해주었고, 발전해가고 있는 도시로서의 방콕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었다. 흠뻑 밤의 정취에 젖어 있을 무렵 유람도 끝나고 우리는 다시 Sketch & Design을 하기 위해 밤을 세워야만 했다.

21일 아침 우리가 한 작품을 제출하고 나서야 태국 학생들과 홍콩 학생들의 작품을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태국 학생들의 작품을 보니 방콕의 풍경을 만화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등 마치 방콕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건축적이기 보다는 미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홍콩 학생들의 작품은 많은 생각을 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듯 깊은 뜻을 포함한 것처럼 느껴졌다. 태국에서는 모든 설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Sketch & Design을 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디자인



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한 후 거기서 수정을 해나가며 설계를 한다고 하였고 홍콩에서는 설계를 할 때 특히 Office Building 같은 것은 기존 설계 사무소의 실무자들과 Work-Shop의 형식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건축과 학부의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1년이 긴 5년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5년의 기간을 통해 좀 더 많은 것을 여러 각도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는 것 같았다. 여하튼 5일간의 일정 중에 Sketch &

Design이라는 작업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느끼게 하여 주었고, 배우게 해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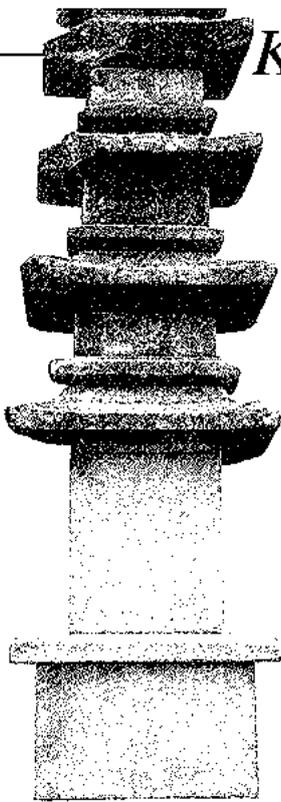
우리는 작품을 제출한 후 'Food for Thought'이라는 주제로 열린 Forum에 참석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전반적인 건축에 관한 문제점들과 나아가 할 방향 등에 대해 각국에서 준비해 온 의견을 발표하고 질문을 받는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기성 건축가들의 토론이라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청청을 하였다. 오후까지 계속된 Forum이 끝난 후 학생들과 Forum에 참석한 회원들, 그리고 방콕의 여러 건축가들, 건축과 학생들, 교수님들과 그 가족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ARCASIA Forum의 마지막 날 밤을 기념하는 Fellowship Night라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게 되었다. 태국의 전통을 나타내주는 여러 공연이 이어지고 중간중간 Disco Time도 곁들여져 모든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어 흥과 열기는 더해갔고 건축의 정상을 상징하는 등불을 켜서 모두 하나가 되어 연회장을 한바퀴 돌 때 열기는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 그 후 계속되는 노래와 춤은 모든 사람을 국적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Forum의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Forum을 총결산하는 회의에 학생들은 견학의 형식으로 참석하여 회의의 내용에 귀를 기울인 후 점심 식사 시간과 함께 서로 헤어져야 할 시간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방콕의 Chulalongkorn 대학에 한국의 건축(Architecture in Korea)라는 책자를 선물로 주었고 그 답례로 태국의 건축을 소개하는 책자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홍콩, 태국의 학생들이 서로 기념품등을 주고 받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난 후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었다. 비록 짧은 영어 실력들을 가지고 충분한 의사소통은 할 수 없었지만 태국 학생들의 진심어린 친절함과 건축에 대한 진지함은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우정과 건축학도로서의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방콕 학생 캠프에는 비록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준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도 보다 넓은 견문을 가지고 세계를 향한 시각으로 건축을 공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5박 6일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송기덕 회장님과 이정근 박사님, 김지덕 국제위원장께 감사사를 드린다.



高麗시대의 건축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Korea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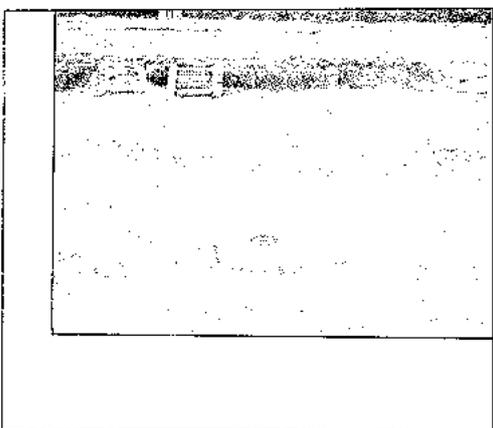
3. 高麗의 寺刹建築

우리나라의 불교미술이 통일신라시대에 가장 고졸한 정수를 이루기는 했지만 토속적이고 범국민적인 종교로서의 불교가 성행한 것은 고려시대에서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는 道敎의 요소와 風水圖讖思想 또 사아만의 토속적인 신앙 등의 불교와 서로 융화하여 왕가(王家)와 귀족불교를 이루면서 민간신앙으로서도 뿌리를 깊게 내린 것이다. 한편 이 시대는 大覺國師에 의한 禪敎를 겸한 天台宗의 일어남은 불교계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고 가람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믿어진다.

고려태조 왕건은 後三國시대 분열기에 국내세력을 통합하여 건국을 함에 이리한 대업을 이룩한 것이 오직 불법의 가호에 의한 것으로 믿어 그의 만년에 소위 訓要十條를 선포하여 나라를 이끄는 데 귀감이 되도록 유언을 했는데 그 중 第1條와 2條가 불교정책과 연관된 것이었다. 즉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 국가의 大業은 반드시 여러 부처의 가호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禪敎寺院을 짓고 주지를 보내어 분향수업하여 도를 닦아 業을 다스리게 하여 후세에 간신배가 정권을 잡아 僧의 講과 간함을 따른다면 寺社가 서로 다투어 빼앗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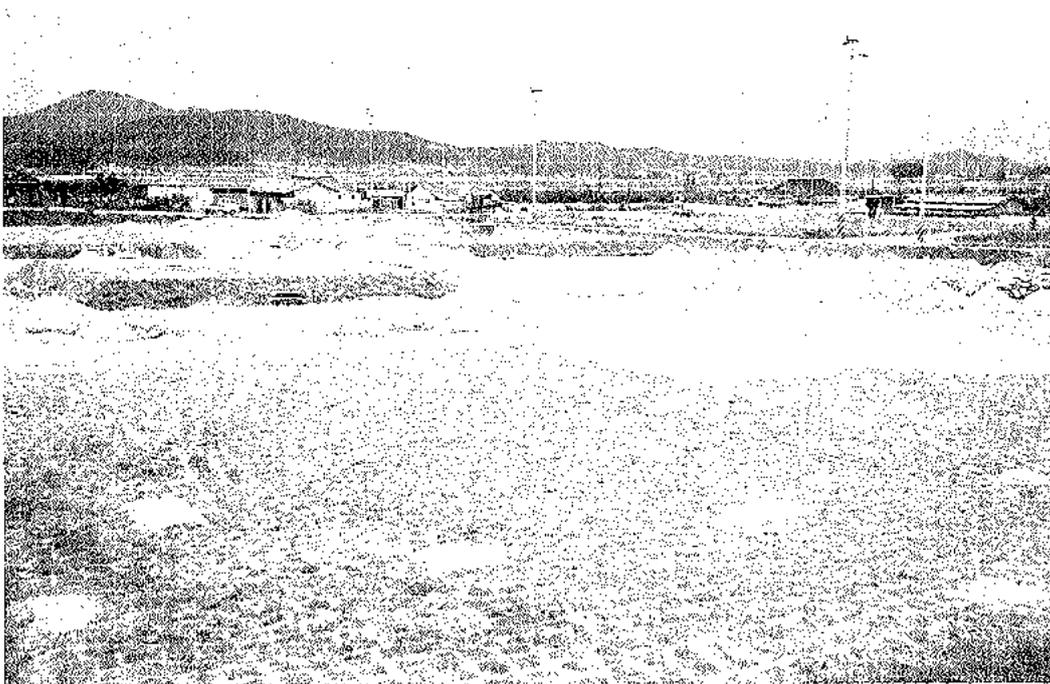
빼앗기고 할 것이니 이는 금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¹⁾ 제2조에는 「모든 寺院은 모두 道說禪師가 그 山水의 순역을 추점하여 개창한 것인데 道說이 이르기를 ‘내가 점정한 바 이외에 함부로 더 사원을 창조하면 地德을 꺾어 왕업이 길지 못할 것이다’라 했으니 잠은 염려하건데 후세에 국왕, 公侯, 朝臣 등이 각기 願堂이라 칭하여 혹 더 창조할까 매우 걱정된다. 신라말에 다투어 절과 탑 등을 짓다가 지덕을 쇠하게 하여 亡함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를 경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여 불교에 대한 지극한 정책과 풍수지리설의 존중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또 태조는 이르기 「옛적에 신라는 9층탑(황룡사)을 세워 드디어 통일의 업을 달성하였다. 지금 나도 開京에 7층탑을, 西京에 9층탑을 건조하여 신통력을 빌어 兇群을 제거하고 삼국을 합하여 일가를 삼고자 하니 그대는 나를 위하여 발원문을 지으라」고 하여²⁾ 佛力으로서 국토통일을 이루려 했다. 따라서 개경 안의 法莊, 王輪 등 10寺와 廣明, 興國, 普濟, 智妙, 龜山, 開國 등의 名刹은 모두 태조의 창건으로 개경을 佛敎都市化하였다.

이리하여 7대의 왕과 신하들은 태조의 뜻을 받들어 불교를 깊이 신봉하게 되었고 王家나 귀족에게 세 아들이 있으면 그중 한 사람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여 실제로 많은



- ① 萬福寺址 五層 石塔
 - ② 萬福寺址 木塔址
 - ③ 萬福寺址 진경
 - ④ 興德寺址 推定 伽藍配圖
- (‘86 淸州 興德寺址 學術會議 報告書에서 전재)

張慶浩
문화재 연구소장
by Chang, Kuyug-Ho



3

왕족들이 짊어 되어 大覺國師와 같은 유명한 승도 탄생되었다. 『宋史』에 「고려왕성에는 70區의 佛寺가 있다」고 하였고 또 『高麗圖經』에도 「왕성에 긴 行閣의 每10間 장막에 불상을 보시었다」등의 기록이 있어 당시 창사의 성행을 짐작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제4대 광종은 佛日寺를 조성하였고 제11대 문종은 興王寺를 창건하고 金塔을 세웠다.

한편 僧制를 보면 광종때 僧科制가 마련되어 합격하면 法階를 주었는데 처음에는 大選, 다음에는 大德, 大師, 重大師, 三重大師로 승진하며 그 후에는 종파에 따라 敎宗 계통에는 道座, 僧通과 禪宗 계통에는 禪師와 大禪師를 주었다. 또 국가와 왕실의 고문인 國師와 王師의 제도가 있어 최고의 범계인 僧通 및 大禪師 중에서 추대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려 사찰가람에 대하여 논하면 전술했듯이 토속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가해져서 山神閣, 七成閣, 應眞殿, 靈山殿 등 불교 본연의 가람에서 벗어나 잡다한 건물의 배치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시대 伽藍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伽藍의 형성과 배치에 있어 地勢 또는 山勢에 調和되도록 하고 있어 風水圖讖思想을 존중하여 가람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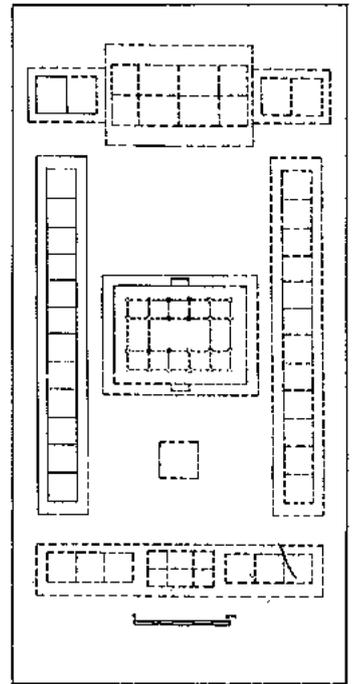
둘째, 一塔式 伽藍의 造成이 많은데 이것은 얼른 보면 백제의 전형적인 가람으로 남북축선상에 중문과 塔, 金堂, 講堂을 배열한 형식과 같으나 이와는 다음과 같은 다른 점이 있다.

1) 백제가람과 같이 一塔式의 單廓으로 된 것은 청주의 興德寺址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고 남원의 萬福寺址나 개성의 佛日寺址와 같이 복합적인 배치로 조성된다. 이것은 불교가람에 민간 전통신앙인 샤aman적 요소들이 가해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회랑이 백제의 경우처럼 중문과 강당을 통하여 좌우대칭으로 완전히 둘러지는 예가 드물고 만복사지와 같이 남회랑만 중문 양측에 둔다거나 佛日寺址와 같이 中央區와 西歐사이에만 두는 그런 자유로운 배치이다. 즉 배치에 있어 규범을 지키는 엄격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3) 一塔式이면서 益山 彌勒寺址 가람과 같이 中院과 東·西院을 두는 예가 前期 佛日寺址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二塔式 가람인 興王寺址에서도 볼 수 있어 백제 미륵사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통일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二塔式 가람도 있어 전술한 興王寺가 그 예가 되고 경우가 좀 나르기는 하지만 만복사지도 현존하는 5층 석탑이 후대의 것이라면 원래의 遺構인 목탑과 석탑지로



4

보아 2개의 탑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興王寺의 동·서 양탑은 八角의 목탑이었다는데서 특수가람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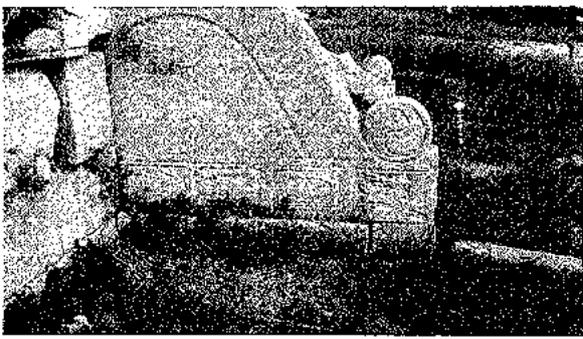
넷째, 경기도 檜岩寺址는 사역을 지형에 맞추어 段築을 여러 곳에 두어 가람을 형성하는 예로서 여기서는 탑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 境內 대형의 浮屠 만을 둔 無塔願堂일 수도 있다.

다섯째, 전기 남원 만복사는 西殿東塔式과 일탑식이 혼용된 가람을 보이고 또 개성의 萬福寺와 같이 東殿西塔式의 가람을 갖는 것 등도 있다.

여섯째, 中原 미륵사지와 같은 石窟寺院의 조성형식도 있는데 이것 역시 고려시대에 사용된 가람형식의 하나라는 것을 聖居山 晚日寺 등에서 알 수 있다. 이 석굴사원에서는 석굴 앞에 前室을 두어 이것이 금당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람의 특성을 가졌으나 그 근본은 삼국시대의 가람형식에 두고 있음을 말할 나위가 없다.

고려불교는 사원의 納田·納奴·免稅·免役 등의 온갖 혜택과 보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賣(재단) 또는 長生庫라는 금융조직을 형성, 부유기관으로 재산조직과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주어 재산의 도피와 부패를 불러 일으킨 원인이



5



6

되었다. 이같이 고려불교의 지나친 성황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폐해도 많아 도를 닦을 승려들이 재산에 욕심을 갖고 財利를 다루는 자가 많았고 또 많은 寺塔의 진조와 잦은 불교행사로 국가재정에 낭비가 심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노동력과 생산력이 감퇴되어 국력을 상실하였다. 더우기 묘청이나 신돈 같은 자는 정치에 야심을 갖고 사회를 어지럽히어 禪僧의 체면을 실추시키었고 불교 자체로도 말기에 와서는 析福佛教로 전락하여 迷信과 결부되어 무속·음양·도참 기타 잡술을 나타내는 면도 있었다. 이리하여 고려말기에는 불교가 識者인 儒學者들의 비난을 받게되고 排佛 운동이 일어나면서 儒·佛이 서로 갈등과 반목하게된 것이며 후에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불교는 국정으로 억제당한다.

1. 高麗時代 伽藍의 例

고려시대의 사찰로는 많은 사명이 기록되어 개경 근처에만도 60여개의 사찰이 있었음을 『高麗古都徵』에 수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遺址로서 불리우는 절터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50여개소가 넘는다. 이 중에서

주요寺址만 뽑아 간단히 소개한다.

1) 萬福寺址

전라북도 蔚原市 王亭洞에 위치한 이 사지는 북쪽에 낮은 麒麟山을 배산으로 남쪽 광활한 들을 향하여 가람을 이루고 있다. 경내에는 보물로 지정된 5층 석탑이 있고 그 북쪽에 좀 떨어져 신라말이나 고려초기의 것으로 믿어지는 석불입상이 지하에 깊이 묻혀 있었다. 또 이 석탑의 서편에 좀 떨어져 큰 金堂址가 표면에 보였고 건물중앙 후측에는 6각으로 된 석좌가 있었는데 이것이 금당의 불좌로 보인다. 이곳은 1979년 부터 전면적으로 발굴조사되어 주요 건물지가 발표된 바 있다. 또 가람의 남쪽에는 석불입상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돌경승과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그 밑은 당간이 세워질 수 있게 檀竿支柱의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찰의 연혁은 『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고려 文宗(1046~1083)때 창건되었는데 西殿東塔의 가람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龍城志』佛宇條에는 世傳으로 되었지만 신라말의 所建이란 설이 있음을 알리고 丁酉再亂으로 거의 다 燒盡되었음과 大雄殿·藥師殿·丈六殿·普應殿·靈山殿 天佛殿·羅漢殿·冥府殿 등의

건물명이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문집이나 기록에 만복사에 대한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만복사는 고려초에 창건되었다 하나 그 이전에도 이 위치에 오래된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속하는 瓦當과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현재 5층석탑 북쪽에 있는 석불입상 역시 통일신라말까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에 준다.

이 사지는 1979년부터 장기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서 가람의 성격이 밝혀졌다. 대체적인 가람의 배치로서 남쪽에서부터 中門과 木塔, 그리고 이 목탑 左·右 및 後側에 金堂이 놓이고 그 북측으로 講堂과 부속건물들이 있었던 유구가 노출되고 가람동쪽 5층석탑 남쪽 좀 떨어진 곳에도 통일신라식의 石塔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 동쪽에는 또다른 장방형의 건물지가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전체가람은 목탑을 중심으로 볼 때 3金堂 1塔式이라 할 수도 있고 또 東금당과 西금당의 건축 연대를 달리 본다면 기록과 같이 西殿東塔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연구를 거쳐 결론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지 중 유구와 초석이 잘 남아 있어 주칸의 복원도 가능한 것은 목탑지와 東·西·北 금당지로 볼 수 있다.

목탑지는 正·側面 5間으로 기단 위 중앙에 심초석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적심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심초석이 있었는데 도중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주칸은 약 1.8m이고 기단은 지대석과 면석 그리고 갑석으로 결구한 기단으로 전후 중앙부에 계단이 남아있고 기단 한 변의 길이는 약 13m의 정방형 평면을 하고 있다.

이 목탑지에서 서쪽으로 중심거리 약 26m 거리에 西금당지가 있는데 대체로 남향하여 정면이 3칸, 측면이 4칸인 內外陳의 礎石列를 잘 보이는 건물지로 기단은 역시 가구식으로 결구한 기단이고 기단의 규모는 동서 약 24.7m이고 남북 약 19.2m이다. 역시 기단 전후 중앙에는 계단지가 하나씩 있다. 주칸의 크기는 정면의 중앙 3칸은 4.35m이고 그 좌우칸은 3.78m로 당시의 營造尺으로 14尺과 12尺이 된다. 내전의 북동측에는 초석과 고약이 돌이 남아있는데 柱座와

하인방이 놓이는 곳의 물당은 통일신라시대의 것과 유사하나 턱이 높고 선이 굵은 것이 특이하다. 적심은 대형의 판석과 냇돌을 혼용하여 다지고 그 위에 초석을 놓게 한 것과 割石과 냇돌을 혼용한것, 또 냇돌만으로 적심을 이룬 것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판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다진 적심석의 형식은 익산 미륵사지에서도 보이는 백제계의 적심으로 추측된다. 또 기단 위에는 흙을 깔았는데 그 크기가 39cm×39cm×4cm와 39cm×12cm×4cm의 규격을 보인다. 건물지내 북편 중앙에는 6각형의 불좌대가 있어 이곳에 청동불을 안치하였던 자리이다. 이 금당지 앞에는 석등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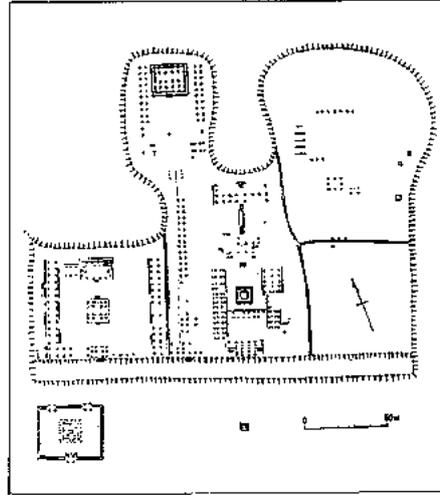
목탑지에서 북쪽으로 16.2m 중심거리에서 北금당지가 위치하는데 정면 5칸, 측면 4칸의 内外陳을 둔 건물지이다. 주칸은 정·측면 다같이 2.35m로 당시 사용 척도로서 7.5尺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금당지의 초석은 西금당지와는 달리 원형주좌에 통일신라식 물당을 두지 않고 주좌의 변죽을 거의 직선을 이루도록 斜切하여 익산 미륵사지의 백제계 초석과 유사하다 할 수 있지만 주좌의 운두가 높아 미륵사지 것과는 다르다.

기단의 규모는 동서가 16.2m, 남북이 13.8m인 비례를 보이고 기단의 높이는 약 1.2m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서측과 북측 기단석 내부 50cm 안쪽으로 瓦積의 기단이 노출되어 이것이 석기단보다 선행된 기단인지 차음부터 2층으로 쌓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기단내 내진초석 동북쪽에는 직경 약 1.4m의 원형 蓮華臺座가 있어 불상을 봉안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또 이 건물지 남쪽에서도 석등지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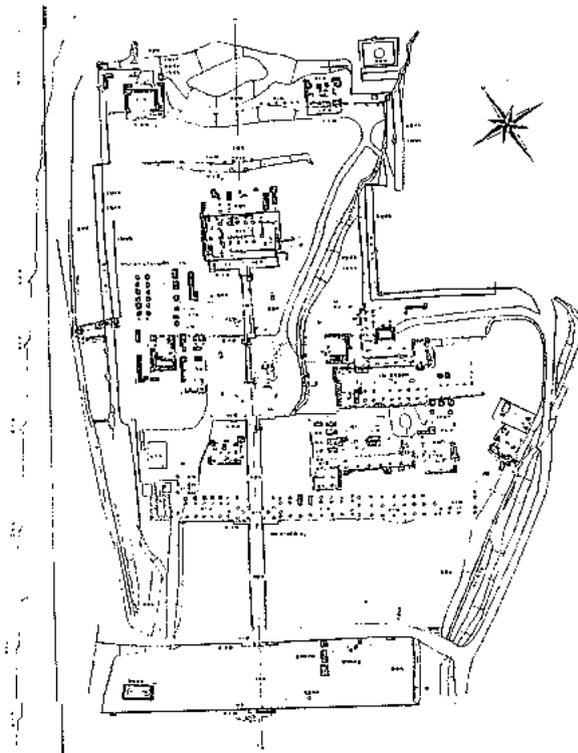
東금당지는 목탑지의 동쪽 중심거리 약 15.2m 되는 위치에서 노출되었다. 주칸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되어 중앙칸이 당시 영조척으로 15.5尺이고 양 협칸이 10.5尺으로 추정되었다. 기단의 규모는 동서 16.8m, 남북이 15.2m로서 거의 정방형에 가깝다. 기단의 지대석과 면석이 일부 잔존하여 石架構式 기단임을 알 수 있다. 기단의 남벽에 계단지가 있었다.

中門址는 목탑지 남쪽 중심거리 24/2m에 위치하는데 유구가 많이 유실되어 그 규모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발굴자는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강당지는 北금당지의 북쪽 약



36.7m에 중심거리를 두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유구가 잘 남아 있지 않고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한 성격을 알 수 없지만 정면이 7칸이고 측면이 5칸으로 추정되고 있다.



- ① 檜岩寺址 基壇과 石階
- ② 檜岩寺址 建物址礎石
- ③ 佛峙址 遺蹟配置圖 (朝鮮學報 113호에서 전제)
- ④ 檜岩寺址 遺蹟 配置圖(檜岩寺址 實測調査報告書에서 전제)
- ⑤ 中原郡 미륵사지 석불 및 석굴
- ⑥ 興王寺址 遺蹟配置圖(白性部 博士 頌壽記念 佛教學論文集中에서 전제)
- ⑦ 居頓寺址 遺蹟配置圖(居頓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報告書에서 전제)
- ⑧ 萬福寺址 推定伽藍 配置圖(萬福寺 發掘調査報告書에서 전제)

2) 興王寺址

흥왕사는 고려 문종이 1067년에 창건한 거찰이다.¹¹⁾

기록에 의하면 동왕 24년(1070년) 2월에는 慈氏殿을 신축하고 동년 6월에 흥왕사 주위에 성을 쌓았다. 동왕 32년 7월에 금탑을, 34년 6월에 석탑을 조성하였다. 이 절은 고려의 대가람으로도 중요하지만 대각국사 義天이 고려 續藏經 주조사업을 펼친 곳으로 우리 문화사의 중요한 장을 이룬 곳이다. 흥왕사지는 현재는 북한에 있어 가볼 수 없는 개풍군 봉동면 흥왕리에 있다.

이 사지의 조사는 1948년 국립박물관에서 5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조사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사지는 광활한데 중앙부 高臺에 있는 가람과 동·서 양측에 각각 평탄한 대지가 있어 중앙가람과 석축으로 구획된 가람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구획을 이룬 가람은 중심력을 이루며 남향하고 있다. 중앙구에는 북측에 거대한



규모의 강당지가 있고 그 앞의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있으며 남북축선상의 전방에는 석등지가 있고 그 양측에는 8각의 건물지(木塔址)가 놓이고 가람 전면에는 중문지가 있으며 이 중문과 강당지를 둘러싼 회랑지가 있다. 가람의 동원은 서원과 같이 석축으로 중원과 구획되어 있는데 그 남쪽에는 중원보다 작은 석축단과 중문지로 보이는 유구가 있고 그 중앙에 계단지가 추정되고 남편 중앙에 비교적 다수의 초석으로 된 건물지와 그 북편에도 건물지가 있다. 서원 역시 동원과 유사하게 남쪽에는 석축이 있고 그 안의 남쪽 중앙부에는 석탑지가 있으며 북쪽에는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심과 외에도 서쪽의 높은 지대와 그 남쪽에 독립된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배치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중원 북측 高臺와 동원의 동북측에도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 사역은 자극히 광대하였던 것 같다. 이곳의 석탑에 대하여는 金塔을 만들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석탑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미흡한 발굴조사로서는 기록에 나타난 내장전이나 자씨전이 어디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가람배치에 있어 익산의 미륵사와 같이 동·서·중원이 병렬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특이하다.

목탑지는 石造段築基壇을 쌓았는데 맨 아래에는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3단의

상대석을 쌓아 면석을 이루고 8면에 隅柱石을 배치했다. 이 8각 殿址의 一邊長은 5.69m로서 전폭이 12.73m이다. 또 이 목탑지 간의 주심거리는 63.5m라고 한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日暉文 와당과 치미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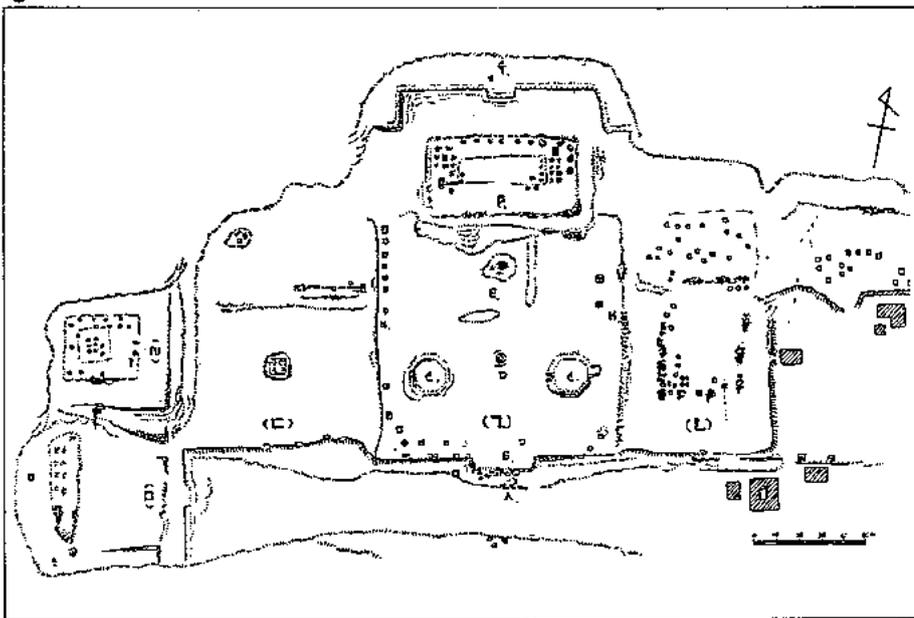
3) 佛日寺

『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불일사는 951년에 先妣인 劉氏의 願堂으로 창건했다고 한다. 사지는 현재 북쪽의 판문군 산적리 보봉산 남쪽 기슭 불일동에 위치한다. 비교적 넓은 대지상에 산을 배후로 하여 동남으로 펼쳐진 평지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따라 4km쯤 가면 華藏寺가 있고 남쪽에 작은 언덕을 넘어서면 고려 문종의 景陵이 있다. 사지의 발굴조사는 1959년에 실시하였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사지는 동서로 긴 장방형의 高臺地上에 있어 대지의 동·서변은 산 기슭에 접하여 있으며 동서 폭이 약 230m, 남북이 중앙구에서 115m이며 최북단 건물지까지는 175m였다. 대체적인 가람의 형성은 동서 방향으로 3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중 중앙구역의 가람이 가장 짜임새 있는 중심축을 이루며 이곳에 5층석탑이 놓여 있다.

중앙구역의 가람에는 남쪽에서부터 중문과 석탑, 금당 그리고 강당지가 남북 가람축선상에 놓이고 서쪽에는 금당지 중심에서 약 32m 떨어져 단랑으로 된 회랑지가 노출되었다. 이 회랑지 남단은

중문지와 횡축선상에 있는 또하나의 중문지(5칸×2칸)와 연결되고 그 북단은 강당지 부근에서 일단 끊기는데 강당지와 연결되는 북회랑지는 찾지 못하고 북쪽에 다른 구획을 이룬 동·서회랑을 갖는 건물지(5칸×5칸)가 확인되었다. 서편구역의 가람은 중앙구보다 낮게 놓였는데 여기서도 문지(3칸×2칸)와 4면회랑, 그리고 중앙에 3칸×3칸 규모의 정방형 건물지가 있으며 북쪽에 장방형 건물지가 회랑과 연결되어 있다. 이 西區의 가람 남쪽 門址로부터 약 75m 거리에 40m×32m의 방형 평면으로, 주위에 담장을 두른 별도의 구역이 있어 이 안 중앙에는 방형의 舍利臺가 있다. 이 사리단으로 출입하는 문은 남쪽에 1개소, 북쪽에 2개소가 있다. 사리단은 外臺에 높이 30cm의 기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本臺를 조성하였는데 한 변이 9m, 높이는 80cm이며 중앙으로 두름하게 하여 여기에 또 한 변 2m, 두께 40cm 크기의 판석을 놓았는데 이 판석 위에 직경 약 1m의 원형으로 된 사리가 남아있고 그 위에 石鍾形 사리탑을 세웠던 것 같다고 하였다. 이 方壇 네귀에는 사천왕상을 배치하고 단의 측벽에는 일정한 구획을 이루어 飛天像을 조각하였다.

동쪽구역의 가람은 중앙구역과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북반부에서 건물지의 유구가 여러 개 노출되었으나 훼손이 심하여 그 성격과 규모를 알 수 없다. 이상의 기술로 이 사지의 가람은 一塔式 가람인데 전술한 興王寺나 萬福寺와 같이 2~3 구역으로 구획되어 있어 이러한 가람의 형식은 우리나라 고대가람에서 볼 수 있어 그것을 계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불일사의 주요건물지를 논하면 우선 탑과 그 부근의 건물지를 들 수 있는데 중앙구의 금당지 남쪽 약 30m 떨어진 위치에 놓여 상·하층기단 위에 놓여있다. 5층의 석탑으로 낙수면이 가파르고 고졸한 입면과 투박한 옥개석 등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인데 지금은 개성시에 옮겨졌다고 한다. 1960년 이 탑을 해체하였을 때 1~2층 탑신내에서 20 여개의 소탑이 발견되었는데 石制와 金동제·청동제 등이고 작은 향아리와 經文·비단편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이 탑 바로 좌우에 가까이 떨어져서 남북으로 길게 둔 장방형 건물지가 노출되었는데 이것은 대웅전지 앞까지 이어져 있었고 동측의 것은 2개의 건물로 나뉘어졌다.



또 대웅전지는 탑과 축을 맞추어 북쪽에 위치하는데 탑의 지반보다 약 2m 높은 지반에 놓여있다. 주칸은 5칸×4칸으로 추정되고 초석의 일부가 남아있었는데 방형초석으로 중문의 초석규격과 같이 한 번 1m 정도이다. 기단의 규모는 동서 약 25m, 남북 약 17m이며 전면의 계단지는 폭이 3.46m이고 7단으로 약 2.1m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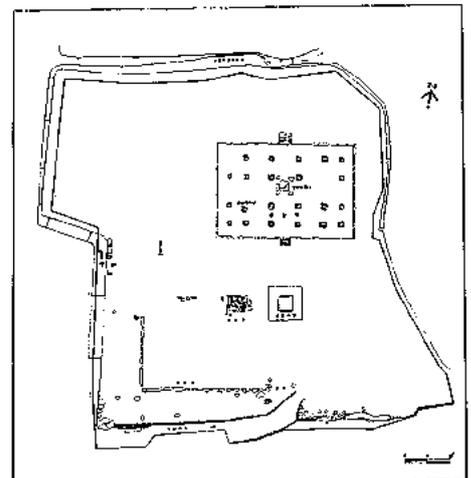
4) 興德寺址

이 사지는 충북 청주시내에서 사직동으로 가는 청주대교를 건너 제방을 따라 북쪽으로 1km쯤 가다가 왼쪽 들을 건너 있는 梁岳山 동남기슭에 위치한다. 지금은 이곳이 운천동에 속한다. 지형으로 보아 남서와 서북 그리고 동북쪽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좁은 지역에, 평지를 이용하여 남향한 가람을 조성한 것이다. 이 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거의 파손되었던 것을 1985년에 발굴조사한 것인데 이에 앞서 이 부근에서 686년(垂拱二年)에 조성된 新羅寺蹟碑가 조사 보고된 바가 있고 1984년에는 이 사지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운천동 사지 발굴조사가 있었다. 이곳에서 청동 도가니가 여러 점 출토되어 주목을 끌었는데 한편 흥덕사지에서는 「柱香之寺」銘瓦와 「興德寺」銘의 청동제 禁口(쟁거리 비슷하게 생겨 절에서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것)片이 발견되었고 청동 佛鉢뚜껑에서도 「興德寺」란 이름이 나타났으므로 이곳이 틀림없이 고려때(1377년) 白雲화상이 초록한 『佛祖直指心體要節』을 鐫字印刷한 淸州牧外 興德寺 터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중 서화랑지에서 「大中三年」(849)명 기와가 출토되어 이곳은 적어도 신라말에도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사지의 가람은 이미 기술했듯이 가람의 반 이상이 유실되어 그 성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현 유구를 근거로 추정되는 가람은 남북 축선상에 주요건물을 배치한 일탑식 가람으로 석탑제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석탑을 둔 가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유구로 金堂址와 강당지가 있고 회랑지 일부가 노출되어 남에서부터 중문과 석탑 그리고 금당과 강당을 축에 맞추어 배치하고 그 주위를 회랑으로 둘러 가람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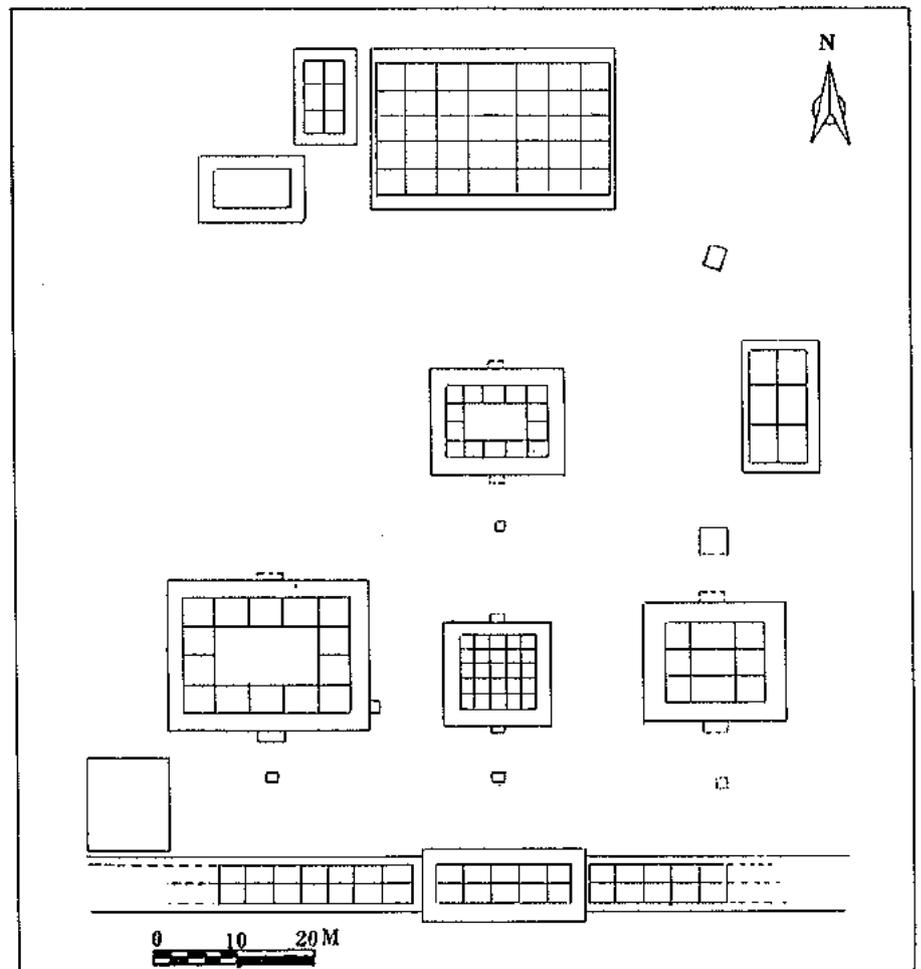
금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정면

주칸은 2.1m이고 측면은 3.4m와 협칸 2.1m이다. 기단의 규모는 동서 53尺, 남북 39尺이다. 강당지는 유실이 많이 되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이는 확실하지 않다.

이상의 고려사지 실례 이외에도 석굴사원으로 가람을 형성한 중원 마복사지와 탑이 없이 부도를 모신 願堂으로 추측되는 경기도 양주군의 檜岩寺址 등이 있으나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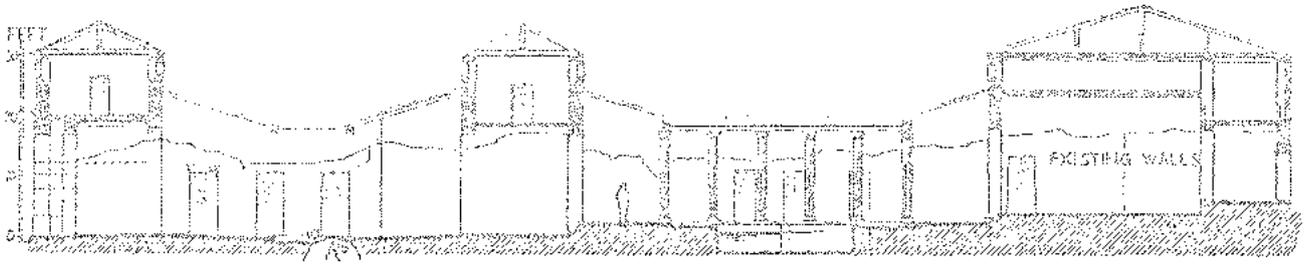
10



11

註

- 1) 高麗史, 世家 卷第一 太祖 二十六年條
- 2) 高麗史, 列傳 卷之九十二 崔凝傳
- 3) 高麗圖經 第二十三卷, 雜俗二施水條
- 4) 閔內河, 韓國史大系 4 高麗, 三珍社, 1973
- 5) 高裕燮, 松都古蹟
- 6) 李殷昌, 聖居山 晚日寺 調查報告, 古文化 第 3, 6合輯, 韓國大學 博物館 協會, 1969
- 7) 拙稿, 高麗伽藍의 研究, 考古美術 通권175, 176호, 韓國美術史學會, 1987.
- 8) 高麗史, 世家 卷第八 文宗二十一年條.



複合用途 建築物의 發展傾向 (I)

—역사적인 발전추세—

■ 연재에 붙여

80년대를 접어들면서 부쩍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 혹은 Complex의 계획에 대해 많은 건축가들은 단순히 여러가지 기능의 복합과 그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 및 경제성의 확보 관점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건물의 복합화가 요구되었던 건립배경과 지역성에 맞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계획 내용 추구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은 20세기 도시의 개발과정에서 대두되었던 건축유형이 아니라 적어도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인간정주체계와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지금도 전통적인 복합구조의 형태가 서구의 많은 도시내에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70년대 초반에 이루어져서 좋은 반응을 거두지 못했던 몇 개의 복합용도 재개발에 대한 양극과 건축주의 단기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어지는 상업병용주택에서 복합용도 건축물의 성격을 어렵듯이 짐작하고 있을 뿐 본 계획이 도시의 활성화 혹은 침체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대안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수용기능요구와 복합용도 건축물이 지닐 수 있는 건축용도들 그리고 이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에는 별로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원고는 대략 세단계로 나누어 복합화의 역사적 발전경향을 개관하고 각기 다른 발전의 추세를 지니고 있는 유럽지역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른 계획방향의 다양성 및 기본적 계획 개념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복합용도 건축물이 지향해야 할 계획방향을 보여주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Planning Tendencies of Mixed-Use Development

With Relavance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吳德成/충남대 건축과 부교수

by Oh, Deog-Seong

- 현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 서울대 환경대학원 졸업(도시계획석사)
- 서울대 대학원 건축학과 졸업(공학석사)
- 독일 Hannover대학교 건축학부 박사과정 이수 (Dr. Ing. 工博)
- 현재, 충남대 건축과 부교수

1. 서론

복합용도 Complex 혹은 "MXD"로 지칭되는 건축기능의 복합화 형태는 1933년 아테네의 CIAM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아테네현장의 도시기능 분리방침에 대한 역반응적인 흐름이라 해석할 수 있다. 본 현장의 도시구성 원칙은 세계대전후 각국의 도시 재건 단계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극단적인 도시기능분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구된 여러가지의 계획 대안 중의 하나로서 기능의 복합화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형태가 서구의 역사적인 도시 형성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내려온 복합용도의 도시블럭 혹은 건축물의 보존과 더불어 「기존 도심내 전통적인 복합구조로의 회귀」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인 의미의 복합건축물 계획에 관한 개념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이후의 상황만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오히려 그 이전의 역사적인 발전맥락을 체계적으로 좀더 들어감으로써, 기능복합의 발생적

배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 아래에서 본 원고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역사적 발전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개의 지점을 중심으로 복합용도구조의 특성과 시대별 연계성을 파악하기로 한다.

첫째, 산업혁명 이전의 전통적인 복합구조 둘째, 산업혁명 이후 도시기능, 특히 "주거와 일터"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나타난 복합구조의 발전 및 퇴락.

세계, CIAM국제회의의 아테네 현상에서 채택된 도시기능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등장하고 있는 기능복합화에 대한 토의와 현대적 의미의 복합용도 Complex의 출현.

이러한 세가지 분류를 통해 오늘날의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시대적 배경과, 그를 통해서 구체화된 현대적 의미의 복합용도 Complex의 출현상황을 검토하는데에 본 원고첫째 부분의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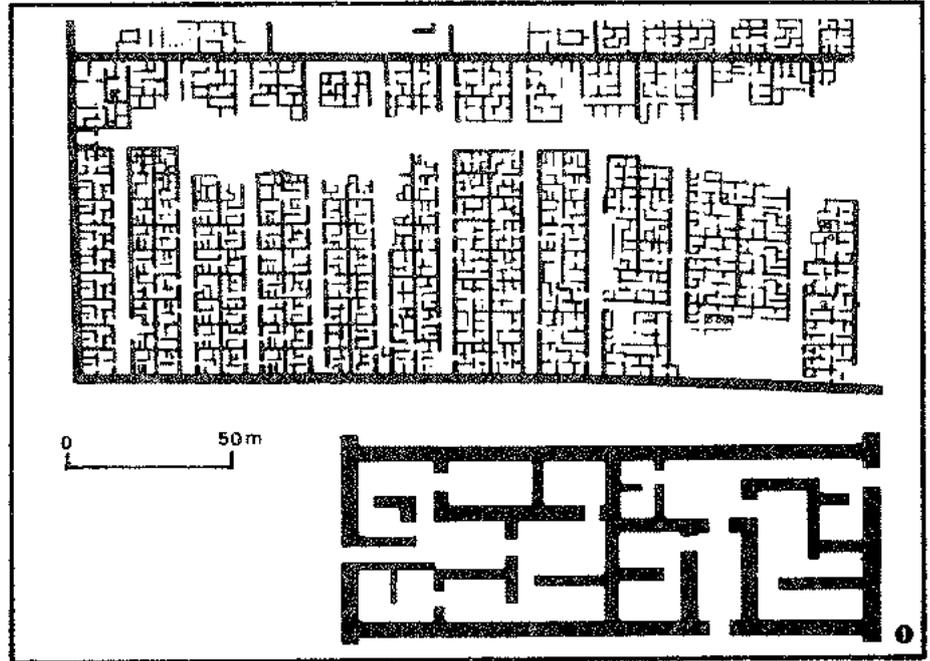
2. 전통적인 복합용도구조

1. 중세이전의 복합용도구조

오늘날의 다양한 도시기능 및 건축용도와 비교해 볼 때 고대도시의 그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이며 특히 보통 도시민을 위한 건축공간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통치자나 종교적 권위를 지니는 신전 건축물, 혹은 일부의 기념비적인 대규모 건조물을 제외하고서는 합리적인 기능의 분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 같은 건축물내에서 '食寢'과 '作業'이 이루어지는 원시적인 기능의 복합유형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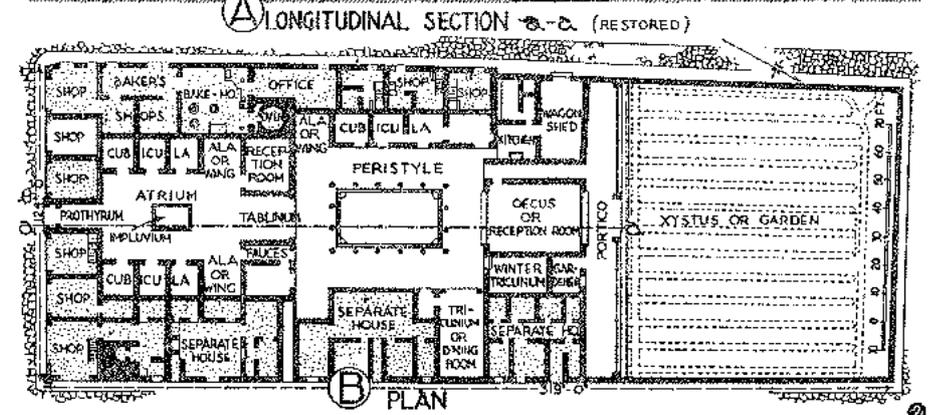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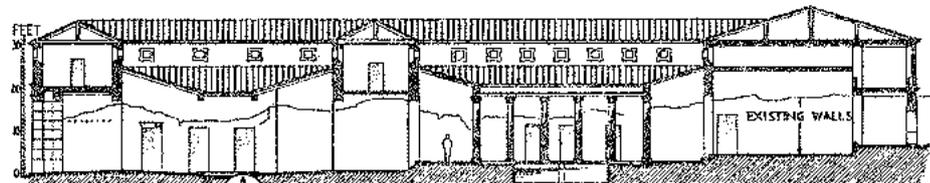
고대 이집트의 일부 계획도시에서는 이와같은 양면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Paraoh(왕)의 분묘나 신전을 짓기 위해 동원되었던 노예나 종사자들을 위한 도시를 살펴보면, 그 계획의 주요개념이 노예들을 잘 동원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있다.

그 한 사례인 El Lahun은 체계적인 격자형의 도로와 주거의 배열 상황을 느끼게 되지만 실제로 그 주위를 둘러싼 두터운 성벽과 도시주거 형성의 모습은 본 도시의 계획이 오직 노동자들을 적절히 감시,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업시간 이후는 그곳으로 들어가 비좁은 도시영역내에서 감히지내야만 하는 비인간적인 정주형태의 모습이 아찔에 숨어있다. 이 모습은 19세기의 공장촌(Company Town)이라 불리우는 공장과 그 주변의 노동자 주거지의 연결 모습에서 나타내고 있는 비슷한 계획개념을 연상시키는데, 적어도 職任近接의 계획 개념을 추구했다는데서 두 사례의 공통점과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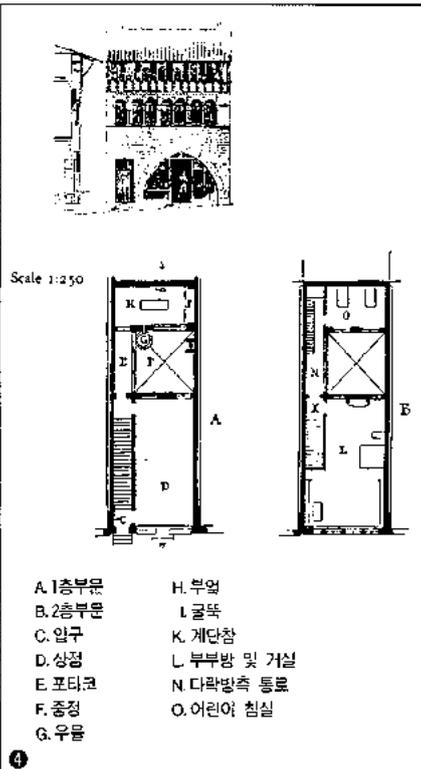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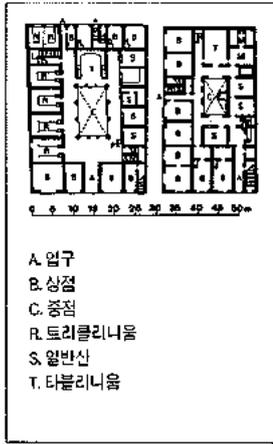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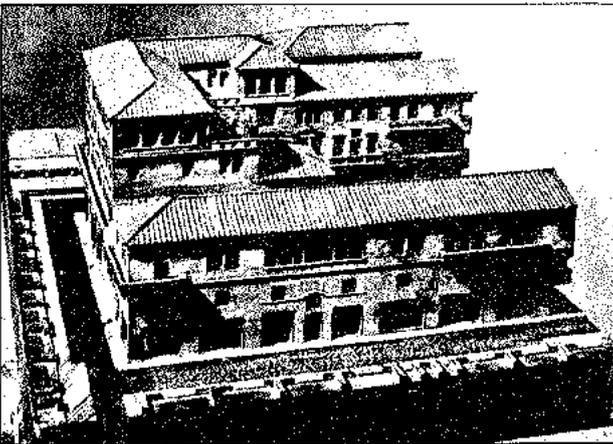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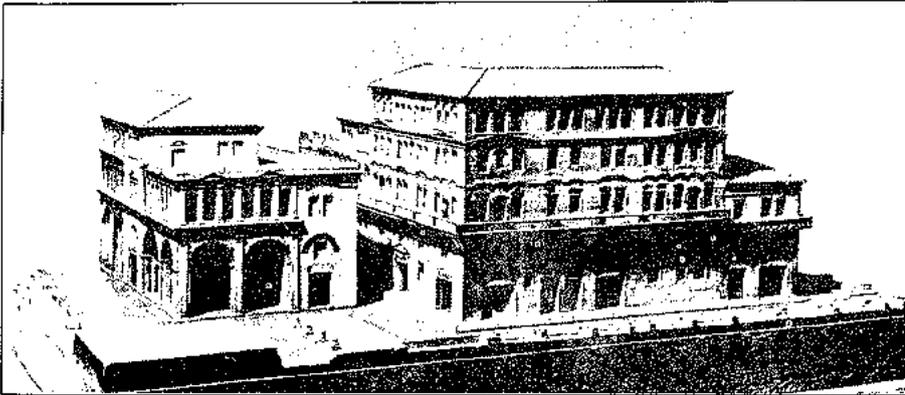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도시에서는 비로소 상이한 도시기능의 체계적 분리형태가 엿보인다. 이 두 지역은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도시주거의 기본형태인 중정을 둘러싼 아트리움 하우스(Atrium House)라든가 도시 중심부의 공적인 도시광장의 배치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즉, 그리스의 아트리움 하우스는 순수한 주거용 건물인데

반해 로마의 도시주거는 주거공간의 일부에 상업기능을 수용하는 복합용도 건축물이었다는 점이다. 복합건축물의 평면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건물 진입 도로면에 접한 부분은 상점이나 소규모의 공방(工房, Taberna)으로 사용되었고, 그 뒷부분에 주거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이러한 Taberna 유형은 그리스나 시아시아의 도시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전형적인 로마제국의 도시인 폼페이



- ① El Lahun의 주거블록과 노동자주택평면
- ② Casa di Pansa



발굴유적에서 위와 같은 복합용도의 도시주택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판사의 저택(Case di Pansa)은 좋은 실례이다. 그 평면의 배치는 대로변에는 비좁은 공방과 점포가, 측면에는 임대주거가 Domus를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고 뒷편에 비로소 주인용 주거가 배치되어있다. 여기에서는 대로 뒷편의 부도로와 정원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한편, 로마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 규모의 확대에 따라 복합용도 건축물의 형태도 차츰 발전되고 있는데 그 유형은 단층형의 Taberna식 Atrium House에서 층수가 중첩된 주거 메자닌(Wohn-mezanine), 그리고 다층형의 다세대 아파트인 로마형 인슐라(Insula)로 이어진다. 로마시대의 '인슐라'는 통상 7층정도의 도시형 임대아파트로서 1층의 도로면은 상업용도로 이용되었다. 흥미있는 사실은 공간의 기능에 따라 입면의 모습도 달라지는데 1층부분은 다른 층에 비해 층고가

높고 전면에 열주를 배치하거나 아케이드 형으로 처리하여 미관에 신경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후기에 이르러서 도시내 1층부분의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지고 셋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인이나 匠人들은 1층부분내에서 수직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상부에는 낮은 천정 높이를 지닌 주거를 배치하고 공용계단과 관계없는 별도의 내부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도록 처리하였다. 이곳에는 통상 상점주인의 가족이 거주하였는데 이들은 낮고 갑갑한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 로마시대 복합용도 건축물의 대표적 유형인 '인슐라'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흥미있는 일은 이 건물이 당시로서는 매우 높고, 규모가 큰 반면에 구조적으로 무리가 있었다는 점인데 초기에 지어진 목조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 화재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서 주변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개선키 위해 아우구스투스(Augustus) 황제 때에는 일종의 도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으로서 도로면에서의 건물높이를 20.5m(약 8~7층 정도)로 제한하였다는 도시설계적인 규제의 기록이 있다.

2. 중세

중세 유럽의 도시형성은 경제체제의 변화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로마제국의 멸망이후 암흑시대의 유럽은 경제체제면에서 오히려 퇴보하여 마을 단위의 자급자족형 경제였기 때문에 일부의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특수한 물품이외의 일상용품은 마을단위로 생산되고, 물물교환의 수단을 통해 공급되었다.

중세초 장인들은 자신의 일꾼 노릇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과 함께 동일한 공간내에서 일을 하고 잠을 자는 이른바 원시적 의미의 복합용도형태의 건축물에 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사학자 Mumford는 "중세초 주택은 상이한 공간에 대한 기능적인 분리가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며 중세후기에 이르러서야 기능별 공간의 분화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당시 도시형 복합용도 건축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Clunny의 복합용도 주거를 보면 상당히 정돈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주거부는 이미 어린아이의 침실과

부부 침실이 구분되어 있고, 점포와 부엌 그리고 공방 사이의 공간분리를 위해 중정을 배열하고 있는 모습이다.

11~12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한 형태의 상업구역”이 재개되고 그로인해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공공의 도시공간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중세 도시의 공용공간은 하나의 종교적인 중심(성당과 사제의 場)과 그 주변에 상업중심이 배열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도시에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주교청, 시청, 상인연합, 길드 홀(Guild Hall)이 건설되었다.

길드 홀은 匠人들의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 본부와 생산품의 제작을 관리하는 도심부에 배치된 길드 홀의 입지에 반하여 길드 조직에게 상품을 제작하여 공급해주는 장인(匠人)의 일터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처럼 장인의 주택과 함께 도시주변지역에 남아 있었으므로 전통적인 “작업과 주거의 복합”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즉 “상품의 판매(과거의 상점기능)와 제작”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었으나, “주거와 작업(상품제작)”의 공간은 그대로 묶여 있어 이른바 가내공업(House Industry)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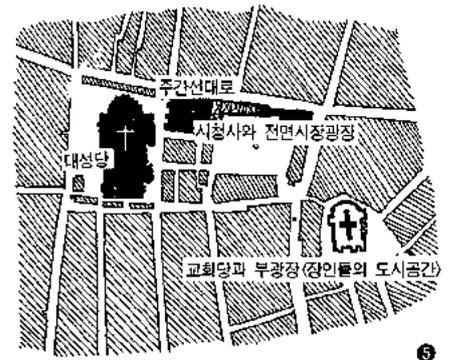
한편, 초기의 재래시장은 상문밖에 입지하여 농민들의 잉여농산물을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이를 제발리 감지한 상인의 몇몇 부유한 상인계층은 이들을 자신들의 “판매의 場”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건물 1층에 마련된 상점과 그 전면의 노점이 배열된 정기 재래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시장의 활성화는 새로운 상인계층의 출현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단일 업종만을 취급하였던 길드 유형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이익이 남기만 하면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들여고 판매하는 이른바 업무형의 상업계층이며 이들은 사들인 물품을 저장하기 위해 도시 내부에 큰 창고를 갖고 관리를 위한 업무기능(사무소)을 함께 설치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이에따라 새로운 복합형태인 이른바 “업무 및 상업의 복합화(Government Industry Complex) 형태”를 탄생시켰다. 이들 상인계층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됨에 따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자신들의 업무공간을 성당, 시청사 등이 입지한 도심부로 끌어들이는 한편, 과거에 그곳에 입지하던 단순업종의 길드 홀이나 공방을 외곽부로 밀어냄으로써 도심부 상업업무공간의 재편현상을 이끌어 내었다. 중세 이태리의 플로렌스, 시에나, 독일은 뤼벡(Lübeck)등의 도시에서는 지금도 도심부에서 이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서 대성당을 도심의 정점으로 하여 그 부근을 새로운 상인계층의 대규모 상업·업무시설이 차지하고, 장인집단은 다시 그 주변의 도심 외곽부를 둘러싸는 도시공간 배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3. 근세(Renaissance & Baroque)

이태리의 르네상스 시기는 도시공간 변화의 과도기적인 시기로서 중세의 다양한 복합용도 건축물로 이루어진 복합구조의 도시형태에서 도시기능의 분리에 의한 상업업무지역과 주거지역의 분리가 일어나는 도시공간 변화의 상황을 나타낸다. 북부 이태리의 플로렌스와 베니스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양상이 비교적 두드러진다.

15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플로렌스를 지배하고 있던 부유한 지배계층은 그 당시의 대건설사업이었던 플로렌스 대성당 돔(부르넬레스키 作)의 건설과 더불어 자신의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하려는 듯이 기존의 도심부의 팔라쥬(Palazzo)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을 세워나갔다. 그들 중 한 가문인 Pitti家は 이미 과밀화되어 새로운 건축용지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 도심내에 입지한 자신의 팔라를 업무 및 상업용도로만 사용하고 새로운 팔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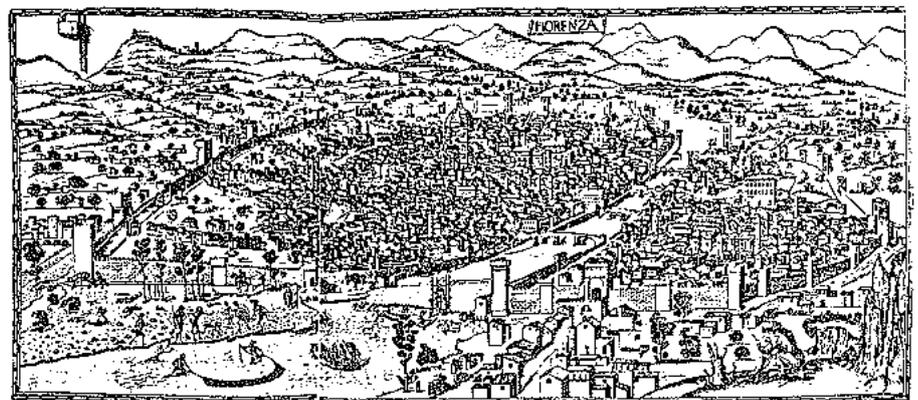


- ③ Ostia의 Insula(복원도)
 - ④ Cluny의 중세형 복합용도 건축물
 - ⑤ 중세도시의 중심부(뤼벡시)
 - ⑥ 중세 플로렌스
- 도시 중앙에 플로렌스 대성당이 보이는 곳이 구도심이며 우측 강변 중심부면에 보이는 높은 건물이 Palazzo Pitti이다.

강변의 외곽 부지에 새롭게 건축하였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Palazzo Pitti이다. 그 결과 구 도심내에 입지한 상업업무용 건물과 새로 건설된 도심외곽의 저택사이를 일을 보기 위해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른바 “통근”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다. 도시학자 Procos는 이 모습을 첫번째로 나타난 근대적 의미의 차량통근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흥미있는 주장이다.

한편 베니스에서는 좀더 체계적인 도시기능의 분리형태를 엿볼 수 있는 데 기능에 따라 일종의 공업용지인 유리새공을 위한 Murano섬과 도시 Open Space에 해당하는 Torallo의 공동묘지 배치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주거단지를 이 지역에 연결시켜서 입지시켰다. 각 주거단지마다 중심 광장(Campo)과 학교 및 길드 홀, 교회당을 배열한 모습으로 구획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현대의 체계적인 신도시의 도시기능 배분계획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16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생산과 판매” 공간의 분리와 “주거와 작업” 기능의



분리현상이 뚜렷해지고 그와 더불어 도시내 상업지역의 입지특성이 뚜렷이 부각된다. 그 모습은 상가들이 주요간선대로에 따라 집중되는 이른바 노선상가 형태의 구성이다. 이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로변에 상점이나 노점이 뽐뽐히 들어서서 마차가 통행키 어려운 지경이 되고, 종종 몇 km씩이나 사람이 물려있는 도시내 군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시장"의 모습도 시장 광장의 성격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주거지 중심의 광장과 구별되는 상업교역만을 위한 도심 상업중심지역으로서 완전한 상업용도지역의 형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복합건축유형인 "주거+점포+작업장(공방)"의 공간적 중첩은 점점 약해지면서 18세기에서는 노선상가 혹은 도심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굳어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장인들의 공방은 점차 순수한 주거용도지역과 분리되어 입지하여 공업용도지역의 구획과 더불어 도시의 상업교역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시장 및 상가)가 별도로 배열되는 이른바 도시의 용도지역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 모습은 당시의 파리나 쾰른등 대도시의 경우에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3. 산업혁명이후 기능복합에 관한 재검토

1. 산업혁명 직후 복합용도구조의 혼란

산업혁명은 단기간내에 몇백년동안 이어내려온 기술과 사회구조에 큰 변혁을 일으켰음은 물론 가치관과 도시 환경 여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도시와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전혀 새로운 정주형태를 탄생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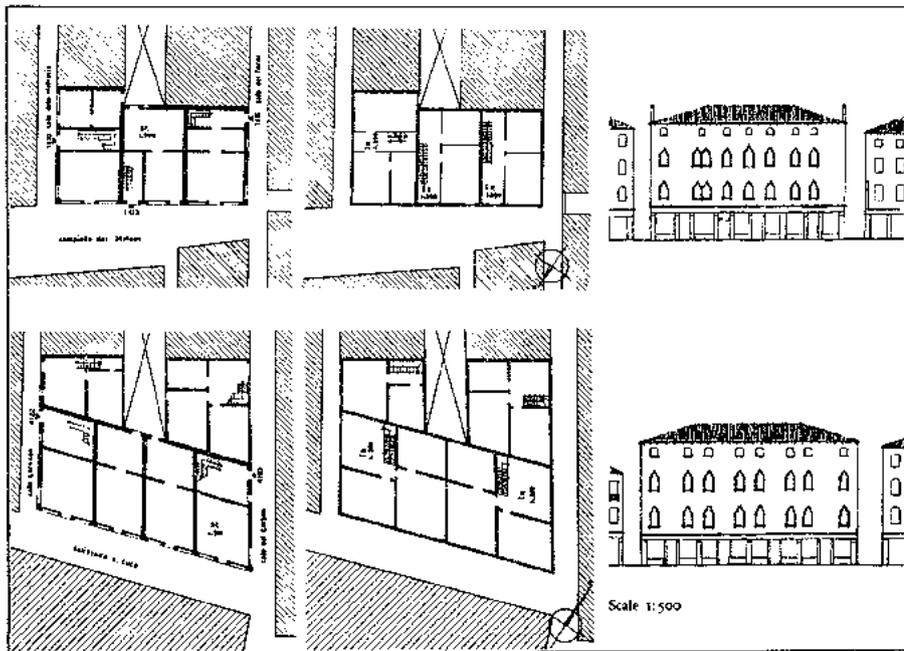
18세기 혁신적인 산업화에의해 태동된 대도시 과밀지역의 모습을 살펴보면 당시의 도시가 가지는 심각한 상황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유럽의 산업중심적인 위치에 놓여있었던 영국의 대도시인 런던, 리버풀 등을 보면 공장의 입지, 철도망의 구성, 도시의 급배수체계, 정보전달체계등의 급격한 발전을 감안해 볼때, 과거의 전 산업도시(Preindustrial City)나 농촌지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음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그 이면에는 전 세기에 경험했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오히려 그 심각성은 더해졌리라 여겨진다.

한편 산업화와 더불어 공장과 기업들이

대폭 확장되면서 중정을 중심으로 '□'자로 배치된 전통적인 복합용도구조의 도시블럭은 1층의 소규모 가내공장과 상점, 상층부의 주거공간 배열방식이 공장 부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차 성격이 바뀌어 나아간다. 즉 중정부분이 작업장이나 재료차장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반사였으며 그곳에 부족한 도시형 공간을 집어넣기 위해 공장부분이 확장되어 건설되기도 했으므로 전통적인 도시블럭내에서 기존의 중정이 비좁아지거나 심지어는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끼어사는 과밀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어떻게 하면 동일한 부지내에서 건물을 넓혀가져서 정세를 많이 받아낼까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였다. 진술한 바와 같이 소규모 공장들이 중층의 '□'자형 도시주거블럭에 끼어들면서 저층부는 물론 시하나 중정까지를 차지해 버렸지만 기존의 세입주자인 거주자 측면에서는 부적력기능의 입지 때문에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불평을 한다면, 공장의 복합화를 막으려고 주장하는 일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불쌍한 세입자들은 도시내에 자신이 누울만한 방 한칸을 구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따름이었다. 당시의 도시블럭형 주거 및 공장의 복합유형인 베를린의 Meyers Hof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로 130m나 되는 도시가구를 하나의 중층 건물군으로 지어올렸는데 그안에는 6개의 중정이 가로지르며 서로 다른 기능의 건축공간을 배열하고 있다. 건물의 폭은 베를린 구시가지의 도시블럭 기본 치수인 25m에 딱맞게 지었으므로 건물의 외곽부는 25×180m인 좁은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어 버렸다.

이곳에는 1,000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1층 및 지하층 부분에는 최소한 50개의 소규모 공장이 배치되어 있었다. 블럭내부의 중정을 살펴보면 마치 주거와 작업장이 서로 경쟁적으로 공간을 차지하려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때 중정은 거주인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주기는 커녕 작업공간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으며 그곳에서는 소음과 진동이 끊이지 않았다.



① 근세 도시형 복합용도 건축물 (1층의 아케이드에는 상가, 2층이상은 주거 및 사무공간이 배열되었음)
 ② 산업혁명시기 대도시 노동자 주거지(런던, 19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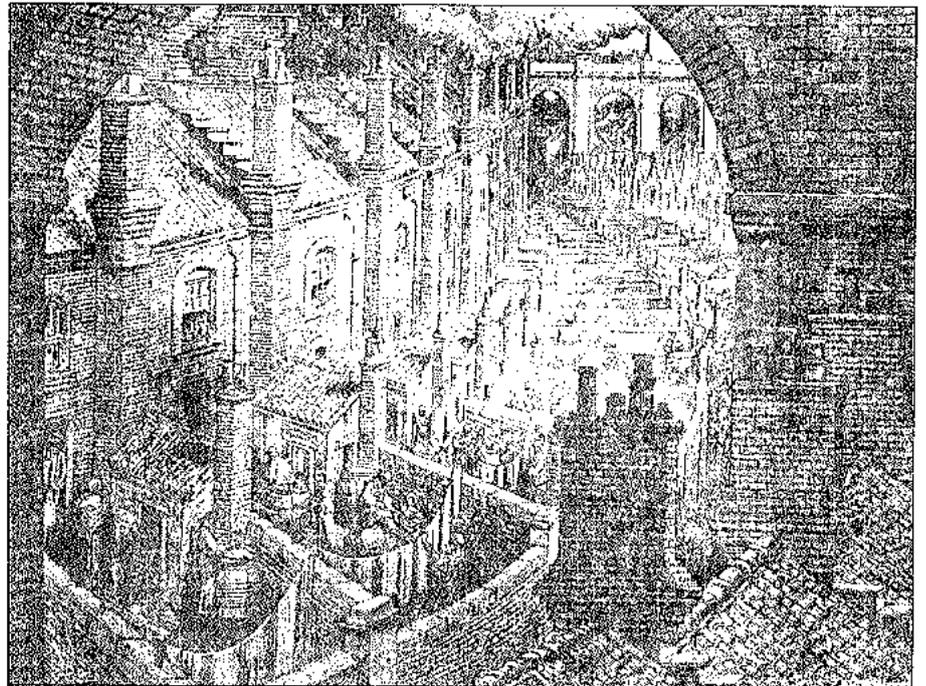
다우기 시간이 지나면서 가내공장과 소규모 공장이 지하실과 1층을 거의 차지해 버리면서 주기는 그 위에 얹힐 뿐 주거를 위한 상업용 시설이나 편의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인간적인 용도의 복합화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다.

이와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산업혁명 시기는 대단히 발전했던 시대였지만 생활수준과 주거환경의 측면에서는 노동사의 수준이 상당히 낮고 일부의 기업가나 부유층과의 수준차는 점점더 커질 따름이었다. 산업혁명이전의 시기와 비교해 보면 위에서 설명한 도시불행내에서의 공장과 주거의 복합화에서 단순히 「작업장 혹은 직장과 주거」의 물리적 연계성이 이루어졌다고 할지 몰라도 주거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함께 묶여져서는 곤란한 성격의 기능과 연결됨으로써 「복합화」 자체를 의심케 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2. 도시기능의 합리적 조성을 위한 초기의 계획개념.

19세기는 공장생산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도시는 「작업과 주거영역의 분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주기는 도심 및 도심중간지역(Transit Zone)의 당초입장에서 공장과 소비관련기능에 자신의 입지공간을 빼앗기고 점점 도시의 외곽부로 밀려나면서 그로 인한 통근의 어려움과 신주택지내의 미비된 주거 편의시설등 문제점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주거와 작업공간영역의 분리"와 주거환경의 질적적화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인간적인 정주지의 구성에 관해 계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단순히 공정적인 측면만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주거공간의 요구에 대한 계획적 반응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 이전에는 다분히 기업주의 실리적인 계산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즉, 새로 지은 공장부근에 노동자의 주거와 부속시설을 함께 하여줌으로써 부족한 노동력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그것이다.

이에따라, 전통적인 도시구조와 전혀 다른 형태의 공장촌(Company Town)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을 Robert Owen의 공장촌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영국의 부유한 기업가였던 Owen은 약 1,200명의 도시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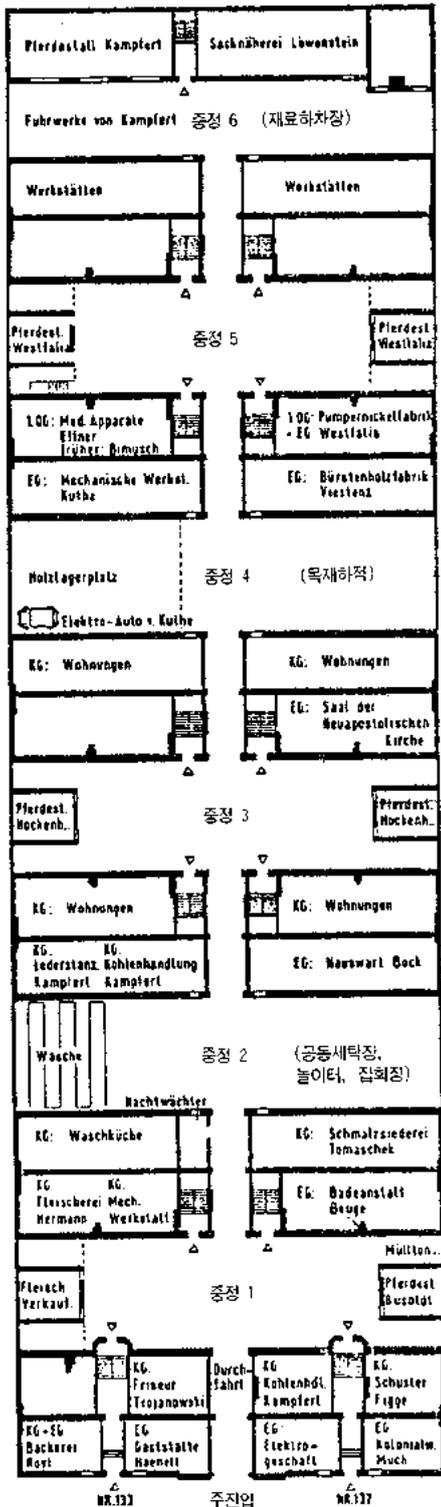
위한 주거 및 배후시설을 500ha의 농지 위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전체적으로는 건축된 부분은 정사각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그중 3편은 자녀를 둔 부부노동자를 위한 주택군을 배열하고 나머지 한편은 자녀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 병원, 숙박시설등을 배치하였다. 사각형의 중심에 배치된 중정은 공용건축물을 위한 여분의 영역으로 남기부어 공회당, 레저와 스포츠를 위한 시설들이 배치되도록 계획되었다. 그곳에서 조급 떨어져서 공용장소가 설치되었고 다른편에서는 주민의 수요를 만족시킬만한 자급자족규모의 농도와 부속건축물을 배열하였다. 이와같이 Owen의 공정은 계획은 공간성적만을 살펴보면 職住所接을 시향한 일터와 주거지의 연계성을 고려한 물론 주거지역 내부에서도 삶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편의 및 기반시설이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비슷한 시기에 Owen의 계획안과 같이 다분히 사회적 접근에서 영향을 받은 복합용도구조의 도시계획개념은 당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적인 발전을 계획개념의 형성단계에서 수용해보려는 이른바 "생물학적인 개념을 도입한 도시기능 배분계획"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이 방식은 도시를 이루어내는 구성요소 일명(도시기능)들을 유사한 성격끼리

집단화시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접근방식으로써 크게 2부류로 나눌수 있겠는바 극단적으로 하나의 도시기능을 하나의 건축물로 파악하여 기능의 철저한 건축적 분리의 방침을 도시계획에 채택한 경우와 그와 반대로 여러 기능을 한개의 건축물에 부리하게 묶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보려는 지구단위의 복합구조 건축물을 만들어낸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당시의 극단적인 도시계획안인 La Vicent 계획안이 진지에 속한다면 Phalanstere 계획은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 계획안이다.

1858년에 건립된 도시 La Vicent는 기능분리 방침에 입각하여 도시내에 지역별 모는 건물은 단 한가지의 기능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그들끼리의 건축적인 연결을 잘치히 배제했기 때문에 도시는 기계의 부속을 흠어놓은 듯한 모습처럼 각기 다른 규모와 용도를 지닌 건축물들의 분절이 되어 버렸다.

한편, 유럽대륙을 벗어나 미국의 초기 도시계획중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계획안으로서 Lowell의 도시계획안을 들 수 있다. Lowell은 미국 동부의 부유한 섬유기업주로서 자신의 공장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직원들을 위한 소규모 단위의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였다. 그는 계획구역내에서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함은 물론 주거지도 노동자의 유형에 따라 분리시켜서 이용집단의 분리를 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숙련공, 미숙련공, 임시 노무자용의 주거단위를 따로 설치하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잠시동안 일하는 여성직업훈련생을 위한 단까지를 별도로 구획하여 공간분리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도시계획가 Fourior에 의해 계획된 Phalanstere 건설안은 모든 인간의 요구와 행위를 한개의 대규모 구조물내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 복합용도구조의 지구계획이다. 그는 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단위를 1,620명으로 하고 (이를 Phalanx라 칭함) 그 집단이 소요되는 기능을 층수에 따라 배열하여 보았는데 이를 위해 250ha면적의 부지에 형평면의 구조물을 설계하였다. 건축물은 중심에 대충장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몇개의 소중정을 덧붙였으며 1층은 마차나 소방차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개방하였다. 그 상부에는 회랑을 두고 각각의 건물부분과 연결시켰는데 이를 통해 250ha에 달하는 건물의 구석구석을 비를 맞지 않고 실내를 통하여 도달할 수 있도록 배열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현대 도시재개발수법 중에서 단위건물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건축화한 연결동로나 보행자 Mall을 연상시킨다. 층수별로는 2층에 주민전체가 이용하는 공용시설을 배치하고, 3-4층은 성인들의 방을, 그 중간부(3-4층 사이의 공간)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방을 배열하였으며, 시공비에 설치한 다락방의 부분은 손님용의 집단 침실군으로 남겨두었다. 이 거대한 건축물 역시 Fourior의 공장노동자를 위한 것으로서 극단적인 복합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복합화의 형태 이외에도 특이한 점은 인간의 행위를 새로운 질서체계로 묶어내기 위해서 공동식사실, 나이, 그룹에 따라 분류한 침실군 등 무리한 집권의 모습이 엿보인다.

이상에서 열거한 몇개의 극단적인 실례는 당시의 열악한 도시환경에 대한 개선요구와

노동자들의 유치를 위한 기업가의 실리적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적어도 기능의 복합화 혹은 도시기능의 계획적 분리라는 두가지 명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안까지를 제시하였고, 그일부는 실제로 건설되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4. 20세기의 새로운 복합용도 건축물 계획 배경

1. 아테네현장의 도시기능분리 원칙과 문제점들

1933년 아테네에서 열린 CIAM 국제회의에는 20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열린 토의를 거친 끝에 유명한 95장의 아테네현장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중에서 도시기능의 정리에 관한 사항은 다핵의 도시구성개념에 관한 것으로서 기본적인 4개의 도시기능(주거, 작업, 여가, 교통)을 적절한 연결시킴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처리와 교통량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아테네현장의 입안자는 단순히 위의 4개의 기능 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통망의 구성에 따른 분리된 기능사이의 연계성 확보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두개의 현장 조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7조, 도시계획은 주거, 작업, 휴식, 교통의 4개의 주기능에 근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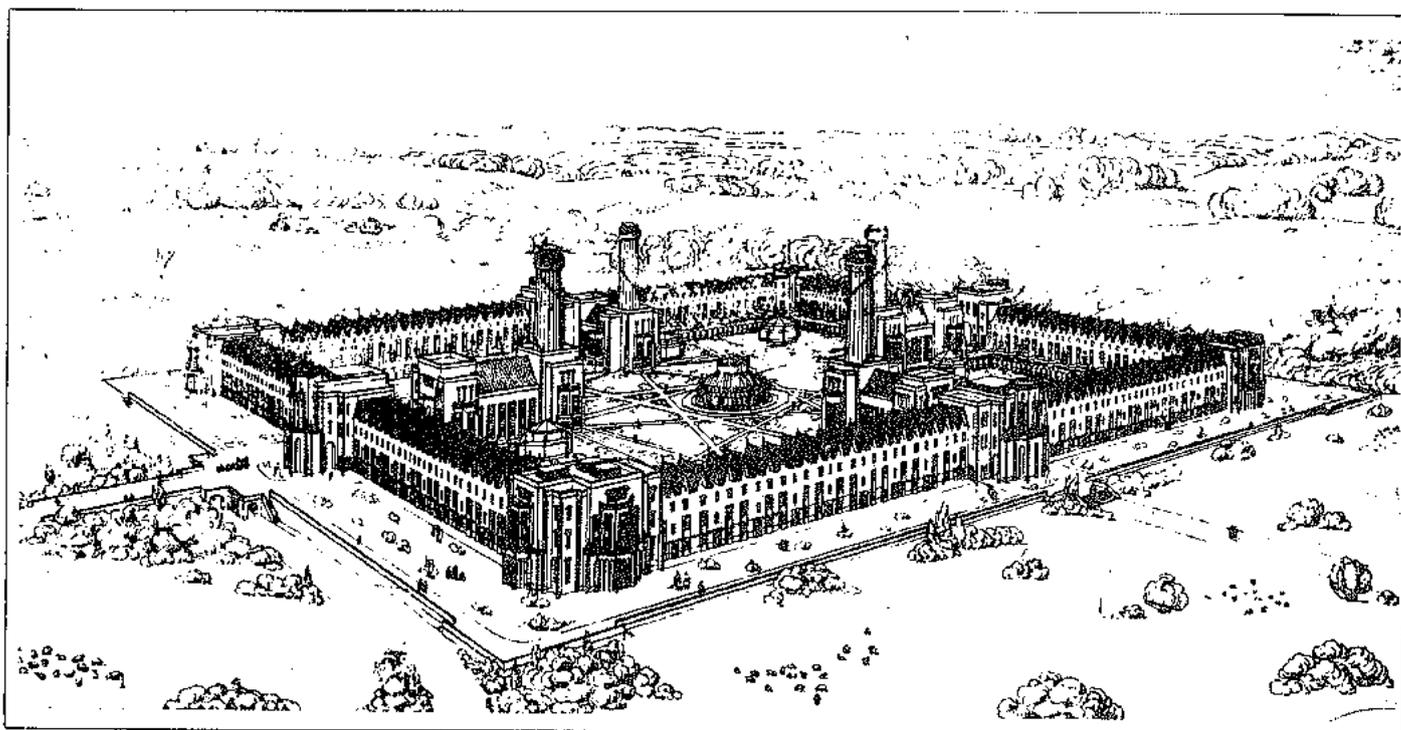
78조, 도시계획은 4개의 주기능에 할당되는 용도지역을 결정하며 전체 속에서 이들의 연관관계나 입지를 설정해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아테네 현장의 도시계획 관련 조항은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데 본 도시계획개념에 입각한 철저한 도시기능분리 원칙이 전후의 재건계획, 도시확장 또는 위성도시의 건설에 구체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에반해 전통적으로 발전해 내려온 중세이래의 복합용도구조는 가능한 지양하려고 애썼고 그 극단적인 예로서 독일의 경우 지난 수세기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복합용도지역(Mischgebiet)이란 용도지역명칭 자체를 토지이용유형에서 삭제해 버리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한편 과거의 복합용도지역과 대별되는 단일용도의 지역, 특히 공업지역은 개발계획이

9 베를린 Meyer's Hof
 10 Owen의 계획개념에 의해 설계된 도시구성도(Hamony, Indiana, 1825)
 11 Fourior의 Phalanstere 계획안



⑩ 비교적 수월하고 조성비가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용도지역의 분화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에 덧붙여 점증하는 자동차 보유율은 「주거와 직장의 분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었으며 그 결과 서서히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도시의 부정적 발전 추세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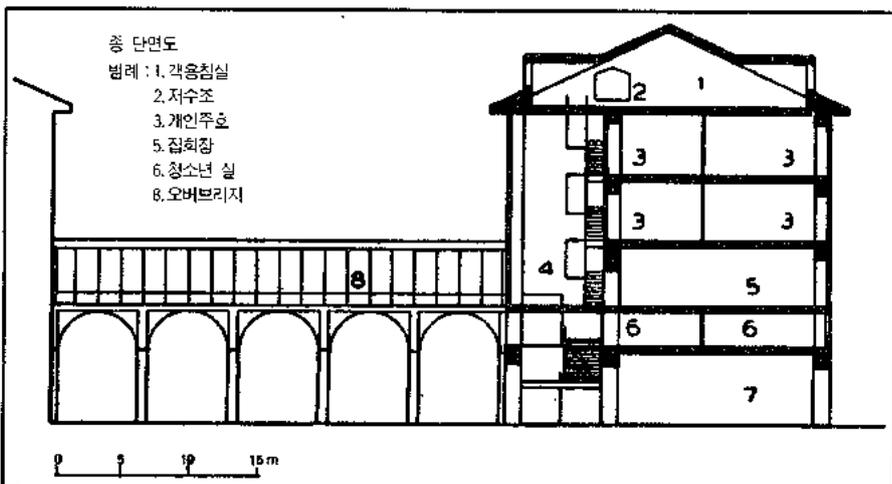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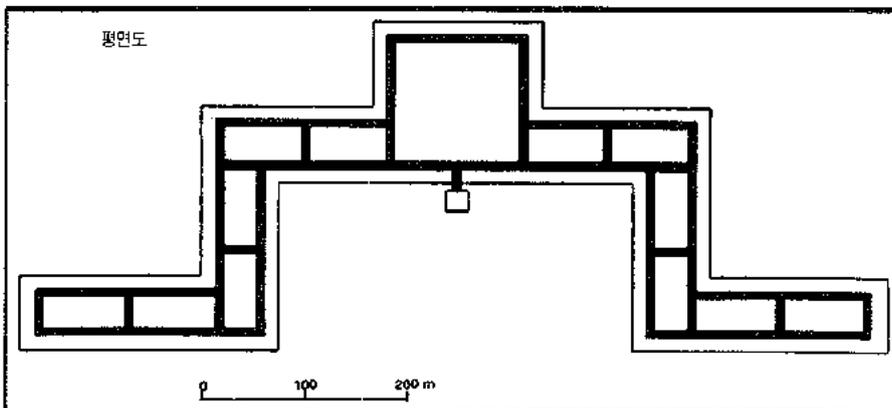
첫째. 도시의 공동화

둘째. 출퇴근시 심각한 교통혼잡과 교통체증의 문제

셋째. 도심부근지역의 주거기능 쇠퇴와 부적격 도시기능 엄지에 따른 지역의 퇴화 및 슬럼화현상 등

위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여러가지 접근방식들 중에는 문제점의 근본이 전통적 도시의 복합구조를 무리하게 탈피하려는 데에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원인과 개선의 대안으로 복합구조의 필요성내지는 환원을 주장하는 도시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로는 미국의 Jane Jacobs, 독일의 Mitscherlich를 들 수 있다.

2. 복합용도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주장들
미국의 저명한 여류도시학자 Jane Jacobs 는 도시기능분리의 문제성에 대해



비판한 최초의 학자중의 하나이다. 그녀는 저서 "미국도시의 삶과 죽음(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복합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즉,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대로면의 도시성 결핍을 해결해 나가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전체도심지역은 최소한 부가적 이상 가능한 새가지 이상의 용도를 수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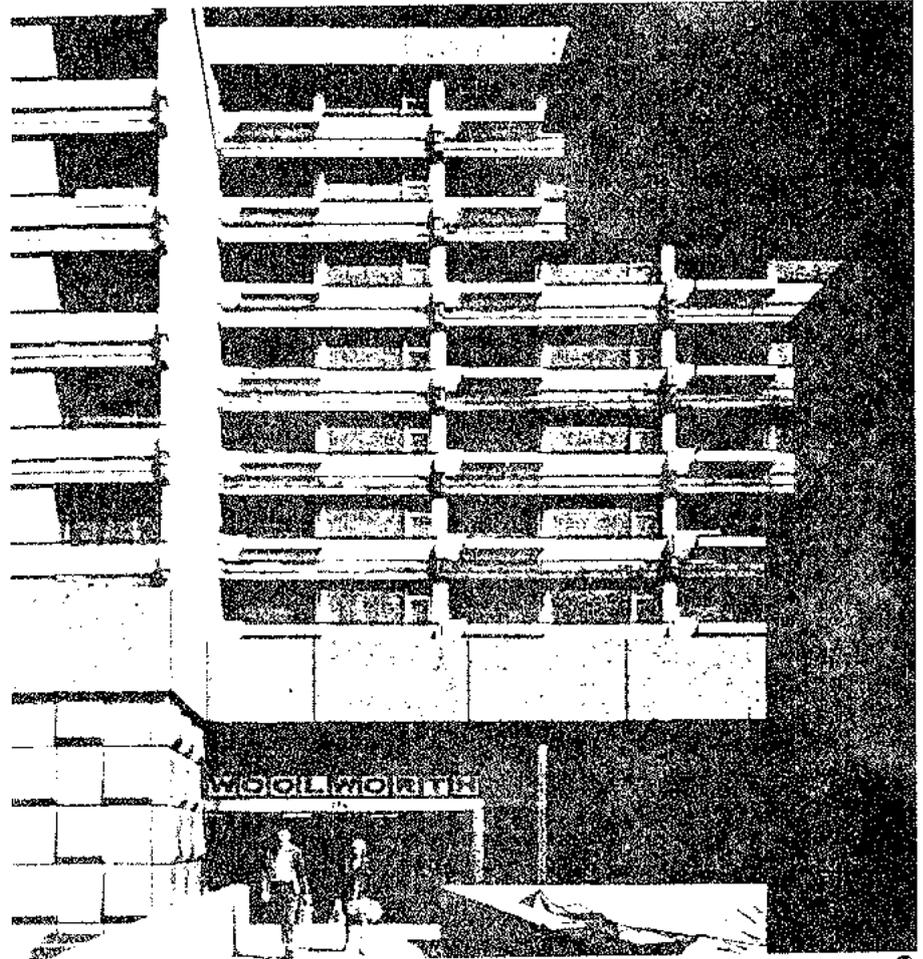
둘째, 도시의 불력은 풀어야 하며 그것은 오고가는 통행의 기회를 가능한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불력은 다양한 상태, 그리고 시대적인 차이를 지닌 여러 건축물들이 섞여 있어야 한다.

넷째, 도심지역은 사람들이 불러들고 그곳에서 붐비며 즐기वाल 만큼은 상주인구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결론으로 그녀는 현행의 도심지의 매력상설은 이들의 4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과거의 도심지는 달리 그들 중 한 항목이 충족되지 못한 데 기인하며, 그 이유는 경제성만을 추구한 상업요소에 계획의 중점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시간이 끝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지않고 뿔뿔히 흩어져버리는 도심의 퇴화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현행 도심지역이 매력을 지닐수 있을 만큼 복합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그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사항은 도심지역의 퇴화가 곧바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도심이 없을 때 도시 전체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입지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반면에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와 사람들이 모일만한 환경적 여건을 지나는 지역으로서의 도심은 그것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함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파급효과를 미쳐서 도시전체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지역은 중심지구 혹은 대로면애 주요기능의 성격을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도시기능의 수용과 주거기능의 복합화가 필요하며 그를 통해 도시를 더욱 동성히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도시계획가인 Mitscherlich



역시 현대도시의 비경제성을 비판하면서 그 이유를 복합구조의 상실에서 찾고 있다. 그녀는 유럽도시의 전통적인 복합구조의 상실은 도시마다 지니는 특별한 성격을 지워버리고 모든 도시를 비슷비슷한 상태의 단조로운 도시모습으로 바꾸어버릴 따름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전통적인 복합용도 도시불력의 보전은 물론 도심내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의 존속이 급선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교통관점에서도 복합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몇몇의 학자들 들 수 있는데 독일의 도시계획가 Schlums는 도시교통계획의 기본적 과제는 도시기능 분산에 따른 출퇴근시의 교통량 증가문제로서 이는 계획단계의 복합화 개념 수용을 통해서 개선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엄격한 도시기능 분리의 문제점 대우와 복합용도에 관한 여러 도시학자와 계획가들의 주장을 통해 복합용도구조의

계획개념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현대적 의미의 복합용도개발개념인 복합기능 Complex의 출현을 보이게 되었다.

1953년 미국의 도시계획가 Victor Gruen은 Harvard Business Review에 이러한 Complex유형의 계획개념을 도시개발단계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의 계획안으로 도심지의 재개발시 쇼핑센터에 콘도미니움 형식의 고층 APT를 묶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후 Fort-Worth의 도심지 재개발에서 복합용도 Complex의 구체적 계획안이 수립되고 New York Rochester에서 Mid Town Plaza

⑫ 도심재개발형 콤플렉스 (저층부 쇼핑센터+고층부 콘도미니움)

건설에 그 계획안의 실현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초기의 현대적 의미의 복합용도 Complex의 등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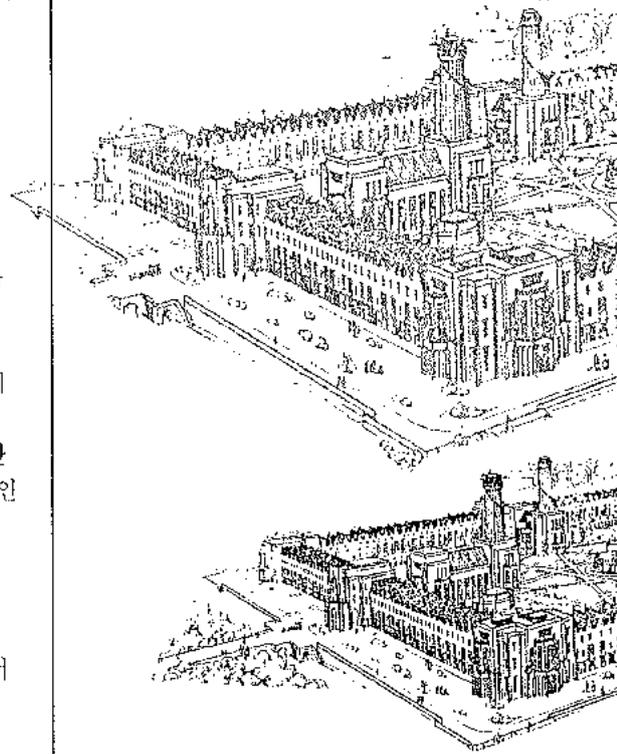
5.小結

본 원고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복합용도 Complex의 성립배경을 파악키 위해 과거의 전통적인 복합건축물의 역사를 시대별로 훑어 보았다. 이를 일반해 보면 산업혁명을 전환점으로 하는 그 이전의 주거와 1房 혹은 상점을 함께 동일한 공간내에 묶어서 이루어진 전통적인 복합건축물은 거의 2000년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혁신에 가까운 전환점이 되는 산업혁명이후의 사회변화는 복합건축물 자체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 시기 도시분리내에 지어진 중소규모의 공장 및 작업장과 주거의 혼잡한 인접은 당연히 주거 환경의 악화와 복합화에 대한 문제점을 대두시켰다. 그 결과 이론과 공상적 사회주의의 도시계획가들에 의해 동일 지구내이지만 작업공간과 주거공간의 공간적 분화요구로 발전되었으며, 이에 복합화의 성격은 주거와 그와 연관된 부속기능의 복합화로 발전되었다.

현금의 도시기능분리에 계획적 기초를 이루는 CIAM국제회의의 아테네헌장은 복합개발 자체에 새로운 반향을 촉구했던 약만용적인 계획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바 본 현장의 계획지침이 도시기능의 단순분리만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기 보다는 분리된 기능끼리의 연계성 강화에도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은 현대도시의 특성과 매력상실에 대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Jane Jacobs와 여러 도시학자들의 주장일 것이다. 그들은 도시의 복합기능유지는 도시의 매력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그와 더불어 교통문제의 해결이나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도시기능 복합화가 필요하다는 이론을 전개하여 실제의 구체적인 계획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복합용도 Complex계획의 타당성은 이러한 학자들의 이념적 뒷받침과 더불어 고대 Rome이후의 역사적인 발전경향의 축적 그리고 현금의 도시문제에 대한 계획대안등 적어도 3가지의 뚜렷한 계획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 된다.

지금까지 복합용도 건축물의 건립배경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데 다음의 순서로는 구체적인 설계 및 계획방향에 눈을 돌려 상이한 건축기능을 묶되 그 방식이 Complex가 건설될 지역의 상황에 알맞도록 발전되어 나아갔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이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두차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전통적인 복합용도의 도시구조가 존속하고 있고 건축물의 형태가 도시의 구성 맥락과 거의 강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시유업지역의 전통적인 발전유형과 비교적 자유로운 맥락을 이루고 있는 미주의 발전양상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우리의 현재상황과 미래의 계획방향을 제시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업은 다음의 원고에서 미국과 서독을 사례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계속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복합용도 Complex발전추세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Benevolo, L., Die Geschichte der Stadt, Krämer Verlag, Stuttgart, 1983.
2. Gross, S., Nutzungsmischung als Prinzip der Stadtstruktur, RWTH Aachen, 1986.
3. Hammond, M., The City in the ancient World, Davia.K ed, San Fransisco, 1980.
4. Mumford, L., Die Stadt, München, 1984.
5. Polydorides, D., The Concept of Centrality in Urban Form and Structure,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Berkley, 1983.
6. Procos, D., Mixed Land Use, Dowden Hutchinson and Inc, 1979.
7. Stooß, H., Die Stadt, Gestalt und Wandel bis zum industriellen Zeitalter, Köln, 1979.
8. Spengelin, F. u. a., Die Grundriß der Stadtplanung, Vincentz Verlag, Hannover, 1983.
9. Wiegand, J., Zur Planung gemischter Gebiete als Beitrag zur Zuordnung von Wohn- und Arbeitsstätten, Diss., Tu München, 1972.
10. Jacobs, J., Tod and Leben Großer amerikanischer Städte, Vieweg, Braunschweig, 1976.
11. Oh, Deogseong, Funktionsgemischte Komplexé, Diss, Universität Hannover, 1989.

우린 어차피 詩人

태양의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
수 없이 허공에다
상상력을 날리고 있는
핵 물리학자
그는 오늘도
테라스에 앉아
수학공식을
악보마냥 떠올리는데

이 지상의 공간마다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야마는
건축사
개똥밭에 밭당을
황무지에 뽕죽탑을
어둠에 갇힌 지하엔
다시금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이 텅 빈
침묵의 시공에다
무수히 내던지는 언어
기어이
무슨 모양을 이룩하고야마는
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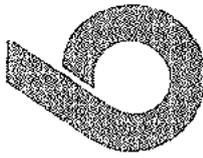
허공에다
신나게 칼질을 하던
동기호테도
우린
어차피
시인일 수 밖에

金光林
by Kim, Kwang-Lim





제 4회 신인·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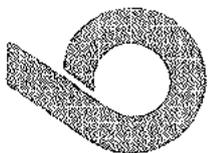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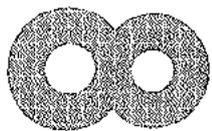


설계작품공모전
受賞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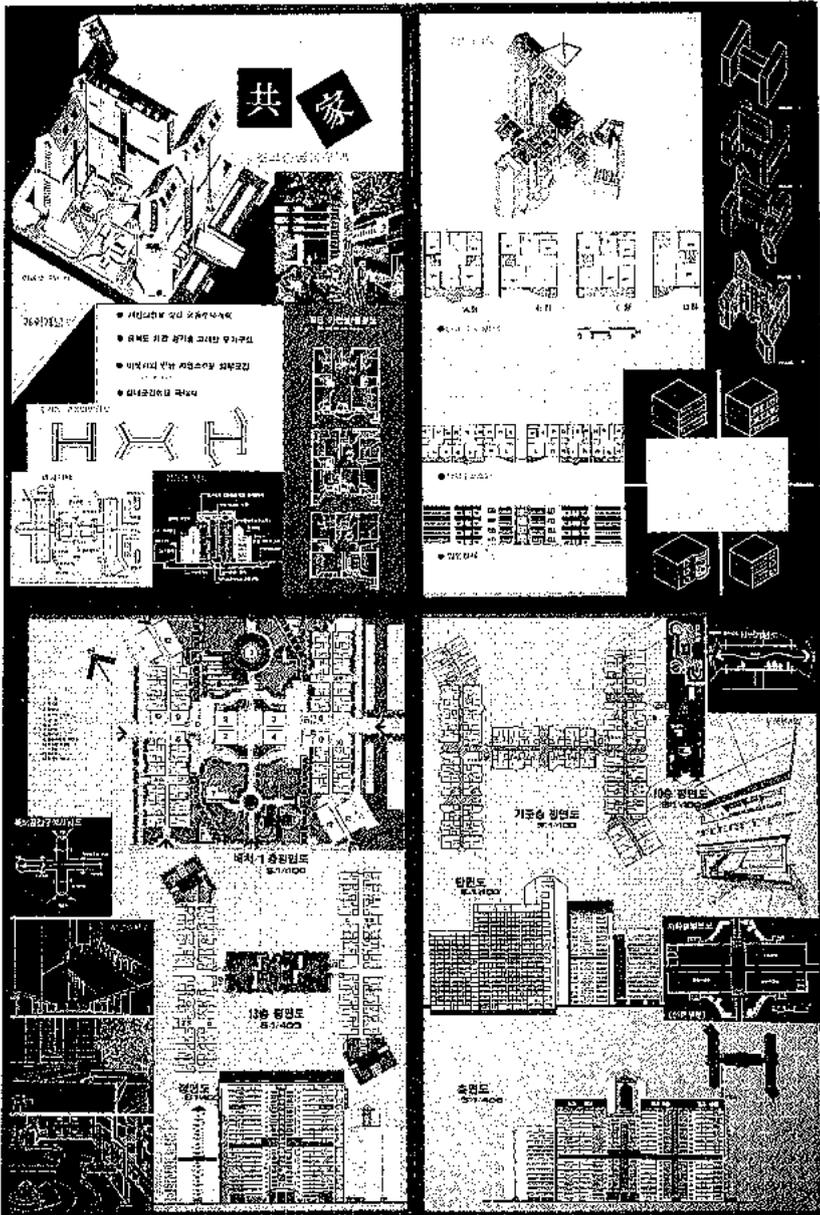
特輯

SPECIAL ISSUE

*Prize Winner of the 4th
Debutant's & Student's Design Show*



共家



양덕복/성림건축(부산)
 박인범/자유건축(부산)
 윤중현/성림건축(부산)

수상소감

모든 일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특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도전하는 일은 더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가슴뭉클하게 시작한 공모전,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의식, 시작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건축생활의 불협화음 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의 순간들...

뒤돌아보자. 우리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건축이라는 작업과정의 어려움과 그 생명력의 영원함을 생각할 때 한번의 수상에 모든 것을 가름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지금의 만족보다는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건축인의 의지를 더욱 다지면서 이런 작품을 할 수 있게끔 풍토 조성을 해주신 협회에 감사하며 주위에서 신경써주시는 모든분들께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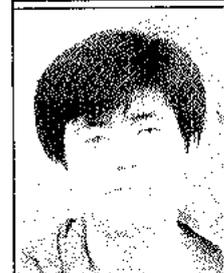
설계소모

우리는 한옥의 분위기를 살리고 동네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Court House를 개발하고 다양한 단위평면 및 블록 Plan을 제시하여 주거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동을 초고층으로 계획하여 단지내 인공대지를 조성 야파드내 전원분위기를 창출하고 공중 정원을 설치하여 고층부의 접지성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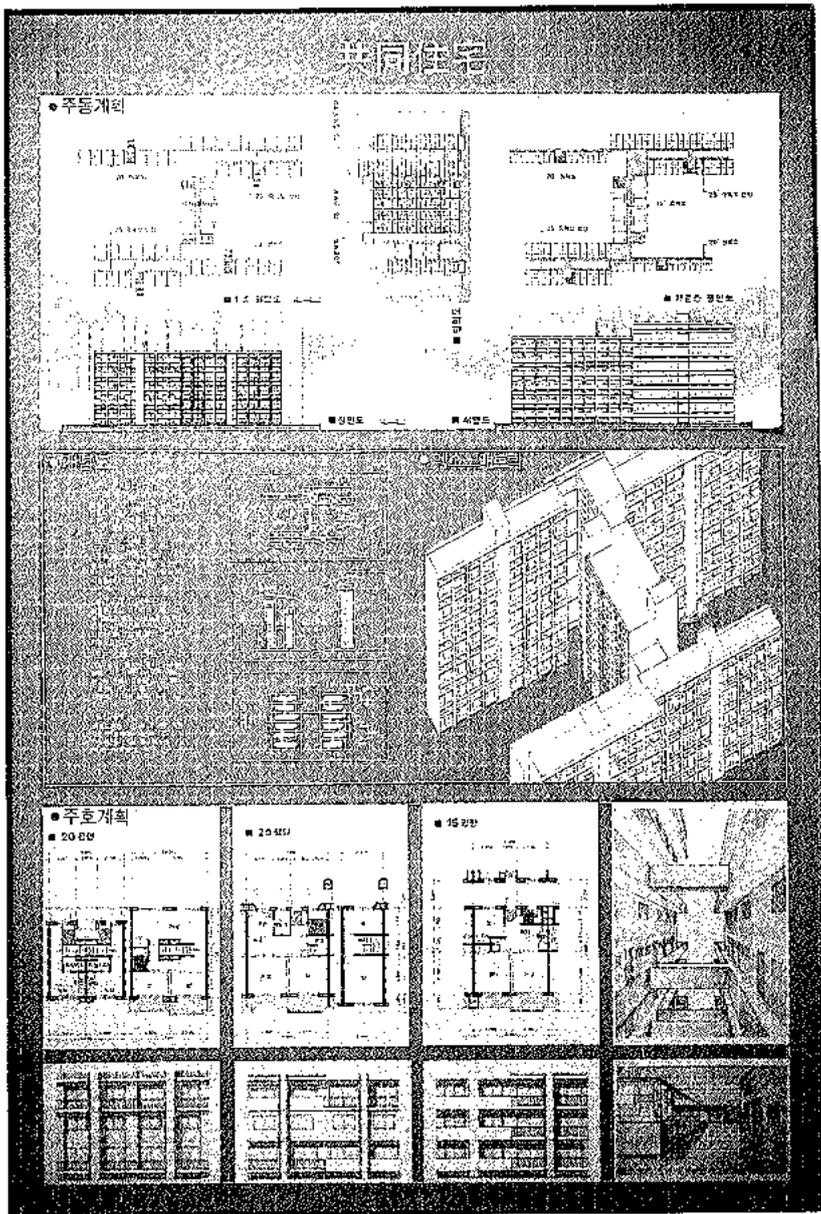
계획의 방향

- 토지 이용을 극대화화 대지조건에 순응하는 주거동 개발
- 실내공간의 수평적 변화추구
- 실내공간의 수직적 활용 방안 개발
- 장래의 수직적 증축 고려(저층부)
- 주호의 Privacy 확보 (중복도時 복도축실)
- 입면에서의 변화 추구
- 평면치수의 Module 적용 : 공업화 대비

共同住宅



이호남 / 대호건축연구소, 인건축동우회
박철기 / 유창·장종합건축, 인건축동우회
김진남 / 국민대 조교, 인건축동우회



수상소감

마감 이틀전,
폭우로 인한 정전으로 머리카락 대우며,
도면에 솜뎀을 떨어뜨리고 하였던 일들이
.....
언제나 과정과 똑같은 크기로 결과도 소중한을

우리는 참가에 의의를 목소리 크게
이야기했고
있고 있었던 중에 응모안의 수상은
큰 기쁨이며, 반면 우리를 겸허하게 한다.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현재의 있는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려는
회의본자를 위한 Design을 하는 것이다.
도와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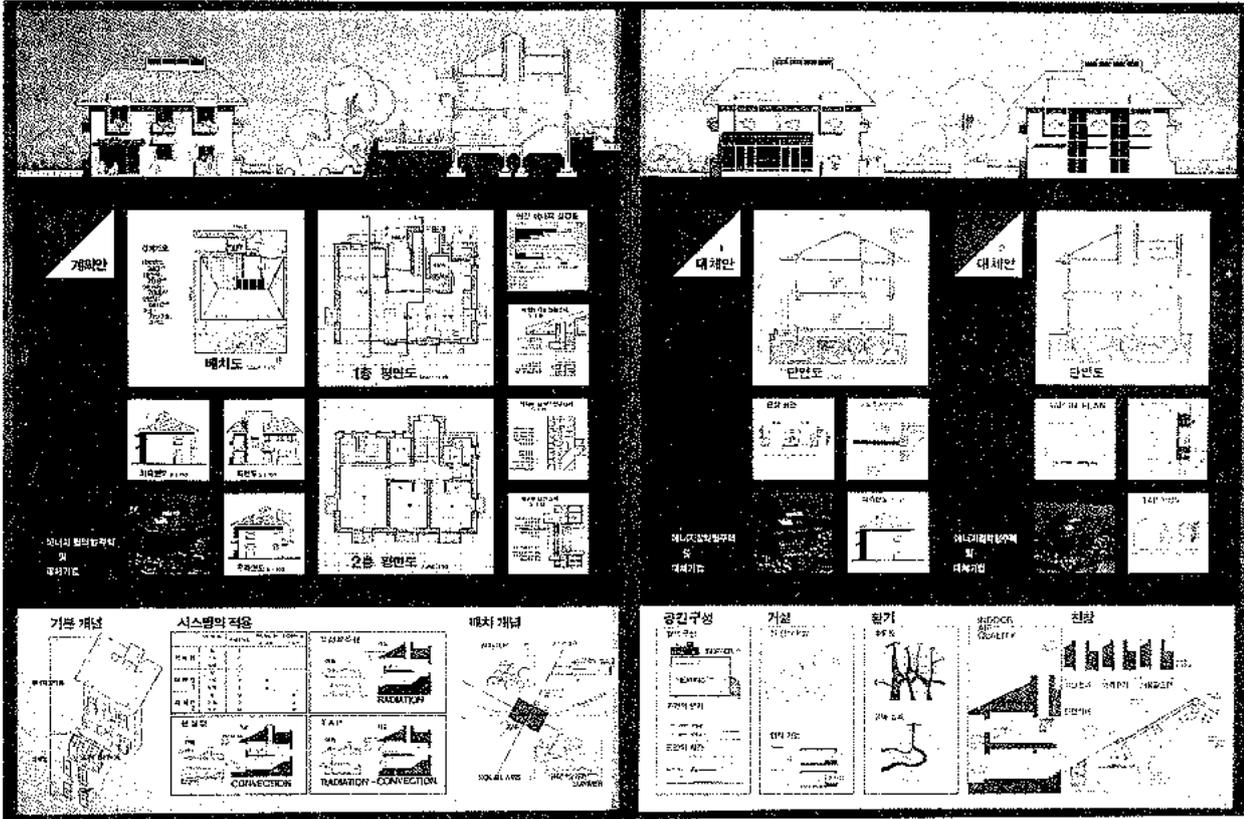
각 단위세대는 편복도와, 중복노를 통하여 들어가며, 거실과 발코니는 연결되어 충분한 전망과 빛이 확보되며 벽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융통성을 키웠다.

다량의 주호가 건설되면서 관련 공동시설의 동시계획이 필요하게 되어, 상가와 은행, 탁아소, 운동시설의 커뮤니티시설이 제안되어 있다.

외벽은 공장 생산되며, (유연)성이 부여된다.

욕실, 덕트등을 한곳에 집중 배치하여 보수관리, 편리성, 합리적 설비체제를 갖는다. 벽은 치음성을 갖는다.

에너지절약형 주택 및 대체기법



김재호/고려대학교대학원 건축과
 박만조/고려대학교대학원 건축과
 채상열/고려대학교대학원 건축과

설계소요

건 건물의 사용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은 건물공간의 환경을 설정조건에 맞도록 유지시킬 수 있는 소모에너지 양을 비용의 측면에서 최적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열부하의 경감과 최소의 운전 에너지로 공간의 적정 환경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Design Criteria는 다음과 같다.

- 효과적인 Buffer Zone 설정 · 건물형상의 단순화 · 건물방위의 채택화 · 적절한 개조용 · 합리적인 일사조절 · 효과적인 단열 · 여름철 과열방지 · 태양열의 효과적 이용 · System 제어의 편리성, 경제성 · 일반주택을 연상케 하는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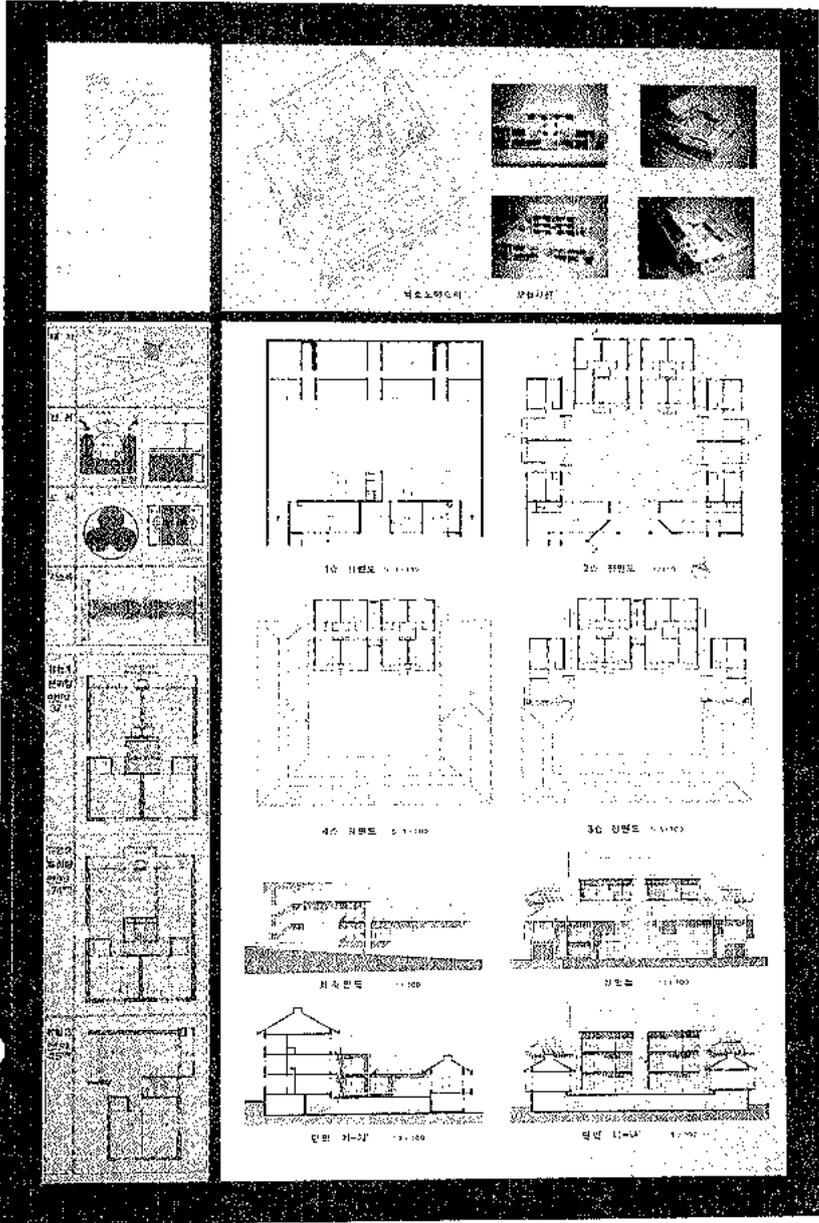
또 에너지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풍요한 주거환경을 이루기위한 생활의 질적인 측면의 Design Criteria는 다음과 같다.

- 융통성 있는 내부 공간 · Indoor Air Quality · 내외부 공간의 연계

수상소감

현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의 과제가 에너지 고갈의 위기의식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져 온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건물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십 수년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학계나 연구소 중심의 보고서 위주의 활동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공모전의 의의가 두척 크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분야의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 위주의 건물에너지 절약 기법들이 연구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공모전이 더욱 많이 개최되고 아울러 정기적으로 공모되어야 앞서 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표 / 홍익대 대학원 건축과
최영재 / 홍익대 대학원 건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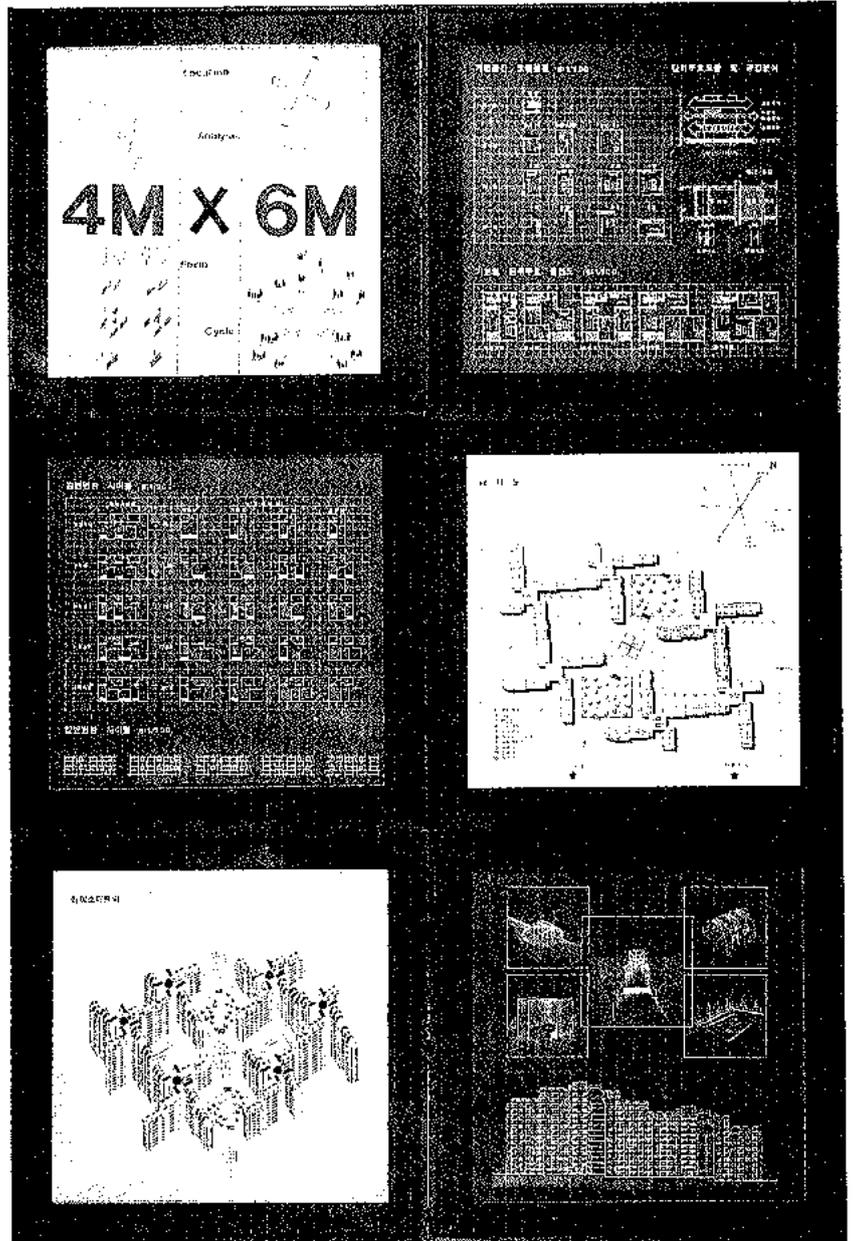
설계소요

이번 공동주거계획에서 추구하는 것은 전통의 개념, 도시의 개념, 사소특층의 개념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현재 우리의 주거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앞으로 우리 건축인들이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라고 할수있다. 우리는 이번 계획에서 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에 있어 전통심회복을 위해 전통주거패치계획인 「자형 배치(중정형배치)계획을 하였고, 평면계획에서는 좌식생활을 위수리한 마루공간의 도입과 이불과 요를 사용하여 공간의 융통성을 살렸다. 둘째, 도시는 수많은 주거로 이루어진 유기체이다. 이러한 도시에 들어가는 주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각 주거간의 커뮤니티(Community)형성이다. 사회와 공동주거단과의 커뮤니티형성을 위해 1차배치공간인 생활품 연쇄점, 약국, 분식집을 계획하였고 공동주거단지내의 커뮤니티형성을 위해 유아원과 안마당을 계획하였다. 셋째, 저소득층 중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계획에서는 최소한의 면적에서 가장 편안한 생활을 위한 최적의 공간계획과 각 세대의 경제적인 여건과 가족구성에 따라 주거의 규모를 조정할수 있는 가변형 공간계획을 하였다.

4M X 6M

오기환 / 부산대 건축과 조교
 우세진 / 부산대대학원 건축과후
 이경원 / 부산대 건축과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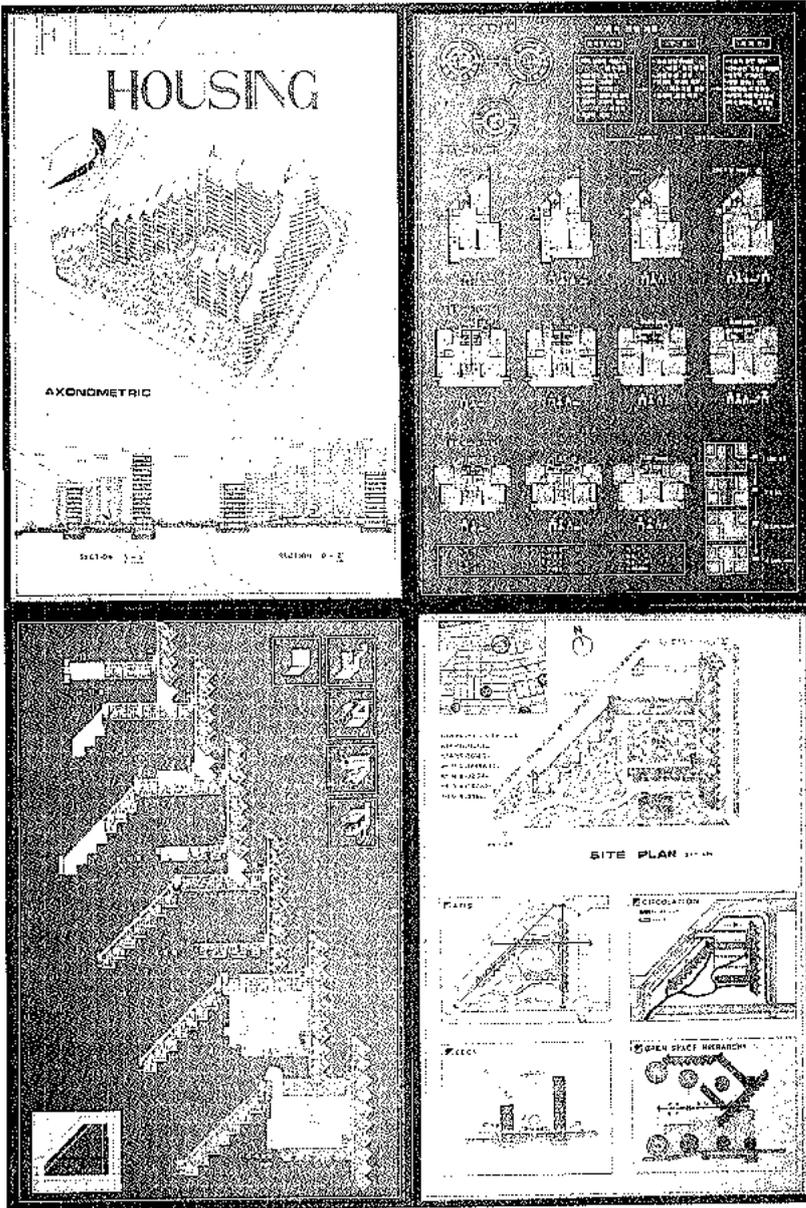


설계소요

현대의 고층주거는 전통적 주거관념인 정주의 개념과 대치되는 인스턴트적 생활환경의 저성에 의한 비정착성에 의한 문제, 즉 정주와 이에 반하는 변화에 대한 욕구라는 2중성의 해결을 가장 큰 근원적 과제로 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고층주거는 모든 단위주호가 정형화되어 있어 인간의 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공간활동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어 결국 이주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토지정착에 대한 관념을 더욱 약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변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의 계획들은 단위공간의 용도변경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정형과 변화라는 모순된 갈등의 해결을 위해 정주에 그 기본개념을 두어 한 곳에 정착하며 생활 주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변성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Flexible Housing (가변성 주거)

정호경 / 광장건축(부산)
안종석 / 필건축(부산)
김희준 / 유니온건축(부산)



설계소요

주거에 있어서 실내공간구성의 다양화는 입주자 각각의 서로다른 개성, 가치관,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주거생활의 요구에 부응할수 있는 주거형의 발달을 의미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다양한 가족구성, 생활특성, 소득변화에 따른 면적확장등을 감안해 볼 때 주거의 적용성, 가변성 문제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다양한 불확정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수용할수있는 방법론적인 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입주자들에게 고정부분과 변경가능한 가변부분을 부여하므로서 각 세대의 구성원 및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적용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빛 그리고 그림자

천종만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미건축사
최종선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미건축사

설계소도

■ 에너지 절약형 System 계획.

- 기후조건빛 에너지 절감량 조사는 연 46.5%의 에너지 절약형을 피하였다.
- 주출입구에서는 방풍실을 등과 동시 북서쪽의 개구부 면적을 최소화하고 전면에는 윈층공간을 두고 외벽 부분에는 단열재(100mm)를 강화하였다.
- 현관에서 온실에 이르는 홀은 Sun Room 을 등으로 겨울철에는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Open Space 를 구획하였다.
- 자연에너지 융합으로 대류현상 및 빛에너지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온실부분으로 Sunken Port 부분의 북쪽 끝부분에 환기구를 설치 적당한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도 돌출시켜 기후 변화에 조절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대체용 System계획(태양열)

- 집열판을 이용하는 Solar Energy Collector를 선정하였다.
- 물을 이용하는 Liquid Collector System을 도입 난방 및 급수에 대처 하였다.
- 지하층에 보일러실을 두어 비상시 보조연료를 이용하도록 설계하였다.
- 각실 에너지 System적용
거실과 침실-부착온실+측면벽식
식당과 부엌-태양열 방식+분리 획득식
기타-보조연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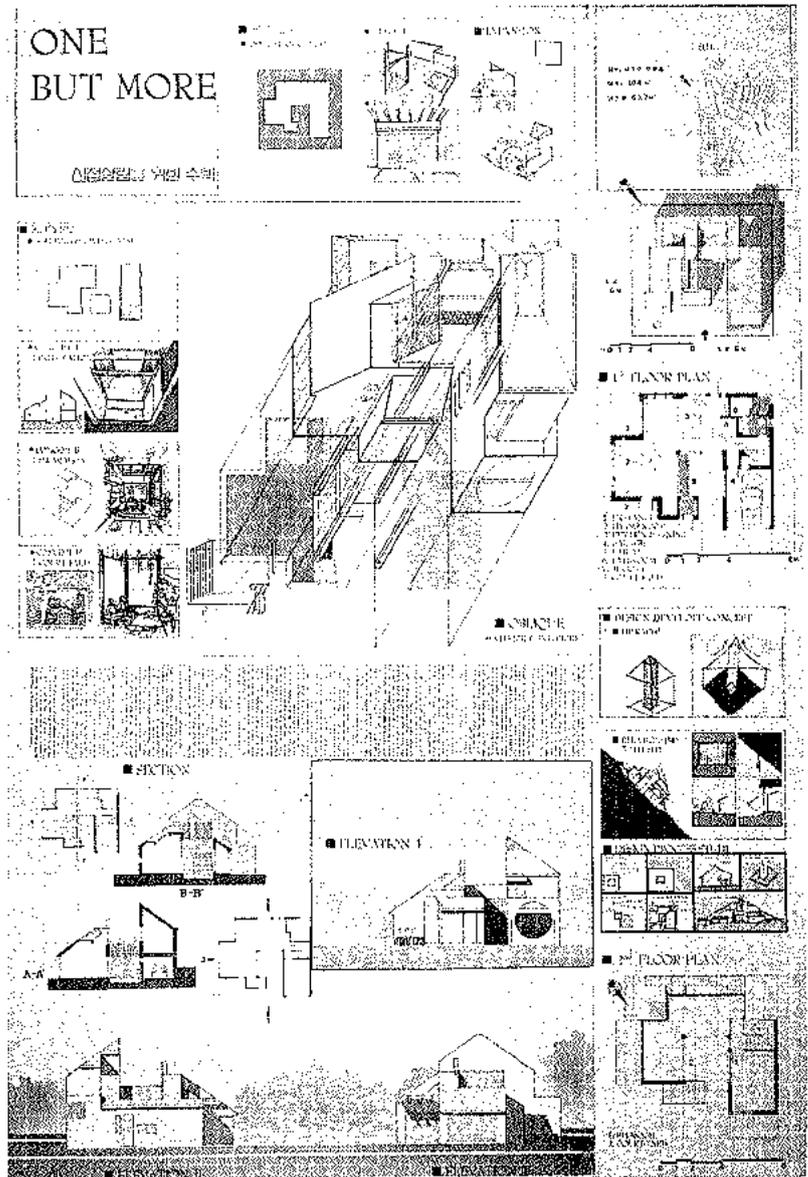
One But More

설계소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선 생각해 보니 Open Plan과 확장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 되어가는 것이 현 세태이므로 확장성만을 위한 집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 방 하나 정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또 그보다는 부부만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에 Open Plan에 중점을 두었다.

누구라도 최소한의 Privacy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Open Plan을 크게 Living과 Sleeping Zone으로 구분했다. 또 이 두 공간이 기능상 분리가 되면서도 어느 정도 시각적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벽이나 칸막이가 아닌 매개 공간이 필요했다. 이 해결방안으로 중정을 채택했다.

내지는 아늑분한 뒤 중앙에 있는 중정이 건물 외관에서 드러나도록 처리했으며 전체 Mass가 중정을 향하여 보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시각적 형태의 Mass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자칫 어두워질 수 있는 중정에 적극적인 빛을 도입하기 위하여 거실과 식당의 윗부분을 천장으로 처리하여 동절기에도 직사광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병구/서울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수상소감
박현선/서울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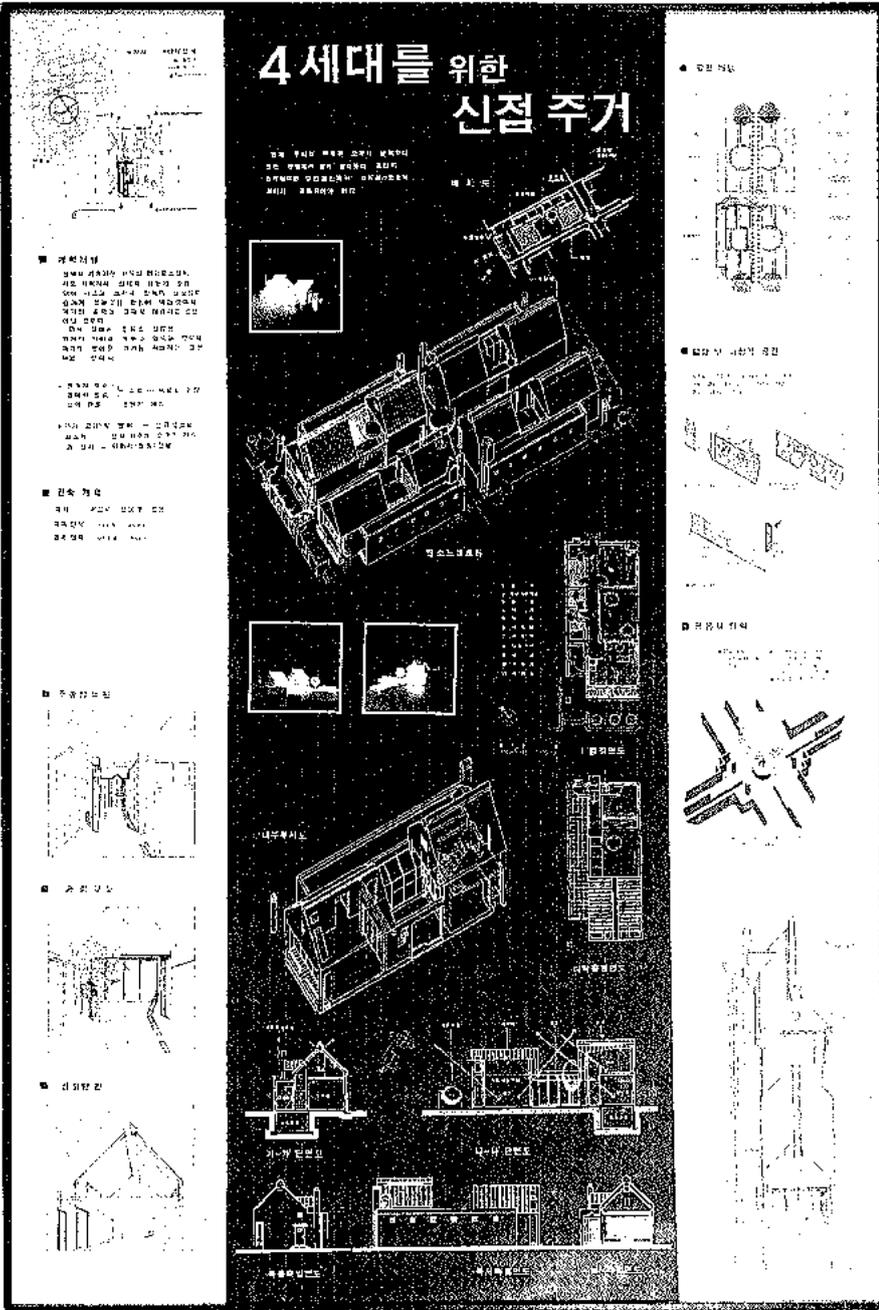
처음 설계를 시작하였을 때만 해도 자칫 무료해질지도 모를 여름방학 동안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텅빈 3학년 설계실에 모여앉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신집살림을 위한 단독주택' 이라는 주제부터가 지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제이기에 Approach 단계에서부터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맴돌게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던것 같다.

생각하고 그려보고 토론하고 수정해나가고, 그러다가 다시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기를 몇번. 많은 고민과 작업 끝에 페넬을 완성한 후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었으나 그래도 우리가 해냈구나 하는 인도감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낄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큰 상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다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만 들게 된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언제나 조언을 아끼주지 않았던 윤규형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평생와도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4세대를 위한 신접주거



4세대를 위한 신접주거

설계소요

현대인들은 개개인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공유된 우리의 가치관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안마당은 모든 주거에 있어서 정신적 구심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안마당의 개념을 확대시킨 공동체의 영역인 뒷마당(정자)의 개념은 공동체의식 형성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신접주거에 이것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노종석/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김종섭/건축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김경환/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수상소감

잊혀져가는 과거 세대네의 분위기를 연상하면서 시작했던 준비의 시간들...
누구나가 보았을 때 집다운 맛을 느끼면서, 공간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어 보기도 했었는데, 작업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신접살림'이라는 테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였으며 과연 이 테마가 원하는 답은 무엇인가를 추측하는 일이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점은 개념의 풀이과정이 평면 계획에 거의 반영되었다는 점이며, 특이한 것은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작품전에 임한 점이다.
결론을 짓는다면, 공간은 인간을 위한 적정한 공간이어야한다는 점이며, 표현되는 도식적인 것들이 테마의 분위기에 맞아야한다는 극히 일반적이면서도 어려운 사실을 조금이나마 피부로 느꼈으며, 한 번의 선도. 결코 부관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느끼게 했다.

오늘 ... 그리고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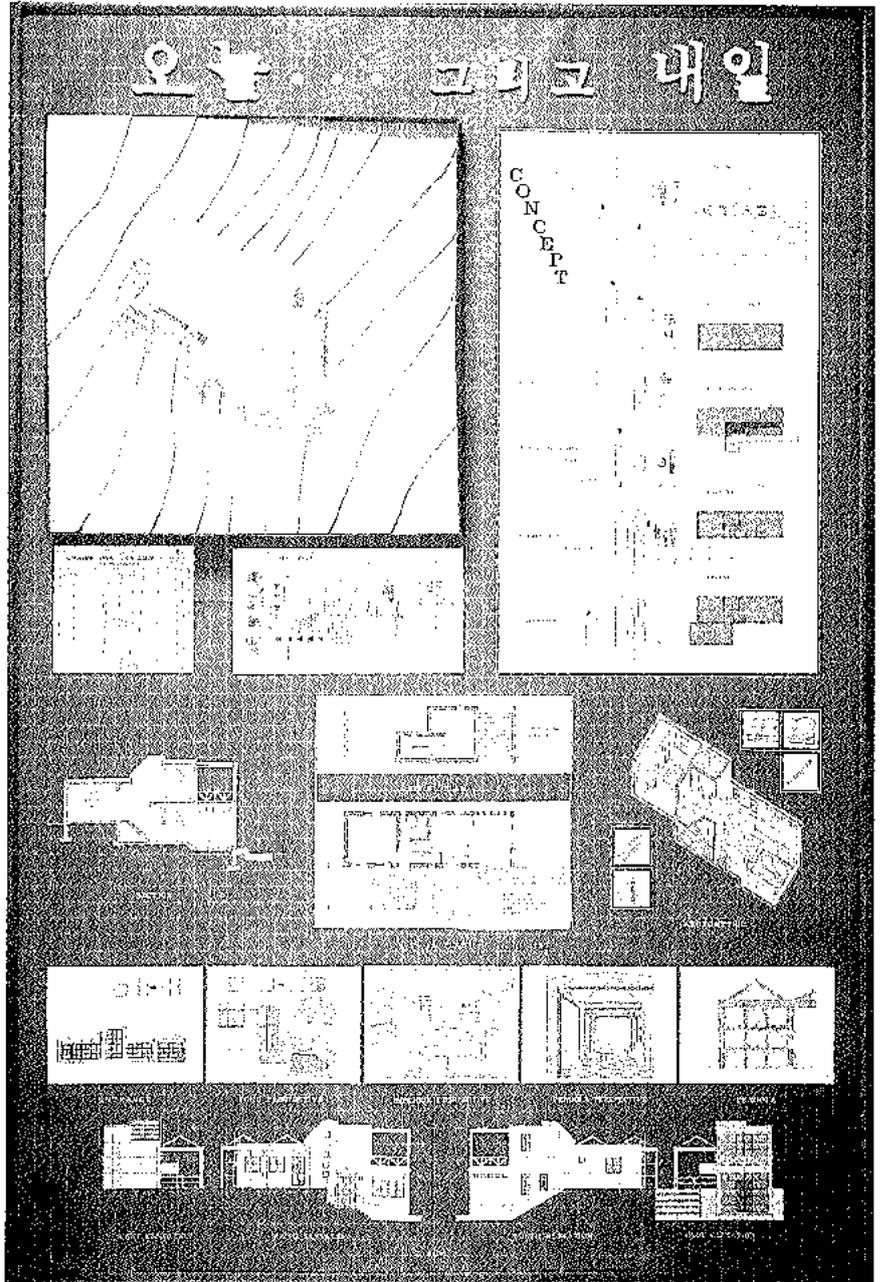
설계소묘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대지위에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설계되어진 이 계획은 점점 변화하여가는 주거의 패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세워되었다.

현재 신접살림에서 나타나는 큰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살림이니만큼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신접살림 주거가 가족수와 가족수의 증가에 따른 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슬럼화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는 점이다.

이에 본 계획은 이 두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경사지를 대지로 선택하였으며 확장성을 기능케하고 신접살림 주거가 단순히 신접생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집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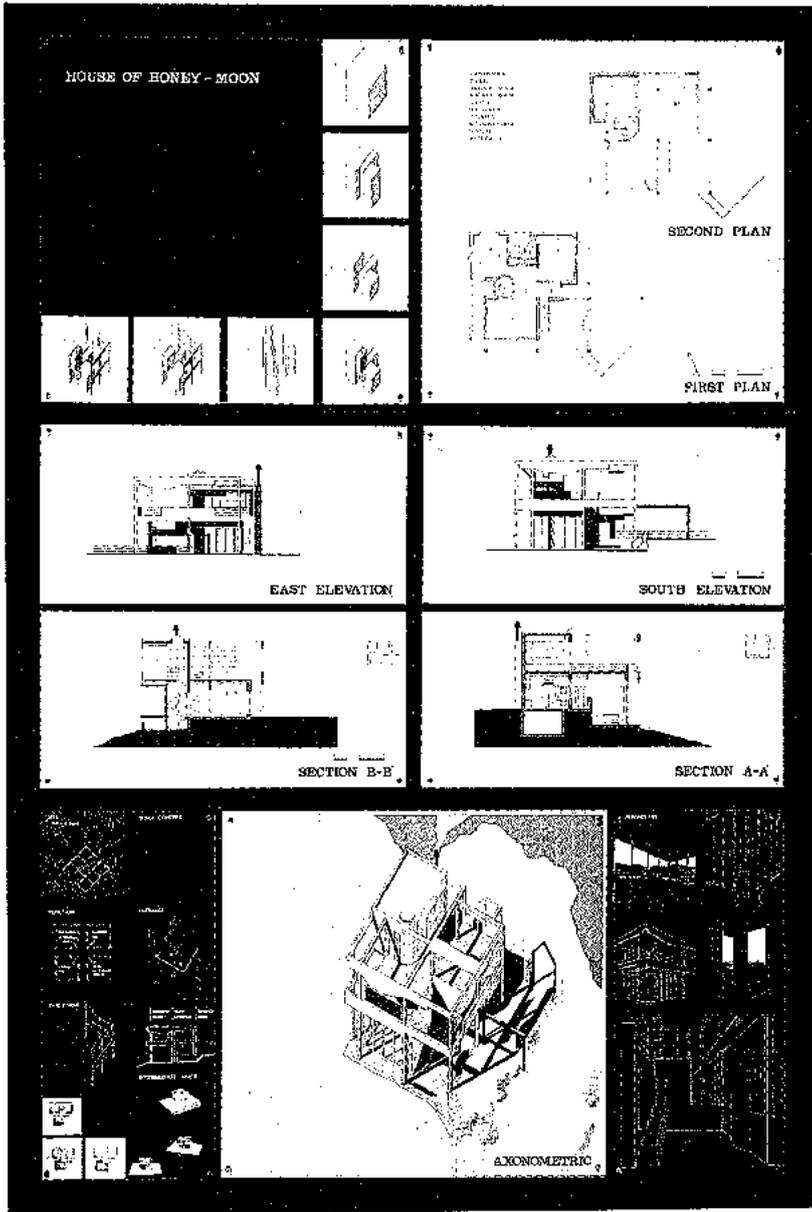


수상소감

임재철 /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김종관 /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박진순 /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소재사냥을 하며 분주했던 여름.
 신접살림이란 달콤한 주제는 장차 우리들의 집이 될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다른 어느 부문의 공모전보다 우리의 관심을 끌었으며, 애정을 갖고 작품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개념상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우리의 내일을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수상의 영광과 함께 얻어진 성과중의 하나라 하겠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비단 우리 셋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여러모로 돌봐주신 부모님과 세움 작업실의 선배님들, 후배들 그리고 동기생들, 그밖에 주위의 모든분들께 이자라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드린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House of Honeymoon

남기태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김석원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우대성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설계소요

■ 계획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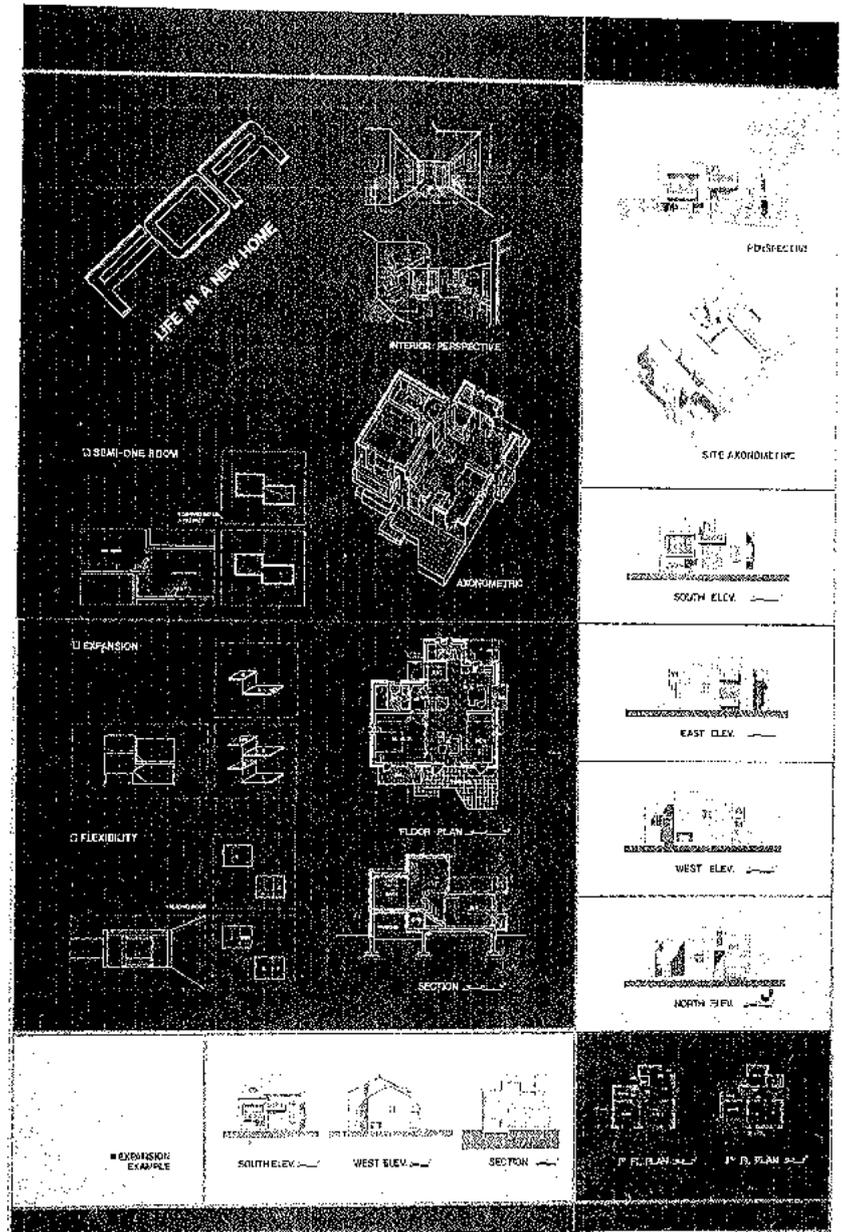
- 1 신접 살림 생활자들을 위한 환경조성.
- 2 경사 대지 이용 - 지가의 저렴화.
- 3 성장 발전하는 주택상 구현.

■ 계획의 기본 방침.

- 기능.
 - 각 실간의 영역성을 확보하면서 불필요 공간을 배제.
 - 기능에 따른 공간 분려 •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 연결 • 토지의 효율적 이용
- 형태
 - 지형과의 조화 • 절제된 형태미 • 현대적 재료의 사용.
- 의미
 - 단독 주택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For Life in a New Home

박기성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김연출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홍근표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설계소요

■ 설계의 주안점

* Semi-Oneroom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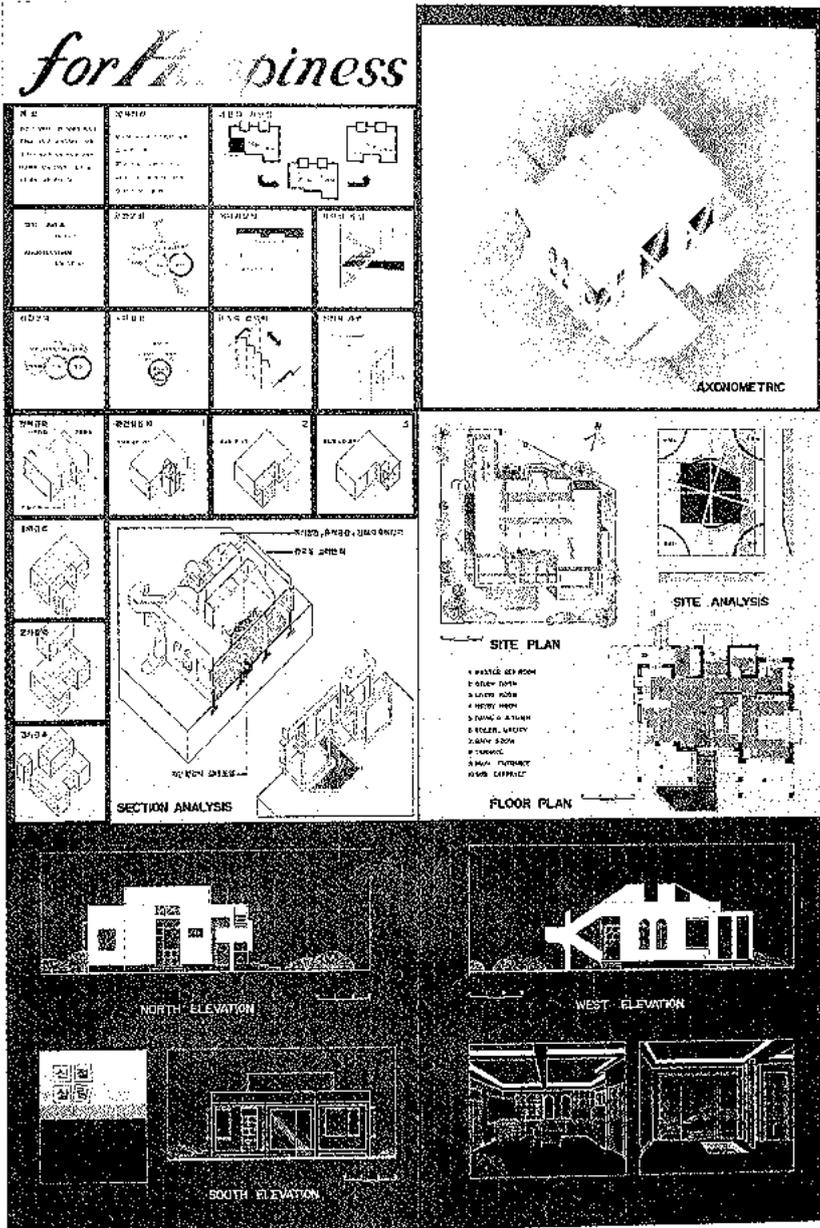
스킵 플로어로 계획하여 부부침실을 거실과 분리시키되, 내장을 두어 거실과의 공간적 연속을 꾀하였다.

* Flexibility

거실과 나용도 방에 머닫아 문을 두어 필요시 개방 또는 폐쇄하여 공간을 효율적이고 이용토록 하였다.

* Expansion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공간수요를 고려, 수직적 증축이 가능토록 하였다.



For Happiness

김명수/서울산업대학 건축공학과 4학년
김 석/서울산업대학 건축공학과 3학년
최의선/서울산업대학 건축공학과 3학년

설계소묘

이번 계획은 신혼 주택인만큼 아이를 갖지 않은 젊은 부부이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스타일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작품의 첫번째 개념은 20평 내외의 좁은 공간과 대상이 신혼부부인만큼 경제성을 고려하여 One Room System의 형식을 도입하였다.

각 공간을 분할 하는 것보다는 원룸의 형식을 위하여 벽의 시각과 동선의 차단으로부터 공간을 별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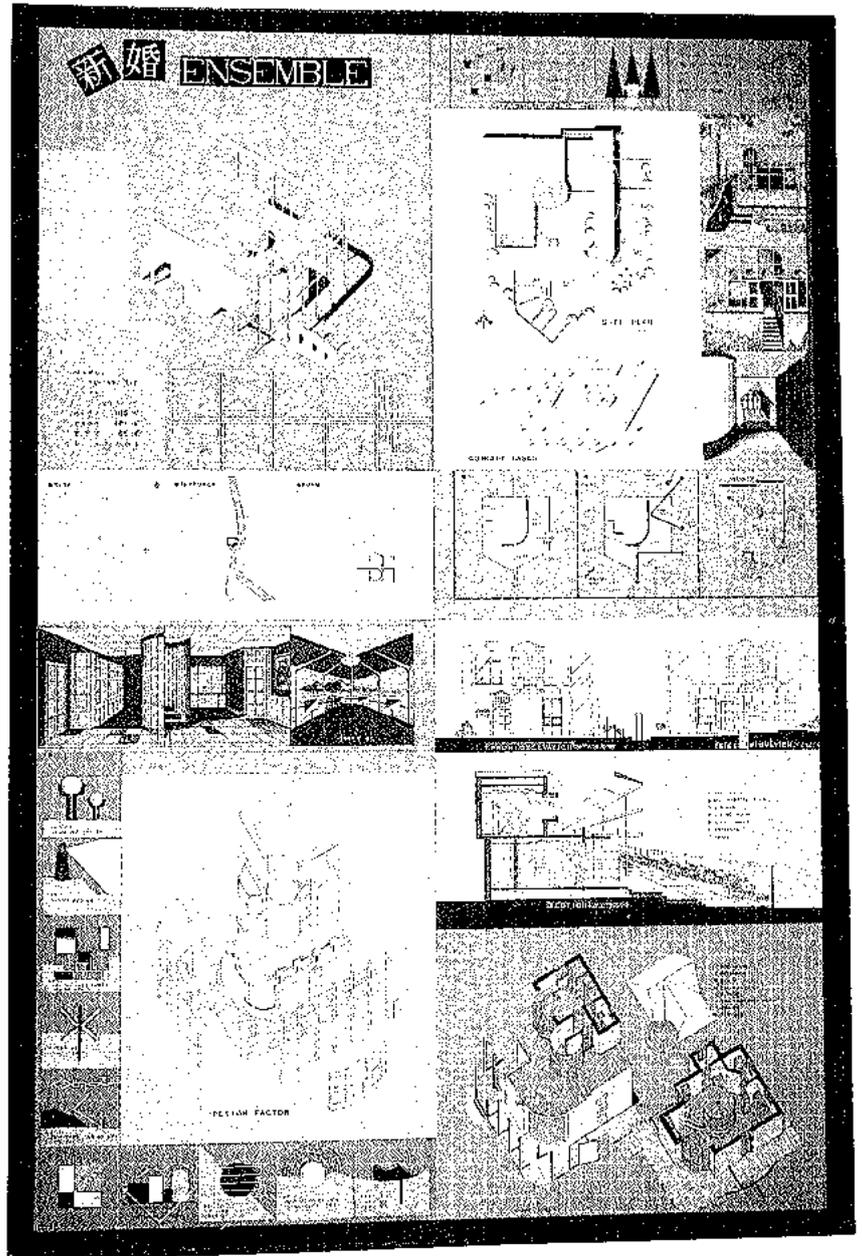
둘째, 협소한 공간을 가구와 유동식 칸막이를 이용하여 가벼운 공간을 구성하였다.

셋째,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사용빈도가 낮은 실은 북쪽에 배치하여 난방손실을 최소화하였다.

넷째, 자녀를 낳게 되고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증축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일단 1차적으로 자녀 공간을 생각하여 취미실과 테라스 부분을 증축하고 2차적으로 옥상정원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증축하여 침실공간을 위로 올릴 수 있게 계획하였다.

신혼 ENSEMBLE

오해욱 / 부산공업대학 건축과 4학년
김광호 / 부산공업대학 건축과 3학년
박홍주 / 부산공업대학 건축과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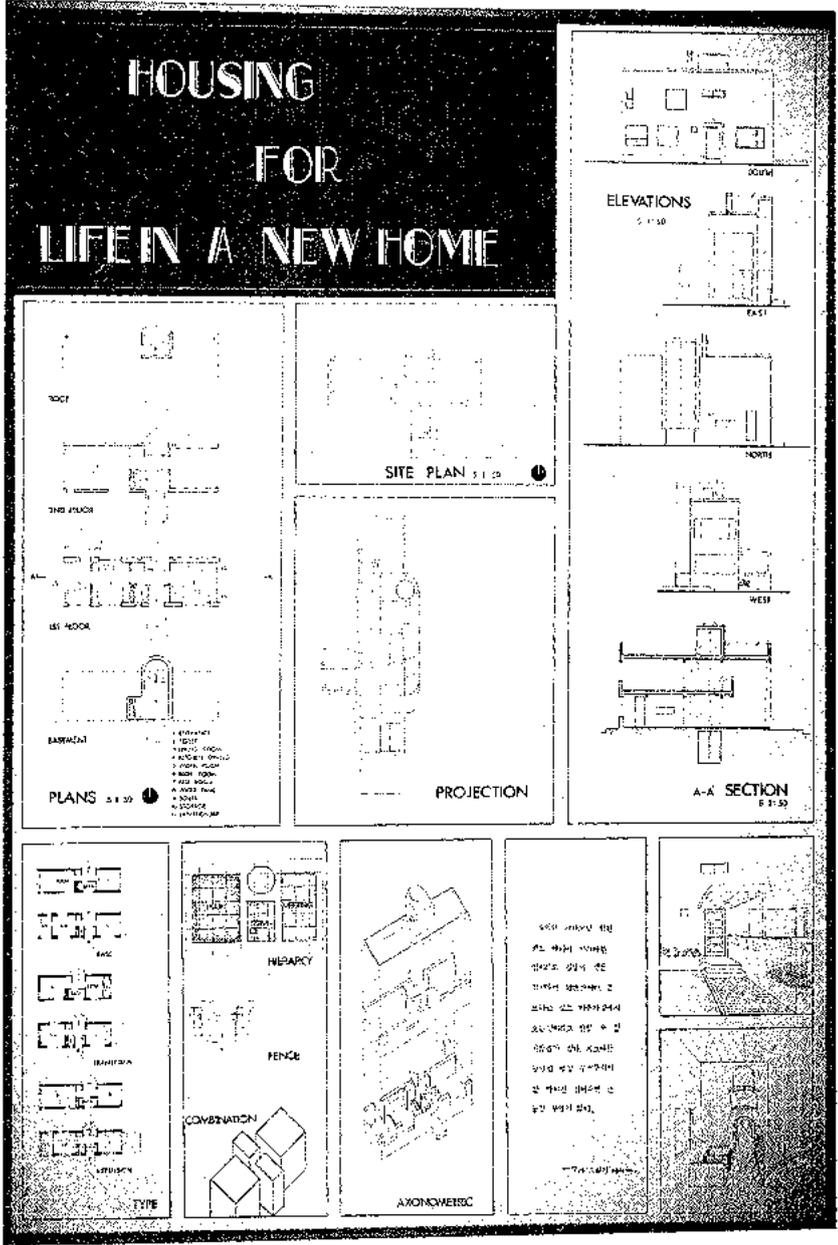
설계소요

신혼 주택의 기본개념은 자연과의 만남이며 자연에의 순응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은 지형에 순응하고 각 주택마다의 공적 및 사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1m Cubic의 기본적 모듈을 이용한 자연적 Scale과 인간적 Scale의 조화.
2. 관통된 시선을 부분부분에서 느낄 수 있도록 투명성을 곳곳에 부여하고 외부공간의 적극적 도입을 시도하였다.
3. 중간적 영역의 마당, 사설 공간을 도입하여 (보다 중심적이고 내부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보다 외부적인 기능을 중요시하던 지난날의 마루에 비해)외부로 더욱 표출되면서 기능을 오히려 내부와 더욱 친밀한 관계의 거실을 추구.
4. 결합과 연속으로 Human Scale로 공간의 흐름은 위기적으로 구성하고 기존동선을 자연스럽게 이끌림 유도.

Housing for Life in a New Home

이용선 / 인천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최성희 / 인천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김환상 / 인천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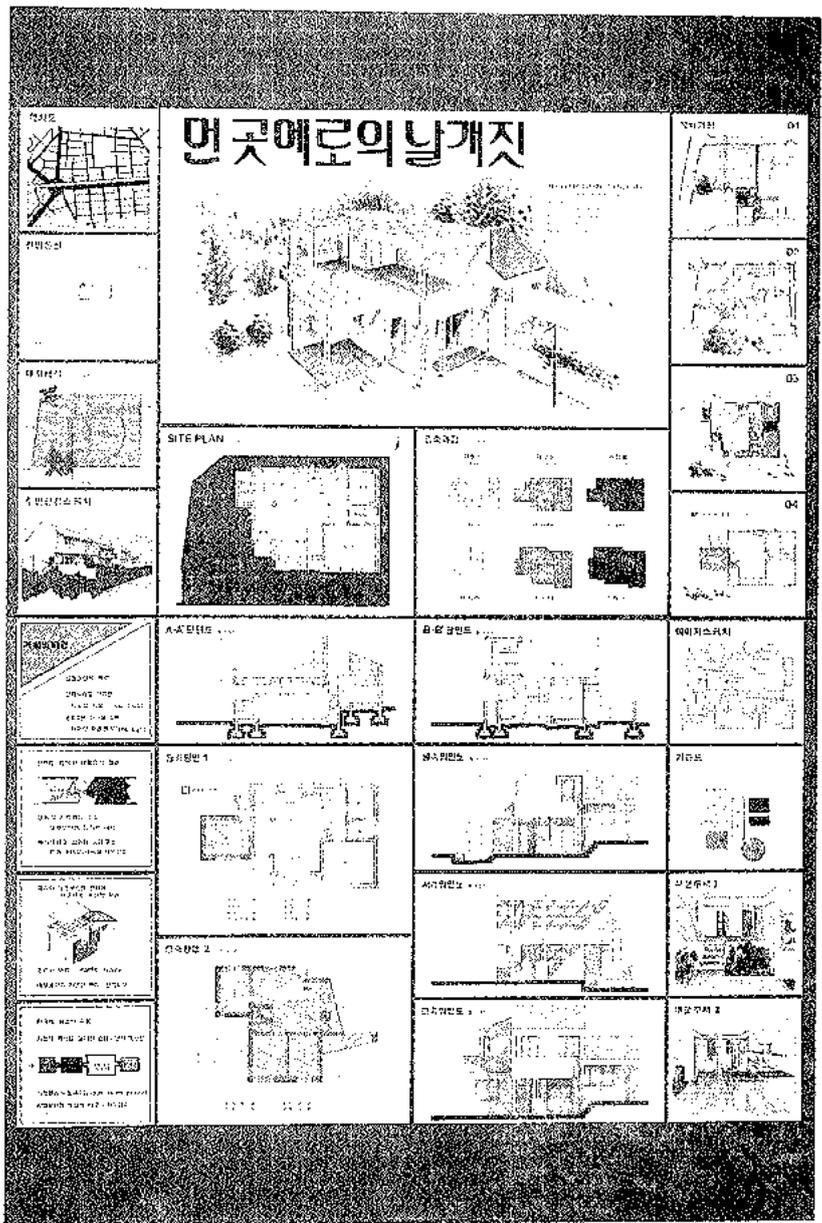
설계소묘

기 복도와 계단실로 개념을 출발한다. 무난한 단층주택계획을 시도했으나 본 팀이 의도한 공간변화에
 는 대응적이지 못하여 2층으로 계획의 결론을 유도했다.
 1층부에는 부엌과 식당을 겸하였고 작업실을 두어 여성에 대해 혼자만의 전용공간을 선사했다. 거실부
 의 기능은 확대시키지 않았다. 거실 상부에는 증축 가능한 구조로 구성된 보이드가 있어 공간 상호 관입을 꾀하고 있다.
 유보의 개념을 주어 복도는 갈피 막힌 곳이 없는 Arch의 행진이다. 복도 부분은 단순통행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동선과 오픈공간 그리고 출입의 역할을 겸한다.
 침실은 2층에 있다. 직장과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미력하나마 휴식감을 더할 수 있도록 1층
 부와 계단으로써 수직적 분할을 주었다. 가감 보이드를 통해 내려보기도 하면서…….
 Type B는 작업실과 예비실의 위치를 교환시켜 서재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두고 장차 방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먼 곳에서의 날개짓

이석범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김경란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임현미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설계소묘

본 계획안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신집살림, 그 자체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둔 미완의 소규모 단독주택으로서 성장·변화·대응하는 융통성을 부여한 가변주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분체의 배경들을 저변에 깔고 그 해결 가능성을 향해 힘찬 날개짓을 해보고자 하였다.

주체의 특성상 정사지를 이용하여 단차를 둔 주거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신집살림 주거로서의 세대, 남녀간의 활동공간과 휴식공간을 신중히 고려하여 독립성이 확보된 실내환경과 좁은 공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적극적 채광방식으로서 천창을 설치하였으며 소규모 공간 이용의 적절한 방식으로서 개구부등의 개폐방법-미닫이문-을 고려하였다. 또한 결혼후에도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취업여성인 증가함에 따라 노인세대와의 동거가 필요해지게 되고 한국적인 주거 생활양식으로서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를 고려한 중층 가변 모델을 제시하였고 개인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생활주거에 따른 가족전체의 생활방식이나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짐에 따른 그 대응방안으로서 내외부 공간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Honeymoon House

김계원 /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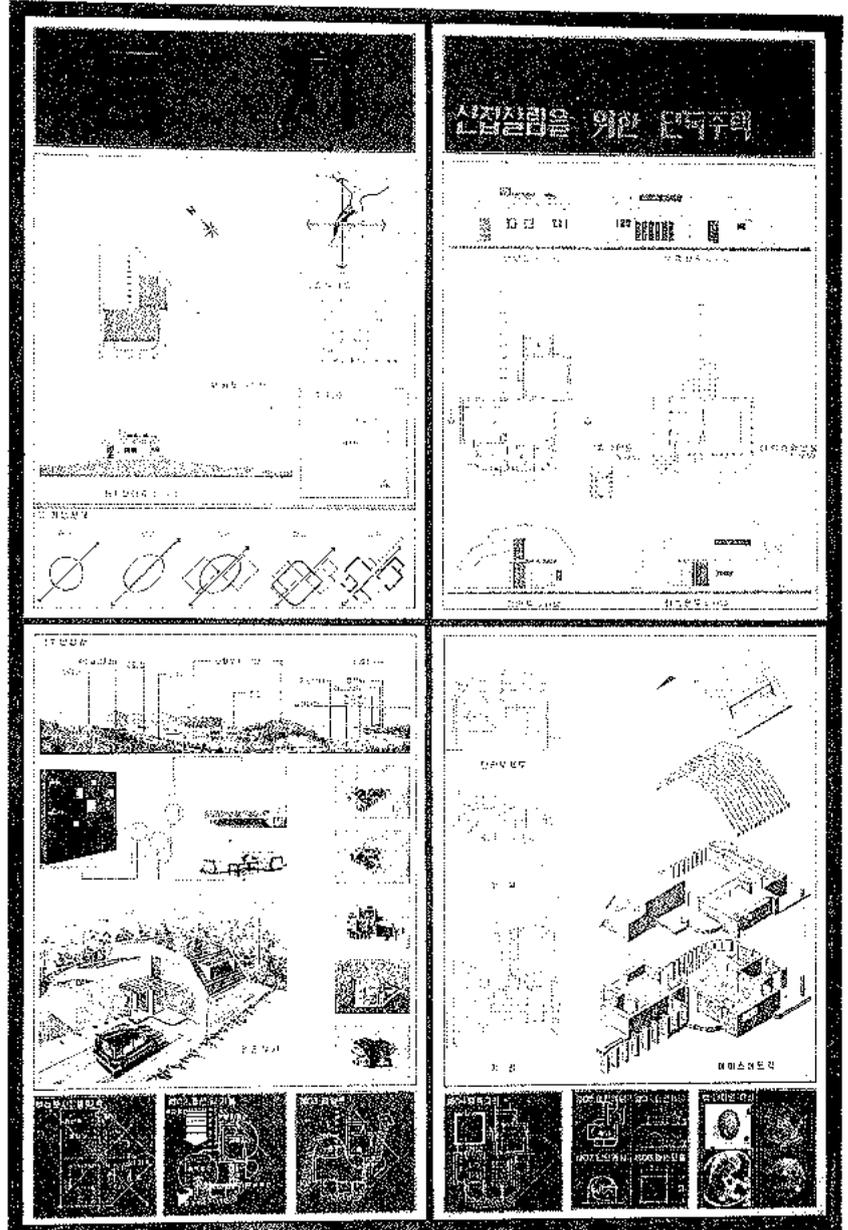
설계소요

- 본** 주택의 개념은 현재의 일반적 주거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주거 연구를 중심으로 계획의 방향을 잡았다.
1. 최대한의 태양광선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계획으로 앞뒤의 창외 봉봉으로 환기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거실 중앙에 천정의 도입으로 태양빛의 최대한의 활용이 모색되었다.
 2.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의 대지(81㎡)와 공동부지에 의한 주거계획.
도시민 저(중)소득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고밀집화 되어가는 도심지 또는 외곽지역에 개인적인 독립주택을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이러한 문제해결로 20평이하의 주택건설을 단종이 아닌 2층 개념으로 신혼부부의 Privacy를 확보하고 법규적 최소대지의 선정과 더불어 또한 2세대의 공동부지 형식으로 경제적이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동주거와 증축형 주택의 계획을 모색하였다.
 3. One Room System의 응용으로 최소면적에 최대의 공간 활용을 모색하여 현실적이고 가변적인 공간 연출을 창출해 낼 수 있다.
 4. Slidene Wall의 도입으로 가변성 있는 내부 공간을 계획한다.

등지

신접살림을 위한 단독주택

심재군 /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신정희 /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2학년
 한정희 /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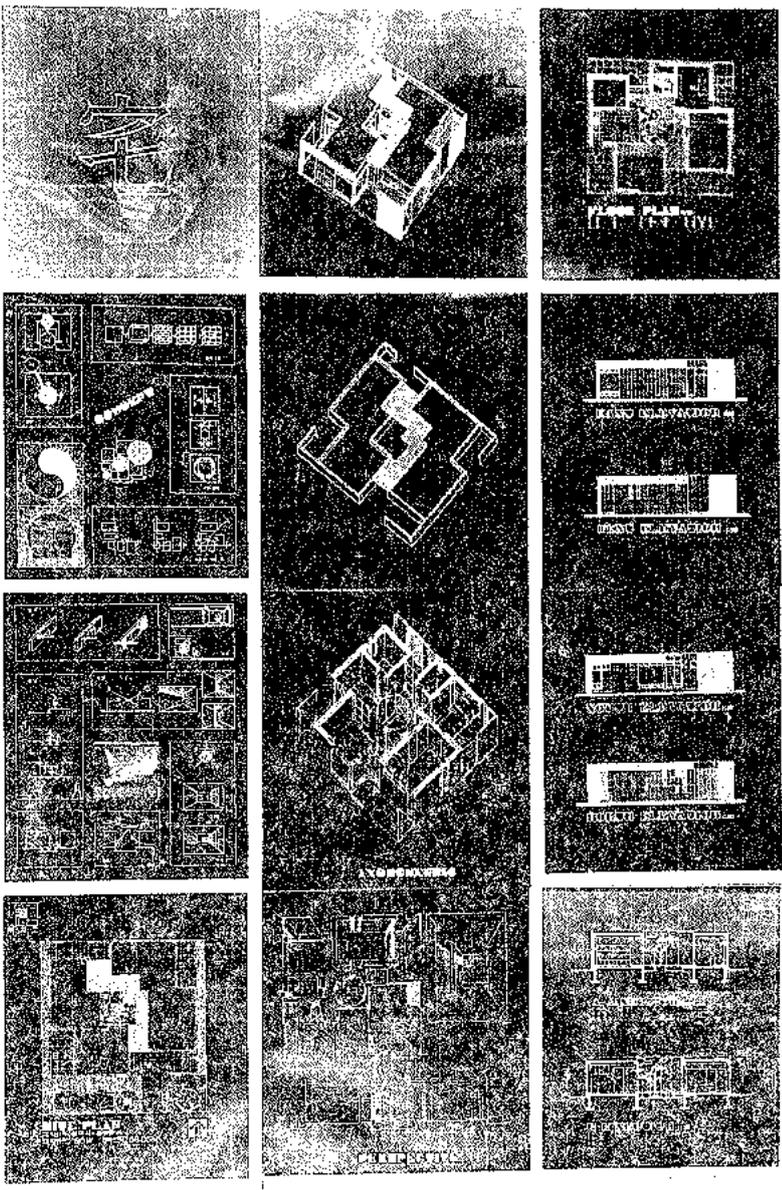
설계소요

신 접살림하면 등지, 보금자리, 꿈, 낭만, 희망, 이상, 창조 신비등을 연상하게 된다. 우선 설계에서

- 하나의 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원룸 시스템과 기능에 의한 공간의 다양한 이용
- 축에 의한 방향성 및 접근성 고려
- 정적인 공간과 동적공간의 분리
- 2세가 성장 함에 따른 층추 고려
- 자연스러운 채광 및 불의 계획, 조망 계획을 하였다.

宅

양승택 / 충북대학교 건축인학과 4학년
박원석 / 충북대학교 건축인학과 3학년
김동석 / 충북대학교 건축인학과 2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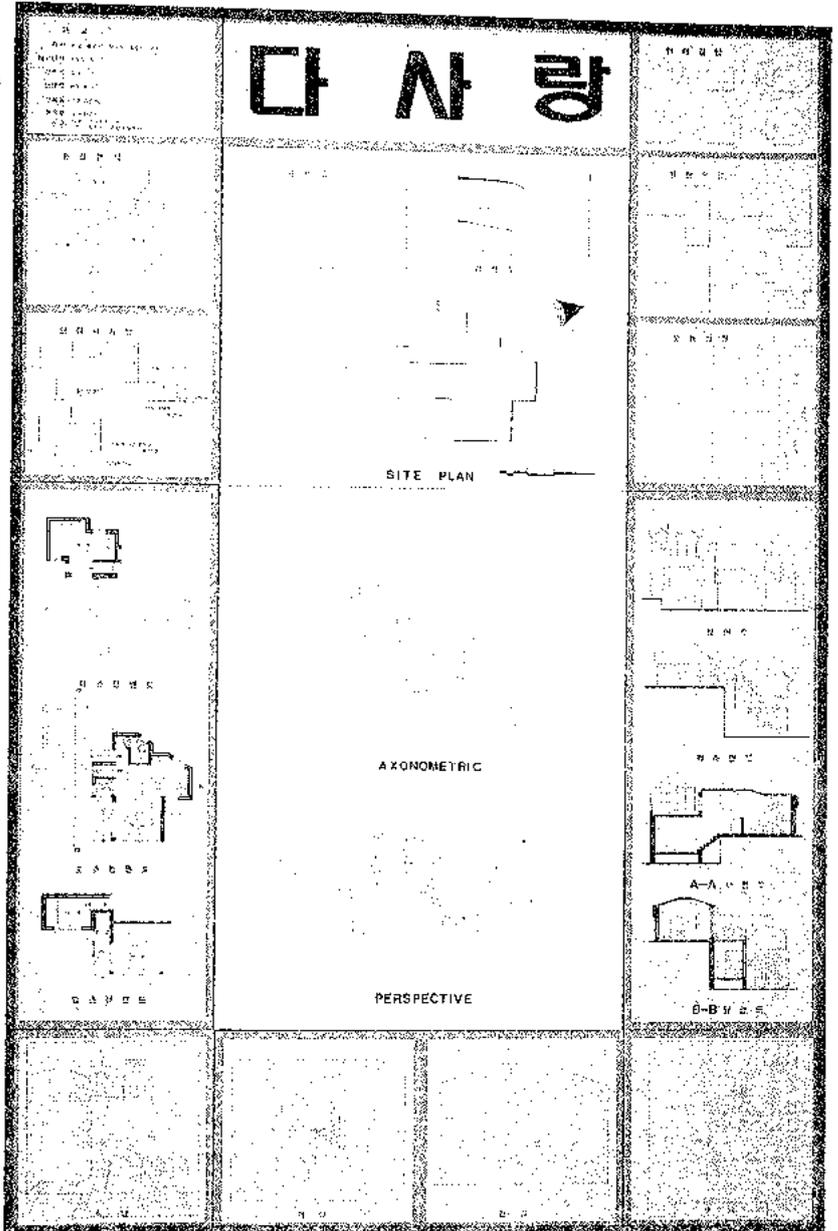
설계소묘

목적 잠한 도시환경 속에서 편히 쉴 곳은 오직 주택뿐.
그러나 좁은 땅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불망한 외부환경에 조금이라도
보호 받는 신혼을 위해서는 내적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한다.
고로 다음 다섯 가지를 기본 이슈로 신혼을 위한 새로운 주택형을 제안한다.

- 내적 환경 개선으로 축소적 자연과의 동화
- 전통수거 안마당의 개념화의 증명
- 효과적인 외부환경 인식
- 획일적인 입면탈피와 단순정의 미

다사랑

유완희/울산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김종태/울산대학교 건축학과 1학년
김지철/울산대학교 건축학과 1학년



설계소묘

주택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 역사 이래 꾸준히 맥을 이어 발전해 왔다.
T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주위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그릇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그릇이 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전통의 제구린 전통을 외치게 되었다.
 그러나 끊어졌던 맥을 잇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노력과 투자만이 그것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설계의 테마 해석 방향을 전통에 근접시켜 우리가 갖는 그릇이 이것이 이년가 하고 생각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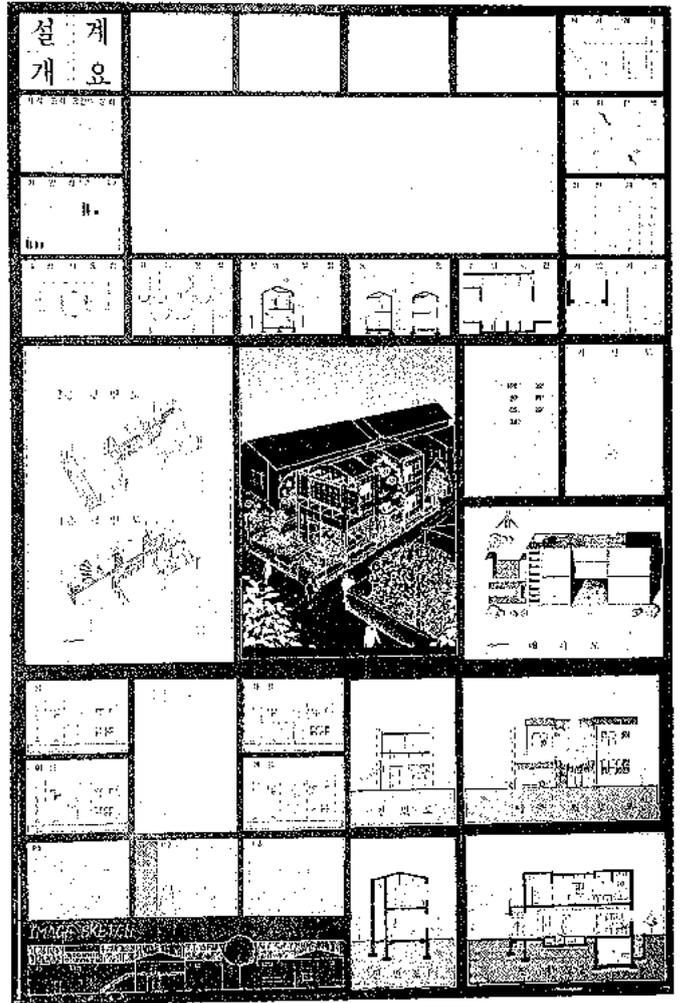
작은 공간의 필요로움을 위하여...

김상오/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심재춘/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이병욱/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설계소묘

“가정은 이상의 천국”이라는 말처럼 인간들이 모여 이룬 사회의 근원적인 출발점인 가정은 다른 곳보다 인간, 그 자체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유기체 속에 융화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현상과 그에 맞추어 가정생활의 중심도 점차 핵가족화하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외함으로써 보다 작은 공간 내에서 마음의 풍요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계를 시작하였다.

중정의 도입, 사공간과 공적공간의 분리를 큰 줄기도 하여 어느 곳에서나 빛을 받을 수 있고 동풍이 잘되며 소규모 주택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수납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전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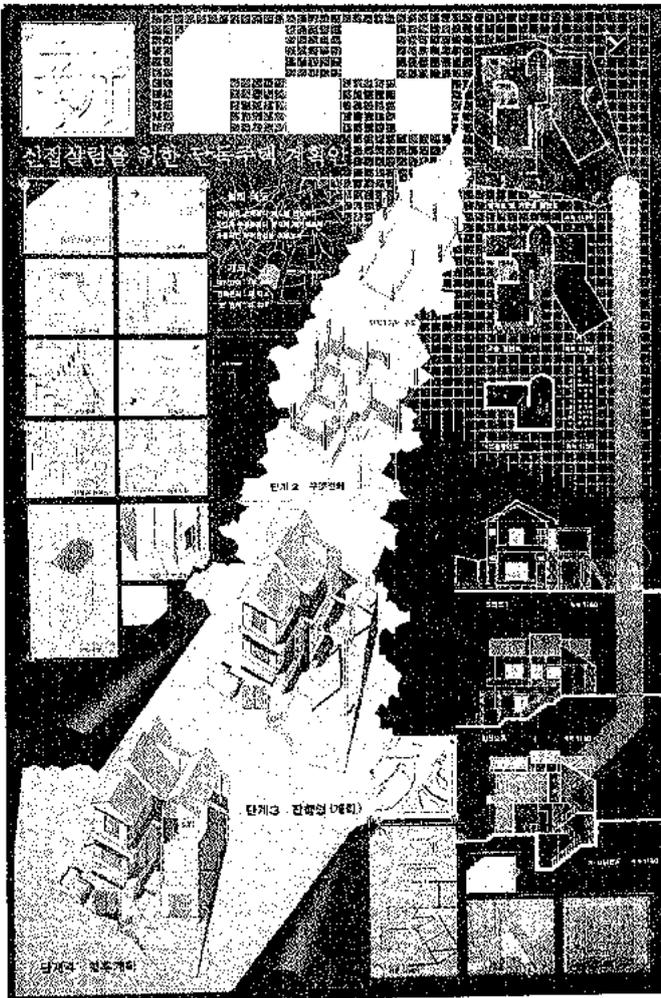
新 신집살림을 위한 단독주택 계획안

백재욱/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엄정선/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장준호/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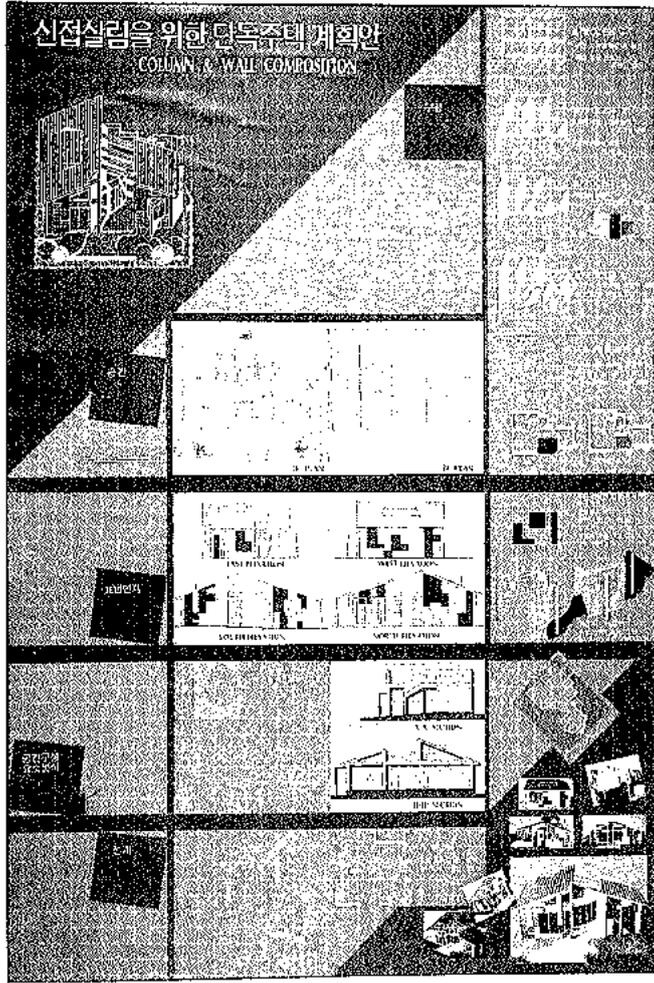
설계소묘

社會現實에서 우리를 혼동과 방황으로 만드는 일각의 현상들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느끼면서 “신집살림을 위한 단독주택 계획안”은 완결의 住居建築보다 의미를 전달하고 사람과 주위環境이 잠재적 매개체로서 과정적인 住居環境을 이루고자 하였다.

소규모 주택에서 소요공간을 제외한 실질적 공간으로 접근하려 하였으며, 연면적의 제약과 축적 1/50은 우리를 무척이나 당황하게 하였다. 아무튼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로서의 주거공간이 마련되길 빌어 본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Column & Wall Composition

김정아 / 국민대학교 건축과 4년
 변영환 / 국민대학교 건축과 3년
 손신영 / 국민대학교 건축과 3년

설계소묘

옛날 옛적, 원시시대때 움푹 패인 바위를 발견하면 주위에 벽을 세웠고 그 위에 딱살나무 같은 나뭇가지를 걸쳐 집을 만들어 살았다.

원시시대에는 1호주택으로 단일 공간에서 모든 주택 기능을 포함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공간이 생겨나면서 多호로 되었다. 이러한 공간분리의 과정, 공간의 성장이라는 의미가 신집살림을 위한 단독주택에도 의미가 상통하리라.

이 계획안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공간규모와 공간의 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해결 수법의 모티브로서 柱와 壁을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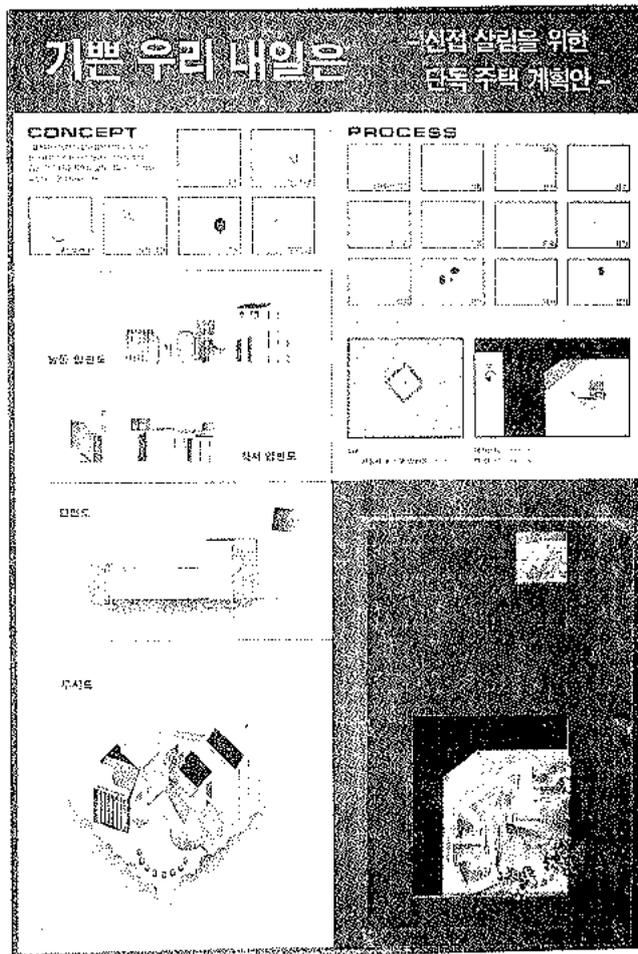
기본 모듈에 의한 柱와 壁과 場을 만드는 프레임이 형성되며 그 프레임은 공간을 형성시키고 자연에 의해 기본 모듈이 파괴되면서 노출되는 구조는 다시금 공간의 성장 가능성을 암시했다. 수직적 성장과 수평적 성장이 여백을 통해 이루어지며 형태를 풍부하게 하는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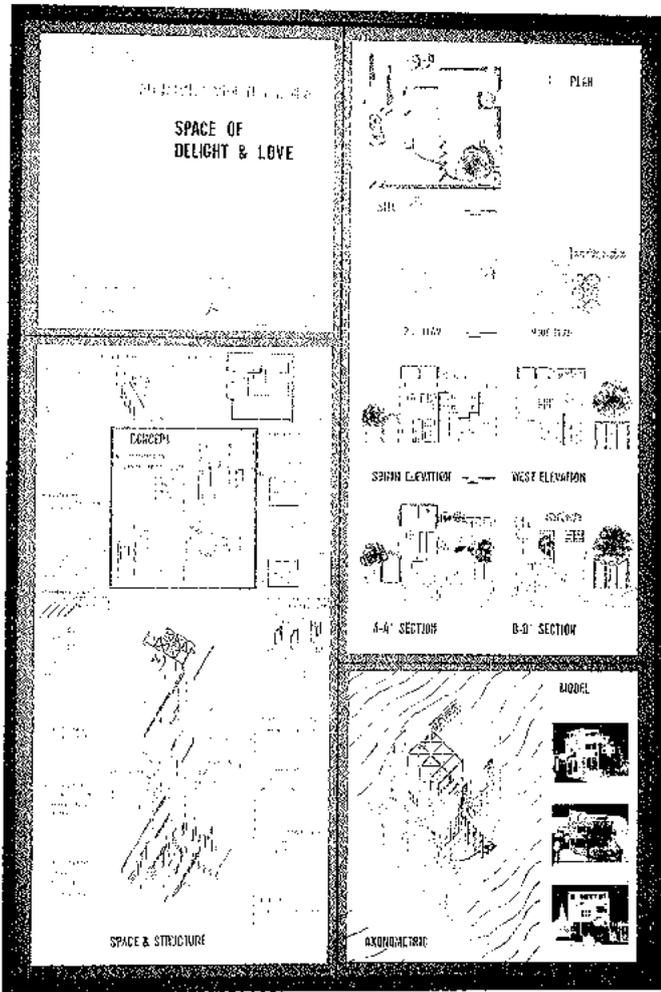
기쁜 우리 내일은

소인철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설계소묘

기능은 가능한한 분리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적정정도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One Room System이나 그밖의 다기능 공간같은 것은 토지이용의 극한상황의 한 결과일뿐 결코 지향되어서는 안될, 지양되어야 할 경향이다. 오늘날의 토지이용의 극한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상황들이 본 주택에서는 '왜기'의 형태로 해석되었으며 왜기에서의 발화(Utter)로 곧 성장으로 이어지는 Process상의 단계는 토지이용의 극한상황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리고 처음 단계의 과정 즉, 각 기능 공간들의 분리와 접합, 그리고 발화는 검증되지 않는 논리-이른다면 소위 말하는 헤체주의-의 차용을 피하려는 의도이다.





Cupid House

조민석/홍익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장경훈/홍익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이성호/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설계소묘

신 집살림을 위한 住宅의 基本的인 요
 구조건이 무엇인가를 분석, 신집살
 림에 적합한 住宅을 계획하였다.

신집살림을 위한 住宅일지라도 미래의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住宅이어야 하므로 本計劃은 2層部에 오
 픈된 서재공간을 마련, 아이가 생길시
 파티션 설치에 의해 아동방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옥상정원의 휴식공간
 은 놀이공간으로 변화하며 옥상에 증축
 가능부를 남겨두어 미래에 대비하는 용
 통성을 주었다.

A House for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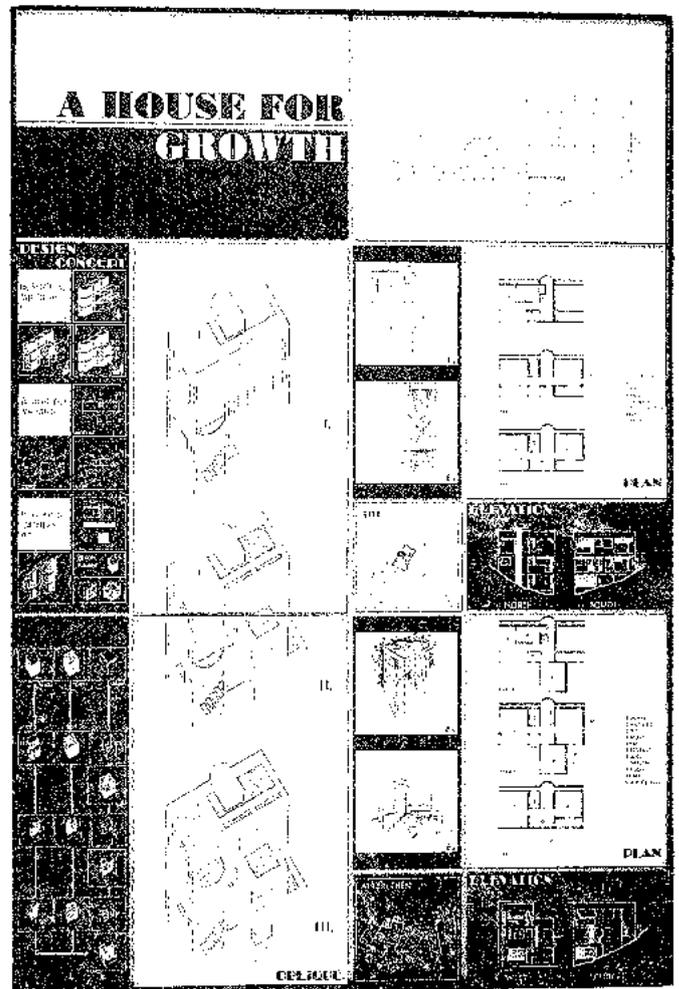
조정구/서울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이규상/서울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문홍식/서울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설계소묘

우리는 많은 추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중 어릴적의 추억은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간직하고픈 기억으로 다가온다. 특히,
 이런시절에 보았던 시냇물과 길었던 야생동물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고 우리를 감싸 주었던 고향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항상 상
 큼한 기억일 것이다.

그러나 가정이 커감에 따라 집은 계속 바뀌고 어린시절의 추억은
 그렇게 바뀌어진 집과 함께 퇴색되어 간다. 이에,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과 지키고픈 이런시절을 위하여 여기에 조그만한 제안을 하고
 자 한다.

즉, 처음에는 주어진 택지안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을 짓고 그
 후 자녀들이 하나, 둘 생김에 따라 잠을 들릴 수 있는 Flexibility(유
 동성)을 주는 것이다. 신혼 부부라면 나름대로의 낭만성과 Privacy
 확보도 필요하지만 '신혼'이라는 말 속에 감추어진 성장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집은 이러한 신혼부부들이 모여 살면서
 하나의 새로운 주거지역을, 또는 연합주택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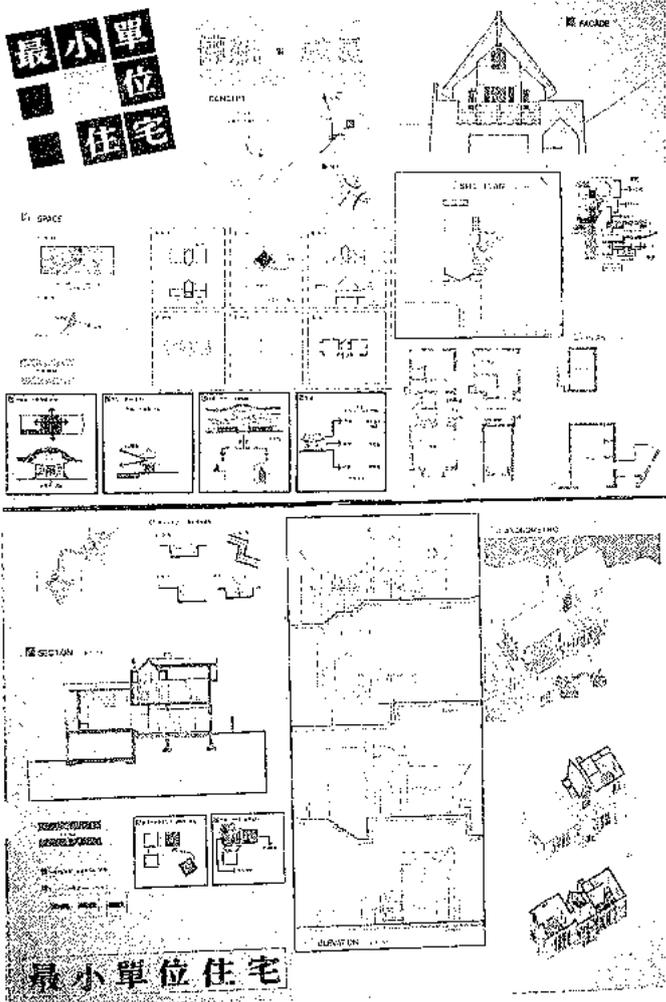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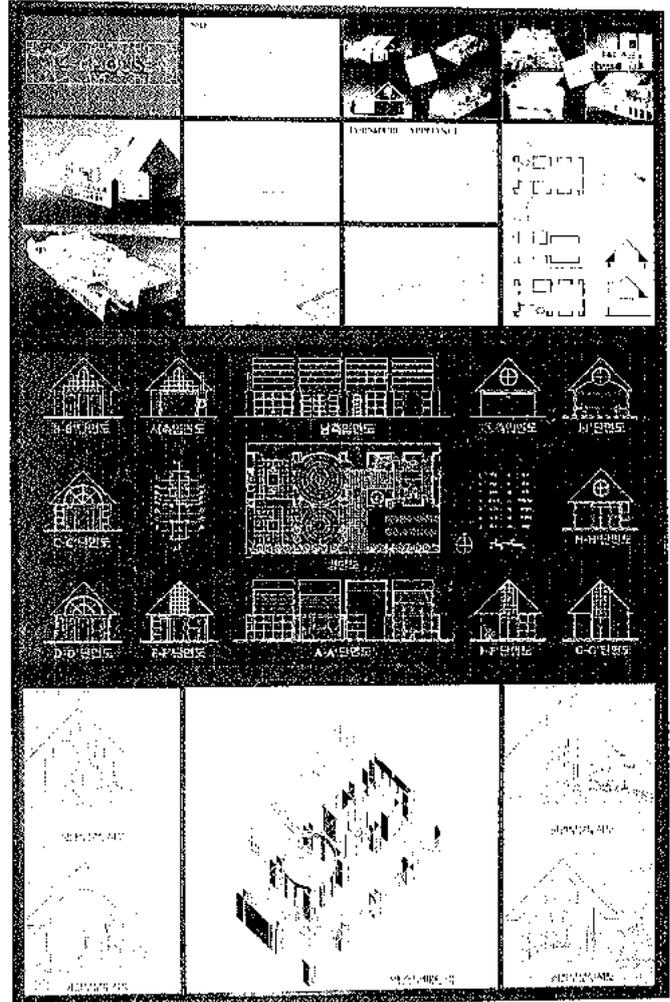
1+1 House

허윤범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한승호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채민석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설계소요

각 공간이 연결·중첩되어 있는 벽을 Furniture 로 사용하여서 가구의 양적인 면을 지양하고 질적인 면을 강조하였고 여러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맞은 크기의 Unit로 나누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다른 것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적육면체 또는 육면체 위에 박공지붕 4개가 연결되어져 있고 통일감을 나타내주나 내부 공간에서는 각 지붕마다 천장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실의 개별성과 특질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내부로 들어가서 느끼는 공간감이 다 틀리면서 공간 내부의 Sky Line을 형성한다.



최소단위 주택 전통+성장

석순주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설계소요

본 작품은 전통과 성장 개념의 고려를 전제로 계획되었다. 주택가 신흥 살림을 위한 단독주택이었으나 단순히 신흥 부부를 위한 단독 주택의 계획이 아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의 계획이라는 방향으로 구도를 잡았다.

먼저, 대지 조건으로 지하철은 봉곡원으로 하는 CBD 외곽지역의, 일반적으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사지 단부의 자연녹지에 의해 위요되어 있는 상황이다.

도시지역의 경사지는 이제까지 계획한 주거환경의 조성이 소위시되었던 지역이었으나 앞으로는 녹지화보의 용이성과 조망을 고려할 때 훌륭한 주택지라고 생각된다.

실제 개념으로 설정한 전통개념은 미래의 한국 주거기 계승해야 될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이 경우 현대와 어떠한 조화를 이룰수 있는냐가 관건이 된다.

본 작품은 우리 전통의 건축 개념중에서 현대 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마당과 내부 공간 개념-- 위주로 계획되었다.

A Dwelling Space for a Couple

어정연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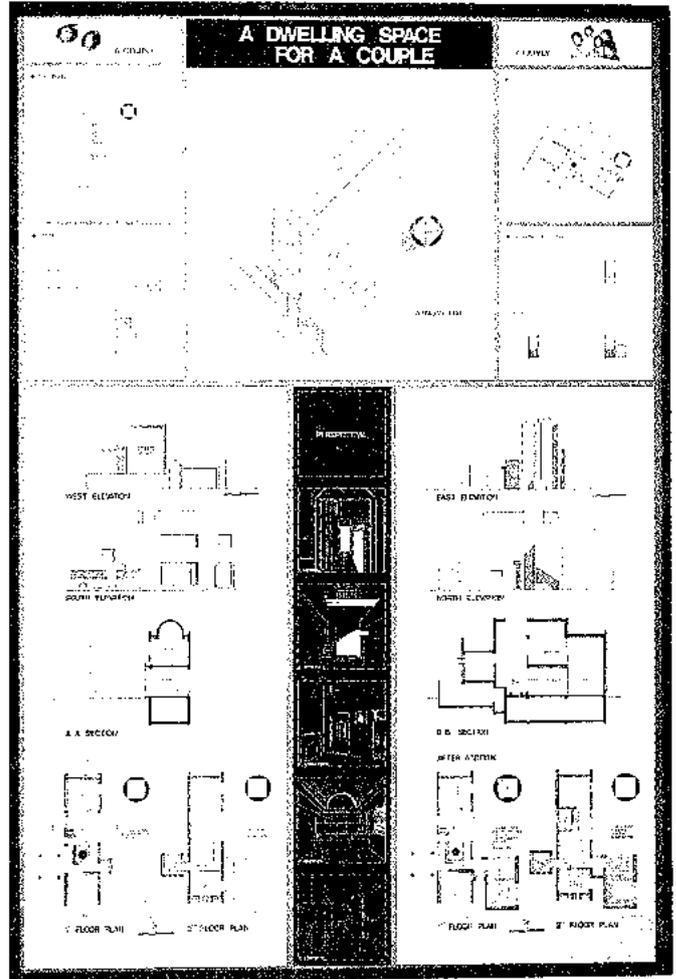
외부공간의 빛을 실내에 유입하고자 천장을 사용하였다. 두 종류의 천장이 유입시키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공간을 형성한다.

전통 건축에 있어서의 마당의 개념이 아니라, 실내와 실외를 잇는 "보는 마당"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자 했다.

실과 실의 관계가 벽이 아닌 간막이나 계단으로써 구분되므로 '문'이라는 개체에 의해서 공간분할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주택 실내 전체가 하나의 공간을 형성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와 달리 세월이 흘러 가족수가 늘어남에 따라 실의 배열이 재조정되며, 성장한다.

한 부부가 생활할 때 미완성의 공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성됨을 의미한다. 즉, 이 공간의 완성은 부부의 성숙함과 원숙미가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Minimal Art

김미선 / 인천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이옥화 / 인천대학교 건축공학과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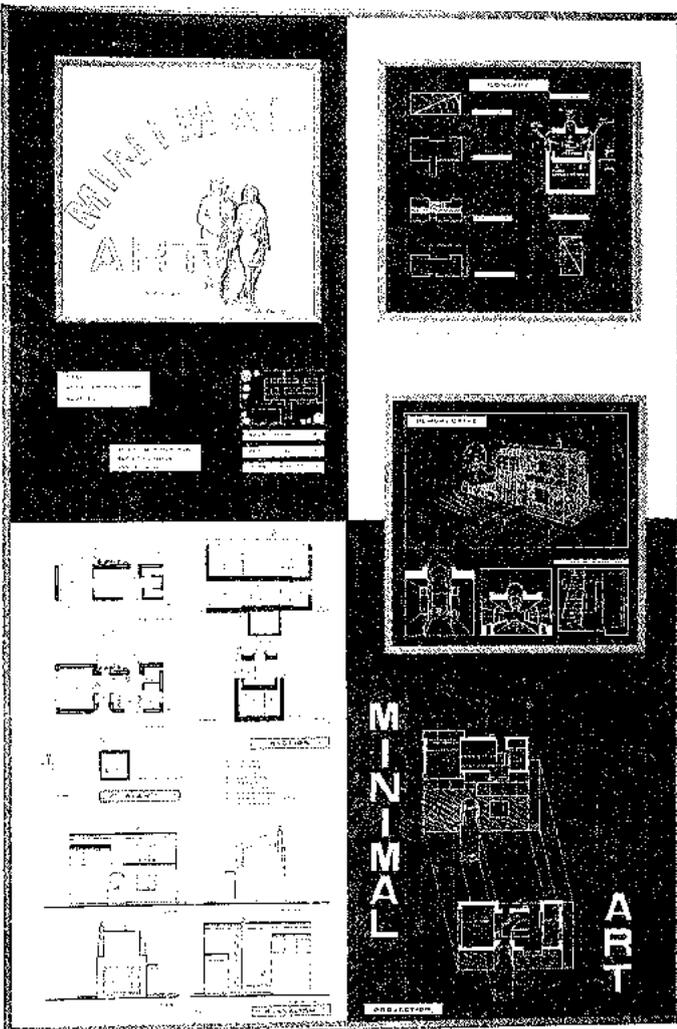
설계소요

새살림의 보급자리로서 갖 결혼한 부부에게 새세계 새인생의 출발을 돕는 방향으로 착안된 독립성과 소규모의 간결한 주거환경은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생활의 단위가 작다하더라도 그와는 관계없이 최소한의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심리적 요소로 이집은 내집이라는 애착을 줄 수 있는 주거이어야 할 것이다.

본 계획은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소규모의 Space를 분리하여 구성하려 노력해 보았다.

우리는 수어진 최소의 면적에 Plan을 구성하면서 집이란 최소한의 소요만 충족할 수 있다면 작을수록 좋다는 것을 상기고, 가장 좋은 디자인은 단순한 것이며 최소한의 문제를 나타내며 기능을 잘 발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부적응 갈등

—임대를 전제로

이동근/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박영배/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신승준/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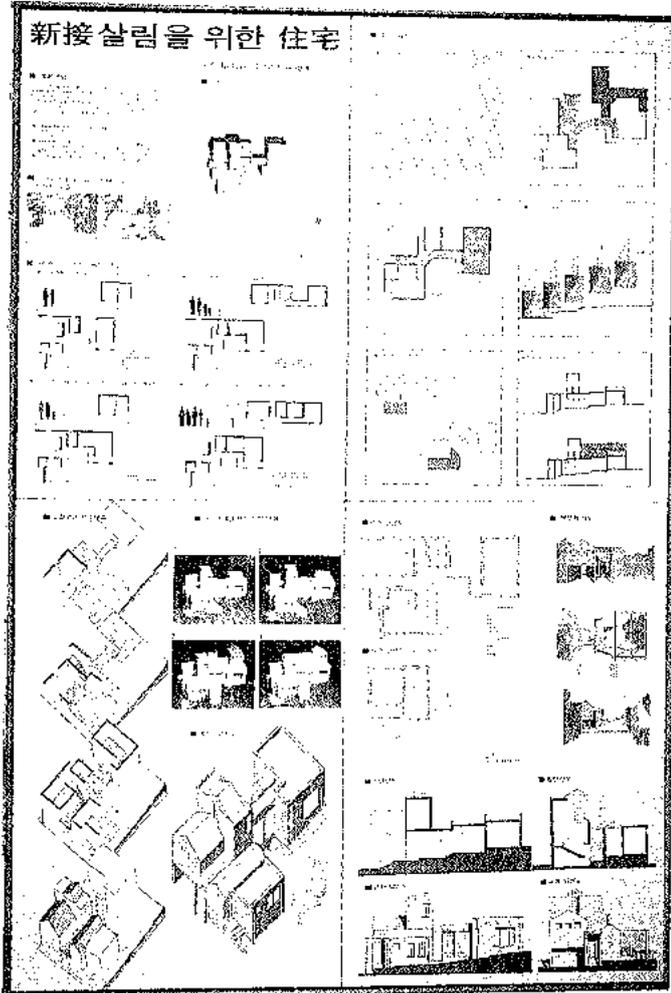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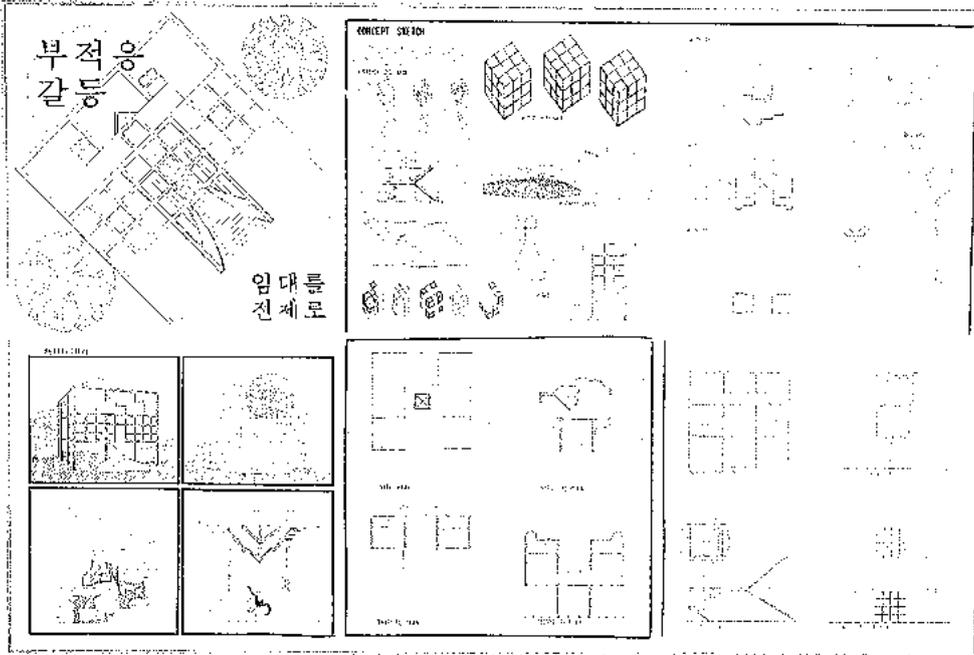
결 혼한다는 것은 혼히들 생각하듯 장미 빛 포도만을 약속하지도 달콤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결혼은 절저히 현실 속의 생활이며 서로 다른 인격체의 생경스런 만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적응과 갈등 그것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8가지 개념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공간변화, 미래공간 대응, 모태적 원시성, 열림, 축제의 장, 사색의 장, 화해의 장, 우주로의 발산.

전체 개념상으로 볼 때
원시성 → 열림 → 화합·축제·사색의 장
→ 우주로의 발산이라는 흐름성을 두었다.



신접살림을 위한 주택

—定住指向性 住居의 提案

김정임/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박주영/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설계소요

주거는 인간생활공간의 原單位로서 인간은 주거이전과 주거가변 등의 행위를 통하여 主要求의 변화, 즉 가족주거의 변화, 주거 가치관의 변화 등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 그러나 빈번한 주거이전 행위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해하며 주택안 및 근린의식의 약화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신접살림을 위한 주택은 한정된 신규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이주거라기 보다는 거주 의 향상성을 유지될 수 있도록 영속적 주거로서의 면모가 강조된다. 즉, 이는 定住指向性의 추구로 귀결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 목표를 설정한다.

- 主要求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거의 가변성을 도모한다.
- 주거외부와 내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주거의 공간성을 도모한다.
- 주거규모는 적정규모를 준수하여 주거의 경제성을 도모한다.
- 소규모 주거에서 간과하기 쉬운 위계성과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공간 분할을 시도한다.

큐빅 속의 戀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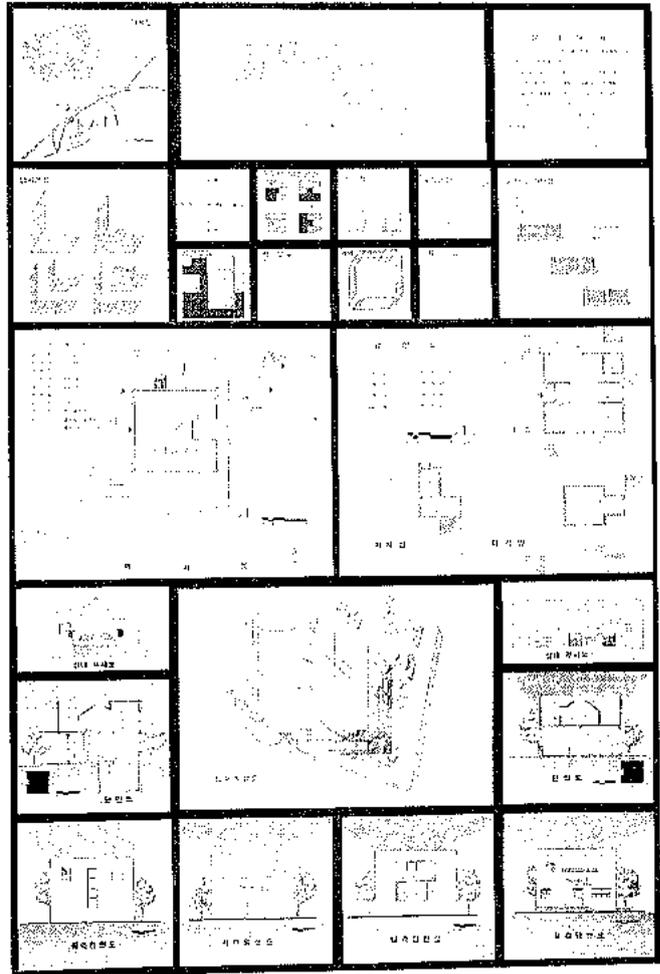
곽재은 /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조한신 /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김종인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설계소요

1층은 거실, 부엌, 식당 등을 배치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유도했고 현관 진입과 층계의 축을 형성시켜 동선에 의한 공간 분할을 시도했다.

1층거실 부분은 가구나 칸막이 벽으로 나누어 서재로 쓰거나 아이가 생겨서 방이 요구될 때 이동방으로 쓸 수 있다. 증축이 요구될 때에는 가벽을 외벽으로 하여 1층과 동일한 면적으로 증축하여 4개의 부분으로 구분하면 방, 부부 침실, 가족실 등을 병용할 수 있다.

정 가운데에 생기는 Hall 위에는 천장을 두어 채광을 좋게 하였다. 단순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고 원하는 공간을 창출해 내고자하는 의도에서 본 작품을 계획하게 되었다.



터

김동수 /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이동수 /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서동혁 /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설계소요

도심속에서 아직은 눈과 맑이 있어 광석들이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뒤로 조그마한 아산, 가까이에 한강물이 흐르는 곳으로서 신집 특히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새 출발의 터로는 적당한 곳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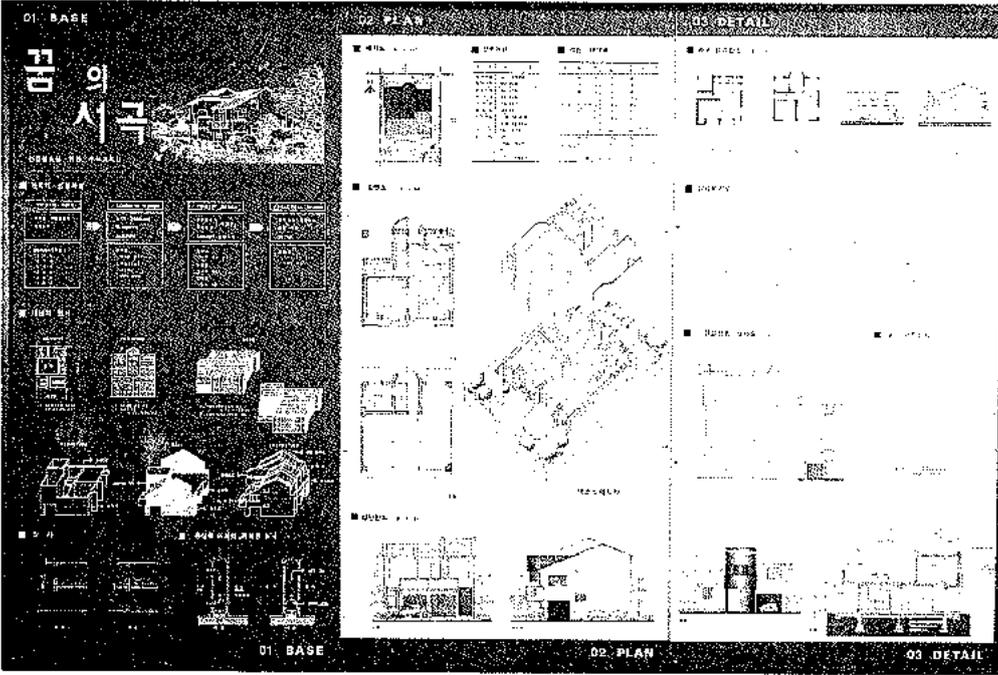
대지의 향이 정남향이 아니며 경사지인 까닭에 주택장면이 남동향이던 경사지를 살리기 위해 중앙부분에 계단을 이용하였다. 또 건물 각각의 기능을 대지에 고르게 펼쳐 좀 더 쾌적한 조건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는 대지가 좁아지 피로터 처리를 하여 선큰기단 형식의 정원과 조그마한 물의 공간을 계획하게 되었다.

평면계획은 크게 두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졌다. 침실공간과 거실·식당·현관·나용도실 공간이 그것이다. 이 두 공간은 경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반개층의 단차이를 계획하여 침실공간의 채광과 환기등을 처리하였다. 계단 양옆을 책장들의 수납공간으로 이용하고, 중계공간 옆 부분에 앞으로의 2세를 위한 공간으로 증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꿈의 서곡

안병준/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박남균/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설계소요

관 리성

- 정주성- Life Cycle에 의한 기족 규모에 신속히 대처(증축)할 수 있도록 하여 후일 태어난 2세가 성장하여 분가할때까지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여 현대인에게 희박한 고향 의식을 느끼게 한다.
- 경제성- 정방향 평면과 일반적인 구조방식을 택함으로써 시공비의 절감과 에너지 절약으로 유지·관리비를 절약한다.
- 효율성- 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실내 분위기를 유도한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1989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경북공 지하철역(3호선) 전시장



본 협회에서는 건축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고 회원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기 위해 매년 건축사 설계작품 순회전을 개최, 금년으로 15년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발전과 새로운 건축풍토 조성 및 후진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연례사업으로 개최해온 신인·학생 건축설계공모전도 4회째를 맞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건축계의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인·학생 부문에서는 정부의 주택난 해결의 노력에 발 맞추어 공동주택 및 소규모 단독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신인·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이고 수준높은 작품을 공모하여 모두 35작품의 입선작을 선정하였으며, 회원 여러분의 작품 43점과 함께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일정

- 가. 개막일시 : 1989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 나. 전시장소 : 경북공 지하철역(3호선) 전시장
- 다. 전시기간 : 1989. 11. 17(금)~12. 2.(토)

평일/10:00~17:00, 토·일요일/10:00~16:00

中國建築紀行

Travels to China

1989. 3. 23. 개임

아침 일찍 6시 반경이 지나서 미리 예약해 놓았던 택시를 타고 金浦空港을 향해 집에서 출발했다.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南京에서 개최되는 高層建築 國際會議 참석을 위해 1988년 4월 末경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거의 1년만에 중국 本土를 방문하게 되니 마음이 적지 않게 흥분되는 것을 느낀다. 7월 20분 경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니 우리 일행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음을 알 수 있었다. 7시 40분 경 체크인(Check-In)이 시작되고 트렁크를 맡기고 總乘행의 탑승권을 받는다. 얼마후 큰 사무원 姜소장과 큰딸 옥이가 전송을 나와 반가웠다. 다음에 尹承重 소장을 비롯해서 樞武 회장님, 文再慶 회장이 나와서 出國 수속을 시작한다. 韓州 여행사의 미스터 姜이 나와서 그 분들의 체크 인을 도와 준다.

우리 일행 중 金正澈, 金正晔 사장은 용무가 있어 어제 홍콩으로 미리 떠났다. 그러므로 韓國海外技術公社를 통해 이번 중국 여행을 준비한 사람은 6명이 된다. 그 준비 경위는 1988년 9월 23일에 회의 참석자 명단과 나의 論文 抄錄을 주최 측인 南京 本土 建築學會에 보낸 것으로 시작되었고 6월 31일자로 나의 論文 抄錄을 접수한 사실과 초청장이 보내져 왔다. 10월 29일자로 나의 發表論文이 國際會議組織委員會에 접수되었고 12월 23일자로 우리 일행의 참가 등록비가 南京에 송부되었다. 나의 論文題目은 "建築 文化財 保存을 위한 高層建築높이 調整에 관한 基準"이다.

얼마 있다가 한양대 李利衡 교수와 청주대 朴性武 교수가 나와서 南京行 수속을 한다. 이 두 사람은 우리와는 달리 직접 중국에 접촉을 시도해서 바닥 슬라브 구조 시스템에 관한 論文을 제출, 접수되어서 우리가 같은 비행기로 홍콩에 가게 된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이번 國際會議에 참석하는 사람은 모두 8명이다.

9시 반 경 서울을 출발한 KAL 비행기는 비교적 순조롭게 비행하여 12시 경 홍콩에 도착하였다. 나는 엇그제 주최측 組織委員會 의장 丁大鈞(丁大鈞)교수에게서 分科會 座長을 맡아 달라는

통보(2월 22일부)를 받았다. 그때부터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아직도 未修交國인 중국에 가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할 것인데 座長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이 걱정이 된다. 될 수 있으면 이를 사양해야 겠다고 마음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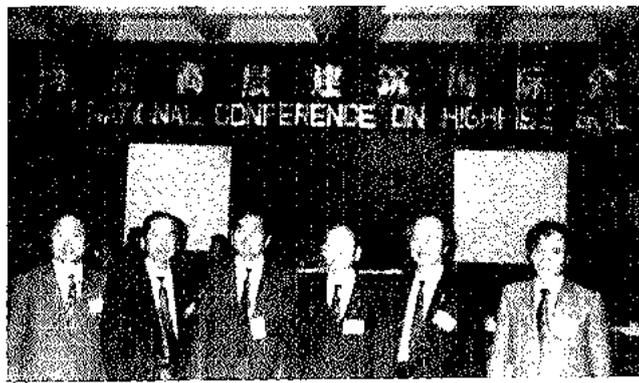
홍콩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우리 6명의 일행이 비행기 표를 구입했던 韓州 여행사와 연결되어 있는 로컬 트래블(Local Travel)사의 池漢成씨와 미스 南이 봉고차로 出迎나와서 우리들의 호텔 주선과 중국 入國 비자 수속에 관한 일을 대행하여 주어 매우 다행하였다. 비행기 표값이 다소 비싼 듯했으나 "비싼 것이 비싼게 아니라싼 것이 싼게 아니다(貴的不貴, 賤的不賤)"란 중국말 속담이 생각난다.

九龍半島쪽에 있는 프린스 호텔에 안내를 받아서 順화장님과 같은 방을 쓰게 된다. 이곳은 홍콩으로 가는 往復船이 떠나는 터미널(Ocean Terminal)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새로 개발된 하버 시티(Harbour City)건물들 중 九龍公園쪽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하였다. 李教授와 朴教授는 판 호텔에 예약을 한 모양인지 보이지 않았다. 호텔 방에 들어가 짐을 풀어 놓은 다음 호텔 지하상가에 있는 한국식당인 "아리랑"에 가서 늦게나마 점심으로 두부찌개를 청해 먹었는데 구미에 잘 맞아서 매우 좋았다. 그다음 우리 일행 네사람은 함께 호텔 주위 街路를 산책하며 원도우 쇼핑을 한다. 나는 중국에 가서 기록사진을 찍을 카메라를 하나 사서 준비를 한다.

하오 4시 반 경 호텔로 돌아와 커피 라운지에서 우리는 김정철 회장 형제와 반가이 만나게 되었다. 이분들이 이저께 홍콩 친구에게 대접을 받았던 유명한 潮州式 요리집을 찾아서 오늘 만찬을 즐기 위해 우리 일행 6명은 페리 보트를 타고 홍콩섬으로 간다. 우선 홍콩 부두에 도착한 다음, 가는 도중에 퀸즈 로드(Queen's Road:皇后大道)에서 있는 香港 上海 銀行 건물을 시찰한다. 초현대식 하이테크(High Tech)공법을 자랑하는 이 건물은 베 모서리에 각각 4개로 구성된 大型 複合柱가 매우 거창했다. 이 複合柱에 2층

- ① 南京高層建築國際會議場에서
- ② 대회가 개최된 南京 金陵호텔 로비

尹張斐
서울대학교 건축학 碩士
by Yoon, Jong-Seob



높이로 된 큰 교량 5개를 외부에 나타나게 걸어 놓고 하층 부분에서부터 8개층, 7개층, 6개층, 5개층, 4개층씩 층수를 漸減해서 달아 올린 구조의 건물 외관은 매우 특이한 壯觀을 이루고 있었다. 건물 내부에 넓게 트인 아트리움 공간은 매우 劇的인 공간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대 건축의 첨단 기술을 잘 표출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곳을 지나서 현재 한창 건설 중에 있는 中國銀行 건물 옆을 지나가면서 장차 중국을 상징하는 건물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풀과 삼각형 구성이 주조를 이루는 신기한 형태의 건물 모습을 바라본다. 삼각형의 복합된 평면과 외관에 노출된 대형 삼각형 구면이 힘차고 기어함을 느끼게 하는 건물이라 생각된다. 어두워진 저녁 때 조명된 가로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는 느낌은 매우 특이하였다.

徒歩로 가도를 걸어가면서 건물들을 구경하다 지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식당에 당도한다. 손님이 대만원이어서 자리가 비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음식은 과연 매우 훌륭했다. 김희장 형제는 어제 이곳에서 골프를 치고 많이 재미를 본 모양이어서 領회장과 文희장에게 권해서 내일 아침은 4명이 함께 골프를 치러 가기로 계획을 짰다. 尹소장은 홍콩을 몇 번 왔지만 시간이 없어 한번도 관광을 못했다고 하므로 나는 그를 따라서 홍콩섬 관광 코스를 동행하기로 하였다.

1989. 3. 24. 금. 개임.

아침 일찍 일어나 6시 경 領회장님은 金희장 형제와 文희장을 인솔하고 골프장으로 떠난다. 나는 尹소장과 함께 7시 반 경 호텔 식당에서 부페를 든 다음 九龍 호텔에 가서 정거 관광 렌더(Panda) 버스를 타고 홍콩섬 관광을 떠난다. 두어군데 호텔을 들러 관광객을 모은 다음 버스는 홍콩섬으로 건너 가서 리왕스灣에 변해 있는 고급 아파트 지구와 별장 지구를 지나 해변가를 달려 간다. 홍콩섬 中腹을 달리는 버스 속에서 전망할 수 있는 바다의 경치와 고층 아파트들의 경관은 잘 어울리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나는 1959년 9월 미국 유학에서 유럽을 거쳐 귀국할 때 처음 홍콩을 들른 다음 유럽 및 동남아 여행 때마다 이곳을 지나가게 되어 10년 이상

홍콩을 방문하였다. 올 때마다 홍콩은 변화가 있음을 항상 느끼게 된다.

지난 번 1986년에 체신부 연구 용역을 위한 시찰 조사를 위해 鄭日榮 교수와 함께 홍콩을 방문했을 때와 비교할 때 불과 3년 사이에 고층 사무소 건축과 고층 아파트들이 中心市街에는 물론이요 교외 산허리에 즐비하게 높이 솟아 있음을 볼 때 급격한 발전에 많이 놀라게 된다.

아름다운 해변가 해수욕장을 지나서 스탠레이 마켓에 찾아가서 외국 관광객 專用의 高街를 돌아 본다. 이곳은 전에 와 본 일이 있어 생소하지 않다. 서울의 한남동 외국인 상가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그 규모나 넓이가 매우 적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건들도 볼만한 것들이 없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빅토리아 公園에 올라가 홍콩 都心街를 내려다 보는 경치는 매우 훌륭했다. 香港 上海銀行 건물과 그 근방에 건설 중인 中國銀行(IMP설계)등이 가장 두드러지고 특이하게 눈에 뜨인다. 이곳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는다.

다음에는 胡文處의 저택을 가 본다. 예전에 호랑이표 교약으로 크게 재산을 모아 정원을 꾸미고 큰 저택을 건축했는데 이곳을 일반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곳 또한 나는 전에 와 보았던 장소이다. 주인이 격식과 안목이 높지 못하였는지 建築과 庭園의 짜임새가 보잘 것이 없고 매우 유치한 면모가 유감스러웠지만 무료 공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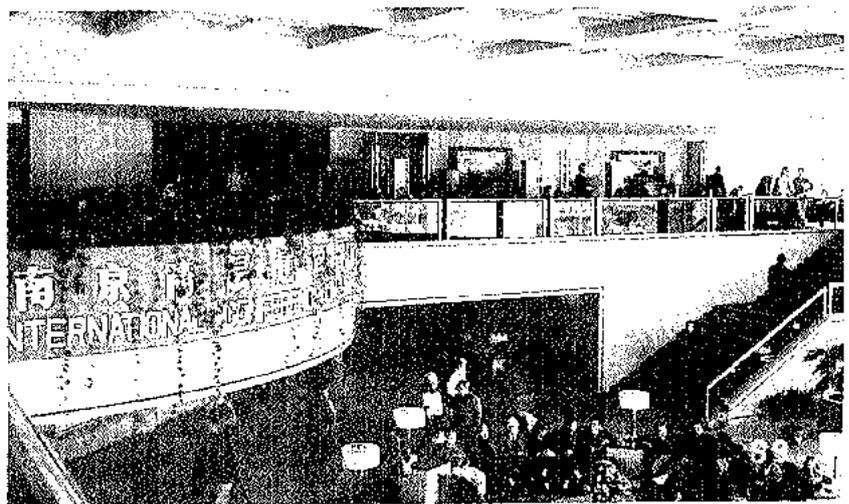
는 마음 가짐은 그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고 싶었다.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관람하고 있었다.

12시 경 尹소장과 나는 호텔로 돌아오기 위해 처음으로 최근에 건설된 지하철을 타고 九龍 쪽으로 돌아온다. 차 속이 매우 깨끗하고 아늑다워서 좋았다. 호텔에 돌아와 골프장에 갔던 사람들과 합류해서 점심 식사를 한다. 그러나 이번 주말이 부활절 연휴인 관계로 골프장이 휴무이어서 헛걸음을 했더니 매우 애석한 일이었다.

2시 경 로컬 브레블사의 Mr.池와 Miss 南이 호텔로 찾아와서 중국 입국 비자를 받은 우리들의 여권을 각자에게 돌려 준다. 여장을 갖추어서 여행사 봉고차를 타고 공항으로 나온다. 南京 출발의 드레곤 항공기가 준비가 늦어져서 1시간 半 이상 늦게 홍콩을 이륙하여 밤 11시 경에 南京에 도착하였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다. 비닐로 된 雨衣를 받아서 걸치고 줄기차게 오는 빗속에 흠뻑물을 밟으면서 300m 이상 걸어 나오니 구두가 물에 젖어서 엉망이 되었다. 國際會議 주최측에서 안내 나온 사람을 만나 우리 일행은 택시를 나누어 타고 金陵 호텔에 도착한다. 시내 街路는 雨中에 매우 음산한 기분이었다.

南京은 현재 江蘇省의 중심 도시이며 BC. 770 ~ 476년 경 春秋時代 때부터 이 都城의 역사가 시작된다. 南北朝때는 南朝의 수도이였으며 중국의 유명한 古都중의 하나이다. 근대에 와서 1911

②





6

년에 혁명 이후 孫文이 이곳에 國民政府를 세웠으며 1927년부터 1949년까지 國民政府의 수도가 위치한 곳이다. 南京은 長江(양자강)하류에 위치하여 長江이 동북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으며 紫金山이 시쪽에 솟아 있다. 金陵(金陵)호텔은 이곳에서 가장 새로운 설비를 갖추고 있는 최고층의 건물로서 南京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한다. 넓은 國際會議장을 갖추고 있어서 이곳에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매우 늦게 호텔에 도착했지만 접수계 안내원들이 우리들의 도착을 반기며 國際會議등록 수속을 도와 준다. 江蘇省 과학 기술 위원회 國際關係部長인 孫少英(孫小英)여사와 項氏 協調人인 Mr. 짜이용(翟勇)을 만나서 회의 후에 예정된 중국 관광 여행 신청을 한다. 오늘부터 회의하는 3일 동안은 서로 독방을 쓰기로 하고 방을 정하여 짐을 푼다.

우리가 등록 수속을 할 부녀 주최측의 蔣教授가 나에게 인사를 청하고 分科委員座席을 맡아 줄 것을 간청하여 온다. 나는 극구 사양을 했으나 회의 순서와 座長姓名 등의 모든 것이 이미 인쇄되어서 어쩔 수 없으니 꼭 맡아 주기를 부탁하므로 어쩔 수 없이 주최측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도리가 없다. 내일 하오 1시 半부터 分科委員로 論文發表가 시작될 예정이며 A분과 첫번째 세션에서 나는 論文을 발표하고 A분과 두번째 세션에서는 座長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내일은 중노동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오랜 소망이던 중국 방문이 가능하게 되고 무사히 南京에 도착한 것이 꿈만 같게 생각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맑게 삼자리에 든다.

1989. 3. 25 토.개임.

오늘 高層建築 南京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내가 論文을 발표하는 날이다. 아침 일찍기 기상해서 나의 논문 발표 준비를 하며 설명용 슬라이드 100매를 2개의 환등기를 사용해 비출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한다.

아침 9시 金陵 호텔 大會議長에서 개회식이 시작되었고 회의 준비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서 국제회의의 組織委 議長인 덩다칭(丁大鈞)교수(東南大學土木科)의 인사가 있었으며 南京 부시장의 축사와 니일슨 교수(M.P. Neilsen:유럽 콘크리트 위원회 부의장)의 치사 등이 있었다.

10시부터 12시까지 본 회의가 시작되어서 덩다칭 교수를 비롯한 여섯 사람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그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비어덜 교수(Lynn S. Beedle:미국 Lehigh대학 교수 및 고층건축 위원회 이사)가 발표한 "제2세기의 마천루"란 주제강연이었다. 그는 다음 세기의 고층 건축은 도시 성장 추세에 맞게 도시 생태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계획하여 도시 설계 수립으로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및 건축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바람직한 협동에 의존해야 하며 새로운 구조 및 기계공학의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점심때 한국에서 온 참가자인 우리 일행은 金陵 호텔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구미에 맞는 난징식 요리를 먹으며 서로 기운을 돋구게 만들었다. 우리 일행은 尹소장에게 총무의 일을 맡도록 해서 우리들의 중국 체류 중의 모든 일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한다. 하오 1시 반부터 시작되는 첫번째 A분과에서 내가 발표하게 되어 있었다. 환등기 2개 준비해 줄것을 요청해 준비는 되었으나 한 개가 고장이나 결국 환등기 한 개만 사용하여 발표를 하게 되어 아쉬운 감이 있었다. 그래도 비교적 성과있는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첫번째 A분과의 座長은 東南大學 建築科 가오운젠(高文權)교수이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에 북한 측에서는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게 느껴졌다. AB 두 개의 分科委는 大會議場的 공간에 이동 간막이를 해 이분해서 사용하였다.

내가 발표한 논문 요시는 고층 건축을 계획할 때 건축 문화제 보존을 위한 高度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방법을 주로 視知覺의인 변으로 연구, 검토하여 기준안을 제시하고 수원성 八達門 주위에 관해 事例 검토를 하여 발표하였다. 처음에 먼저 우리나라 고층건축 발전상을 슬라이드로 소개하고 특히 서울 남대문을 중심으로한 현황을 설명해서 國際 건물 주위의 건축 높이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음 나의 論點를 설명하였다. 20년간 우리 고층건축 발전 양상을 슬라이드로 비추어 설명하면서 외환은행과 무역센터 빌딩이 스크린에 나타날 때는 설계자인 김정철 회장과 김정식 장을 청중들에게 소개하며 또한 대한 화재빌딩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윤승중 소장을 소개해서 관중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도록 만들어

준것에 나는 매우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주제와 연구 발표된 내용이 비교적 특이하였기 때문에 청중들의 비교적 좋은 반응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우리나라 참가자 일행들이 평가해 주어 다행이었다.

하오 3시 半부터 시작되는 A분과의 두번째 세션에는 내가 座長 임무를 수행하였다. 발표 논문 중에 가장 돋보이고 훌륭한 것은 도니 치(Tony C.T. Chi:季造紳:싱가폴 PC콘크리트 학회장)박사의 할로우 코어 슬라브(Hollow Core Slab)의 구조 연속 성능에 관한 연구이었다. 치박사는 이 국제회의의 科學委員長으로서 회의 개최를 위한 경비를 스폰서하는 것에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한국에서 온 우리 일행들은 내가 발표하는 A분과의 첫번째 세션에는 함께 참여해서 매우 고마웠다. 두번째 세션에는 南京 市內관광을 나간 모양이었다. 첫번째 세션에서 내가 論文發表를 하고 다음에 뒤이어서 두번째 세션의 議長을 맡아 보려니까 매우 긴장이 지속되고 정신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껴서인지 5시 경 회의가 끝날무렵에는 기진 맥진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다. 座長의 임무를 마친 다음 순 샤오인 여사와 짜이용 씨를 만나서 내일 아침 출발할 예정인 우리 일행의 揚州관광 여행의 주선을 부탁한다.

저녁 6시부터는 大會議長에서 부패 리셉션이 있었다. 이번 국제회의의 참가자 수는 310명이 넘는 것이었으며 제출된 論文 原수가 180개에 발표자 수는 100명이 된다. 그러므로 리셉션에 모인 사람수는 대단하였으며 대성황이었다. 준비된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매우 훌륭하였으며 푸짐하고 풍성한 잔치치를 방불케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기세가 경이스러움을 느끼게 하였다. 中國人, 세계 각국에서 온 外國人 참가자 할 것 없이 조용히 말없이 열심히 먹는 기세에 이끌리어 나도 모르게 따라 먹게 되는 내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모든 것이 참 푸짐해서 좋았으며 만족감과 행복감에 차서 흠뻑 젖는 참가자들 사이에 끼어서 大會場을 나와 우리 일행은 金陵 호텔 36층에 있는 회전 스카이 리운지에 올라가 앉아서 각태일을 마시면서 南京 內外의 夜京을 내려다 보기도 하고 오늘 회의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매우 뜻있고 보람있는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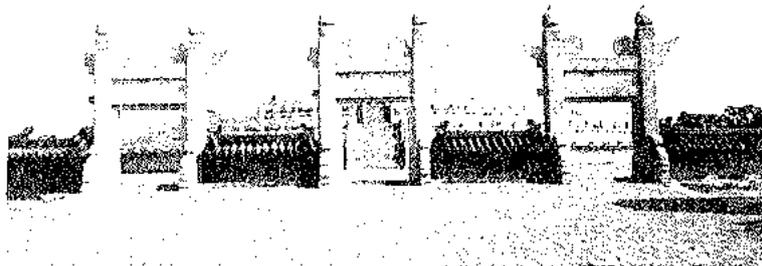


사진 ③ 南京明孝陵神道
 사진 ④ 天壇의 園丘
 사진 ⑤ 霞面湖入口의 長堤

었다 하겠다.

1989. 3. 26. 일. 맑게 개일.

아침 8시 경 金陵 호텔에서 출발하여 우리 일행은 揚州 관광을 떠났다. 어제는 高層建築 國際會議의 개최식과 主調演說이 오전에 있었고 하오에는 2시 경 나의 논문 발표, 그에 뒤이어서 다음 分科委(하오 3:30~5:00)에서 내가 座長 임무를 맡아 보느라고 참으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빴다. 끝내 가서는 너무 피로해 녹초가 되다시피 되었지만 첫날에 나의 말은 모든 일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흠기분한 마음으로 揚州 古都를 구경하려 떠나니 마음도 가볍고 기분이 매우 상쾌하기만 하다.

비스는 南京시가를 벗어나서 중국에서 가장 긴 다리로 유명한 南京 長江橋 위를 달려간다. 교량의 길이 6,772m이며 1960년에 착공, 1968년에 준공하였다. 처음 2년간은 소련의 기술 제휴를 받았지만 국교 단절로 소련인들은 철수하게 되었고 그후는 중국 사람의 기술만으로 완공을 하였다고 한다. 더불 데크로 된 큰 다리로서 양단에 있는 교각주 기둥탑은 특이하였으며 東南大學(舊 南京大學)건축과 교수들의 작품이라고 한다. 이곳 長江(양자강)의 폭은 2,000m, 지난 달 歐美 각국 여행에 보고 왔던 영국과 태임즈강, 프랑스의 세느강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대한 강이다. 강물을 흐르며 유유히 움직이는 큰 汽船도 눈에 띈다. 중국 땅의 거대한 크기를 실감하게 하는 듯하다.

우리가 탄 봉고차는 長江橋를 지나 새로 포장된 公路를 질주하기 시작한다. 그 옆에는 江蘇 地方의 농촌 문 풍경이 아름답고 유연하다. 땅도 매우 비옥해 보이며 유채꽃밭들이 드문드문 펼쳐져 있다. 햇빛이 따뜻하며 하늘도 한없이 맑고 공기가 매우 신선하다. 도중 길가에는 석색 벽돌 공장이 자주 나타난다. 이제다가 흑색 벽돌 공장이 흙으로 만든 鰲鰲가마의 같은 모습을 하고서 있는 것이 눈에 띈다.

100km가 좀 더되는 거리들 2시간 정도 달려서 揚州 호텔에 도착한다. 揚州는 BC. 486년 春秋 戰國時代 吳나라 夫差가 郭滿을 하고 郭江城을 만든 것이 처음 시작이었다고 전한다. 漢代 때부터는 농산물의 주요 집산지였고 가장 활기가 있

던 때는 隋唐時代었다고 한다. 원시대는 마르코 폴로가 이곳에 와서 3년간 총관(總官)으로 임명되어 있었으며 그의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고 한다. 마호멧의 16세 孫인 푸하딘(Puhaddin)이 이곳에서 서거해서 그의 묘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揚州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로 명소와 고적이 많은 곳이다.

揚州 호텔에서 잠시 휴식한 다음 이곳 관광 안내자의 선도를 받아서 峽西湖공원에 가 본다. 오솔이 공휴일이라서 구경꾼의 인파가 대단하다. 湖邊의 수양버들과 길가에 늘어선 북송아 나무들의 꽃봉우리를, 줄지어 걸어가느 청춘 남녀의 즐거운 모습들, 모두 파스한 오전의 봄볕에 어우러져서 환상 더 아름답게 보였다. 수서호는 호수의 형상이 좁고 길며 揚州 서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淸시대부터 사용된 이름이라고 안내자가 설명한다. 입구 앞에는 석조의 아름다운 홍교가 있다. 이것은 원래 木橋이던 것을 乾隆 元년에 石造로 만들었다 한다. 수서호의 현판이 걸린 문을 들어 서면 긴 계방길이 시작되며 우측에는 긴 호수가 놓이고 좌측에는 버드나무, 도화, 매화 나무 등이 늘어서 있다. 맑은 편 굽에는 徐園이 있다. 이곳에는 淸末에 徐老虎라는 소금 상사가 살았으므로 그같은 이름이 생겼다 한다. 입구 아치문 위에 쓰여진 徐라는 글자는 楷書體로 淸은 草書體로 되어 있다. 이것은 유명한 書道家가 徐자는 손으로 쓴다는 말로 쓴 것이라고 안내자가 설명을 한다.

⑤



徐園 속의 정원과 건물들은 매우 아름다웠다. 正廳인 聽鶴館 앞 뜰에는 2개의 큰 주철제 가마가 있었다. 그것은 높이 1.4m, 지름 1.8m, 두께 5cm로 1,400년전 것으로서 바다의 悠繆를 진정 시키는데 사용하고저 만든 것이라 한다. 특별히 가을 받아서 내부 정원 속을 들어가 본다. 이곳 정원은 세련되게 설계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아름다웠으며 計成이 저술한 園治의 조원계획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같이 느껴진다. 觀月堂실내의 壽石은 절묘하였으며 뒷 창문 밖에 꾸며 놓은 置石構成과 잘 어울려서 매우 아름다웠다. 양쪽 高柱에는 鄭板橋가 쓴 「月來滿地水」雲起一尺川의 淸隴이 걸려 있고 양쪽 창에서는 아름다운 호수가 내다 보인다. 양쪽 벽에 自然石紋으로 된 액자가 걸려 있는데 현대 추상화를 보는 느낌을 주게 하여 기이하였다.

호수 안쪽에 서 있는 五亭橋는 건축 기술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5개의 정자가 15개의 크고 작은 이치들로 구성된 석교 위에 서로 아름답게 맞물리어서 건축되어 있다. 마치 5개의 연화가 호수 위에 피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蓮花橋라는 별칭이 있으며 양주위(揚州) 명승의 대표적인 건축이다. 五亭橋뒤 언덕 위에 서 있는 라마식 白塔의 기이한 모습과 여기저기 적설히 자리잡고 있는 閶閨과 亭子들 모든 것들이 어울리어서 수서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플라야 박스의 경치를 이루고 있다. 湖面上 여기저기 떠 있는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즐겁고 밝은



6

모습들에는 점차 자유 개방을 지향하려는 중국의 추세를 반영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였다.

수서원 뒷문을 나와서 大明寺로 향한다. 이 절은 南朝 宋孝武帝 大明年(457~464)간에 처음 건축되었다고 한다. 절 입구 앞쪽에는 “栖霞遺地”라는 비문이 서 있으며 隋나라의 시황제가 이 절속에 9층으로 된 栖霞塔을 건축하였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 한다. 山門을 들어서면 좌우에 4개의 金剛力士像의 채색 모습도 휘황하다. 그 안의 중정 맞은 편에 大雄寶殿이 서 있으며 그 안은 香壇에 가득 요워된 큰 불상들이 3개 놓여 있다. 중앙에는 釋伽모니상, 동쪽은 藥師과 藥師상, 서쪽에는 阿彌陀불상이 서 있다고 안내자가 설명한다. 불상들은 매우 웅만한 모습을 하고 있다. 높은 佛壁 후면에는 藥師여래가 크게 부조되어 있으며 그 주위 사면에 수많은 보살상들이 운집하듯이 조각되어 있어 매우 이채를 띠고 있었다. 佛壁 전면 중앙에는 大雄寶殿이라는 현판이 크게 붙어 있어 특이하게 눈에 띈다. 主佛殿을 대웅전이라 칭하는 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金堂이라 칭하며 대웅전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면에서도 문화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더 가까운 것임을 연연증 느끼게 된다. 이 대웅전 건물은 후대에 많이 改變이 된 것같이 보였으나 건물 규모가 매우 크고 축벽과 후벽이 보다 육중하게 벽으로 쌓아 올려져 있었다. 추녀 밑부분에 子橡이 사용되고 있고 추녀 마루의 仰曲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었다.

大明寺에는 唐나라 시대에 監眞大師가 戒律을 전수받고 淮南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고승이 되었

었다. 그는 현재의 揚州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그가 55세 때 일본에서 초빙하기를 간청하므로 그 뜻을 수락하고 渡日하기 위해 11년간 5차례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두 눈이 실명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조시일편 753년 6차 渡日 시도에 성공하였으며 그후 中日 佛教文化 교류에 큰 공을 세웠다. 일본 奈良에 있는 唐招提寺는 그때 건축된 것으로 전한다. 1973년 鑑眞大師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 대웅보전 동쪽에 그의 기념당을 건축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건축학 교수 梁思成에 의해 설계되어서 일본 唐招提寺 주지가 기증한 석등이 서 있는데 唐招提寺 金堂과 동일한 모습의 일본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대웅보전 서쪽에 있는 林園인 芳園은 清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름다웠으며 鈞魚台와 그 부근에 있는 鶴塚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죽은 수컷을 따라 음식을 제폐하여 순절한 암컷 학의 애정을 기념하는 鶴塚의 비석은 보는 이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揚州호텔로 돌아와 이곳의 특히 유명한 揚州식 음식을 점심으로 먹으며 즐긴다. 歸路에는 揚州 나전칠기 公廠에 들러서 백색과 갈색의 들목걸이를 산다. 이곳에서 나전칠기 제작 과정의 설명을 들으니 그 방법과 사용 재료의 다양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난징시로 돌아 오는 도중, 정차하여서 이곳 농촌 民家들의 모습을 살펴 보는 일 또한 흥미가 있었다. 하오 4시 반 진릉 호텔에 돌아 온다. 국제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전부 孔子廟에 참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황급히 호텔 방으로 올라가서 옷을 정장하고 내려와 우리가 먼저간 일행을 뒤따라 간다. 南京 大成殿은 규모가 거창하고 건축 외관, 세부 모두가 훌륭하였다. 그러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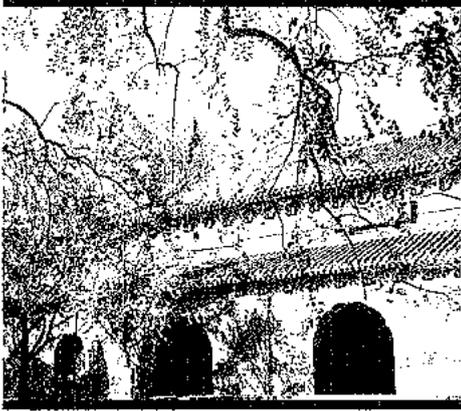
나 文廟로 사용되어 있지 않고 그 내부는 이곳에서 산출된다는 雨華石의 전시장이 되어 있어서 매우 기이하지만 했으며 儒學은 외견상 전혀 몰락하고 만 것같이 느껴졌다.

大成殿을 나와서 그 동쪽에 있는 고풍이 나는 상점가를 구경한다. 중국 특유의 가로 풍경은 매우 기이하며 인상적이었다. 孔子廟 남쪽에 있는 강은 고대에 만든 운하로 현재 많이 오염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하천 정화공사가 추진되고 있었다. 장차는 이 지역을 베니스와 같은 水上都市로 만들 예정이라고 이 공사의 책임자가 설명을 한다. 이 공사의 總責은 協翁華 여사로 “제너럴 엔지니어(總工程師) 南京市 城鄉建設 위원회”소속인 사람으로 德이 있어 보이는 중년의 여장부이었다.

다음에는 그 근방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일행들이 함께 만찬을 들었다. 南京式 요리를 푸짐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 16집시 이상이나 되는 가지각색의 미각은 특이하며 신기하였다. 이곳 맥주를 들며 흥이날 무렵 馮化장님의 光華로 한국 동포 일행은 아리랑과 도라지 타령을 제창하여 흥을 돋구니 앞좌석에 마주 앉았던 日人 참가자들이 한국 발전의 여력을 실감하는 듯하다고 그들의 느낌을 토로한다. 그중 한 젊은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다. 그가 오늘 이곳에 있는 천주교 성당을 가보니 300여명의 신도들이 만원을 이루어 예배 드리는 광경이 인상적이었다며 信教自由를 지향하는 이 나라의 실정을 알 수 있었다고 나에게 전해준다.

1989. 3. 27. 월 맑게 개일.

아침 7시 경 東南대학(구 南京대학)건축과의 高民權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는 내가 그 대학 건축과를 방문하게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잘 주선이 안되는 모양이었다. 마침 李利衡 교수가 東南 대학 토목과 程文양 교수의 안내로 오늘 토목과와 그 실험실을 방문한 다기에 出迎을 나온 崔교수와 인사를 나누고 건축과에 안내해 줄것을 부탁한다. 程교수가 준비한 차를 타고 李교수와 朴교수와 나는 東南 대학에 도착해서 우선 토목과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과사무실 앞에 中共 당기관원 사무실이 있는 것이 눈에 띄어서 특이하게 느껴졌다.



토목과 학과장은 매우 온후한 인격을 가진 비교적 몸무게 있는 사람이다. 예전의 국민정부 시대에는 南京이 수도였기 때문에 이 대학이 중국 제일의 대학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1909년 江南實業學校로 시작되어 8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1923년에 國立東南大學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인문, 이학, 공학, 법학, 농학, 사학의 7개 대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人民革命 이후에는 南京 대학이라 칭하였으나 1년 전부터 東南대학이라고 개칭하게 되었다고 학교의 연혁을 설명한다. 영문으로 된 안내책자를 받아 본다. 특이한 것은 이곳 총장이 전자공학 전공의 중년 여자 교수였으며 현재 北京에서 개최 중인 인민대표회의에 참석중이라는 이야기였다. 이번 국제회의의 조직위 의장인 당나정(唐鈞)교수는 東南대학의 도복과 원로 교수로서 이곳 토목과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모두 그의 제자들이었다.

토목과의 構造 실험실과 鋪裝 실험실을 가보니 실험실 규모도 크며 실험기 설비들이 훌륭하였고 실험 내용들도 매우 충실하였다. 나라에서 힘을 기울여서 중점적으로 이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유명한 대학의 실험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같이 보였다. 이에 비교할 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每校 서울대학교의 실정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우리나라 문교정책이 급히 개선되어서 우수한 대학들이 중점적으로 지원,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놓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통감을 하게 된다.

토목과 실험을 본 다음 건축과를 방문한다. 건축과는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며 그 크기가 서울 공대 35호동 보다 큰 3층집이었다. 정면 입구 우측 기둥에는 建築系의 간판이 있고 좌측 기둥에는 건축연구소의 간판이 붙어 있다. 이곳은 교수들이 대학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설계 실무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느낄 수 있다. 科主任인 바오자싱(家聲)교수는 전에 1년간 MIT하브라켄(Harbaken)교수 연구실에 가서 SAR시스템을 연수하고 와서 이 방법으로 아파트 단지(1985)를 설계 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이곳 건축과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1927년에 시작되었고 北京에 있는 清華대학 건축과보다 20년 앞서서 시작되었다고 바오교수는 설명한다. 학생



총수는 600명, 교직원인 교수 11명, 부교수 25명, 전임강사 20명, 조교 16명으로 총 72명이라니 교수 요원의 충분함을 잘 알 수 있다. 박사과정은 3년으로 10명 재학 중이며 석사 과정은 2년 반으로 60명 재학중이고 학부는 4년 과정으로 530명 재학중이라고 한다. 그중 외국 유학생 수가 20명인데 아프리카인이 15명, 스위스인이 5명이라고 한다. 스위스 대학과는 학술교류 관계를 맺고 있어서 東南대학 졸업생들이 스위스 대학에 많이 유학가고 있다고 하며 程教授의 자녀들도 스위스 대학 유학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준다.

내가 서술한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연구」를 이곳 건축과 도서관에 기증하고 「서울 국제설계 학교보고서(서울대-MIT)」와 나의 번역서 「건축공간과 노자사상」을 바오 교수에게 증정하니 그는 나에게 이곳 대학 학생들의 우수건축작품집과 교수 건축작품집을 기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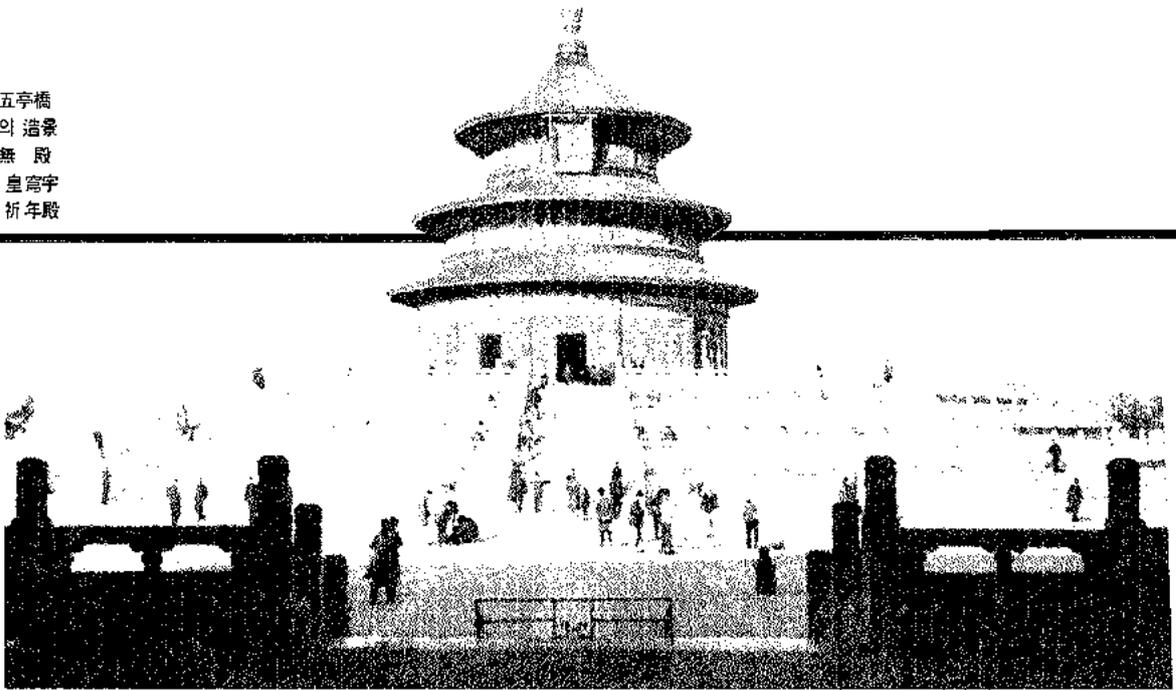
다음에는 건축과 실습실, 도서관, 모형실 등을 돌아본다. 도서관은 건물 양단에 있는 두개의 넓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쪽 끝방은 건축잡지 서고와 열람실이고 서쪽 끝방은 건축 단행본 서고와 열람실이었다. 모형실에는 여러가지 중국의 전통 건축모형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南京 양자강 교교의 설계 모형도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이것이 교수들의 협동작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온 우리 교수 3명이 함께 東南대학을 참관한 것은 매우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12시 경 진풍호텔에서 비중 나온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 온다. 그동안 우리 일행 중 설계 사무실과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다른 5명은 江蘇省 과학기술협회측과 연석회의를 갖고 기술체휴

에 관한 중국측의 기초적인 안내 설명과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토의, 질의 응답 등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사람 일행들은 점심식사 때 함께 모여서 호텔 2층에 있는 식당에서 南京式 요리를 들면서 오전 중에 보고 들은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즐긴다.

하오 1시부터는 외국에서 온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南京 市內 관광을 떠난다. 먼저 孫文의 中山陵을 가 본다. 이곳은 손문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 그가 죽은 후 그곳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던 장소라고 하며 紫金山(또는 鍾山이라고도 함) 중턱에 있는 높은 언덕 위에 동쪽 방향으로 明孝陵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놓여 있다. 3,000ha의 넓은 묘역 중앙에는 기차한 규모로 봉이 건축되어 있다. 中山陵은 1926년에 착공, 1929년에 완공되었다고 하며 건축 면적이 80,000㎡이다. 陵 입구부터 陵 墓室까지 700m거리로 높이 차이는 70m이고 그 사이에 10개의平台和 392개의 계단이 있다. 중국 전통 건축양식을 따른 석조 건축으로 청기와를 입혔다. 이곳을 방문하는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민족혁명 지도자이며 이나라의 國父인 孫中山 선생을 숭경하는 감정이 우리나라로 되어 있었다. 陵門에는 孫門이 잔히 쓴 天下爲公의 현판이 걸려 있다. 祭室에는 孫文이 의자에 앉은 像이 있으며 그 좌우에는 7의 遺著「建國大綱」이 흑대리석 면에 금색으로 기명되어 있었다. 그위 높은 천장에는 중화민국의 표징인 青天白日의 모자이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문화혁명 때 피해를 입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墓室공간 위에는 光窓을 가진 돔이 덮히고 한층 낮은 바닥에는 孫中山선생이 영면한

- 사진 ⑥ 瘦西湖五亭橋
- 사진 ⑦ 徐園속의 造象
- 사진 ⑧ 靈谷寺無 殿
- 사진 ⑨ 天壇의 皇宮宇
- 사진 ⑩ 天壇의 祈年殿



⑩

누운 모습의 조상이 있고 그 밑에 땅속에 묻혀 있는 청동관 속에 屍身이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

다음에는 中山陵 동쪽에 있는 靈谷공원을 가본다. 이곳에는 靈谷寺의 無樑殿과 靈谷塔이 있으며 깊고 울창한 소나무 숲의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곳이다. 靈谷寺는 梁나라(502-557)때 초창된 것으로 원래는 明孝陵 자리에 있었던 것을 명태조 朱元璋이 그 자리를 매우 좋게 생각해서 자기 陵墓를 만들기위해 中山陵 동쪽으로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절에는 형장법사 기념당이 있어서 그의 頂骨을 보존한 기념탑이 있다. 시간이 없어 가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600년전 明代의 遺構인 無樑殿은 중국에 현존하는 최대의 벽돌로 된 보울트(Vault)구조이며 그 위에 기와지붕을 덮어서 건물 외관은 일반적인 중국 건축의 모습을 갖게 만들어져 있다. 이 無樑殿은 1929년 이후 민국 혁명 용사들의 營堂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 뒤 산중턱에 세워져 있는 靈谷塔은 韓仁將上 기념탑으로 1933년에 건립되었고 8각형 평면의 9층탑으로 높이 60m이다. 이곳에 올라가 보면 紫金山 기슭에 펼쳐지는 조망의 전모를 한눈에 볼 수 있다. 恒회장님은 젊은이들과 같이 계속되는 나선계단을 따라 최상층까지 올라가서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다음에는 明孝陵의 神道 좌우에 줄지어 있는 石像群을 가본다. 明孝陵은 명의 첫번째 황제 朱元璋의 능묘로서 자금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아서 그의 在世時인 1383년에 만들어졌다. 그 규모가 明陵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 陵입구 앞에는 800m의 神道가 있어 石像路를 형성하고 前部에는 朝賢殿, 後部에는 禁闕宮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수차의 전란으로 지하 건물들은 모두 파괴되어 없어지고 神道 좌우에 있는 17개의 쌍의 石像群만이 남아 있어 그 위용을 일부나마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실물보다 큰 크기, 탁다 등 여러가지 동물 석상들은 박진감있게 조각되어서 그때의 석조각 예술이 훌륭했음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그 앞에 있는 배전에 들어서서 雨化石 두 개를 선물로 사 갖고 호텔로 돌아 온다.

저녁 6시 반부터 國際會議 폐회식과 축하연이 金陵 호텔 大會議室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 석상에 恒회장님이 한국 참가자 일동을 대표해서 주최측과 같이 나란히 상좌석에 앉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당다칭(丁天鈞)대회장, 南京시장, 토니 지(싱가폴 대표)박사 등 이 국제대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놀라운 것은 恒회상 옆 자리에 江蘇省 科技協會副部長인 孫小薇女士가 앉아 있는 것이었으며 그 여사가 이 회의 준비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고 토니지 박사가 이 자리에서 공표하는 것이었다.

폐회식이 끝나고 연회가 시작된지 1大鉤 회장은 이 축하연을 위해 만든 그의 漢詩를 발표한다. "3일간 의견 교환 배운도 흥겨워라. 시계 침매우 빨리 가서 한탄스럽구나. 다시 만날때 서로 진보있기 바라네 아름다운 꽃과 술 맛볼 기회 놓치지 마소(切蹉三日月方長, 古恨時針轉太忙. 后會堪期同進步, 臨歧莫負酒花香)]회장은 공학자에 걸맞지 않은 멋을 이는 이였다. 그는 文人畫도 그리고 시도 쓰며 배짱 또한 두둑한 쾌걸인 것 같았다. 하와이대학 토목과 교수인 지유(Arthur N.L. Chiu : 남열)박사가 나와서 여흥을 능숙하게 이끌어 나간다. 중국 청년 참여자 한사람이 나와서 서울 88올림픽의 주제가 "핸두 인 핸드"를 부르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제창한다. 서울 88올림픽이 한국의 좋은 인상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 일행이 함께 나가서 동요 "나의 살던 고향"을 합창하여 박수갈채를 받는다. 연회가 끝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는 다음 우리 일행은 金陵 호텔 36층에 있는 회전 전망대 스카이 팰러스에 올라가서 칵테일을 들면서 이번 국제회의 참석의 결과를 서로 평가해 본다.

다음호에 계속

建設工事 品質試驗 施行規則 (案) 實行에 대한 小考

金基斗 / 大榮建築 건축사사무소,
本協會 施工재료분과 위원
by Kim, Ki-Doo

品質에 대한 質과 서비스 정신은 곧 그 나라의 文化基準을 보여주는 尺度라고 여겨진다.

우리 商品의 質이 過去에 비해 全體的으로 많이 向上된 것은 事實이나 아직도 部分的으로 缺陷들이 發見되고 있으며 이것을 補完 또는 止揚하는 側面에서 建設工事 品質試驗規則이 實行단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土木建築의 技術이 急進적으로 發展하여 이제 종래에는 施工하기 어려웠던 많은 工事が 우리 技術陣의 손으로 施工되고 있으며 中東地域 여러나라에 우리 技術用役을 수출할 만큼 全世界에 誇示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비아의 사하라 사막 1천1백km에 초대형 콘크리트 水路工事的 役事를 우리나라가 맡음으로서 技術뿐만 아니라 熱帶沙漠에서 일할 수 있다는 韓國人의 低力을 보여주는 機會이기도 하다.

또한 工事に 쓰이는 材料의 質과 量에 있어서도 크나 큰 發展을 가져와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다.

京釜高速道路를 위시하여 永東高速道路, 88高速道路 서울 및 釜山 地下鐵 沼陽江 多目的 댐 安東 多目的 댐 忠州 多目的 댐 등의 大規模工事的 竣工을 보았고 또 현지도 수많은 工事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여의도의 63빌딩의 地下 遮水壁 工事は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試驗된 물막이 공사로 그 成果는 우리 技術陣의 凱歌로 높이 評價된다.

또한 構造物의 大型化, 輕量化, 高強度化는 새로운 技術, 새로운 工法, 새로운 資料의 開發을 기저 왔다.

특히 建設工事와 관련하여 單一材料로서 가장 重要한 콘크리트가 종래의 現場비빔 콘크리트에서 商品化 되어 거의가 레미콘(Ready Mixed Concret)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콘크리트의 品質을 너무들 過信하고 있는 느낌을 저 버릴수 없다. 요즘 콘크리트의 供給이 需要를 따르지 못하는 品貴현상마저 일어 콘크리트회사의 粗惡한 서비스는 主客이 顛倒된 現象이다.

商品生産과 販賣에는 商道義 면에서 사업자의 良識이 強調되기도 하지만 企業 스스로를 위해서도 消費者 輕視風潮는 버려야 한다. 소비자로부터 信賴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良質의 콘크리트도 소비자 모두가 만든 사람 못지않은 精誠으로 다루어야 하겠다.

아무리 좋은 콘크리트 일지라도 養生을 소홀히 하여 굳기 전에 衝擊으로 鐵筋에 울림(Echo)을 주어 附着力의 破壞로 콘크리트의 引張力을 減少시키는 誤謬(잘못을)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冬節期 콘크리트 供給은 물과 骨材를 加熱하여 製造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모든 콘크리트 運搬車輛에는 加熱장치 車輛이나 保溫장치 車輛은 보이지 않는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요즘 주로 쓰이고 있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많은 質的 변화가 계속되어 새로운 특수 콘크리트 및 高強度 콘크리트 色彩 아스팔트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建設用材인 시멘트 骨材 鋼材 및 逆請材料의 適合性을 判別하는 試驗 및 實驗의 技術도 發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할 品質試驗技師의 養成도 積極 推進할 問題로 생각된다.

요즘 住宅工事に 있어서(아파트제외) 거의 全部가 基礎部分이 없는 無基礎住宅이 施工되고 있다. 地層의 바닥판(두께 15cm 內外)이 建物基礎를 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層과 層間의 슬래브板(組構造)은 테두리 보아 칸막이 보등이 없는 無樑板으로 建物の 一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不誠實한 施工이 持續될 경우 地層 바닥板 균열 및 不同沈下 등 많은 하자가 早其發生 할 것이며 建物の 壽命은 期待할 수 없다.

또한 大小工事を 莫論하고 基礎바닥판과 옹벽接合은 必히 凹凸(Key Joint)로 筋結하여 地層의 一體와 橫力抵抗 및 漏水遮斷 施工의 初等 工法이 排除되고 있다.

이와같은 側面에서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資材 일지라도 使用者의 良識과 指導監督者의 使命感이 없이는 良質의 資材도 本然의 機能을 발휘할 수 없다.

1989년 9월분 도서신고 현황

全國圖書申告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m²)

구분	1988년도	1989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922,521	1,485,467	562,946	61.02%
	부산지부	348,750	496,663	147,913	42.41%
	인천지부	274,337	542,032	267,695	97.58%
	경기지부	1,097,007	1,244,634	147,627	13.46%
	강원지부	143,660	328,768	185,108	128.85%
	충북지부	153,047	357,901	204,854	133.85%
	충남지부	254,927	289,954	35,027	13.74%
	전북지부	249,788	493,629	243,841	97.62%
	경북지부	270,146	458,658	188,512	69.78%
	경남지부	562,843	960,405	397,562	70.63%
	제주지부	50,833	71,060	20,227	39.79%
대전지부	0	212,324	212,324	ERR	
감소지역	대구지부	311,649	278,296	-33,353	-10.70%
	광주지부	258,398	206,751	-51,647	-19.99%
	전남지부	440,969	270,703	-170,266	-38.61%
합계	5,338,875	7,697,245	2,358,370	44.17%	

*충남지부와 대전지부의 증·감소 현상은 2월 지부가 분리되므로 생김.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9월분 5백33만8천8백75m²보다 44.17% 증가 (2백35만8천3백73m²)한 7백69만7천2백45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1~9월분을 합계한 전년도누계5천4백40만2천1백87m²보다 36.20% 증가 (1천9백69만3천7백17m²)한 7천4백9만5천9백34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지난 8월분 8백26만1천7백58m²보다 6.83% 감소 (56만4천5백13m²)한 7백69만7천2백45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概況(種別前月對備)

(연면적기준) (단위:m²)

종별	'89년8월분	'89년9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1,067,334	751,057	-316,277	-29.63%
다세대주택	464,867	322,527	-142,340	-30.62%
연립주택	123,349	102,199	-21,150	-17.15%
아파트	2,653,241	2,760,150	106,909	4.03%
근린생활시설	1,476,200	1,141,081	-335,119	-22.70%
종교시설	59,268	59,157	-111	-0.19%
의료시설	26,453	8,893	-17,560	-66.38%
교육연구시설	180,315	189,316	9,001	4.99%
업무시설	807,622	634,059	-173,563	-21.49%
숙박시설	142,907	247,283	104,376	73.04%
공장	719,294	944,368	225,074	31.29%
기타	540,908	537,155	-3,753	-0.69%
계	8,261,758	7,697,245	-564,513	-6.83%

支部別 全國圖書申告現況(9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1,432	1,545	1,423,171	116	121	62,296	0	0	0	1,548	1,666	1,485,467
부산지부	899	1,074	455,131	214	224	31,803	40	40	9,729	1,153	1,338	496,663
대구지부	482	512	219,985	451	471	50,559	36	36	7,752	969	1,019	278,296
인천지부	473	594	503,641	41	59	13,794	17	27	24,597	531	680	542,032
광주지부	308	350	191,785	96	96	12,104	13	13	2,862	417	459	206,751
대전지부	284	284	183,227	40	40	5,527	117	117	23,570	441	441	212,324
경기지부	2,239	2,420	1,058,902	262	294	163,533	62	62	22,199	2,563	2,776	1,244,634
강원지부	424	495	282,692	124	166	42,293	19	19	3,783	567	680	328,768
충북지부	489	560	319,230	108	124	33,902	31	34	4,769	628	718	357,901
충남지부	410	440	236,983	151	155	47,688	39	39	5,283	600	634	289,954
전북지부	269	372	463,758	85	100	24,545	28	28	5,326	382	500	493,629
전남지부	419	466	216,672	218	240	45,628	17	17	8,403	654	723	270,703
경북지부	530	616	275,971	195	219	176,341	20	20	6,346	745	855	458,658
경남지부	1,005	1,277	755,127	389	448	180,995	51	53	24,283	1,445	1,778	960,405
제주지부	193	226	64,144	38	38	6,916	0	0	0	231	264	71,060
합계	9,856	11,231	6,650,419	2,528	2,795	897,924	490	505	148,902	12,874	14,531	7,697,245

支部分 全國圖書申告現況(1~9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25,184	25,794	14,127,675	1,239	1,269	449,508	0	0	0	26,423	27,063	14,577,183
부산지부	10,239	11,087	5,443,411	2,320	2,370	495,547	544	563	250,059	13,103	14,020	6,189,017
대구지부	5,918	6,270	2,625,720	4,048	4,192	411,968	348	348	121,867	10,314	10,810	3,159,575
인천지부	5,809	6,682	4,903,802	489	559	223,163	155	173	109,811	6,453	7,414	5,236,776
광주지부	3,415	3,758	2,187,218	857	899	150,266	123	123	44,963	4,395	4,780	2,382,447
대전지부	3,537	3,537	1,915,957	423	423	165,182	855	855	219,042	4,815	4,815	2,300,181
경기지부	22,211	23,771	10,214,252	2,252	2,509	1,509,396	561	561	356,558	25,024	26,841	12,080,206
김원지부	3,914	4,564	2,228,896	991	1,165	364,729	111	115	30,323	5,016	5,844	2,623,948
충북지부	5,216	6,101	2,749,045	1,048	1,324	368,118	292	388	62,391	6,556	7,813	3,179,554
충남지부	3,987	4,255	2,016,125	933	970	322,594	271	271	75,446	5,191	5,496	2,414,185
전북지부	3,067	3,650	2,810,316	802	879	268,377	195	196	50,332	4,064	4,725	3,129,025
전남지부	3,973	4,482	2,101,412	1,303	1,415	540,244	76	77	26,452	5,352	5,974	2,668,108
경북지부	6,085	7,085	3,812,333	1,847	2,065	1,198,246	206	206	95,079	8,138	9,356	5,105,658
경남지부	10,488	12,375	7,036,212	3,842	4,360	1,043,602	303	312	138,558	14,633	17,047	8,218,372
제주지부	1,736	1,946	766,367	359	372	65,322	0	0	0	2,095	2,318	831,689
합 계	114,779	125,357	64,938,741	22,753	24,771	7,576,282	4,040	4,188	1,580,881	141,572	154,316	74,095,904

用途別 全國圖書申告現況(9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4,430	4,517	680,406	1,109	1,140	65,694	79	79	4,957	5,618	5,736	751,057
다세대 주택	1,288	1,337	310,362	171	171	11,607	8	8	558	1,467	1,516	322,527
연 립 주 택	70	115	101,242	2	2	510	2	2	447	74	119	102,199
아 파 트	154	747	2,678,352	15	25	69,731	4	4	12,067	173	776	2,760,150
근린생활시설	2,494	2,576	1,000,520	531	545	102,137	198	200	38,424	3,223	3,321	1,141,081
종 교 시 설	88	112	45,550	36	36	13,263	1	1	344	125	149	59,157
의 료 시 설	4	4	2,822	9	9	5,572	3	3	499	16	16	8,893
교육연구시설	40	54	131,664	62	71	52,494	15	15	5,158	117	140	189,316
업 무 시 설	146	152	590,324	43	45	40,396	11	11	3,339	200	208	634,059
숙 박 시 설	108	119	230,070	45	49	14,271	8	8	2,942	161	176	247,283
공 장	381	638	540,294	221	327	385,087	49	51	18,987	651	1,016	944,368
기 타	653	860	338,813	284	375	137,162	112	123	61,180	1,049	1,358	537,155
합 계	9,856	11,231	6,650,419	2,528	2,795	897,924	490	505	148,902	12,874	14,531	7,697,245

用途別 全國圖書申告現況(1~9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56,138	57,316	9,435,424	9,590	9,814	626,340	731	741	38,036	66,459	67,871	10,099,800
다세대 주택	14,030	14,512	3,327,610	2,028	2,044	108,079	123	123	101,034	16,181	16,679	3,536,723
연 립 주 택	755	1,109	1,333,012	26	33	28,063	11	11	2,226	792	1,153	1,363,301
아 파 트	1,674	5,723	20,954,625	109	164	256,566	37	70	70,286	1,820	5,957	21,281,477
근린생활시설	29,120	29,626	13,132,812	4,729	4,839	944,436	1,718	1,737	493,120	35,567	36,202	14,570,368
종 교 시 설	765	872	486,005	400	428	152,903	40	45	8,671	1,205	1,345	647,579
의 료 시 설	70	77	90,246	84	90	66,481	19	19	14,772	173	186	171,499
교육연구시설	356	462	1,005,217	437	491	619,370	163	166	72,709	956	1,119	1,697,296
업 무 시 설	1,351	1,427	5,840,373	469	497	346,874	95	98	69,258	1,915	2,022	6,256,505
숙 박 시 설	1,187	1,321	1,705,148	338	359	177,776	101	107	123,319	1,626	1,787	2,006,243
공 장	3,350	5,398	4,614,720	1,840	2,793	3,014,665	365	391	254,841	5,555	8,582	7,884,226
기 타	5,983	7,514	3,013,549	2,703	3,219	1,234,729	637	680	332,609	9,323	11,413	4,580,887
합 계	114,779	125,357	64,938,741	22,753	24,771	7,576,282	4,040	4,188	1,580,881	141,572	154,316	74,095,904

協會消息

支部總會消息

全國市道支部 總會開催

本協會 15개 市·道支部가 10월중 제24회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부의된 주요 業務를 의결, 처리하였다.
지부별 總會附議事項에 대한 처리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特別市支部

*開催日時: 1989. 10. 24(화)

14:00~

*場所: 분협회 강당

*參 席: 재적회원 1천4백
73명중 6백82명

*議決內容:

- 제1호의안: '90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수지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90년도 특별회계수지 예산(안) 승인
—검토위원은 회원이 용번제로 검토를 하도록 하되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집행부에 위임 조정토록하며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 임원선출 및 개선
—副會長:李世勳(임기 1년)
幹 事:姜泰星·權祥雲
金洸郁·金順明
金漢一·安吉元
李京鎬·李鍾奎
鄭漢柱

- 제4호의안: 대의원선출 및 개선
—각분소별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 및 개선하되 회원수



서울지부



부산지부

'89 전국 시도지부 정기총회 본협회 회장

激勵辭



尊敬하는 支部會長을 비롯한 任員 및 會員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를 보다 빛내주시기 위하여 公私業務로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參席해주신 來賓여러분. 오늘 貴支部의 뜻깊은 89年度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本人이 激勵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眞心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協會는 올해로 創立 24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先輩 會員님들의 勞苦와 犧牲으로 오늘날의 發展된 協會로 成長해 올 수 있었음을 뒤돌아 볼때, 本人은 새삼 感慨無量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의 協會는 會員을 爲하여 일하고 奉仕하며, 會員의 權益을 保護하고, 社會의 地位向上과 『힘있는 協會』로 盡力함은 勿論 이 社會의 그 어느 職能團體보다 嚮상 앞서가는 先進 協會로 크게 發展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幕重한 責任感과 召命意識을 갖게 됩니다.

會員 여러분,

本人은 지금까지 協會가 제자리를 찾기 위하여 基本的인 틀을 다져왔다면 이제부터는 그속에 잠재해 있는 힘을 일깨워

倍加시켜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3월 잠실 올림픽 펜싱 경기장에서 開催되었던 全國建築士大會를 상기된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어쩌면 그날은 우리 建築士들 가슴속에 不信과 懷疑로 답답했던 마음을 씻어버리고 矜持와 自負心으로 가슴벅차게 했던 瞬間들이었으며, 3千余 會員들이 하나가 되어 보여주시 그 커다란 힘은 우리 모두의 밝은 未來를 像見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行事が 끝났을 때 과연 이러한 行事を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所得을 우리는 期待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염려가 한낱 杞憂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追求해 왔던 建築士의 社會的 地位向上과 權益擁護問題에 直結되는 것들로, 會員 여러분의 和合과 團結로 이뤄냈던 그 일들이 이제 社會 各界各層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會員 여러분!

本人은 이렇듯 協會를 求心體로 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울때만이 우리의 權益을 保護받고 伸張시켜 나갈수 있음은 勿論, 우리의 後代에 자랑스럽고 뒤편한 모습의 建築士像을 定立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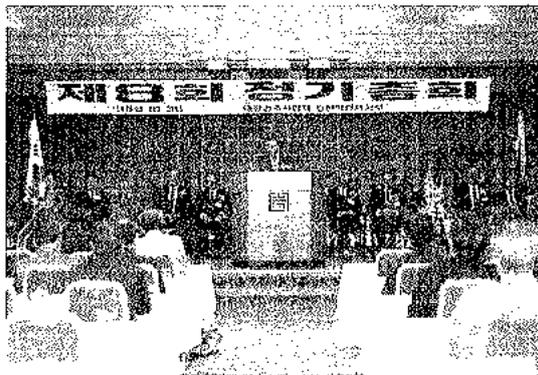
會員여러분!

本人이 會長으로서의 重責을 맡게 된지도 어느덧 1年余이 되었습니다. 그 期間동안 協會가 推進했던 業務內容 中

KIRA NEWS



대구지부



인천지부

100인 이상인 분소에 대해서는 회원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대의원수는 집행부에 위임하여 선출키로 결의

釜山直轄市支部

*開催日時: 1989. 10. 26(목)

10:30~

*場 所: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참 席: 재석 3백77명중
2백3명

*議決內容:

- 제1호의안: '8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90년도 2월 임시총회사
추경(안)을 제출치 않는
조건부로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 임원개선

—副會長: 尹東秀

幹 事: 金康雄·朴鍾碩

朴元一·李錫祚

監 事: 柳光弘

• 제4호의안: 대의원 선출

—간사회의에서 선출키로 위임

大邱直轄市支部

*開催日時: 1989. 10. 27(금)

10:00~

*場 所: 동대구 파크호텔

*참 席: 재석 1백29명중
1백91명

*議決內容:

- 제1호의안: '90년도 수지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임원 및 대의원 개선
—會 長: 張基雄(중임)
副會長: 林斗炫(중임)
幹 事: 吳仁俊·金起峰

主要事項에 대하여는 지난 8월 油印物로 全國의 會員 여러분께 직접 郵送해 드린 바 있으므로 살알고 계시리라 사료되나, 그 內容面에서 아직은 會員 여러분의 뜻에 副應치 못하고 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本人으로서의 協會가 안고 있는 基本的인 業務 遂行에 充實하면서, 本人이 會長으로 就任時 말씀드린 바와 같이 對外的으로 보다 [힘있는 協會]로 浮刻시켜 나가기 爲하여 무던히 勞力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各種 制度나 建築關係法令의 效率的인 改善를 爲하여 지난 6월에 協會附設로 建築法令研究所를 發足케하고 會員과 公務員, 大學教授, 學生, 一般人 등이 多數 參席한 가운데 [建築上法 大討論會]를 開催한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建築士가 業務를 遂行하면서 不合理하다고 생각되어온 部分, 우리 建築士의 權益을 不當하게 위축시켜온 部分, 그리고 오늘날 民主化의 새시대상에 부합되지 않는 部分에 對하여는 協會를 中心으로 우리 스스로가 持續的이고 體系的인 研究를 實施하고, 앞장서 改善해 나가고자 하는 것 입니다.

특히, 建築士法에 있어서는 우리의 權益問題와 直結됨을 감안하여 行政 處分의 緩和와 建築士 事務所의 區分登錄制 廢止 등 우리 입장에서 改正이 불가피하다고 判斷되는 條項에 對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改正하고자 積極 推進中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建築士의 業務와 關聯이 있는 消防法, 駐車場法, 豫算會計法, 建築技術管理法 등에 對해서도 우리의 權益이 侵奪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會員 여러분들의 많은 關心속에 施行되고 있는 建築士 年金事業도 本部 全 任員과 各市道 支部會長들이 委員이 되는 年金運營委員會와 年金研究委員會를 通하여, 보다 會員의 福祉를 爲한 方向으로 研究를 進行하고, 그동안 積立된 基金도 그 增殖方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會員들의 負擔을 덜어 드림은 勿論, 보다 많은 惠澤이 돌아갈 수 있도록 推進하고자 합니다.

會員 여러분,

本人은 앞으로 協會 일을 推進하면서 그동안 未治했던 事項들을 檢討, 補完하고, 現在 推進中에 있는 事項들에 對하여는 內實을 기해 나가는데 充實하면서, 우리의 權益을 爲하여 傾重하면서도 보다 果敢하고 意欲的으로 열심히 일 해 나갈것을 約束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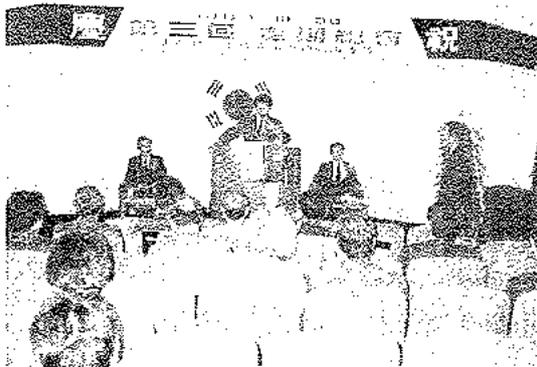
아울러, 會員 여러분께서도 우리 建築界에 殘存해 있는 一部不條理를 우리들 스스로의 反省과 自己省察을 通하여, 그리고 協會를 中心으로한 和合과 團結을 通하여 척결하고, 우리나라 建築文化暢達의 主役으로서 높은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맡은바 所任을 다하여 주실 것을 付託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깊은 모임을 通하여 貴 支部의 進路 設定과 豫算 樹立이 效率的으로 進行되어지고, 支部 會長을 中心으로 굳게 團結하여 [힘있는 支部]로 크게 發展하는 契機가 되어 질 것과 會員 여러분의 健闘를 마음속 깊이 祈願하면서 이만 激勵辭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宋基德

支部總會消息



광주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충북지부

監 事 : 李洛晶
대의원 : 張基雄 등 14인 선출

仁川直轄市支部

*開催日時 : 1989. 10. 30(월)
10 : 00~
*場 所 : 올림픽호텔
*參 席 : 재적 92명중 82명
*議決內容 :
• 제1호의안 : '8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 '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 : 임원선출
—會長 : 李秉武
副會長 : 許 集
幹 事 : 高宗旭·朴淳鍾
朴賢九
監 事 : 康原容
• 제4호의안 : 대의원 선출
—高昌永 등 7명 선출.

光州直轄市支部

*開催日時 : 1989. 10. 30(월)
14 : 00~
*場 所 : 광주회관 회의실
*參 席 : 재적 1백11명중 74명
*議決內容 :
• 제1호의안 : '90년도 사업계획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 '9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 : '90년도 지부실적회비 징수율 결정
—설계비 총액의 1%로 의결
•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幹 事 : 金相錫·金會鉉
梁東俠
監 事 : 朴南戌
대의원 : 金德洙 등 5명 선출

大田直轄市支部

*開催日時 : 1989. 10. 19(목)
17 : 00~
*場 所 : 설악프라자
*參 席 : 재적 99명중 52명
*議決內容 :
• 제1호의안 : '89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 '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실적회비 징수율을 지부회원은 0.7%, 타지부회원은 0.8%로 결정하여 당초 예산안보다 3천1백68만원을 축소하여 승인.
• 제3호의안 : 임원개선
—중임토록 의결

京畿道支部

*開催日時 : 1989. 10. 24(화)
15 : 00~
*場 所 : 수안보와이키키호텔
*參 席 : 재적 2백 79명중 1백 78명
*議決內容 :

• 제1호의안 : '8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 '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 : 임원 개선
—副會長 : 宋寅昌(중임)
幹 事 : 金正治·宋寅昌
尹榮才·威在喆
監 事 : 禹鍾善
대의원 : 趙秉元 등 17인 선출

江原道支部

*開催日時 : 1989. 10. 27(금)
10 : 00~
*場 所 : 춘천 세종호텔
*參 席 : 재적 42명중 29명
*議決內容 :
• 제1호의안 : '8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 '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교육훈련사업비 중 체육대회 예산항목을 행사비로 목간 조정하여 승인
• 제3호의안 : 임원개선
—중임토록 의결
• 제4호의안 : 분소운영방안 개선
—분소사무실 독립을 유보하고 개선방안을 간사회의에서 분소장과 협의 추진토록 결의.

忠南北道支部

*開催日時 : 1989. 10. 26(목)
10 : 30~
*場 所 : 수안보와이키키호텔
*參 席 : 재적 65명중 44명
*議決內容 :
• 제1호의안 : '8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 : '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예산액을 3백만원 감액해 승인
• 제3호의안 : 임원개선

KIRA NEWS

—副會長：朴五均(중임)
 幹事：柳大鉉·洪祿杓
 監事：愼寧東
 대의원：李基東 등 2인 선출

忠淸南道支部

*開催日時：1989. 10. 24(화)
 11:00~

*場 所：공주 파크호텔
 *참 席：계적 45명중 35명

*議決內容：

- 제1호의안：'8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임원 개선
- 중임토록 결의

全羅北道支部

*開催日時：1989. 10. 26(목)
 20:00~

*場 所：낙산 비치호텔
 *참 席：계적 66명중 57명

*議決內容：

- 제1호의안：'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지부사무실 임대료 기채 사용
- 회관건립기금에서 기채키로 의결
- 제3호의안：해외시찰비 정산
- 원안대로 정산키로 의결
- 제4호의안：예비비사용 추진
- 원안대로 추진
- 제5호의안：임원개선
- 副會長：중임
 幹事：중임
 監事：李正善

全羅南道支部

*開催日時：1989. 10. 12(목)
 11:00~

*場 所：추천서관 회의실
 *참 席：계적 40명중 35명

*議決內容：

- 제1호의안：'8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90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의안：'9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의안：
- 副會長：金洗鎬
 幹事：姜寅秀
 監事：魯相翊·曹龍造
 대의원：曹導引 등 2명 선출

慶尙北道支部

*開催日時：1989. 10. 25(수)
 11:30~

*場 所：경주 조선호텔
 *참 席：계적 79명중 73명

*議決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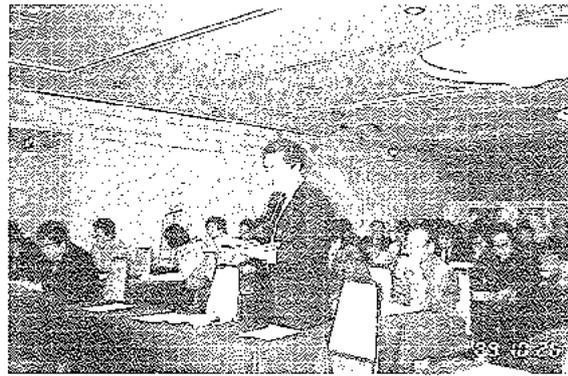
- 제1호의안：'89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
- '88년도 잉여금 추경에 반영하여 지부 보증금을 신설 하였으며, 임의 적립금을 증액하여 승인
- 제2호의안：'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 지부보증금의 '89년도 추경예산에의 반영에 따른 예산액수 조정후 승인
- 제3호의안：임원 개선
- 副會長：金泳哲(중임)
 幹事：金容寬·宋吉煥
 監事：金俊植
 대의원：權赫兌 등 신임대의원 6명 선출

慶尙南道支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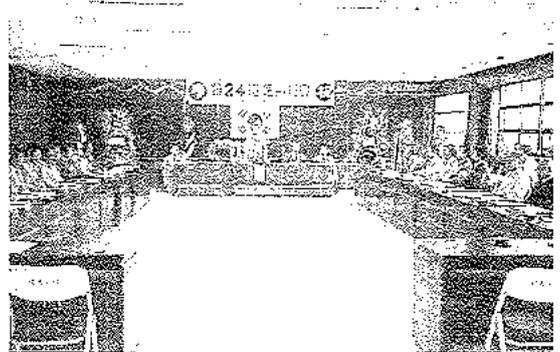
*開催日時：1989. 10. 19(목)
 10:30~

*場 所：支部 회의실
 *참 席：계적 1백53명중 1백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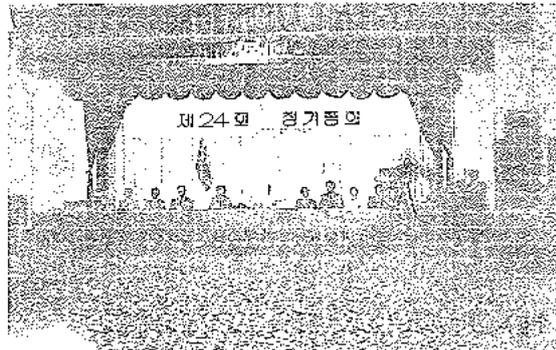
*議決內容：



전북지부



전남지부



경북지부



제주지부

- 제1호의안：'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의안：임원개선
- 幹事：許孝雄
 監事：金成達
 대의원：金道淳 등 8명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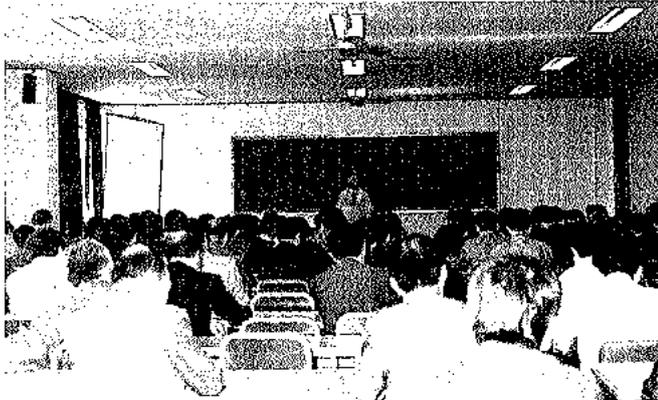
濟州道支部

*開催日時：1989. 10. 27(금)
 15:00~

*場 所：보암새주호텔

- *참 席：계적 34명 중 30명
- *議決內容：
- 제1호의안：'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 실적회비를 1%로 하여 승인
- 제2호의안：임원 및 대의원 개선
- 幹事：金有奉(중임)
 監事：白亨皙
 대의원：高英勳 등 2명 선출

특별전형시험 연수 실시



특별전형 시험대비 연수(인천기술교육원)

건축사 특별전형시험 대비를 위한 연수가 지난 16일부터 인천 건설기술교육원 특별전형대책위원회

(위원장 : 金椿培) 주관하에 1백여 해당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日本 建築士 來韓團과 懇談會 개최

日本 건축사사무소협회 연합회의 올림픽 시설물의 국내 대표건축물 견학을 위한 來韓團(團長 : 가이다 신이찌 삿포로지부 회장)과 올림픽 시설물 설계에 대한 간담회를 지난 28일 강남소재 우정 레스토랑에서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는 일본 건축사 일행 40명과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올림픽관련시설물을 설계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올림픽 시설물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 및 양국 건축사계의 상호관심사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일본 건축사 내한단과의 간담회

京畿道支部(會長 李一潤) 제 1 회 安山建築作品展 개최

京畿지부 安山분소(분회장 李龍德)는 지난 9월 제3회 別望城藝術祭 기간에 안산시의 건축문화 장달에 기여할 제1회 安山建築作品展을 개최하였다. 9월 23일부터 8일간 안산시청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안산시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장명구, 박영익 회원 등 10인의 완공 건축물 및 계획안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회원의 활발한 창작활동 무대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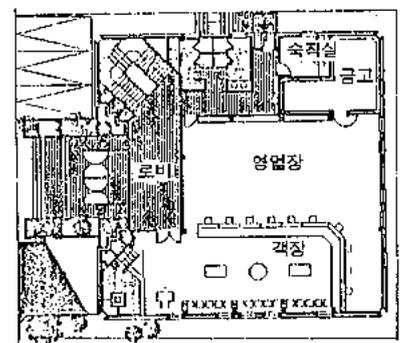
光州直轄市支部(會長 宋良浙) 광주 建築士會館 준공

光州直轄市 지부(會長 宋良浙) 회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광주 建築士會館이 건립되어 지난 9월 29일 본협회 회장 宋基德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新청사에서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694-10

번지에 655.90㎡의 대지 위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된 본 회관은 지난해 6월 광주지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계 경기를 실시, 국보종합건축사 사무소의 朴華洙 회원案이 채택되어 1월 23일 착공하여 8개월만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광주지부 건축사회관 준공식 테이프 커팅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KIR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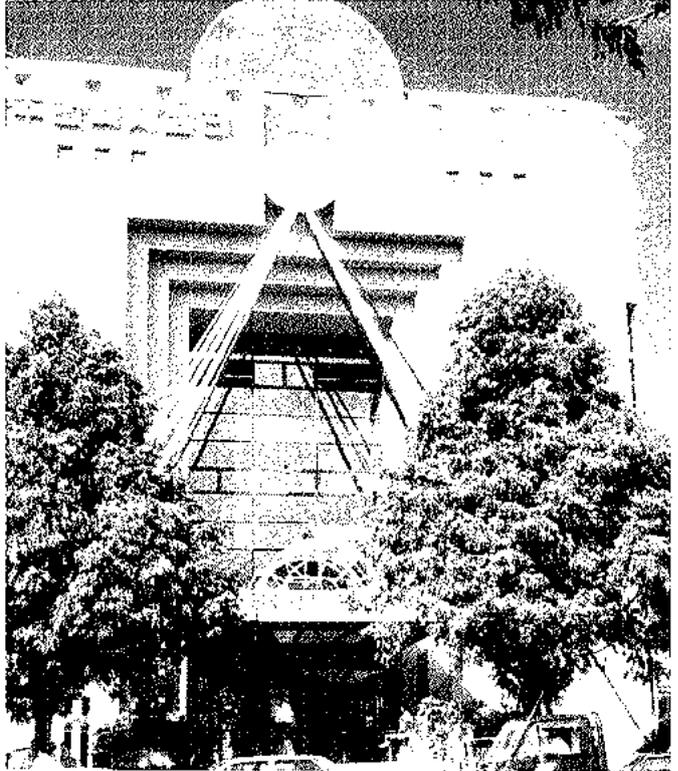
會員 親睦아유회

지부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지부 회원부부동반 아유회가 지난 23일 고창 선운사에서 회원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광주직할시 지부 아유회



광주직할시 지부 건축사 회관 전경

全羅南道支部 (會長 金仁模) 木浦分所 體育大會

전남지부(회장 金仁模)는 지난 10월 14일 체육의 날을 맞아 회원 및 보조원과 건축관련 공무원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목포 분소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영암군 라볼도 유원지에서

개최된 이날 체육대회에는 목포관내 회원 및 건축사보조원과 건축직 공무원 19명 등 90여명이 참가하여 축구와 족구로 친선을 도모하였다.



전남지부 목포분소 체육대회

大邱直割市支部 (會長 張基雄)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대구지부 자연보호 캠페인

대邱지부(회장 張基雄)는 지난 18일 대구 갓바위 제3주차장에서 지부직원 및 회원 1백명이 참가

한 가운데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監理專門會社 등록신청 접수 —建設部, 11월 25일부터 6일간—

建設部는 전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아래와 같이 한다.
 접수기간 : 11. 25 ~ 30 (06일간)
 접수장소 : 건설부 기술관리실
 기술기능 담당관실 (전화 503-7333)
 30일 서류접수 후
 12월 1일~5일 서류심사,
 6일~15일 시설 및 장비심사,
 16일~26일 종합심사를 거쳐 同27일~30일 중 등록증이

교부될 이반 감리전문회사 등록에는 등록신청공고일(10월 25일)이후 발행 도는 작성 된
 • 대표자·임원 및 보유기술자의 이력서·신원증명서
 • 대표자·보유기술자의 기술자격 현황 및 자격증사본 (기술자격증이 없는 고급기술자와 기술자는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소정서식))
 • 당해 법인의 정관 및 능기부

등본
 • 자본금 및 준비금을 증명하는 자료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등)
 • 전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부담감리전문회사의 경우 당해 법인이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監理專門會社は 내년 1월 1일부터
 • 50억원이상 공사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대안입찰공사로 시행되는 대형공사
 • 기타발주 기관장의 監理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監理를 하게 되며 특히 100억원이상 공사 중 발주기관장이 지정하는 공사는 전면 책임관리를 하게 되며, 감리 전문회사 등록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다.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제54조 관련)

종 류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시공감리전문회사	토목	1.별표 1의 토목기술자로서 시공을 제외한 기술자중 2개 전문분야 기술사 3인이상 및 토목시공기술사 1인 이상을 포함한 고급기술사 5인이상 2. 별표 1의 기사1급 10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자 20인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100제곱미터 이상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자계산기, 측량기계, 기타감사 시험 장비 등
	건축	1.건축사 3인이상 및 건축시공기술사 1인 이상을 포함한 고급기술사 5인이상 2. 별표1의 기사1급 5인이상을 포함한 기술자 10인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100제곱미터 이상	
선면책임감리전문회사	토목	1.별표1의 토목기술자로서 시공을 제외한 기술자중 6개 전문분야기술자 10인이상 및 토목시공기술사 4인 이상을 포함한 고급기술사 30인 이상 2. 별표1의 기사 1급 50인이상을 포함한 기술자 90인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400제곱미터 이상	
	건축	1.건축사 5인이상 및 건축시공기술사 3인 이상을 포함한 고급기술사 13인 이상 2. 별표 1의 기사1급 15인이상을 포함한 기술자 30인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0제곱미터 이상	

大邱市 建築賞 受賞作 發表 —金賞에 金善洋회원의 起亞빌딩—



大邱市는 지난 87년 1월 이후 준공된 24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수건축물을 심사하는 제 1회 대구시 建築賞 受賞物을 발표하였다. 수상자는 金善洋회원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이 설계한 대구 범어동 소재 起亞산업빌딩을 최우수작품으로 선정, 金賞을 수상케 되었고 銀賞에 洪聖圭회원(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의 청구주택사옥, 金龍雲회원(삼보건축사사무소)의 유진빌딩, 銅賞에 백안산장, 상아담독서실, 힐사이드 관광호텔등을 선정 달구벌축재기간 중 시상하였다. 金賞을 수상한 起亞산업빌딩은

지형과 건물의 적절한 배치, 뛰어난 미적 형태감 및 현대적 감각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金賞을 수상한 작품의 설계개요는 다음과 같다.

위치 :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1-10 지역 : 노선상업지역
 지구 : 1종미만지구, 최저고도지구
 용도 : 사무실 및 자동차전시장
 대지면적 : 1,565.6㎡(473.59평)
 건축면적 : 710.34㎡(214.87평)
 연면적 : 5,343.6㎡ (1,616.44평)
 기준층면적 : 636.59㎡(193.17평)
 층수 : 지상 5층, 지하 2층
 건폐율 : 45.30%
 용적률 : 210.70%
 주차대수 : 33대 (옥외 10, 옥내 23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모델링
 외부재료 : 시계절타일/페어그라스